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 연구

- 일제강점기 『標準音樂敎科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이 유 로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 연구

- 일제강점기 『標準音樂敎科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서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이 유 로

이유로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이 민 정 (인)

부위원장 우 용 제 (인)

위 원 민 경 찬 (인)

위 원 김 용 희 (인)

위 원 서 정 은 (인)

국문 초록

해방 직후 ‘일제 잔재 청산’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정립(正立・定立)’은 국가적 중요 선결 과제였고, 이 과제 수행을 주도하고 지원해야 할 역할을 담당한 교육계는 ‘일제 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교육의 정체성 회복・수립’을 지향하면서 신국가의 신교육 수립을 모색하였다. 1945년 9월 말부터의 초・중등학교 수업 재개,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본어 사용 금지로 인하여 교과별 조선어로 된 교과서 편찬이 시급히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어로 된 중등음악교과서 편찬 또한 전개되었다.

해방공간 교육계가 지향한 ‘일제 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교육의 정체성 회복・수립’이 조선어로 된 교과서 편찬의 근본적 취지라는 맥락에서 보면, 음악교과서 편찬 즉 음악교과서 조선어화는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음악교육의 정체성 회복・수립’ 취지에 맞는 음악교과서를 만드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음악교과서 조선어화의 취지 측면에서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이하 『해방중등』)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 고찰에서는 『해방중등』의 주요 내용인 ‘가창곡’을 대상으로 음악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 즉 ‘곡조’와 ‘노랫말’에 대하여 살폈다. 먼저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을 조선곡과 외국곡으로 대분하여 장르, 작곡자, 작곡/발표 시기(조선곡)・번역/작사 시기(외국곡), 노랫말 관련 인물 등에서 발견되는 성격을 살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던 일본 중등음악교과서인 『標準音樂敎科書』(이하 『標準』) 6종의 수록 가창곡과 ‘곡조’와 ‘노랫말’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곡조’ 비교에서는 우선 『해방중등』과 『標準』 가창곡 간 ‘공통곡조’를 찾고 그 성격을 살폈으며, ‘공통곡조로 된 곡’을 탐색하여 이 곡들이 『해방중등』 전체 외국곡과 23종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였다. 이어 ‘노랫말’ 비교에서는

‘공통곡조로 된 곡’의 『標準』, 『해방중등』 수록 노랫말과 원곡 노랫말까지 세 가지 노랫말을 비교함으로써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 간 유사도를 살폈다.

고찰을 통하여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들로는 ‘조선곡’ 측면에서 첫째, 일본곡을 수록곡에서 배제하고 조선곡을 수록한 점, 둘째, 친일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되는 신진 작곡가들의 곡 수록, 셋째, 조선적 정서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노랫말로 된 1920·30년대 ‘조선 예술가곡’과 ‘동요’를 다수 수록한 점, 넷째, 해방의 기쁨과 신국가 건설에의 희망을 담은 ‘애국가요’를 다수 수록한 점, 다섯째,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은 이은상·김안서·이병기·김소월·윤복진(김수향) 등의 노랫말로 된 곡이 다수 수록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곡’ 측면에서는 첫째, 『해방중등』 편찬 시 우리 음악인·문인·어문학자 등에 의하여 새로 번역/작사된 노랫말을 다수 수록한 데에서 엿볼 수 있는 편찬자들의 조선적 신음악교육 수립에 대한 지향, 둘째, 『해방중등』 ‘공통곡조로 된 곡’ 전체 가운데 ‘『標準』 수록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 번역한 노랫말’이 아닌, ‘원곡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되거나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이 붙은 곡이 약 74%에 이르는 점, 셋째, 외국곡 선곡에 있어서 ‘조선 대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자 했던 편찬자들의 주체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되기 어려운 점들로는 ‘조선곡’ 측면에서 첫째,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 중 오롯이 조선인에 의하여 곡과 노랫말이 만들어진 조선곡의 비중이 약 30%에 불과한 점, 둘째, 조선 전통음악은 ‘민요’ 2곡뿐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곡’ 측면에서는 첫째, 『해방중등』 수록 전체 외국곡 중 『標準』과의 ‘공통곡조’로 된 곡이 약 33%에 이르는 점, 둘째, 『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 가운데 『標準』 수록곡의 일본어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한 노랫말이 붙은 곡이 적은 비중이나마 발

견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에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되는 측면과 해석되기 어려운 측면 모두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곡조'와 '노랫말' 양 측면에서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되는 양상'이 그렇지 않은 양상에 비하여 매우 다종다양하게 발견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중등』에서 『標準』과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구체적 근거 없이 해방공간 음악교과서가 일본 음악교과서의 모방·답습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모방·답습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모방·답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또는 범주가 구체화 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 하겠다.

또한 『해방중등』의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양상을 살필 목적으로 수행된 교과서 발굴 및 검토, 수록곡의 출처 탐색, 수록 곡조나 노랫말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확인/발견된 내용에 대한 분석·연구 및 정리, 의미 도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방중등』의 실제적 양상을 발견하고 드러내고자 하였던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도 수행할 수 있었다.

그간 해방공간 시기 교과서 관련 연구에 있어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시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조명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명된 민간의 음악교육자, 편찬자, 더불어 음악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참여한 타 분야 인물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과서 조선어화 양상은 한국근현대음악교육사 및 음악교과서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국근현대교육사 및 교과서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이자 의의로 평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일제 잔재와 우리의 것이 구별되지 않았던 시기 조선어로 된 교과서 공급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과 ‘조선 음악교육의 정체성 회복·수립’ 취지에 부합하는 음악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매우 힘겨울 수밖에 없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했던 『해방중등』 편찬자 및 음악교육자들의 시도와 노력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쏟은 공력(功力)은 타당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해방중등』을 당시 교육계의 지향 및 교과서 조선어화의 취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해방공간 음악교과서가 일제강점기 ‘일본 교과서의 모방, 답습’이라는 그간의 음악계 및 음악교육계에 존재해온 인식을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한국현대음악교육의 출발점 또는 정초기로 여겨지는 해방공간 시기의 음악교육·음악교과서의 실질적 의미 및 의의를 도출하는 데에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해방공간 음악교육, 해방공간 음악교과서,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 조선어화, 標準音樂敎科書, 교과서 조선어화
학 번 : 2015-30438

목 차

※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는 『해방중등』으로, 일제강점기 『標準音樂教科書』는 『標準』으로 표기.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3. 기존 연구 현황 ····· 16
4. 연구 내용 ····· 20

Ⅱ. 해방공간 중등음악교육 환경 고찰 ····· 23

1. 해방공간 교육계의 일제 잔재 청산 ····· 23
   1.1 교육계의 일제 잔재 청산 배경
   1.2 교과별 교과서 조선어화 양상
2.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 ····· 33

Ⅲ.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의 성격 고찰 ····· 49

1. 조선곡 고찰 ····· 50
   1.1. 장르 ····· 55
      1.1.1 조선 예술가곡
      1.1.2 애국가요
      1.1.3 학교 교육 관련 노래
      1.1.4 동요
      1.1.5 민요
      1.1.6 기타
   1.2 작곡자 ····· 85
   1.3 작곡/발표 시기 ····· 95
   1.4 노랫말 관련 인물 ····· 107
      1.4.1 이은상

1.4.2 김안서
1.4.3 윤복진(김수향)
1.4.4 임학수
〈Ⅲ-1의 요약〉 ……118

2. 외국곡 고찰 ……120
2.1 장르 ……123
2.1.1 대중가요・민요
2.1.2 서양 예술가곡
2.1.3 오페라 구성곡
2.1.4 기타
2.2 작곡자 ……137
2.3 노랫말 관련 인물(역사/작사자) ……148
2.4 번역/작사 시기 ……154
〈Ⅲ-2의 요약〉 ……159

Ⅳ. 『해방중등』과 일제강점기 『標準』수록 가창곡 곡조 및 노랫말 비교 ……162
1.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가창곡 곡조 비교 ……162
1.1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標準』 수록 가창곡 ……163
1.2 공통곡조의 특징 ……170
1.2.1 작곡자
1.2.2 장르
1.3 『해방중등』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181
1.3.1 『해방중등』 수록 전체 외국곡에서의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182
1.3.2 『해방중등』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에서의 비중 ……184
〈Ⅳ-1의 요약〉 ……203

2.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가창곡 노랫말 비교
: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간 유사성의 정도에 따른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205

2.1 유형 구분 ····· 205
2.2 유형별 고찰 ····· 208
2.2.1 유형 1 ····· 208
2.2.2 유형 2 ····· 222
2.2.3 유형 3 ····· 237
2.2.4 유형 4 ····· 243
2.2.5 유형 5 ····· 256
2.2.6 유형 6-1 ····· 270
2.2.7 유형 6-2 ····· 278
〈Ⅳ-2의 요약〉 ····· 287

Ⅴ. 결론 ····· 289

참고문헌 ····· 295

부록 ····· 314

Abstract ····· 405

표 목 차

[표 I-1]『해방중등』 23종 ····· 11
[표 I-2]『標準』 6종 ····· 13
[표 III-1]『해방중등』 23종 교과서별 '조선곡' 비중 ····· 51
[표 III-2]'교과서 수록곡 중 조선곡 비중'별 교과서 수와 해당 교과서 ····· 52
[표 III-3]'조선 예술가곡' ····· 58
[표 III-4]'조선 예술가곡' 다수 수록 교과서 ····· 63
[표 III-5]'애국가요' ····· 65
[표 III-6]'애국가요' 수록 교과서와 교과서 수, 곡수 ····· 66
[표 III-7]'학교 교육 관련 노래' ····· 69
[표 III-8]'동요' ····· 71
[표 III-9]'민요' ····· 73
[표 III-10] 기타 ····· 78
[표 III-11] 장르별 조선곡 전체 총 97곡조, 총 203회 중 비중 ···80
[표 III-12] 조선곡 작곡자 및 작곡자별 수록곡 ····· 85
[표 III-13] 작곡자별(27명) 수록곡 수 ····· 86
[표 III-14] 작곡자별 수록 횟수 ····· 87
[표 III-15] 27명의 작곡자별 생몰년도 ····· 90
[표 III-16] 출생연대별 해당 작곡자 ····· 91
[표 III-17] 작곡자별 수록곡, 수록곡 수, 수록 횟수 ····· 94
[표 III-18] 1920년대 곡 ····· 96
[표 III-19] 1930년대 곡 ····· 97
[표 III-20] 1940년대 곡 ····· 99
[표 III-21] 1940년대 곡 - 해방 이전 ·····102
[표 III-22] 1940년대 곡 - 해방 이전/후 확인 불가 ·····102
[표 III-23] 작곡·발표 연대 미상 곡 ·····104
[표 III-24] 1920, 30, 40년대에 작곡·발표된 수록곡 정리 ·····105

[표 Ⅲ-25]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시/노랫말 편 수 ……107
[표 Ⅲ-26] 노랫말 관련 인물별 시/노랫말 수록 횟수 ……108
[표 Ⅲ-27]『해방중등』 23종 교과서별 외국곡 비중 ……120
[표 Ⅲ-28] ‘대중가요·민요’(곡조별 정리) ……126
[표 Ⅲ-29] ‘서양 예술가곡’(곡조별 정리) ……131
[표 Ⅲ-30] ‘오페라 구성곡’(곡조별 정리) ……134
[표 Ⅲ-31] 외국곡 작곡자와 수록곡(검토 결과) ……138
[표 Ⅲ-32] 작곡자별 곡조수 ……144
[표 Ⅲ-33] 작곡자별 수록 횟수 ……144
[표 Ⅲ-34] 출신 지역(국가)별 작곡자 수 ……146
[표 Ⅲ-35] 작곡자 출생 시기별 작곡자 수 ……147
[표 Ⅲ-36] 노랫말 관련 인물별 역/작사 노랫말 수록 편수 ……148
[표 Ⅳ-1]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가창곡, 공통곡조의 곡목 ……163
[표 Ⅳ-2] 작곡자별 공통곡조 ……171
[표 Ⅳ-3] 28명 작곡자의 출신 지역(국가) ……172
[표 Ⅳ-4]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별 작곡자 수, 공통곡조 수 ……173
[표 Ⅳ-5]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별 작곡자명, 공통곡조 곡목 ……174
[표 Ⅳ-6] 작곡자 확인 불가 공통곡조 ……175
[표 Ⅳ-7]『標準』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 출신 지역별 정리 ……176
[표 Ⅳ-8]『標準』 수록 외국곡 중 작곡자 확인 불가 곡(지역별) ……177
[표 Ⅳ-9]『標準』 외국곡 작곡자 중 다수 곡 수록자 ……177
[표 Ⅳ-10] 공통곡조별 작곡자와 장르 ……179
[표 Ⅳ-11]『標準』 수록 외국곡 장르별 정리 ……181
[표 Ⅳ-12] 공통곡조별 해당 ‘공통곡조로 된 곡’의 『해방중등』 수록 횟수 ……182
[표 Ⅳ-13] 수록 횟수별 공통곡조 정리 ……183
[표 Ⅳ-14] 교과서 1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4
[표 Ⅳ-15] 교과서 2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5
[표 Ⅳ-16] 교과서 3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5

[표 Ⅳ-17] 교과서 4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6
[표 Ⅳ-18] 교과서 5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6
[표 Ⅳ-19] 교과서 6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7
[표 Ⅳ-20] 교과서 7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7
[표 Ⅳ-21] 교과서 8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8
[표 Ⅳ-22] 교과서 9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8
[표 Ⅳ-23] 교과서 10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89
[표 Ⅳ-24] 교과서 11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0
[표 Ⅳ-25] 교과서 12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0
[표 Ⅳ-26] 교과서 13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1
[표 Ⅳ-27] 교과서 14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1
[표 Ⅳ-28] 교과서 15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2
[표 Ⅳ-29] 교과서 16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2
[표 Ⅳ-30] 교과서 17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3
[표 Ⅳ-31] 교과서 18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3
[표 Ⅳ-32] 교과서 19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4
[표 Ⅳ-33] 교과서 20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4
[표 Ⅳ-34] 교과서 21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5
[표 Ⅳ-35] 교과서 22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5
[표 Ⅳ-36] 교과서 23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196
[표 Ⅳ-37] 교과서 별 외국곡 중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196
[표 Ⅳ-38] 교과서 별 외국곡 중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197
[표 Ⅳ-39]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간 7가지 관계 유형 ……207
[표 Ⅳ-40] 유형 1 ……209
[표 Ⅳ-41] 유형 1 - 1 ……211
[표 Ⅳ-42] 유형 1 - 2 ……212
[표 Ⅳ-43] 유형 1 - 3 / 1 - 4 ……213
[표 Ⅳ-44] 유형 1 - 5 ……214
[표 Ⅳ-45] 유형 1 - 6 ……216

[표 Ⅳ-46] 유형 1 - 7 ·····217
[표 Ⅳ-47] 유형 1 - 8 ·····218
[표 Ⅳ-48] 유형 1 - 9 / 1 - 10 ·····219
[표 Ⅳ-49] 유형 1 - 11 ·····221
[표 Ⅳ-50] 유형 2 ·····223
[표 Ⅳ-51] 유형 2 - 1 / 2 - 2 / 2 - 3 ·····224
[표 Ⅳ-52] 유형 2 - 4 / 2 - 5 ·····226
[표 Ⅳ-53] 유형 2 - 6 ·····227
[표 Ⅳ-54] 유형 2 - 7 ·····228
[표 Ⅳ-55] 유형 2 - 8 / 2 - 9 ·····229
[표 Ⅳ-56] 유형 2 - 10 ·····231
[표 Ⅳ-57] 유형 2 - 11 ·····232
[표 Ⅳ-58] 유형 2 - 12 ·····233
[표 Ⅳ-59] 유형 2 - 13 / 2 - 14 ·····234
[표 Ⅳ-60] 유형 2 - 15 ·····236
[표 Ⅳ-61] 유형 3 ·····237
[표 Ⅳ-62] 유형 3 - 1 ·····238
[표 Ⅳ-63] 유형 3 - 2 ·····239
[표 Ⅳ-64] 유형 3 - 3 ·····240
[표 Ⅳ-65] 유형 3 - 4 ·····241
[표 Ⅳ-66] 유형 3 - 5 ·····242
[표 Ⅳ-67] 유형 4 ·····243
[표 Ⅳ-68] 유형 4 - 1 ·····245
[표 Ⅳ-69] 유형 4 - 2 ·····246
[표 Ⅳ-70] 유형 4 - 3 ·····247
[표 Ⅳ-71] 유형 4 - 4 / 4 - 5 ·····248
[표 Ⅳ-72] 유형 4 - 6 / 4 - 7 ·····249
[표 Ⅳ-73] 유형 4 - 8 ·····251
[표 Ⅳ-74] 유형 4 - 9 ·····252
[표 Ⅳ-75] 유형 4 - 10 ·····253

[표 Ⅳ-76] 유형 4 - 11 ·····254
[표 Ⅳ-77] 유형 5 ·····256
[표 Ⅳ-78] 유형 5 - 1 ·····258
[표 Ⅳ-79] 유형 5 - 2 ·····259
[표 Ⅳ-80] 유형 5 - 3 ·····260
[표 Ⅳ-81] 유형 5 - 4 ·····261
[표 Ⅳ-82] 유형 5 - 5 ·····262
[표 Ⅳ-83] 유형 5 - 6 ·····263
[표 Ⅳ-84] 유형 5 - 7 ·····264
[표 Ⅳ-85] 유형 5 - 8 ·····265
[표 Ⅳ-86] 유형 5 - 9 / 5 - 10 ·····266
[표 Ⅳ-87] 유형 5 - 11 ·····268
[표 Ⅳ-88] 유형 5 - 12 ·····269
[표 Ⅳ-89] 유형 6 - 1 ·····270
[표 Ⅳ-90] 유형 6 - 1 - 1 ·····271
[표 Ⅳ-91] 유형 6 - 1 - 2 ·····272
[표 Ⅳ-92] 유형 6 - 1 - 3 ·····273
[표 Ⅳ-93] 유형 6 - 1 - 4 ·····274
[표 Ⅳ-94] 유형 6 - 1 - 5 ·····275
[표 Ⅳ-95] 유형 6 - 1 - 6 ·····276
[표 Ⅳ-96] 유형 6 - 1 - 7 ·····277
[표 Ⅳ-97] 유형 6 - 2 ·····278
[표 Ⅳ-98] 유형 6 - 2 - 1 ·····279
[표 Ⅳ-99] 유형 6 - 2 - 2 ·····279
[표 Ⅳ-100] 유형 6 - 2 - 3 ·····280
[표 Ⅳ-101] 유형 6 - 2 - 4 ·····280
[표 Ⅳ-102] 유형별 종합 ·····281
[표 Ⅳ-103] 유형별 해당 사례 수, 『해방중등』 곡수, 공통곡조 수 ··283
[표 Ⅴ-1]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 부합 관련 교과서 양상(곡조/노랫말) ·····29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공간[1] 시기 '조선인으로서의[2] 정체성 회복 및 정립(正立·定立)[3]' 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선결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강제적으로 주입된 일제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독립적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에 더하여 장차 건설될 신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까지 갖추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 일에 있어서 일제(日帝)의 것으로부터의 해방 즉 '일제 잔재 청산' 은 동반 진행되어야 하는 핵심적 과제 중 하나였다(김성식 외 10인, 1969: 525;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 1960: 77). 온통 일제의 것으로 뒤덮인 당시의 상황에서 '일제의 것' 과 '조선의 것' 을 구별하고, 구별된 일

---

1) '해방공간' 은 대체로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부터 남북 각각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를 일컫는 시기명으로 사용된다. 비슷한 시기를 일컫는 시기명 가운데 '미군정기' 또한 인문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나, 본 고찰의 범위가 미군정 진주(1945년 9월 8일) 이전 시기까지 포함하는 점, 그리고 본 고찰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시도와 노력을 조명하는 데에 중요한 목표를 두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부각된 시기명인 '미군정기' 보다는 '해방공간' 을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교육학 분야에도 해당 시기 관련 시기명들이 존재하나 본 고찰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이 시기를 '교수요목기' 라는 포괄적 시기명으로 일컫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교수요목기' 는 교수요목이 발표(1946년 9월)된 이후의 시기를 일컫는 것이므로 해방 직후부터를 대상 시기로 정한 본 고찰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시기 음악 교과와 관련된 교수요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요목기' 라는 시기명을 사용해야만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시기명 '해방공간' 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2) 본 논문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일 이전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국호에 변화가 있었다. 즉 해방공간 시기 미군정이 정한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조선' 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을 기하여 공식적으로 국호 '대한민국' 이 사용되었다. 정확을 기하자면 내용에 따라 '조선' 과 '대한민국' 을 달리 사용해야 하나, 서술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 연구 대상 시기인 해방공간의 국호인 '조선' 으로 통칭한다.

3)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는 지속적으로 조선의 역사 왜곡, 문화 말살과 동화정책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 대중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였다. 이에 해방공간 시기 조선 대중에게는 일제에 의하여 왜곡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정립(正立)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본질(내용)을 '정하여 세우는' 정립(定立) 양자 모두 필요했다고 하겠다.

제의 것을 청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회복되고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산'은 단순히 잔재 '없애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잃었던 우리의 것은 '되찾고', 또 없거나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일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작업이었다. 물론 이 세 가지 일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 사회적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착수·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제의 것'과 '조선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4],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5]정책 등에 의거한 가혹한 민족말살정책을 통하여 조선인의 정체성이 담긴 유형무형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 상황에서 맞은 해방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것과 우리의 것을 가르는 기준을 세우는 일은 몹시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방공간 시기의 '일제 잔재 청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난국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해방공간 시기의 전 사회적 '일제 잔재 청산' 과제 수행에 있어서 교육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했으며(문교부, 1947: 3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I): 142), '조선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립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국민을 양성하여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당시 교육계가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교과서 조선어화'였다고[6] 파악된다(한국교과

---

4) '황국신민화'는 조선인 또한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이라는 통치이념으로서 만주사변 이후부터 일본 패망기까지(1931년 ~ 해방) 적용되었다. 두산백과, '황국신민화 정책', 2022.10.4. 00:59 접속.

5) '내선일체'는 내지(內地) 즉 일본 본토와 조선이 일체라는 뜻으로, 1937년 일제가 전쟁협력 강요를 위하여 내건 표어이다. 두산백과, '내선일체', 2022.10.4. 00:41 접속.

6) 본 논문에서 '교과서 조선어화'는 해방공간 교육계에서 있었던 교과별 조선어 교과서 편찬·출판·발행 등과 관련된 일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해방공간 당시에는 이 '교과서 조선어화'에 해당하는 작업을 단순히 '교과서 편찬', '교과서 엮기'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후대에 '교과서 한글화', '우리말글로 교과서 엮기' 등으로 칭하였다. 연구자가 '교과서 조선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우선 '교과서 편찬'이나 '교과서 엮기' 등의 표현을 통하여서는 해방 이후 우리의 언어로 교과서를 편찬하게 된 상황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해방 직후 조선어가 교수용어가 되면서(미군정청 일반명령 제4호(법

서연구재단, 2000(I): 142).

‘교과서 조선어화’의 공식적·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7] 예컨대, 교과서 내용이 외국어를 음차한 조선어(글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라도,[8] 또는 일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한 경우라도 ‘조선어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인의 손이 닿지 않은, 조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선 말글로 된 내용인 경우만 ‘조선어화’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놓은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 조선어화가 해방공간 시기 어떠한 의미였는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 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우리말 도로 찾기’ 시책의 ‘방침’에서[9] 우리말을 찾아 쓰고 새 말을 만들어 쓴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해방 이후 중등음악교과서 제1호인 『임시중등음악교본(臨時中等音樂敎本)』의 예언(例言)에 노랫말을 “‘한글통일안’에 의하여 대체로 고쳤다”는 내용,[10] 문교 당국에서 편찬한 교과서에 새로 만들어진

령 제6호)) 교육·교과서의 ‘조선화’에 우선하여 ‘교과서 조선어화’가 당면한 급선무였던 교육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들겠다. 특히 한글이 아닌 ‘조선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시기의 신문 지상에서 우리 언어를 지칭한 용어 중 ‘조선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점(‘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검색)과 해방공간 시기 공식적인 우리 언어명이 ‘조선어’였다는 점에 주로 기인함을 밝힌다.

7) 해방공간의 교과서 편수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교부가 발간한 ‘편수시보(1950, 문교부 편수국)’, ‘문교행정개황(1946, 문교부)’,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1), (2), (3), (4)(1946, 1947, 문교부)’, ‘우리말 도로 찾기’(1948, 문교부) 등에서도 문교부가 정한 ‘교과서 조선어화’의 개념이나 구체적 기준을 찾기 어렵다.

8) 일례로, ‘School’을 ‘스쿨’로 표기하는 것.

9) 1946년 6월부터 학무당국의 지시로 편수국이 주축이 되어 전개된 ‘우리말 도로찾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운동이었다. 학무당국의 ‘우리말 도로찾기’ 시책으로 정리되어 나온 일반 용어 관계의 책인 『우리말 도로 찾기』가 발행되었는데,(이응호(1974), p.78) 여기에 이 ‘우리말 도로찾기’ 안(案)을 만들기 위하여 결정한 ‘방침’이(이응호(1974), p.79) 밝혀져 있다. 방침은 “1) 우리말이 있는데, 일본 말을 쓰는 것은, 일본 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쓴다. 2) 우리말이 없고, 일본말을 쓰는 것은, 우리 옛말에라도 찾아보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를 끌어다가, 그 뜻을 새로 작정하고, 쓰기로 한다. 3) 옛말도 찾아낼 수 없는 말이, 일어로 씌어온 것은, 다른 말에서 비슷한 것을 얻어가지고, 새 말을 만들어, 그 뜻을 작정하고, 쓰기로 한다. 4) 한자로 된 말을 쓰는 경우에도, 일어식 한자어를 버리고, 우리가 전부터 써오던 식의, 한자어를 쓰기로 한다” 등 네 가지이다.(『우리말 도로 찾기』(1948), 쪽번호 없음(‘머리말’과 ‘일러두기’ 사이에 위치))

우리말이 매우 많아 알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기사[11] 등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문교 당국의 '교과서 조선어화' 지향 또는 기준은, 단순히 조선어(글자)로만 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우리 손으로 되찾은 말글, 그리고 새로 만든 말글로 교과서를 채우는 조선어화'였다고 볼 수 있다. 문교부에서는 국정 교과서 집필, 편수뿐 아니라 검인정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교과서 편찬은 문교 행정의 지향에 따라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12]

'교과서 조선어화'는 미군정청 일반명령 제4호(법령 제6호)[13]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일본어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데다(오천석, 2014: 371), 초·중등학교 개학이 9월 말과 10월 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14] 조선어로 된 교과서가 당장 전국의 학교에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몹시 긴급히 수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우리 말과 글에 서툰 교사와 학생이 다수인 상황에,[15] 교육과정 부재(한종하 외 2인, 1982: 30), 조선어로 된 교과서뿐만

10) 이 '한글통일안'은 조선어학회에서 저작·발행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우리 사회는 조선어 보급 및 교육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통일된 맞춤법에 맞는 조선어로 표기하게 하여 여러 가지 철자법을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조선어 보급을 꾀하고자 한 교육 당국의 의도로 해석된다.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조선어학회가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시대의 진보로 여러 가지 학술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아니"(『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0), 조선어학회, '머릿말'에서)하다며 내어놓은 것으로,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우리말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맞춤법 통일안은 우리말글에 대한 오랜 기간의 조사, 기록, 연구 등의 노력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일제 말기 우리말글 연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이렇듯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켜진 맞춤법을 사용하여 조선어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그 자체로서 '조선 교육적 정체성 정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1) 조선일보, 1947.3.23. 기사 '국어화한 외래어 구태여 고칠 필요는 없다'

12) 음악교과서의 조선어화 역시 이러한 '교과서 조선어화' 지향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미군정청 일반명령 제4호(1945. 9. 17)(법령 제6호(1945. 9. 29)

14) 초등학교 개학(1945년 9월 24일)에 대한 지시 내용은 미군정청 일반명령 제4호(법령 제6호)에 있으며,(미군정청 관보 Official Gazett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on Korea, Vol. No.1, Sept. 1945 - Sept.1946, Part 1, p.104) 중등학교의 10월 1일 개학에 대한 내용은 학무당국이 1945년 9월 28일에 각 도에 보낸 통첩에 있음.(매일신보 1945.9.30. 기사 내용 "중등학교 이상의 관공립학교는 10월 1일부터 재개함." (오천석(2014), p,373 재인용))

15) 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1981), p.190, p.586; 이응호(1974) pp.211~214, p.216, p.220). 교사들을 위한 조선어 강습이 다수 개최된 것 또한 교사들의 조선어 문해력이 큰 문

아니라 참고용 교재(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581; 한종하 외 2인, 1982: 54) 및 교사 지침서 부재, 교사 수 및 교사 역량 부족(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190) 등 교육 관련 여건은 매우 열악하였으나 개학과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자 교사 지침서이자 수업의 내용으로서 역할을 해줄 '조선어로 된 교과서'는 전국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다(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I): 85-86). 조선의 교육철학, 교육법, 교육과정이 수립·제정되기도 전에, 교과별로 '교과서 조선어화'의 취지라 할 '일제 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교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수립' 목적에 맞는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조선어로 된 교과서는 편찬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또한 이와 같은 교육계의 '교과서 조선어화'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이라는 취지 하에 편찬되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취지를 음악교과서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우리 음악인·음악교육자들의 고민의 결과물, 즉 조선어로 된 음악교과서도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서둘러 편찬되기 시작했다.

그간 음악교육계 내에는 해방공간 음악교과서가 일제강점기의 음악교육의 잔영이자 일본 교과서의 모방, 답습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존재해 왔다.[16] 이 평가는 해방공간 음악교과서가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 취지에 맞지 않는 양상으로 '조선어화' 되었다는 비판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 받아들여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평가의 근거를 찾고자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나, 평가의 근거가 될 해방공간 음악교과서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

제가 되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조선일보, 1945.12.7. 기사 '한글고등부강습회'; 동아일보, 1945.12.30. 기사 '중학교원 위해 동휴(冬休) 한글강습')

16)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평가(민경훈 외 11인(2014), p.43), 이 당시 수업에 사용한 '동요'와 '가곡'이 일본적 음계와 정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수록 조선곡에 대한 평가(권덕원 외 3인(2014), p.41) 등이 음악교육 총론서에서 발견되며, 이 외에 교과서의 내용이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였다는 평가(전인평, "해방공간의 음악교육"(권혜근의 글)에 대한 논평(제14회 한국음악사학회 음악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쪽번호 없음;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1960), p.85, p.118)도 존재한다.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결론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평가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파악하였다. 해방공간 시기의 음악교과서가 한국현대음악교과서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17] 해방공간 시기 교과서들의 일본 교과서 모방, 답습 여부, 바꿔 말하면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 취지에 대한 부합 여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 규명은 한국현대음악교육, 한국현대음악교과서의 정체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자는 본 고찰에서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이하 『해방중등』)의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 양상을 음악적·언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다. 교과 특성상 음악교과서는 음악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악교과서 조선어화를 살피기 위하여서는 음악적·언어적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18] 이에 본 고찰에서는 이 '음악교과서 조선어화'의 범위를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음악적 측면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19]

『해방중등』과 『標準音樂敎科書』(이하 『標準』) 수록 가창곡 간 비교 고찰에서는 음악적 측면의 '곡조'[20]비교, 그리고 언어적 측면의

---

17)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부터 1954년 4월까지의 우리 교육을 한국 현대 교육사의 초기로 보는 관점(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0)(I), p.55)을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였다.

18) 대부분의 『해방중등』은 교과서라기보다는 '악보집'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교과서의 내용이 곧 악보이며, 교과서 고찰은 악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악보를 '음악적 아이디어의 최종 제시'(서정은(2019), p.345)라 할 때, 가창곡 악보는 음악적 아이디어가 '음악'과 '언어'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되고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중등』 교과서 조선어화의 범위에 두 측면이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9)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서언(序言)'의 선곡요령에서 "친일파적 작사자, 작곡자의 가곡은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밝혀져 있는 점, 그리고 이 교과서의 편찬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박용구의 구술에서도 "일본 작곡자의 작품이어서 그건 넣지 않기로 하고."(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9)라는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 작곡자 및 친일파 작곡자의 '곡'을 배제하고 조선 작곡자의 '곡'을 수록한다는 '음악적 측면'의 편찬 기준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음악교과서 조선어화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조선어화' 개념의 범위를 음악적 측면까지 확대하여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20) 본 논문에서 곡조는 'tune'을 의미한다.

‘노랫말’ 비교가 이루어진다.[21] 음악적 측면에는 주로 ‘곡조’와 관련된 것이 해당되며 ‘조선음악교육’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곡조가 수록된 교과서의 출처(조선/일본), 곡조를 만든 인물과 그 인물의 출신 지역(조선/일본/일본 외 외국), 곡조의 장르 및 장르별 비중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언어적 측면에는 주로 ‘노랫말’과 관련된 것이 해당되며, 노랫말의 연원, 노랫말을 만든 인물과 그 인물의 출신 지역(조선/일본/일본 외 외국), 노랫말이 만들어진 시기, 노랫말의 비중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음악적·언어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먼저 『해방중등』 23종 교과서 수록 가창곡을 ‘조선곡’[22]과 ‘외국곡’[23]으로 대분하여 검토하고, 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일본 중등음악교과서인 『標準音樂教科書』 6종[24]의 수록 가창곡과 비교 고찰한다.[25]

---

21) 비교 고찰이 처음 시도됨에 따라 두 시기 교과서 수록곡 간 ‘곡조’ 비교도 ‘노랫말’ 비교 또한 처음 시도된다.

22) ‘조선곡’은 본 논문에서 ‘노랫말과 곡이 조선인에 의하여 창작된 가창곡’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23) ‘외국곡’은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는 ‘원곡의 노랫말과 곡이 외국인에 의하여 창작된 가창곡’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서술 맥락에 따라 ‘원곡의 곡조는 유지하고 있으되 노랫말이 일본어 또는 조선어로 번역 또는 작사된 외국곡’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외국곡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첫째, 외국인 작곡자가 명시된 경우, 둘째, 외국인 작곡자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연구자가 외국 곡조임을 확인한 경우, 셋째, 외국인 작곡자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노랫말 관련 인물명과 함께 ‘역시(譯詩)’·‘역사(譯詞)’ 등 번역 관련 표기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선곡’의 경우 노랫말 관련 인물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극소수 있어도, 작곡자명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작곡자명이 표기되지 않은 몇 곡의 경우 외국곡으로 보았다.(예: 〈종소리〉, 〈진실〉)

24) 본 논문에서 『標準音樂教科書』는 교과서명이 아닌 ‘교과서 시리즈’를 뜻한다.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林 幸光이 참여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음)이 공편(共編)한 『標準男子音樂教科書』, 『標準女子音樂教科書』, 『標準實業學校音樂教科書』,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등의 교과서가 일본에서 193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에 걸쳐 발행되었다. 연구자는 이들 다수의 교과서들을 하나의 시리즈로 파악하였고, 본 논문에서 이 교과서들을 『標準音樂教科書』라고 포괄하여 칭하며 서술한다. 『標準』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인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25) 『標準』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 4차 조선교육령기 중등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였던 금수현(각주)은 자서전에서 『標準』을 사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금수현(198), p.67)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자가 입수한 『標準實業學校音樂教科書(男子用) 第1編』 뒷표지에서 ‘康津公立農業學校’(현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1937년 개교(학교 홈페이지 참고))와 사용자(학생 추정) 이름이 발견된다. 『標準』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음을

『해방중등』은 거의 가창곡 악보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26] '가창곡' 중심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두 시기 중등음악교과서 수록 '가창곡' 간 '곡조' 및 '노랫말' 비교를 통하여 유사성 및 상이성을 파악함으로써, 이 유사성과 상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해방중등』이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즉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중등음악교과서'를 비교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국정제 교과서이자 조선 창작동요 장르 중심으로 구성된 초등음악교과서와 비교할 때, 민간의 여러 편찬자들에 의한 다종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 교과서들에 다양한 장르의 조선곡, 외국곡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다양한 곡을 대상으로 음악적·언어적 측면에서 다각도의 고찰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27]

연구자는 본 고찰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부수적) 목적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제3, 4차 조선교육령기 발행 중등음악교과서 가운데 『標準』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제3, 4차 조선교육령기 발행된 일본 중등음악교과서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본 연구자가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서강대 도서관, 경북대 도서관, 전주교대 도서관, 한국교육평가원(KEDI) 도서실 등에서 발견 및 수집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의 중등음악교과서들 중 가장 많은 것이 『標準』이었다. 넷째, 『標準』 시리즈는 1932년에 발행을 시작하여 1939년부터는 『改訂標準音樂教科書』 시리즈까지 내었고, 1943년까지(확인 및 입수한 교과서들에 의하면) 12년 이상 꾸준히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4編』의 1943년판의 경우 수정 3판까지 낸 것을 보아도 교과서가 발행되는 동안 지속적 판매와 보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標準』이 일제강점기 중등음악교과서의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당시 교사로 재직했던 이의 구술, 교과서에 적힌 학교 이름, 제2·3·4차 조선교육령기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 판매, 보급이 이루어진 교과서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해방중등』과의 비교 고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6) 『해방중등』 전체 수록곡 가운데 가창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감상 영역 7곡과 조성 연습을 위한 1곡뿐이다.

27) 일례로 『해방중등』은 외국곡을 다수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작사 노랫말의 측면에서의 『標準』과의 유사점 및 상이점 비교 고찰이 가능하나, 초등음악교과서의 경우 수록곡 대부분이 조선 창작곡이므로 외국곡의 노랫말 고찰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을 이루고자 한다. 이는 『해방중등』의 실체적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해방중등』의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과서 발굴 및 검토, 수록곡의 출처 탐색, 수록 곡조나 노랫말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확인/발견된 내용에 대한 분석·연구 및 정리, 의미 도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간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해방중등』의 실체적 양상을 파악하여 밝히는 것을 부수적 목적으로 삼는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해방중등』을 대상으로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해방공간 음악교육·음악교과서의 '일제잔재 청산' 및 '조선 정체성 정립' 측면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해방공간 시기의 음악교육과 음악교과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해방중등』의 실체적 양상을 파악하여 밝힌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방중등』 23종은, 해방일 이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발행된 검인정 교과서 및 검인정이 확인되지 않는 교과서로, 연구자가 현재 입수할 수 있는 교과서에 해당한다.[28] '해방공간'

28) 『해방중등』의 전체적 조망에 접근하고자, 그리고 『해방중등』과 일제강점기 일본 음악교과서 간 비교 결과의 유의미성을 높이고자 최대한 다수의 교과서를 입수하고자 노력하였다. 『해방중등』 23종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 대학 도서관(이화여대), 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개인 소장자(민경찬, 오영식) 등을 통하여 입수하였다. 이 23종은 도서관 및 박물관의 소장품이거나 소장자가 발굴 또는 구입한 교과서들로서,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았음을 밝힌다. 모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이 시기에 발행된 또 다른 중등음악교과서를 확인함으로써(입수 실패) 『해방중등』이 더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나, 연구자가 입수할 수 있는 교과서는 23종이었다. 도서관, 박물관 소장 물품이거나 개인 소장자가 본인의 소장(所藏)을 공시(公示)한 경우가 아니면 교과서의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렵다. 해방공간 시기에 사용된 중등음악교과서 목록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정 교과서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기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개인 소장이 공시된 교과서를 최대한 다수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입수가 이루어졌다.

은 일반적으로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하지만,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는 해방일 이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발행된 중등음악교과서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해방공간부터 6·25전쟁 발발 시기까지의 교과서 제도 상황에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교육법 제정이 준비되고 있었고, 또 교육법 제정에 이어서 교육과정이 발포되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발행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발포될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해방공간 시기에 발행된 교과서들은 검인정 효력 연장이 되는 등의 방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이종국, 2001: 241-242; 대한출판문화협회, 1987: 72-73). 그런데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은 제정 공포되었으나 교육과정이 수립되기 전에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에 따라 6·25전쟁 휴전 이후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들이 발행되기 이전까지 해방공간 시기에 발행된 교과서들은 사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는 1949년 검정필 교과서가 1954년에도 발행된 사실로도 증명된다.[29] 그러나 이 1954년에 발행된 교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전쟁 이전 교과서에 비하여 수정, 증보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발견되며 발행 시기가 해방공간과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발행된 교과서로 한정하였다.

검인정 교과서와 함께 검인정이 확인되지 않는 교과서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우선 현재의 연구 상황으로는 교과서에서 검인정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인정/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를 구분할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이유로, 2020: 144-145). 또한 해방공간 시기 검인정 교과서 보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중등학교와 출판사들이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를 발행하였는데 비록 공식적, 합법적 교과서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역할은 지대했으므로 검인정 교과서이든 검인정이 확인되지 않는 교과서이든 함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29) 국민음악연구회에서 발행한 『남녀중등음악교본 3』(1954)의 경우이다.

판단되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해방중등』 23종은 다음과 같다.

<표 I-1> 『해방중등』 23종 (발행일 순)

교과서번호	교과서명	발행연도	편저자	발행처
1	『임시중등음악교본』	1946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국제음악문화사
2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1946	계정식	교회음악연구회
3	『여자중등음악교본 상』	1947	김신덕	금룡도서문구주식회사
4	『여자중등음악교본 중』	1947	김신덕	금룡도서문구주식회사
5	『여자중등음악교본 하』	1947	김신덕	금룡도서문구주식회사
6	『중학음악교본』	1947	전국교육음악협회	국민음악연구회
7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1947	계정식	교재연구사
8	『중등음악』	1947	오창진	서울 문화당
9	『음악교본』(대건중학교)	1947 추정	미상	미상
10	『중등음악교본』	1948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금룡도서주식회사
1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겉표지에는 '중학음악교본')	1948	교육음악연구협회	국민음악연구회
12	『중등음악교과서』(大商)	정부수립 이전 추정	미상	대구 문예출판사
13	『중등음악 2』	1948	나운영	서울국제음악문화사
14	『중등음악 3』	1948	나운영	서울국제음악문화사
15	『중등음악교본 1권』	1948	이승학	국제문예사
16	『중등음악교본 2권』	1948	이승학	국제문예사
17	『중등음악교본 2권』	1948. 8.30. 이후	이승학	국제문예사
18	『중등음악 1』	1949	나운영	서울국제음악문화사
19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1949. 8.2. 검정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서울국민음악연구회
20	『중등음악교본 2』	1949.	최희남	금룡도서주식회사
21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1950. 4.28. 인정 효력 연장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서울국민음악연구회
22	『중등음악교본 1』	1950 30)	최희남	금룡도서주식회사

23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	1950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서울국민음악연구회

『標準』 6종은, 제3, 4차 조선교육령기에 발행된 『標準音樂教科書』[31]들 가운데에서 선정하였다. 『標準』은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 공편(共編)으로 1932년에 일본에서 처음 발행된 이후 1943년까지, 조선교육령기를 기준으로 보면 제2차부터 제4차 시기에 걸쳐 발행되었다. 이 교과서는 1932년 7월 10일 조선총독부 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오지선, 2003: 74, 181)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알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와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 해당하는 1938년에서 1945년 사이에 발행된 『標準』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해방공간과 근접한 시기의 교과서와의 비교가 해방공간 교과서로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3차 조선교육령기부터 전쟁기 교육내용이 들어가면서 교과서는 제2차 교육령기 교과서와 큰 차이를 지니게 되며, 제4차 교육령기는 제3차 교육령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한종, 2009: 298-299). 『標準』의 경우에도 1932년(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해당)에 발행된 교과서에서 1938년 이후 발행된 교과서로의 변화가 적지 않은데, 무엇보다 일본제국주의, 천황 찬양, 전쟁 관련 내용이 1938년 이후 발행된 교과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이 두드러진다. 제4차 시기에 발행된 『標準』은 제3차 시기에 발행된 교과서의 '개정판'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32]

제3, 4차 조선교육령기 발행된 『標準』 가운데, 연구자가 우리나라

30) 발행 연도가 5283(1950년)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4283의 오식으로 볼 수 있다.

31) 『標準』은 성별(『標準男子音樂教科書』/『標準女子音樂教科書』/『標準實業學校音樂教科書 男子用』 등), 단계별(『標準女子音樂教科書』의 경우 1편에서 5편까지 발행됨), 계열별로 구분되어 발행되었다.

32) 제4차 교육령 시기에는 영미 음악이나 영어 노래가 금지되었는데(오지선(2003), p.122), 제3, 4차 시기에 발행된 동일 제목의 『標準』을 비교해보면, 수록곡에서 영미 음악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곡의 작곡자명이나 지역명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영미 음악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와 일본의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었던 교과서,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제1 ~ 5편과 『標準實業學校音樂教科書(男子用) 第1編』을 『해방중등』과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2> 『標準』 6종

교과서 번호	교과서명	발행년	편저자	발행처
1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一編』	1939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2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二編』	1939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3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三編』	1943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4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四編』	1943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5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五編』	1939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	合資會社 共益商社書店
6	『標準實業學校音樂教科書 (男子用)第一編』	1942	黑澤隆朝, 小川一朗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 681곡과 『標準』 6종의 수록 가창곡 총 173곡을 대조한 결과, '공통곡조'가 41개 확인되었다. 이 공통곡조는 『해방중등』 편찬 시 『標準』에서 차용된 곡조로 해석되는 것으로,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곡조 및 노랫말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피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역할한다.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 고찰은, 조선곡 곡조 97개 관련 203곡과 외국곡 곡조 228개 관련 478곡을 합친 전체 681곡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곡조 비교는, 주로 공통곡조 41개를 비롯하여 이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가창곡 159곡과 『標準』 가창곡 46곡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노랫말 비교는,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가창곡 159곡과 『標準』 가창곡 46곡의 노랫말 그리고 공통곡조인 원곡의 노랫말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33]

33) 41개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가창곡, 공통곡조의 곡목은 <표 Ⅳ-1> 참조.

『標準』 가창곡 중 하나의 곡조에 복수의 노랫말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해방중등』의 경우 하나의 곡조에 복수의 노랫말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34] 따라서 41개의 공통곡조로 된 『標準』 가창곡 노랫말과 『해방중등』 가창곡 노랫말의 비교는 '1 : 1', 또는 '1 : 다수'로 진행된다. 『標準』과 『해방중등』 가창곡 노랫말 간 유사성 및 상이성 양상이 지니는 함의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공통곡조인 원래의 외국곡'(이하 『원곡』)의 노랫말과 함께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고찰에서 대상으로 하는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외국곡 가운데 현재의 각종 문헌 정보를 통하여서도 곡목이나 작곡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악보에 작곡자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곡목이 『원곡』과 많이 다르거나, 노랫말이 『원곡』 노랫말의 번역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사'된 경우에는 곡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작곡자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곡목이 『원곡』과 유사하거나 노랫말이 『원곡』 노랫말에 충실한 번역인 경우에는 작곡자명이나 곡명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작곡자명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곡목도 『원곡』과 유사점이 없는 데다 『원곡』 노랫말에 충실한 번역 노랫말도 아닌 경우에는, 작곡자명도 곡목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작곡자명이 표기되어 있고 『원곡』 노랫말에 충실한 번역 노랫말로 되어 있음에도 곡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유명 작곡가의 작품일지라도 소품 가운데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고, 더구나 유명 작곡가가 아닌 경우에는 작곡자명을 가지고 탐색하여도 곡에 대한 정보는 고사하고 인물 자체에 대한 확인에서부터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해방공간 시기에는 애창되기도 하고 악보집 등에 수록되었던 곡이었어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건 '사라진 곡', '잊혀진 곡'이 되기도 해 찾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34) 역사자나 작사자가 달라 노랫말의 전체적 내용이 다른 경우, 또는 동일한 역사자나 작사자의 노랫말이지만 수록된 교과서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등도 있다. 부분적 차이가 오기로 인한 것이거나, 차이의 정도가 극소한 경우는 동일 노랫말로 취급하였다.

하물며 교과서에 표기된 작곡자명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해방공간은 음악 전문 출판사가 태동하던 시기이므로 23종 교과서 가운데에도 활판 인쇄 악보를 수록한 교과서와 손 사보 악보를 수록한 교과서가 혼재한다. 특히 손 사보에 의한 악보의 경우 다종다양한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작곡자명 오류도 물론 이에 포함된다. 연구자가 악보집, 음반, 신문 기사, 관련 문헌,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동원하여 곡목과 작곡자명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찾지 못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로서, 서지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자료 비교 연구 방법 등이 동원된다.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육 환경 고찰을 위하여서는 신문, 잡지, 구술자료, 전기, 학교사(學校史), 교육사(敎育史), 편수사(編修史), 미군정 법령, 문교 행정 관련 문서,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여 역사적 연구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해방중등』과 『標準』 고찰을 위하여서는 교과서의 내적·외적 체재에 대한 검토, 편저자와 교과서 관련 내용 탐색이 필요하므로 서지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방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가창곡의 노랫말 간 비교에서는 공통곡조 색인, 공통곡조로 된 곡에 복수의 노랫말이 존재하는 경우 노랫말 간 비교, 『해방중등』 노랫말이 『標準』 노랫말의 번역인지, 또는 『標準』 노랫말이 『원곡』 노랫말의 번역인지 또는 작사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곡』 노랫말과 『標準』 노랫말, 『원곡』 노랫말과 『해방중등』 노랫말, 그리고 『標準』 노랫말과 『해방중등』 노랫말 비교 등이 필요하므로 비교 연구 방법이 사용된다.

끝으로,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자체에 초점을 맞춘 고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고찰 결과의 원인을 찾거나 고찰 결과가 지니는 함의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정황적 근거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정의 『해방중등』의 편찬 발행 관련 행정, 편수 지침, 검인정 심사 기준 및 결과, 미군정 문교부(학무국)[35]의 음악교육 정책, 교과서 관련 정책 등을 확인

35) 1946년 3월 29일(법령 제64호) '학무국'에서 '문교부'로, '편수과'에서 '편수국'으로 개칭되었다. (미군정청 관보 Vol.No.1, pp.242-243) 본 논문에서는 해방공간

할 수 있는 미군정 공식 문서 자료뿐만 아니라, 23종 교과서의 편찬 관련 기록도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현황에 기인한다.

둘째, 『해방중등』에 대한 세부적·심층적 분석보다는 개괄적 파악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해방중등』의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양상 및 조선 음악교과서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해방중등』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했다. 또한 『해방중등』과 『標準』의 비교에 있어서 음악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 즉 곡조와 노랫말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했으므로 고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이러한 고찰이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찰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 파악에 목표를 둔다.

3. 기존 연구 현황

한국 근현대교육사, 교과서사 연구 분야에서 해방공간 음악교육, 음악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아예 언급조차 없거나 또는 '주요 교과 이외의 교과'나 '예술 교과'에 포함되어 간단히 언급된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해방공간 음악교육·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그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교육사나 교과서사 연구물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해방공간 시기 음악교과서 연구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공간 음악교과서를 비롯한 음악 교재, 조선 민간 출판사 또는 개인 편찬 창가집, 애창곡집류, 개인 작곡집, 동요집 등 다양한 종류의 노래집들의 발굴과 이에 대한 토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선총독부 학무국, 미군정 문

시기 전체의 학무당국을 일컫는 경우 '문교부(학무국)'로, 특정 시기의 학무당국을 일컫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따라 '문교부'나 '학무국'으로 구분하여 칭하고 표기한다. 또한 해방공간 전체의 편수당국을 일컫는 경우 '편수국(편수과)'로, 특정 시기의 편수 당국을 일컫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따라 '편수국'이나 '편수과'로 구분하여 칭하고 표기한다.

교부(학무국)의 교육 관련 문서가 확보될 때에 온전히 진행될 수 있다. 현재에도 발굴 작업과 토대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작 단계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36] 이렇듯 시작 자체가 어려운 연구라는 점에 선행연구의 부족 상황이 설명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공간 음악교육·음악교과서가 점하는 한국근현대음악교육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상에 비추어볼 때 아쉬운 연구 현황임은 부정할 수 없다.

본 고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우선 해방공간 시기의 음악교육적 환경을 살피면서 음악교과서에 대하여 언급한 고성휘, 신계휴, 문경숙 등의 연구물이 있다. 고성휘(2000)는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환경을 미군정 문교부(학무국)의 음악교육적 관심, 음악교사 재교육, 교과 편제, 교과서 인쇄와 배포 등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신계휴(2005)는 교수요목기의 초등음악교육을 고찰하면서 부분적으로 해방공간 교수요목과 교과서에 대하여 다루었다. 문경숙(2014)은 미군정 내에서 음악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미국 측 요원들의 시각으로 본 해방공간 음악교육의 실태를 고찰하였는데, 그는 중등음악교과서가 초등음악교과서[37]에 비하여 서양음악 요소가 많이 눈에 띈다면서 그 예로 『임시중등음악교본』을 들어 언급한 바 있다.

『해방중등』에 대한 연구물로는 김기복, 김정미, 권혜근, 이경분, 이유로 등의 것을 들 수 있다. 김기복(2001)은 초·중등 음악교과서 7종의 분석을 통하여 미군정 음악교육 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중등노래교본』(1946, 계정식),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여자중등음악』 1, 2, 3권(1948, 김신덕), 『남녀중등음악교본』[38](1949) 등 중등음악교과서 6종의 가창, 합창, 기악, 감상, 악전 지식 영역의 비중, 그리

36) 일제강점기 음악교과서와 관련하여, 최근 허지연(2022)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창가집(초등 교과서)과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창가집을 비교함으로써, 총독부 창가집이 식민 통치이념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음악교육 및 음악교과서의 정체성 파악뿐만 아니라, 이와 해방공간 시기의 음악교육 및 음악교과서의 정체성 비교 고찰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본격적이고도 유의미한 연구 성과물이라 하겠다.

37) 『임시중등음악교본』과 비교된 초등 음악교과서는 『초등노래책』(1946)이다.

38) 논문에는 몇 편인지 표기되지 않았으나 2권으로 확인된다.

고 수록곡의 조성, 박자, 형식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그가 교과서 검토를 통하여 파악한 미군정 음악교육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결론에서 “일제하의 일본인들의 정서와 감각으로 선택되어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서양의 노래들과 미군정기 동안에 선택되어 불려졌던 미국의 민요, 특히 포스터[39]의 민요, 행진곡” 등이 오늘날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면서 “아직도 남한의 교과서에는 미국의 잔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서술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서술의 근거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즉 서술 내용의 전제가 일제강점기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서양곡이 『해방중등』에 그대로 차용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근거를 논문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포스터의 곡은 『標準』 수록곡 중에서도 5곡[40] 발견되며 해방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불린 사실들이 확인되는데 이 곡들을 미국의 잔재라고 언급한 근거 또한 논문에서 찾기 어렵다.

김정미(2002)는 초·중등 음악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형성 과정과 한국 음악교육의 출발점에 미국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피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중등노래교본(초급용)』(1946, 계정식), 『음악교본』(대건중학교), 『중학음악교본 제1권』(1947), 『임시중등음악교본』(1948), 『중등악전교본』(1948) 등 중등음악교과서 5종의 교과서 구성, 수록곡, 수록곡의 음계, 박자, 형식, 빠르기, 성부 구조, 노랫말 내용(자연과 환경에 대한 노래, 인간과 생활에 대한 노래, 행사 노래 등) 등과 함께 당시 음악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요나누끼(よなぬき) 음계를 ‘5음 음계’이며 ‘일본의 음계’로 파악하고 수록곡을 분석한다든지,[41] 3/4박자는 서양의 왈츠풍, 2/4는 일본의 창가풍, 한국적인 박자는 3박 계통이므로 3박 계통이 아닌

39) S. C. Foster(1826-1864)

40) <Oh, Susanna>, <My Old Kentucky Home>, <Old Black Joe>, <Old Dog Tray>, <Massa’s in de Cold, Cold Ground> 등이다.

41) 요나누끼 음계에서 ‘요나누끼’는 ‘4와 7이 빠진’의 의미로, 서양 장음계에서 4음(파)와 7음(시)이 생략되어 있는 음계이다. 따라서 이는 일본 음계가 아닌 서양 음계이다. 4음과 7음이 주선율에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5음 음계적’으로 들리나 ‘5음 음계’는 아니다.

안기영의 <물새>와 <등산가>는 전혀 한국적이지 않다는[42](2002: 96) 등의 서술은 오류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그가 주장한 바, 미군정청이 교육방침에서 일제 잔재의 말살을 언급하였으나 음악교과서 수록곡 분석 결과 그들이 말한 교육방침은 한국민의 호감을 사기 위한 허구였으며 실제적 청산을 위한 연구나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2002: 논문요약 vii) 내용의 근거도 논문 내에서 찾기 어렵다.

권혜근은 복수의 논문을 통하여 『해방중등』을 고찰하고 이 시기 음악교육을 사회적・교육적 상황 속에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는데,[43] 『남녀중등음악교본』1, 2, 3권을 대상으로 수록곡의 노랫말 내용・노랫말 관련 인물・작곡자・조성・박자・형식 등의 음악적 요소를 살폈다. 이경분(2017)은 『임시중등음악교본』(1946)의 서언, 교과서 구성 및 수록곡, 자료적 가치를 간략히 살핀 바 있다. 또한 이유로(2020)는 해방공간 대구지역에서 발행된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 두 권을 비교 고찰하였는데, 편저자, 인쇄 및 발행, 악보, 구성, 노랫말 등의 비교를 통하여 해방공간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標準』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중등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일제강점기 공식 문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기의 음악교육 및 음악교과서 정책을 정리하여 기술함으로써 본 연구를 비롯한 후속 연구에 중요한 도움을 준 오지선(2003)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標準』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에서는 편저자 중 한 사람인 구로사와 다카토모(黒澤隆朝)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標準』에 대한 고찰 또한 시도된 바 있다.[44] 그러나 『標準』 수록 곡조나 노랫말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찾아

---

42) ‘3/4박자는 서양의 왈츠풍’, ‘2/4박자는 일본의 창가풍’, ‘한국적인 박자는 3박 계통’이라 하였는데, 안기영의 곡들이 3박 계통이 아니어서 한국적이지 않다면, 서양 왈츠 3/4박자는 3박 계통이므로 한국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일본 ‘창가’의 범위가 매우 넓어 다양한 박자의 창가가 존재하므로, 2/4박자를 일본 창가풍으로 제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3) 논문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해방공간의 음악 교육 연구: 『초등 노래책』과 『남녀 중등음악 교본』 1・2를 중심으로’, ‘미군정기의 음악 교재 연구: 『남녀 중등음악 교본』 제 3권을 중심으로’

44) 일례로 鈴木 愼一朗(2012)의 소논문 ‘黒澤隆朝による『標準女子音樂教科書』の特徴:

보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총 12종 정도의 『해방중등』이 고찰된 것으로 파악되며 『임시중등음악교본』이 연구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찰 목적은 주로 해방공간 음악교육, 미군정 음악교육 정책, 한국현대음악교육의 출발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 등을 살피는 데에 있었으며, 교과서 고찰은 주로 음악 활동 영역의 비중, 수록곡의 조성, 박자, 형식, 교과서 구성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標準』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중등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방중등』과 일제강점기 중등음악교과서 간 비교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으로는, 『해방중등』을 '교과서 조선어화'의 취지라 할 '일제 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의 측면에서 고찰한 점, '교과서 조선어화'가 단지 미군정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만이 아닌 우리 교육계의 자발적·적극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해방중등』에 대한 연구 가운데 최다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가창 영역만을 다룬 점,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과 외국곡 각각의 장르, 작곡자, 노랫말 관련 인물, 작곡/발표·번역/작사 시기를 검토한 점, 『해방중등』을 일제강점기 중등음악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한 점, 『해방중등』과 『標準』의 곡조를 비교한 점, 『해방중등』과 『標準』의 노랫말을 『원곡』 노랫말과 함께 비교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처음 시도됨으로써 특징화되었다고 하겠다.

4. 연구 내용

I장 서론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밝히고 해방공간 음악교육, 『해방중등』, 『標準』, 일제강점기 중

『女子音樂教授資料集成』との關係から'를 들 수 있다.

등음악교과서,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곡 간 유사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상황을 살핀다.

Ⅱ장에서는 『해방중등』이 편찬·발행되기 시작한 배경을 살핀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직후 국가가 처한 교육적 환경은 어떠했으며, 교육계가 짊어진 선결 과제였던 일제 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교육적 정체성 정립의 구체화로서 전개된 교과서 조선어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또 음악교과서 조선어화는 어떠한 상황에서 전개되었는지 살핀다.

Ⅲ장에서는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의 성격을 고찰한다. Ⅳ장에서 이루어지는 비교 고찰에 앞서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의 성격을 살피는 이유는, 이 성격이 Ⅳ장에서 이루어지는 『標準』과의 비교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을 크게 '조선곡'과 '외국곡'으로 구분하여 장르, 작곡자, 노랫말 관련 인물, 작곡/발표·번역/작사[45] 시기 등을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가창곡(외국곡)의 '곡조' 및 '노랫말' 비교가 이루어진다. 우선 1절에서는 『해방중등』 및 『標準』 가창곡의 '곡조'를 비교하여 '곡조' 측면의 유사성 및 유사도를 살핀다. 먼저 두 시기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공통곡조'[46]를 파악하고, 이 '공통곡조'의 특징을 작곡자, 장르 측면에서 살핀다. 이어 '공통곡조로 된 곡'이 『해방중등』 전체 외국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과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다.

Ⅳ장 2절에서는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의 '노랫말'을 비교하여 '노랫말' 측면의 유사도를 살피는 것을 목

45)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의 관점에서의 고찰에 있어서, 조선곡의 경우 언제 창작된 곡이 수록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곡/발표 시기'를, 외국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번역/작사된 노랫말이 수록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역/작사 시기'를 검토한다.

46) 본 논문에서 '공통곡조'는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가창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곡조를 의미한다. 이 곡조는 조선어 노랫말로 된 『해방중등』 수록곡과 일본어 노랫말로 된 『標準』 수록곡의 『원곡』의 곡조이다. 예컨대 『해방중등』 수록곡 〈로렐라이〉와 『標準』 수록곡 〈ロオレライ〉의 공통곡조는 질허(F. Silcher)의 〈Die Lorelei〉의 곡조이다.

적으로 한다. 『원곡』 노랫말, 『標準』 노랫말, 『해방중등』 노랫말 등 세 노랫말의 유사성을 살피는데, 『원곡』 노랫말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 비교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이나 유사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곡』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원곡』 노랫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 간 유사성 및 상이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한다.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간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7가지 관계 유형으로 나누어 살핀다. Ⅳ장에서 이루어진 '곡조' 및 '노랫말' 비교를 통한 결과 또한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 측면에서 『해방중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Ⅱ. 해방공간 중등음악교육 환경 고찰

1. 해방공간 교육계의 일제 잔재 청산

1.1 교육계의 일제 잔재 청산 배경

1945년 8월 즈음의 조선은 일제가 치르는 긴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 기지로서 존재하면서 일제의 폭압과 가혹한 수탈에 신음하고 있었다(김운태, 1975: 79-80). 일제 강점 이후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화정책, 특히 일제 말기의 내선일체화, 황국신민화 정책의 결과로 이 시기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각종 탄압이 일제 말 전쟁기에 더욱 거세어졌으나(김운태, 1975: 83-90) 일제에 저항하면서 조선을 되찾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의 불씨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속에 아직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다(이준식, 1996: 50, 55). 일제의 폭압과 수탈 속에서 목숨을 건 끈질긴 노력으로 지켜낸 그 불씨는 해방 직후부터 일제 잔재 청산 및 잃어버린 또는 잃어버릴 뻔한 우리 것을 되찾는 작업으로 옮겨붙어서 타올랐고, 조선·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열의와 노력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지속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었다고 하겠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것을 되찾는 작업은 해방이 되자마자 즉 미군이 진주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47] 그런데 일본은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조선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하

47) 예컨대 조선어학회의 경우 미군 진주(1945년 9월 8일) 이전인 1945년 8월 25일 긴급 총회를 열어 “교과서가 없이 공부 못하는 초·중등 학교의 시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계·문필계·언론계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얻어 임시 국어 교재를 엮기로 결의”하는 등,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인의 자발적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응호(1974), p.269.

에 아직 본국으로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여전히 횡포를 저지르고 있었다.[4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한 조선인들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었음에도, 신속히 일제의 흔적을 일소하고 조선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상황에 굴복함 없이 진행되었다.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시작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은, 당연히 일제 잔재 식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제의 것과 우리의 것의 구별이 가능해야만 일제 잔재 청산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긴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구성원 대다수에게 이 구별은 몹시 어려운 것이 되어 있었다. 이 난처한 상황에서 일제의 것은 골라내어 없애고 우리의 것을 되찾아 살리고 또는 새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살아남아 면면히 이어졌던 '한글 운동'[49]의 역할이 컸다고 하겠다(이응호, 1974: 21-22).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은 민족 운동의 맥락에 있었다(이응호, 1974: 17-19). 일제의 치밀한 동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역사, 문화가 온전히 담겨 있는 말과 글을 연구·보존·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고자 진력한 이 '한글 운동'이 일제강점기 동안 이어지지 않았다면, 해방 이후의 일제 잔재 청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의 말과 글이 살아남아 있었기에 일제의 것에서 우리의 것을 가려낼 기준이 마련될

48)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 9월 9일 조선의 행정권을 접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8월 15일 항복 이후 미군이 조선에 진주하여 행정권을 접수할 때까지 조선 통치를 지속하면서, 조선인의 반일적 시위를 진압하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8.15 특집 다큐멘터리 '조선총독부 최후의 25일'(2013년 kbs 방영)) 전라도 익산에서는 일본 군단이 "종주권 위양까지 조선은 황토(皇土)요 조선 인민은 황민(皇民)"이라며, 조선 국기 게양과 독립운동을 금하는 내용의 라디오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일본 군인과 경찰의 발포로 조선인 사상자가 생긴 곳도 있었다. 김성식 외 10인(1969), p.518.

49) 조선어와 관련된 정리·통일·연구·교육 등의 움직임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어문운동'·'조선어문정리통일운동'·'조선어연구운동'·'조선어운동'·'한글운동'·'한글보급운동' 등 여러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비교적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부터 다양한 신문에서 널리 발견되며, 대표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한글 운동'으로 통칭한다.(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참고)

수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해방이 되자마자 청산 작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 운동'은 앞서 언급했던 '일제에 저항하면서 조선을 되찾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의 불씨'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이며 가장 중요한 불씨였다고 할 수 있다(이응호, 1974: 24).

해방 직후 교육계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미군정의 정책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 청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과,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욕적인 청산 전개 시도와 노력에 힘입어 일찍이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교육계가 일제 잔재 청산 움직임을 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이었으나, 이 움직임이 본격화되기에는 교육 관련 제반 여건이 몹시 열악했다(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190).

또한 교육계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 본격화를 어렵게 하는 커다란 난제가 존재하였는데, 교육 체계 자체가 일제의 산물이라는 점에 기인한 문제였다. 즉 교육제도, 교육방식, 교육내용 등 교육의 기반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36년간의 치밀한 일제 식민 교육정책의 소산이었기 때문에, 이 식민교육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교육 기반 전체를 일신하여야 마땅했다. 물론 이를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188-189;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32) 일신 작업이 단기간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총 4차에 걸쳐 공포된 조선교육령[5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제는 식민지 교육정책을 통하여 조선인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식민지인이자 황제의 신민으로 만드는 일을 치밀한 계획하에 점차 강도를 높이며 전개했다. 특히 제3차, 4차 조선교육령기

50)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에 충성하는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11년, 1922년, 1938년, 1943년 총 4차에 걸쳐 반포되었다. 교육학용어사전, '조선교육령', 2021.1.6. 16:29 접속.

에 해당하는 기간은 일제가 중일전쟁과 제2차 대전을 치른 전쟁기로서, 이 시기 동안 식민지인 병력 동원과 적극적 전쟁 협조를 목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내선일체(內鮮一體)가 강조되고 일본 국민교육이 강화되었다(김한종, 2009: 318, 323).[51] 이러한 대조선 식민 교육정책이 교육제도, 방식, 내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방 이후 이것부터 청산·일신해야 하는 것이 옳으나, 이것이 곧 해방공간 교육의 기본적 틀이었으므로 변화를 시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일제 잔재 청산이 단순한 '제거' 작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큰 부담이었다. 즉 일본 것과 우리의 것이 둘 다 온전히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것만 남기는 청산 작업이라면 그나마 덜 어려웠겠으나, 일제의 조선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우리의 것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남아 있지 않거나 또는 아예 우리의 것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었으므로, '우리의 것 되찾기'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새로 만들기'까지를 포괄한 의미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분야별 전문인력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는 청산 작업에 있어서, 당시의 교육계는 연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교육 및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으므로 그 임무는 막중했다.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교수·학습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했다. 주요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했다고 여겨졌던 것은 무엇보다 교육에 있어서 기본 조건인 문해력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

51) 제4차 조선교육령기 예능과의 사명은 "황국신민으로서의 기초를 확립하고 또 황국문화의 확립발전에 공헌하며 황도(皇道)에 귀일(歸一)하도록 하는 것"(오지선(2003), p.101)이었다. 즉 내선일체를 강조하여 식민지 조선인까지 '국민'으로 끌어들인 일제는 조선인들을 '황국신민화'에 박차를 가하였다.(오지선(2003), pp.100-101, 103, 106; 허지연(2022), pp.115-116) 해방 이후 이러한 일제 말기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등과 구별되는 교육사상에 근간을 두려는 움직임이 우리 교육계에 있었고,(문교부(1947), p.39; 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1981), p.577;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1974), p.31) 듀이(J. Dewey)의 교육사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사상이 주창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조선어 문맹율이 매우 높았다. 1946년 2월 미군정청 성인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어 문맹율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52] 이러한 문해율(文解率) 상황은, 조선어를 모르고서는 학교 교육도 국민 교육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조선어 문맹율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학교 교수용어를 조선어로 정하여 일반명령 제4호, 법령 제6호[53]를 통하여 발포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일본어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어로만 교육하였던 조선인 교원 가운데는 조선어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였는데(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585-587 ;오천석, 2014: 376-377), 해방되자마자 이들이 당장 조선어와 우리말에 서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교원 및 교재와 관련된 문제 또한 교육 현장을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하였다. 먼저 교원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원 수 부족과 이들의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587).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교원이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중은 매우 컸으며 중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54] 해방 후 이들이 일본으로 귀국하자, 교원의 부족이 몹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55] 미군정 교육 당국은 은퇴했던 교원을 복직시키고, 단기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로 교원을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

52) "Investigations by the department indicate that approximately 8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lliterate in their own language." (정태수(1992), 상권, pp.120-121); 오천석(1947), pp.4-5

53) 미군정청 일반명령 제4호(1945. 9. 17), 법령 제6호(1945. 9. 29)

54) "8·15 광복 직전의 서울시 중등학교(각종학교 제외)에는 일인(日人)교원이 전체 교원수 1,009명의 약 63퍼센트에 해당하는 639명이나 되었었다." (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1981, 상권), p.583)

55) 1945년 1월 6일자 미군정 주간 보고서에는 서울의 한 학교가 8명의 교사와 800명의 학생으로 개학을 맞았다는 기록도 발견된다.("Middle schools opened 1 October 1945. Great problem finding educators to head schools. Also great teacher shortage. One school in Seoul opened with 8 teachers and 800 students." (정태수(1992, 상권), pp.280-281)

이 문제는 쉽게 극복되지 못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583-585 ;오천석, 2014: 377). 이에 수많은 학교에서 매우 적은 수의 교사들이 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교사 부족 상황에 대한 임시변통적 조치가 실시됨으로써 교사 충원은 점차 이루어졌으나, 어쩔 수 없이 자격 미달의 교사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와 교사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까지 발생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584).

다음으로 교재와 관련된 문제는, 조선어로 된 교재가 거의 전무한 당시 상황에 있었다. 일제 말 조선어 교재 출판과 유통이 금지되었다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할 각 교과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들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형편이었다(한종하, 이양우, 안희천, 1982: 54). 미군정이 들어선 후 일본어로 된 교과서는 금지되고 조선어로 된 교재를 사용해야 했으며,[56] 교사에 한하여서만 외국(일본) 교재를 사용할 수 있었다(오천석, 2014: 371; 정태수, 1992(상): 494-495). 그러나 수업에서 사용할만한 조선어로 된 교재는 찾기 어려웠으므로(이길상, 2003: 80), 교사가 판서한 내용을 받아적은 것과 등사한 자료 등이 교재로 여겨지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 1981: 581; 이종국, 2001: 219).

초·중등학교 개학으로[57] 조선어 교과서 편찬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미군정 교육 당국은 국정, 검인정 교과서 병용제를 시행하며 '교과서 조선어화'를 서둘렀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를 편찬해야 하는 미군정 교육 당국도 검인정 교과서를 편찬해야 하는 민간 출판계에서도 교과서 집필진 구인의 어려움, 인쇄시설 및 인쇄 전문인력의 심각한 부족((한종하, 이양우, 양희천, 1982: 54),[58] 인쇄된 교과서 배포 체계 부재와 교과서 판매상들의 외면(한종하, 이양우, 양희천, 1982: 54; 대한출판문화협회, 1987: 41-44; 정태수, 1992: (상권)82-85); 김상훈, 2014: 56-57)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각 교과 관련

56) 미군정청 일반명령 제4호, 법령 제6호;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일본 교재는 해방 후 불태워지거나 바다에 던져져 폐기되거나(이길상(2003), p.80) 일본으로 반송되었다.
57) 초등학교 9월 24일, 중등학교 10월 1일 개학
58) 이종국, 『대한교과서사:1948~1998』, p.102(한국 편수사 연구(I)(2000), p.97에서 재인용)

조선어 학술용어가 신속히 마련될 수 없었던 점도 큰 걸림돌이었다.[59]

우리 사회 구성원의 높은 한글 문맹율, 교원 및 교재 문제 등에 더하여, 당시 교육행정의 주체였던 미군정 문교부(학무국) 내에 E. N. Lockard[60]를 제외하고는 미군 가운데 교육 전문인력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실정도 해방공간 교육 현장에서의 일제 교육 잔재 청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문교부(학무국)의 미군 실무 담당관들 대부분이 교육 자체에 대하여서도 물론이거니와 조선과 조선의 당시 교육 상황에 무지하였고 실무에 필요한 우리말과 글조차 습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61] 따라서 미군정이 일제 잔재 청산의 내용을 담은 일반명령 제4호와 법령 제6호를 발표하긴 하였으나, 교육 당국 내 미군 중에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실현할 역량 있는 인력이 거의 부재하였던 탓에, 조선과 조선인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추진 및 수행함으로써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산 작업에 유의미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미군정 교육행정에 필요한 자원이 자국인 미국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윤종문, 2018: 326) 교사(校舍) 건립, 교사 재교육, 교과서 제작, 교구 및 교육 기자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도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해방공간 교육계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어렵게 하는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상황 안에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중요해지는 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청산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일제 잔재 청산과 신국가 건설을 준비하려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

---

59) '학술용어제정위원회'가 조직되긴 하였으나(조선일보 1946.11.20. 기사 '교과서에서 왜색용어말살-학술용어제정위원회를 조직') 용어가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음악용어의 경우 음악자문위원회가 한국어 음악용어 표준화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정태수(1992), 상권, pp.80-81); 금수현(1989), p.104) 기록된 내용(정태수(1992), 상권, pp.80-81)의 맥락으로 미루어 1946년의 일로 추측할 수 있다.

60) 미군정 초대 학무국장. 오천석은 그에 대하여 입대 전 미국 시카고의 한 시립 초급대학의 영어교수 경력이 있으며, 조선에 대한 지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기록하였다.(오천석(2014), p.365)

61) 오천석은 조선에 진주한 미군은 전투부대였고 민정을 위하여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결여되어 있고 조선에 대한 지식도 박약하였다고 파악하였다.(오천석(2014), pp.364-365)

은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으며, 각 분야의 청산 작업의 결과가 교육 분야로 수렴되기도 하였고 또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62]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은 우리 교육계뿐 아니라 미군정 교육 당국의 과제이기도 하였다. 즉 미군정 입장에서 일제 잔재 청산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조선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김진두, 김창옥, 2013: 77). 미군정의 행정력이 동원되면서 청산 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방 직후 우리 교육계는 일제 잔재 청산의 실제적 구현의 선봉에 서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일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미군정 통치의 시작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고 감당하였다고 하겠다.

1.2 교과별 교과서 조선어화 양상

교육계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의 구체화에 있어서 '조선어로 된 교과서 편찬'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I): 14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 및 중등학교 개학으로 교과별 교과서가 긴급하게 필요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역량이 부족한 교사들이 다수인 형편인 데다, 조선어가 서툰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이자 교사 지침서이자 교육내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막대했다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국정인 국어,[63] 국사, 공민, 지리 교과서는

62) 예컨대 철도, 건축, 체육, 복장, 생물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분야별 조선어 용어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이응호(1974), pp.87-103)

63) 해방 직후 국어과 교과서가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일치된 공감대가 있었다.(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0), p.87)

해방 직후부터 일찌감치 편찬 작업이 전개되어 국어 교과서는 1946년 1월 28일,[64] 국사 교과서는 1945년 12월 11일에 편수가 끝났으며,[65] 공민 교과서(『중등공민 제일이학년함께씀』과 『중등공민 제삼사학년함께씀』)은 1946년 4월 5일 발행[66]되었다.[67] 국어, 국사, 공민, 지리 등의 국정 교과서는 미군정의 행정적 주도와 지원으로 서둘러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즉 국정 교과서의 경우, 집필진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나 종이난 및 인쇄난이 심각했던 당시 인쇄 및 발행에 있어서나 검인정 교과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으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점검도 문교부(학무국) 내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교과서 심사에 대한 부담도 적을 수밖에 없다. 교과서가 편찬되고 인쇄, 발행, 배포로 이어지는 과정이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 용이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반면에,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집필되었다 하더라도 종이난, 인쇄난 속에서[68] 인쇄 종이와 인쇄소를 확보하는 일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고, 교과서 인쇄를 마친 후에 검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검인정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배포·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국정 교과서와는 상당히 다른 조건에 있었다. 민간에서 편찬된 교과서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인정 교과서 편찬은 결코 쉽게 시도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상황은 이러했으나 국정 교과서로 발행되지 않는 교과의 조선어 교과서 공급이 시급하였으므로 민간 편찬의 교과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

64) 정태수(1992), 상권, pp.82-83

65) 정태수(1992), 상권, pp.82-83

6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중등공민 상』(문교부(1947))의 판권지에 초판 발행일이 인쇄되어 있음.

67) 이 당시 중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국어, 사회생활(국사, 공민, 지리)은 국정으로 편찬 발행되었으며, 이외의 교과 교과서는 검인정제 하에 있었다.

68) 기본적으로 해방 후 무역이 정상적이지 않아 종이 조달이 어려웠고, 일본인들이 인쇄기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가 많고 인쇄 기술을 지닌 일본인들이 귀국을 하였기 때문에 인쇄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신국가 건설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수백의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치 관련 전단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배포되면서, 이에 동원되는 대량의 종이와 다수의 인쇄소로 인하여 종이난과 인쇄난이 가중되었다.(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40년사』, p.41)

중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검인정제 하에 있는 것은, 미술, 체육, 실업, 이과, 음악 교과서 등이었다.

미술 교과의 경우 개인, 연구회, 협회 등에서 낸 교과서들이 발행되었는데(이수나, 2013: 89), “일본말을 한국식으로 개작”한 정도이거나(김정, 1987: 8) “미술교과서에 새로운 교재나 내용을 연구하여 설정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교육정책 등 다각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던 교재 내용이나 형식을 대체로 차용 및 번안하여 사용”하였다고 평가된다(이수나, 2013: 104).

체육 교과의 경우, 1947년 9월 5일 최초의 중등학교 체육과 교과서 『체육과 보건』이 발행되었다. 저자는 당시 배재중학교의 교사이자 조선체조연맹[69]의 서무를 역임하던 강필상이었으며(임석원, 조문기, 2014: 27-28), 이 교과서는 당시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조선어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한자 사용을 극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어 당시 활발히 전개되었던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과 동일한 맥락에서 조선어 실용화를 선도하였다고(임석원, 조문기, 2014: 28) 평가된다.[70]

실업 교과의 경우, 검인정제 하 타교과 교과서에 비하여 개발이 덜되어 상대적인 빈곤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수요 부수가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필자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평가된다.[71]

이과 교과서는, 타 교과 교과서들에 비하여 늦은 시기에 조선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학, 대수, 물리, 화학 등의 교과의 경우 교사가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일본 교과서 내용을 우리말이나 우리글로 단순 번역하여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수업이 상당 부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이과 교과서 조선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방된 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일본 교과서를 그대로 사

69) 해방 직후에 조직된 ‘체육지도자회’와, ‘조선체육지도연구회’가 발전적 해체 후 결성된 단체이다.(김달우・오정석(1996), p.33)

70) 해방 후 많아진 여러 집회에서 일본어 구령과 체조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중에, ‘조선체조연맹’은 ‘조선어학회’의 감수를 얻어 우리말로 된 구령법과 체조 용어를 제정 발표하기도 하였다.(이응호(1974), p.95)

71) 이종국 『대한교과서사:1948-1998』(1998), p.205(이종국(2001), p.226에서 재인용)

용하는 일까지 적발되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72]

이처럼, 교육 분야 일제 잔재 청산의 구체화로서의 중등학교 교과서 조선어화 과정은 교과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조선어화 양상은 어떠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

『해방중등』 조선어화에는 당시의 음악교과서를 둘러싼 음악교육적 환경, 음악 교과의 특성 및 교육내용 등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민간 음악계 및 음악교육계의 동향,[73] 조선어 가창이 주된 교육 활동이었던 음악 교과의 여건에서 비롯된 조선어 노랫말 수록 음악교과서 공급의 시급성, 국어교육적 측면에서의 조선어 노랫말의 중요성, 검인정제 교과서라는 조건, '친일' 이슈 등이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들의 복합적 작용이 『해방중등』 조선어화의 특징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영향을 준 이들 측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첫째, 해방공간 시기 민간 음악계와 음악교육계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많은 음악 단체가 발족, 해체, 재편 등을 반복하면서 존재하였던 점을 들 수 있는데(민경찬, 2014: 170, 189-190), 이 음악 단체들의 성격 및 지향이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72) 경향신문, 1947.11.11. 기사 '교육조선에 이 무슨 수치'

73) 당시 음악계와 음악교육계의 경계는 현재와 비교하여 뚜렷하지 않았고 양쪽 분야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이들이 많아 양쪽 분야의 분위기나 동향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해방 이전까지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의 학교는 유일하게 이화여전뿐이었기 때문에, 입지를 다진 음악가도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음악가도 대학 수준이 아닌 중등학교의 음악 교사로 재직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두 분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음악계는 여러 음악 단체들이 발족되었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했고, 음악인들과 음악교육자들은 활동 유무와 별개로 음악 단체에 가입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민경찬(2014), p.170).

해방 직후부터 음악인, 음악교육자들이 음악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민경찬, 2014: 170). 단체에 따라 사상적 경향이나 음악관 등에 차이를 보였으나, 일제 잔재 음악을 청산하고 우리 문화 해방 및 건설을 지향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음악을 수립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뜻을 함께 하였다(민경찬, 2014: 190). 이는 여러 음악 단체들의 선언과 강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74] 소속 단체들의 기조나 강령은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편찬자들이 교과서 편찬 시 소속 단체의 이러한 지향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찬자들의 소속 단체의 지향과 강령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과 협력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임시중등음악교본(臨時中等音樂教本)』의 편찬위원과 발행인, 수록곡 관련 인물[75] 가운데 조선음악가협회[76](이하 음협)의 회원들이 상당수 참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77] 즉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위원인 최희남(崔熙南)과 한갑수(韓甲洙)[78], 그리고 이 교과서의 발행자

74) 예컨대 '조선음악건설본부(1945년 8월 16일 결성)'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산하였는떼 이 협회가 행동강령을 구체화하여 각 산하 단체에 내려보낸 방책 내용에는 '일제제국주의에 의한 일체의 야만적이고 기만적인 문화정책의 잔재를 소탕...'과 '민족문화의 계발과 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건설사업을 설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경찬(2014), pp.171-174) '조선음악가동맹(1945년 12월 출범)'의 강령에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음악의 소탕을 기함'과 '음악의 민족적 유산을 정당히 계승하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민경찬(2014), pp.180-181)

75) 시인, 역사자, 작사자 등의 노랫말 관련 인물과 작곡자을 통칭.

76) 1945년 10월 22일 결성, 1947년 1월 10일 해산하였다.(민경찬(2014), pp.116-117) 1946년 3월 이후 음악 단체의 상황을 볼 때, 음협에 '조선음악가동맹'의 맹원과 '대한연주가협회'의 회원도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으므로(민경찬(2014), p.184) 음협의 실질적 규모는 컸다고 할 수 있다.

77) 노동은은 『임시중등음악교본』을 '조선음악건설본부'에서 주력했던 해방가요의 중요 보급경로로 서술하여(노동은, 해방공간(1945~50) 우리 문화예술·음악 : 민족주의 음악 창출, 양대 산맥 이룩) 『임시중등음악교본』와 '조선음악건설본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준다. 그러나 '조선음악건설본부'는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분열, 2개월 만에 해산하였으므로(민경찬(2014), p.175-176) 1946년 5월에 발행된 『임시중등음악교본』와 직접적 관련을 짓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선음악건설본부'의 발전적 해소 후 만들어진 '조선음악가협회'(박영근, 음악계, 『1947 예술연감』(서울:예술신문사, 1947), p.31(민경찬(2014), p.172에서 재인용)와의 관련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78)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위원은 김광수(金光洙), 박용구(朴容九), 박은용(朴殷用), 서수준(徐守俊), 최희남(崔熙南), 차정순(車貞順), 한갑수(韓甲洙), 한규동(韓圭東), 이해남(李海男)이다.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서언(序言)')

국제음악문화사[79]의 설립자 중 한 명인 박태현(朴泰鉉)이 음협의 위원이었고, 수록곡의 작곡자들인 이흥렬[80] 과 김성태[81]도 위원이었으며 게다가 채동선,[82] 박태준,[83] 안기영[84]은 음협의 고문이었다. 이들의 해방가요와 가곡 등이 『임시중등음악교본』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음협에서 내세운 구호인 '악단의 대동단결'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음협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보다는 '악단의 대동단결'이라는 명분 아래 좌우익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였다. 음협 발족 후 곧이어 우익 성향의 음악 단체와 좌익 성향의 음악 단체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동 단체를 일정 기간 존속시켰다는(민경찬, 2014: 116-117) 점에서, 음협 음악가들이 지녔던 이 단체를 통한 좌우합작 지향 의지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위원 및 수록곡 관련 인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좌우합작적 성격과 관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85]

이렇듯 편찬자나 교과서 관련 인물들이 소속된 음악 단체의 성격 또는 지향 등이 교과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비단 『임시중등음악교본』뿐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 교과서 이외의 다른 교과서들에도 당시의 음악 단체들의 성격과 지향이 교과서 편찬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선어 가창이 주된 교육 활동이었던 해방공간 음악 교과의 여

---

79) 박용구는 구술을 통하여 '국제음악문화사'는 『임시중등음악교본』출판을 목적으로 최희남(崔熙南), 박태현(朴泰鉉), 그리고 본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8)

80) <농군의 노래>, <백로곡> 수록

81) <아침 해 고울씨고>, <독립행진곡> 수록

82) <한글 노래> 수록

83) <물새 발자국>, <미풍>, <사우>, <전원의 평화> 수록

84) (<해방전사의 노래>, <꽃밭>, <그리운 강남>, <마의태자>수록)

85) 박태현은 신문 투고한 글에서(경향신문, 1955.8.12. 기사 '문화십년 - 음악, 작곡, 연주, 평론의 발전상 (1)) 좌익, 우익, 민족진영 음악인들 가운데 대표격인 인물들을 열거하였다. 그의 글을 기준으로 하면,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위원 가운데 한갑수는 우익, 박은용은 좌익, 그리고 한규동・서수준은 민족진영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 교과서 수록곡을 살피면, 민족진영으로 분류되는 채동선・이흥렬・정영재・나운영・박태준, 좌익 계열로 분류되는 김순남・박은용・이건우 등의 곡이 이 교과서 안에 함께 실려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건이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일본어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데다[86] 가창 중심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집단적·반복적으로 노랫말이 발화 및 가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교과서 조선어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 진행을 위하여 조선어 노랫말로 된 가창곡이 수록된 교과서의 조속한 공급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국정제 교과서인 초등음악교과서는 1945년 12월 20일 탈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87] 다른 초등 국정 교과서들, 즉 『한글 첫걸음』과 『국어독본』(1945년 9월 1일(오천석, 2014: 374)), 공민 교과서(1945년 12월 16일(오천석, 2014: 374)), 국사 교과서(1945년 10월 15일(오천석, 2014: 375)), 지리 교과서(1946년 2월 15일(오천석, 2014: 375))와 비교해볼 때 음악교과서는 국어, 국사 교과서보다 2~3개월 뒤에, 공민 교과서와는 비슷한 때에 탈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88] 또한 예체능 교과 가운데 가장 앞서 편찬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과 및 실업 교과들보다도 앞서 있다.[89][90]

검인정제 교과서인 중등음악교과서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선어화 시기가 예체능 교과 가운데 가장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등음악교과서의 경우 1946년 5월 1일[91] 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중등 교과서 가운데 이과 교과, 실업 교과보다 앞서 있고, 예체능 교과 중 가장 앞서 있다. 국어 교과서(1946년 1월 28일 탈고(오천석, 2014: 374)), 국사 교과서(1945년 12월 11일 탈고(오천석, 2014: 374)), 공

86) 미군정청 일반명령 제4호(법령 제6호)
87) 정태수(2014), 상권, pp.82-83
88) 초등 국정 음악교과서인 『초등노래책』초판 발행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하면, 1946년 7월 20일 발행본(국립민속박물관(제오륙학년 소용), 국립한글박물관(제삼사학년 소용) 소장)이 최고본(最古本)으로 파악된다.
89) 정태수(2014), 상권, pp.82-83.
90) 미군정 학무국에서 국정 음악교과서 조선어화를 국어, 국사, 공민, 지리 교과서들과 함께 서둘러 시작한 이유에 대하여 문교부(학무국)나 편수국(편수과)에서 직접 밝힌 문서 자료는 없다.
91) 현재까지 발굴된 해방공간 중등음악교과서 가운데 최고(最古)인 『임시중등음악교본』의 발행일 기준.

민 교과서(제일이학년함께씀과 제삼사학년함께씀)(1946년 4월 5일 발행)[92]와 비교해보더라도 국사・국어 교과서보다는 4~5개월 뒤에, 공민 교과서와는 발행일이 한 달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47년 말까지도 서울 시내 여러 중등학교에서 일본어로 된 유기화학 또는 분석화학 교과서를 사용하여[93]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때 이과 교과서보다도 발행 시기가 훨씬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초등 및 중등음악교과서의 집필 또는 발행 시기는, 국어・국사・공민 등의 교과 교과서보다는 다소 늦지만, 다른 예체능 교과와 이과 및 실업 교과 교과서보다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 노랫말로 가창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서둘러져야만 했던 초・중등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과정은, 문교부 편수국에서 교과서 편찬과 함께 추진했던 '우리말 도로찾기' 사업을 위시한 국어교육 방안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 셋째 항목에서 이어 서술한다.

셋째, 음악교육에서 가창곡의 노랫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적 측면이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말과 글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 노랫말은 매우 효과적인 교재이자 도구로서의 요건을 지닌다. 노랫말을 시(詩)의 한 형태로 본다면, 『해방중등』의 조선어화로 인하여 해방공간 중등학교 학생들은 조선인이 창작한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시문학(詩文學) 형태의 조선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중등음악교과서 한 권당 가창곡이 대개 수십 곡 수록되어 있는 바, 그 수만큼의 다양한 시문학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은 가창곡을 통하여 다종다양한 시문학 형태의 조선어를 감상하고 가창하며, 곡조와 함께 암기하여 습득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가르쳐주면서 전파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 시문학 형태의 노랫말을 통하여 구어(口語)교육과 문어(文語)교육 모두 가능하다. 구어적 노랫말, 문어적 노랫말이 있기 때문에 구어적 표현과 문어적 표현을 다 접할 수 있다. 또한 노랫말을 통하여서는

92) '중등공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용 참고. 2022.10.23. 23:44 접속
93) 경향신문, 1947.11.11. 기사 '교육조선에 이 무슨 수치'

‘글교육’ 및 ‘말교육’이 가능하다. 노랫말은 악보에서는 시문학 즉 ‘글’로서, 가창 시에는 ‘말’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노랫말이 담고 있는 다양한 단어 및 표현들이 글의 형태로서도 학습될 수 있으며, 가창을 통하여 발화(發話)되면서 말의 형태로서도 학습될 수 있다.[94] 이렇듯 조선어 노랫말이 지니는 국어교육적 측면의 효용성에 따른 ‘음악 교과의 국어교육적 기능’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이 국어교육적 측면이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전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음악교과서 조선어화가 서둘러졌을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95]

미군정 문교부(학무국)가 음악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적 측면에 관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편수국(편수과) 내 첫 번째 음악 교과 담당 편수관으로 박창해(1916~2010)를 임명했다는 점이다.[96] 음악교과서 편수관으로 음악인 또는 음악교육자가 아닌, 문과 출신의 중등학교 국어 교사 경력을 지닌 박창해가 임명된 점은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있어서 언어적 측면이 중요 선결 과제라는 인식이 문교부(학무국) 내에 존재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미군정 문교부(학무국) 편수국(편수과) 내 각 교과 편수관은 교과서 집필, 교정, 검인정 심사 등 해당 교과 교과서 관련 행정을 담당하였다(민성희, 2015: 107, 112; 정태수, 1987: 76-77, 82-83;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I): 78). 이 시기 음악교육·음악교과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교수요목이 발표되지 않았고 관련 문서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97] 미군정 학

94) 이는 왜 『해방중등』 편찬 시 여러 어문학자들이 음악교과서 수록 조선곡 작사, 그리고 외국곡 노랫말 번역/작사 작업에 참여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95) 제4차 조선교육령기 음악교육의 실제에서, ‘가곡’ 교육에 있어서 발음과 청음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견된다. 즉 “음악에서의 발음은 그 자체가 국어(일본어-연구자 주) 발음 지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다.(八束周吉, 『朝鮮國民學校教則の實踐』(1941), p.264-267(오지선(2003), p.107에서 재인용)) 이는 ‘음악교육을 통한 언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일제강점기 음악교육자들은 일제가 음악교육을 통하여 언어교육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음악교육의 언어교육적 효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해방공간 시기 ‘음악교육을 통한 언어교육’은 당연스럽게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96) 미군정청 관보 Vol. No.2, pp.48-49. 정확히는 편수관보로 임명됨.

97) 교과서 15 ‘머리ㅅ말’ 중 “이 책은 새로 제정한 문교부의 음악 교수요목에 의하여...(중략)... 엮은 것이다.”, 교과서 18 ‘머리말’ 중 “이 책은 문교부 제정 중등음

무국이 어떤 인물을 음악교과서 관련 행정 담당자로 임명하였는지를 살피는 일은 음악교육・음악교과서에 대한 학무당국의 지향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98]

박창해는 당시 편수국장이던 최현배[99]의 연희전문학교 제자로 문과 출신이나,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교육자로서의 경력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활발한 연주 활동과 높은 음악 수준으로 이름난 '연희전문학교 음악부'에서 활동하였으며(연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2006: 11)[100] 졸업 후 1939년부터 1944년까지 만주 길림성 용정[101] 은진중학교에서 '조선어'와 '음악' 교과 교사로 재직한 바 있다(오새내, 김양진, 2014: 286).[102] 이렇듯 박창해는 음악 활동 경험과 함께 국어교육 및 음악교육 경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음악교육을 통한 국어교육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악 새 교수요목에 좇아서 만든 것이다.", 교과서 22의 '머리말' 중 "이 책은 문교부 제정 중등 음악 교수요목에 의하여...(중략)... 편찬한 것이다", 교과서 23의 '머리말' 중 "이 책은 문교부 제정 중학교 음악 새 교수요목에 준하여 새로 개편하였다." 등의 내용은 해방공간 시기 문교부 제정 중등학교 수준의 음악과 교수요목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문교부 제정 중등학교 음악과 교수요목'이 발포되었다는 공식적 기록이나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교과서 머리말에는 이 교수요목이 실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명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다만 당시 '중등학교 음악과 교수요목' 제정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을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

98) 그간의 해방공간 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에서 음악교과 담당 편수관이나 박창해를 조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살피게 되었다.

99) 당시 조선어학회의 상무 이사(최근학(1990), p.33). 일제강점기 『우리말본』・『한글갈』 등을 저술한 국어학자이자 국어 운동가이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방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1945년 9월부터 1948년 9월까지, 그리고 1951년 1월부터 1954년 1월까지 문교부(학무국) 편수국(과)장을 두 차례 지낸 바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현배', 2022.10.23. 23:58 접속)

100) '1936년 연희전문학교 관현악단과 합창부 명단'에 트럼본 및 제2 테너 파트 연주자에 박창해의 이름이 올라 있음.

101) 오새내・김양진(2014)의 논문에는 은진중학교가 '연길(延吉)' 소재로 되어 있으나,(p.286) '길림성(吉林省) 용정(龍井)' 소재로 확인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은진중학교', 2023.6.17. 18:53 접속.

102) 박창해에 의하면 1945년 10월에 최현배, 유억겸(당시 문교부장), 오천석(당시 문교차장)을 만난 후 편수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오새내, 김양진, p.289), 연희전문학교에서의 박창해의 음악부 활동과 전공 관련 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는 스승 최현배가 추천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박창해가 지닌 여러 면모 가운데 그의 언어교육관은 특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편수국(과)장 최현배가 속해 있던 '조선어학회'가 미군정 문교부(학무국)의 국어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103] 그런데 박창해는 이 학회 소속이 아니었으며, 그의 국어교육관도 조선어학회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다. 즉 조선어학회가 '문자 교육'에 중심을 둔 데에 반하여,[104] 박창해는 '언어 교육', '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오새내, 김양진, 2014: 292) '의사소통 중심, 학습자의 생활 중심 언어교육관'(오새내, 김양진, 2014: 283)을 지니고 있었다.[105] 조선어학회 소속도 아니고 국어교육관 면에서도 조선어학회의 기조와 차이를 보이는 박창해가 음악 교과를 담당했다는 점은 상당히 주의를 끈다. 최현배의 박창해 기용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 교육을 중시하는 조선어학회 인물들과 달리 "국어교육의 기초가 좋은 말을 가르치는 말 교육에 있는 것"[106]이라는 국어교육관을 가진 박창해가, 다양한 언어와 풍부한 언어 표현이 담긴 노랫말을 가창 학습을 통하여 통째로 습득할 수 있는 음악 교과의 편수관으로 임명된 사실은, 편수국(과)장인 최현배와 미군정 학무

---

103) 문교부(학무국) 편수국(편수과) 내 최현배(편수국(과)장), 장지연(부편수국(과)장 겸 편수관)이 조선어학회 회원이었으며, 해방 후 최초로 발간된 긴급 임시 교과서인 『한글 첫 걸음』(군정청 학무국 발행)을 비롯하여 『초등 국어교본』, 『중등 국어교본』 등이 모두 조선어학회에 의하여 집필 및 편찬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104)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당시 조선어 문해율이 매우 낮은 것을 이유로 '문자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오새내, 김양진(2014), p.295, pp.311~312)

105) 오새내·박양진은 박창해의 '문자 교육이 아닌 언어 교육, 의사소통 중심 교육' 중시를 오천석의 견해와 닿아 있다고 해석하였다. 오천석이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따라 생활 본위 교육, 아동 중심 교육, 교육내용과 방법의 민주화를 주장하였는데, 박창해의 초등국어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에 이런 내용이 구현되어 있다는 본인들의 해석을 근거로 하였다.(오새내, 김양진(2014), p.291) 그들의 주장대로 박창해가 오천석과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으며, 오천석을 비롯한 "미국 일변도의 인사들"이 미군정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교육관'을 내세우며 교수법 교체에 역점을 두었던 '새교육운동'(이강훈(2003), pp.99-100)에 찬동하고 있었다면, 그의 음악 교과 편수 작업에도 이 '새교육운동'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음악 교과 편수관이 중등음악교과서를 직접 집필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측면의 영향을 주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106) 박창해, '새국어교육의 당면과제 - 신학년 신학기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보내는 글', 신교육건설, 창간호(1947년 9월호)(오새내, 김양진(2014), p.292에서 재인용)

당국이 음악교육을 통한 국어교육, 즉 노랫말을 통한 다각도의 국어교육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만든다.[107] 이 시기 조선어로 된 교과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 보급 목적을 겸하는 특징을 지닌다는(이종국, 2001: 125) 관점에서 보면, 음악교과서의 기획·편찬·편수에 국어교육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해석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등음악교과서 편수, 검인정 심사 과정에서 박창해가 수록 가창곡 노랫말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108]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가 국어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노랫말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어교육의 기초가 좋은 말을 가르치는 말 교육에 있다는 그의 국어교육관이 편수 및 검인정 심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109]

요컨대, 음악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적 측면이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우리말 도로찾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미군정 문교부(학무국) 편수국(편수과)에서 음악교과서 수록 노랫말이 국어교육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국어교육 및 음악교육 경력을 지닌 박창해는 음악교육을 통한 국어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좋은 말 교육'을 중시하는 박창해가 다양한 언어와 풍부한 언어 표현이 포함된 노랫말을 습득하는 교육이 가능한 음악 교과의 편수관으로 임명된 데에 학무당국의 '음악교

107) 학무국 내 특수과목실(Office of Special Subjects)에 1945년 11월 26일 음악계가 설치되었고, 여기서 음악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정태수(2014), pp.66-67, pp.74-75) 특수과목실을 두고 처음 담당하게 한 교과가 음악이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음악계가 수행한 일이나 설치 목적을 알 수 있는 문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미군정청 학무당국이 음악교육을 통하여 이루려는 지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108) 박창해에 대한 국어학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박창해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것(오새내, 김양진(2014))도 있으나, 그의 음악교과서 편수관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109) 박창해는 정부 수립 후 첫 초등국어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1948. 10 발행)의 저자로서(오새내, 김양진(2014), p.284) 문자 교육이 아닌 언어 교육, 생활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육을 통한 국어교육’에 대한 의도가 존재했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검인정제(檢認定制) 하 교과서라는 점이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인정제 하의 다른 교과 중등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110] 음악 교과에 있어서는 해방 이후 제1호 검정 중등음악교과서가 이후에 편찬 발행된 검인정・비검인정 교과서들에 두루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제1호 검정(檢定) 중등음악교과서인 『임시중등음악교본』은 해방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첫 중등음악교과서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검인정 심사를 첫 번째로 통과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해방공간 시기 중등음악교과서들의 편찬에 있어서 강력한 참고자료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수록곡들이 다른 여러 교과서에 많든 적든 수록 악보 그대로 또는 약간 다른 형태로 차용되어 실린 사실이 그 방증이라 하겠다.[111] 이 차용의 결과로 『임시중등음악교본』이 지닌 여러 특징과 『해방중등』에서 발견되는 특징 간에 적지 않은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가 전국 각지의 학교와 출판사에서 다수 출판 발행된 점도 『해방중등』이 검인정제 하 교과서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쇄 후에야 검인정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당시의 검인정 심사 제도,[112] 검인정 심사 통과의 어려움(전진성, 1948: 44), 검인정 교과서 공급 부족 등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해방공간 타교과 중등 교과서와 비교해볼 때, 『해방중등』은 다양한 편찬 주체에 의하여 매우 여러 종이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해방

---

110) 타 교과 중등 교과서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11) 『임시중등음악교본』 수록 ‘조선곡’ 총 22곡 중 〈해방전사의 노래〉 1곡 외의 모든 곡이, 교과서 20 외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다. 또한 ‘외국곡’ 총 28곡 중 17곡이, 교과서 2・3・4・8 등 4종 외의 모든 교과서에 동일 노랫말로 실려 있다.

112) 조풍연, ‘(출판시감)중등교과서문제 - 교과서협회신설에 기대함’, 민성 4권 6호. (이응호(1974), p.304에서 재인용)

공간 시기 검인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검인정 교과서가 사용되었던 바(허강, 2004: 90;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I): 85)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닿지 않는 중등 음악교육 현장에서 긴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유로, 2020: 170). 조선어로 된 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가 편찬되는 동안, 교과서가 배포 보급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동안에도 학교 음악 수업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었을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의 역할은 해방공간 중등음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대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비검인정에 비하여 검인정이 확인되는 교과서가 인쇄 상태나 수록 악보의 정확성 등에서 비교적 양호하긴 하나, 검인정 교과서들 간 또 비검인정 교과서들 간 차이가 커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 검인정과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 간의 확연한 질적 차이를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교과서 구성면에서 '악보 모음집'과 같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종합적으로 볼 때 해방 후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교과서의 외적·내적 체재는 점차 조악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종이난과 인쇄난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방 직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종이난도 인쇄난도 1948년 총선거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대한출판문화협회, 1987: 41, 64; 정태수, 1992: 174-175, 738-739). 그럼에도 중등음악교과서의 외적·내적 체재가 점차 나아졌다는 것은 음악교육자, 편찬자, 출판사 등의 노력과 시도가 지속적으로 기울여졌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검인정제도로 인하여 『해방중등』 교과서 간 참고·차용이 이루어진 측면이 발견되며, 비검인정 교과서가 다수 출판되면서 다종다양한 『해방중등』 양상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인정 및 비검인정 중등음악교과서의 외적·내적 체재는 편찬자와 음악교육자들의 노력과 시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악한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친일(親日)’ 이슈가 『해방중등』 한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친일’ 이슈에 대하여서는 『임시중등음악교본』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는데, 이는 이 교과서가 ‘해방 후 제1호 중등음악교과서’이고, 해방 직전까지 중등 음악교사 활동을 하였던 이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또한 유일하게 ‘친일파 작품 배제’가 선곡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씻고 조선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기본적 목표를 둔 해방공간 각 교과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친일’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였을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사회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은 친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친일파 배제를 주장하기도 난감하였을 것이다. 친일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들도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일적 인물을 강하게 비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사회적으로 친일적 인물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해방공간은 얼마 전까지 적극적 친일을 일삼았던 이와 항일을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이가 동일 분야에서 공존하며 함께 일해야 했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사회 활동을 하였던 즉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주로 교과서 편찬을 하게 된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정태수, 1992(상): 82-83), 교과서와 관련된 친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위원들이 ‘친일파 작품 배제’ 원칙을 교과서에 명시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서언(序言)’에는 이 교과서의 ‘선곡요령(選曲要領)’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중 세 번째 요령이 “이미 발표된 예술가곡 중 친일파적 작사자, 작곡자의 가곡은 이를 제외할 것”이다. 즉 이 요령은 ‘친일파에 의하여 만들어진 노랫말과 곡은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친일적 내용의 노랫말과 곡’은 기본적으로 배제의 대상이었겠으나, 친일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친일파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은 여지없이 배제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방 직후 다수의 조선인 교사들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교단을 떠났다(이응호, 1974: 216-217, 219). 낮은 봉급으로 인한 전직(轉職)[113](국성하, 2018: 21-22), 또는 일본인 교원이 축출되어 충원이 필요한 상급학교로의 이직도[114] 주요 원인이었으나, 해방 직전까지 일제 교육정책에 따라 조선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조선 문화 말살, 황국신민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해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제 잔재 청산, 조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 또한 그들을 교단에서 떠나게 한 이유였다(금수현, 1989: 9 ; 정태수, 1992(상): 654-655).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자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의 구성원들도 중등학교 음악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였기 때문에 당시의 여느 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딜레마에 처해있었고, 해방 직전까지 일제 식민 음악교육을 담당했던 이들이 소위 '친일파 배제'를 교과서 편찬 기준으로 삼는 일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기준을 내세운 편찬위원들에게 '친일파 배제'를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것은 당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친일파 배제'를 선곡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 역시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교단에 섰던 음악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는 서울 지역 중등학교 음악 교사들이 모여[115] 만든 단체인 만큼 일종의 '대표성'을 지닌다. 해방 전까지 대학 수준의 학교 가운데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곳은 '이화여전' 뿐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 음악계를 움직이던 주요 음악인들 가운데 해방 당시까지 대학 수준의 학교가 아닌 서울 지역 중등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한 이들이 많았다.[116]

---

113) 경향신문, 1949.6.9. 기사 '보라 교원들 참상'
114) 경향신문, 1947.8.23. 기사 '여적(餘滴)'
115) 박용구는 서울 지역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이 거의 다 모였으며 30명 정도였다고 구술한 바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8)
116) '서언'에 표기된 편찬위원들(9인) 가운데 최희남(경기중), 김광수(진명), 한갑수(상명), 박용구(동흥실업), 서수준, 차정순, 한규동 등도 일제강점기부터 활약상이 확인되는 음악인이었다.

따라서 주요 음악인들이 다수 포함된 이 위원회가 채택한 교과서 편찬 기준 및 편찬 방식에 전국의 음악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가 지니는 '대표성'과 이들이 편찬한 『임시중등음악교본』이 지니는 '해방 이후 첫 중등음악교과서'라는 의미 때문에, '친일파 작품 배제'라는 이 선곡요령이 음악교육자들의 '친일' 이슈 관련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중등음악교사들을 대표하여, '음악교육에서의 일제 잔재 청산을 원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음악교육자들의 입장 표명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자신이 해왔던 교육에 대한 반성이자, 동료 중등 음악교육자들을 향한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동참 촉구로도 읽힌다.

이 교과서가 발행된 때가, 1946년 5월이므로 여전히 친일 인사들이 여러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적' 편찬 기준을 명시하는 데에 편찬위원들의 용기가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일제 식민 음악교육이 아닌 조선 음악교육을 펼쳐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곡요령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렇듯 '친일파 (작품) 배제'를 선곡 요령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인사의 작품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중등음악교본』 수록곡의 노랫말 관련 인물과 작곡자 가운데에는 현재 소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불리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117] 해방공

117) 현제명, 홍난파(홍난파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Ⅲ의 1.2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임학수 등을 들 수 있다. 2009년 11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일제강점기 말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5명에 관한 명단인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은 공히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위키백과,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2023.1.5. 15:55 접속) '친일인명사전'(2009년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기준으로는 김동진, 김성태, 안익태, 이홍렬, 현제명, 홍난파(음악)/임학수가 해당한다.(위키백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문화/예술', 2023.1.23. 17:54 접속)

간과 현재의 ‘친일 행위’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당시의 ‘친일파’와 현재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교과서 편찬위원이었던 박용구는 구술에서(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239) “친일파는 그만두자”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현제명’ 곡은 한 곡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친일의 중(重)한 정도를 ‘현제명’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현제명이 해방공간 시기에도 현재에도 대표적 친일 음악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그의 곡이 배제된 데 대하여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친일 행위가 적지 않게 드러나 있는 다른 작곡자와 노랫말 관련 인물들의 작품은 어떤 이유로 수록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해방 직후라는 시기 상황으로 볼 때, 이 ‘친일’ 관련 이슈는 『임시중등음악교본』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 이후에 발행된 모든 『해방중등』 편찬에 있어서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방중등』 수록곡의 노랫말 관련 인물과 작곡자들 가운데에는 해방공간 기준으로도 ‘친일 행위자’로 분류되는 이들, 예컨대 바로 앞에서 언급한 현제명도 포함되어 있다.[118] 당시에는 ‘친일 행위자’의 기준이 가시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고, 또한 해방 이전부터 활동해온 이들 가운데 ‘친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은 다른 이의 ‘친일’에 대하여 엄격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사회 활동이 많았던 유명 예술인일수록 더욱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위 ‘친일파’의 노랫말과 곡이 『해방중등』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Ⅱ장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저항하면서 조선을 되찾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었던 덕분에 해방공간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될 수 있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청산 작업이 ‘단순한 제거’가 아닌

118) 교과서 7・13・14에 현제명의 노랫말과 곡이 수록되어 있다. (외국곡 번역 노랫말의 경우, 교과서 8・9에 수록되어 있음)

‘되찾기’와 ‘새로 만들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격화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계는 청산 작업을 주도해야 할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으나, 높은 문맹율, 교원 수 및 역량 문제, 조선어로 된 교재가 거의 전무한 형편, 미군정 인력·재정 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계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교과서 조선어화’였는데, 중등 교과서의 경우 국정제인 국어·국사·공민·지리 교과서 등은 일제 잔재 청산 및 조선 교육 정체성 정립의 지향 양상을 나타내며 일찌감치 조선어화되었으나, (음악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인정제 교과서들 가운데에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던 일본 교과서를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조선어화 된 경우가 많았는데, 교과에 따라서는 조선어화되지 않은 채 일본어 교재가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검인정제 교과서 가운데에는 ‘조선 교육적 정체성’을 담은 교과서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부족한 교과서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해방중등』 조선어화 양상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해방 직후의 음악계·음악교육계에 존재했던 음악 단체들의 성격 및 지향, 가창 중심 음악교육 상황으로 인한 조선어 노랫말에 대한 긴급한 필요, 가창곡의 노랫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적 효용성, 검인정제 교과서라는 조건, 해방 직후의 친일 이슈 등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언급한 국가적 상황, 교육계의 상황, 음악교육계의 상황 속에서 조선어화된 『해방중등』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Ⅲ.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의 성격 고찰

『해방중등』수록 가창곡은 크게 ‘조선곡’[119]과 ‘외국곡’[120]으로 나눌 수 있다. 『해방중등』수록 외국곡에서 ‘일본곡’[121]은 배제되어 있다. 작곡자 미상의 곡들이 있긴 하나, 서양 곡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곡으로 판단할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일본곡 배제는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였을 수밖에 없으나, 이 일이 간단하지 않았음을 박용구의 구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수록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방 이전에 많이 불린 〈낙화암〉[122]의 작곡자 양전정[123]을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고 편찬위원들이 이 곡을 실을 뻔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239). 이 곡과 같이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어 노랫말에 일본인이 곡을 붙인 가창곡들의 경우[124] 조선곡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곡 배제**를 위한** 편찬자들의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23종 수록 가창곡 가운데 일본곡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편찬자들이 일본곡 배제를 중요 과제로 여겼으며 이 과제 수행에 공을 들

119) ‘조선곡’은 본 논문에서 ‘노랫말과 곡이 조선인에 의하여 창작된 가창곡’의 개념으로 사용한다.(각주 22) 내용 재게재)

120) ‘외국곡’은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는 ‘원곡의 노랫말과 곡이 외국인에 의하여 창작된 가창곡’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서술 맥락에 따라 ‘원곡의 곡조는 유지하고 있으되 노랫말이 일본어 또는 조선어로 번역 또는 작사된 외국곡’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외국곡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첫째, 외국인 작곡자가 명시된 경우, 둘째, 외국인 작곡자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연구자가 외국 곡조임을 확인한 경우, 셋째, 외국인 작곡자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노랫말 관련 인물명과 함께 ‘역시’·‘역사’ 등 번역 관련 표기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각주 23) 내용 재게재)

121) ‘일본곡’은 본 논문에서 ‘노랫말과 곡조가 일본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122) 이광수(李光洙) 시, 양전정(梁田貞) 작곡

123) 梁田貞(야나다데이)(1885~1959). 일본 북해도 출신 작곡가. ウィキペディア, ‘梁田貞’, 2022.11.25. 05:49 접속.

124) 이러한 곡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예컨대 창가 가운데에서... 조선인들이 지은 조선어 노랫말을 공모하여 일본인들이 작곡한 일들도 있고... 창가 공모 시 지원 자격조건에 일본인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동아일보 ‘보통창가 공모’ 1923.11.27.; 동아일보 ‘경방단가를 일반에것 공모’ 1939.8.9.)

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을 ‘조선곡’ 및 ‘외국곡’으로 대분하여 각 범주에 포함된 곡들의 성격을 고찰한다. 첫째, ‘장르’ 고찰에서는 수록곡의 종류와 종류별 비중, 둘째, ‘작곡자’ 고찰에서는 수록곡의 작곡자와 작곡자별 곡 비중, 셋째, ‘노랫말 관련 인물’ 고찰에서는 수록곡의 작시/작사자(조선곡)·역사/작사자(외국곡)와 인물별 수록 노랫말 비중, 넷째, ‘작곡/발표·번역/작사 시기’ 고찰에서는 수록곡의 ‘작곡/발표 시기’(조선곡)·‘번역/작사 시기’(외국곡)와 함께 시기별 ‘작곡/발표된 곡’(조선곡) 또는 ‘번역/작사된 노랫말’(외국곡)의 수록 비중을 살핀다.[125]

1. 조선곡 고찰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 총 681곡 가운데 ‘조선곡’은 97개 곡조[126]로 된 203곡으로, 전체 수록 가창곡 중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해방 직후 아직 국가의 교육철학이 정립되지 못하여 교육과정도 마련되지 않은 여건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학무당국으로부터 제시된 바 없었고, 명확한 심사 기준이 공시(公示)되어 있지 않은 검인정 심사만 존재했던 상황이었다.[127] 따라서 편찬자들은 해방공간 음

125) 넷째에서 조선곡과 외국곡에서 고찰 대상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곡의 경우 노랫말이 처음부터 ‘노랫말’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비하여 ‘시’로서 존재하다가 곡이 붙으면서 노랫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시·작사 시기보다 작곡·발표 시기가 음악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언제 작곡/발표된 조선곡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본 고찰 목적에 부합한다. 한편 외국곡의 경우에는 노랫말이 번역 또는 작사된 상태로 『해방중등』에 수록되기 때문에, 원곡이 작곡/발표된 시기보다는 『해방중등』에 수록된 노랫말이 번역/작사된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고찰의 목적에 부합한다.

126) 조선곡 97개 곡조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 27명의 작곡자에 의한 94개 곡조, 그리고 민요 2개 곡조(<도라지타령>, <천안삼거리>), 대종교 <개천가> 1곡조가 포함되어 있다.

127) 미군정 문교부(학무국)는 국정교과서를 편찬하였으며 검인정 교과서 심사를 주관하기도 하였으나, 이 학무당국이 음악교과서 편찬 또는 검인정 심사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

악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당시의 음악교과서 편찬 관련 여건을 고려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편찬 작업을 수행해야 했을 것이며, 교과서 내 조선곡과 외국곡의 비중에 대한 결정 또한 편찬자들이 세운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해방중등』 23종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조선곡과 외국곡의 비중'은 편찬자들 스스로 세운 기준의 다양성에 따른 양상으로 해석된다. 『해방중등』 23종 교과서별 '조선곡' 비중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해방중등』 23종 교과서별 '조선곡' 비중(비중 순위 순)

비중 순위	교과서 (번호)	교과서명	총 곡수	조선곡의 곡수 및 비중(%)
1	6	『중학음악교본』(1947)	29	17 - 약 59%
2	3	『여자중등음악교본 상』(1947)	15	8 - 약 53%
3	23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1950)	31	15 - 약 48%
4	1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50	22 - 44%
5	9	『음악교본』(1947 추정)	42	18 - 약 43%
6	10	『중등음악교본』(1948)	50	21 - 42%
7	20	『중등음악교본 2』(1949)	30	10 - 약 33%
8	12	『중등음악교과서』(정부수립이전 추정)	35	11 - 약 31%
9	5	『여자중등음악교본 하』(1947)	16	5 - 약 31%
10	7	『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7)	27	8 - 약 30%
11	22	『중등음악교본 1』(1950)	30	8 - 약 27%
12	19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1949 검정)	34	9 - 약 26%
13	21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1950 인정)	38	10 - 약 26%
14	1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1948)	30	7 - 약 23%
15	2	『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6)	27	6 - 약 22%
16	14	『중등음악 3』(1948)	24	5 - 약 21%
17	13	『중등음악 2』(1948)	21	4 - 약 19%
18	15	『중등음악교본 1권』(1948)	20	3 - 15%
19	8	『중등음악』(1947)	62	8 - 약 13%
20	18	『중등음악 1』(1949)	24	3 - 약 12%
21	16	『중등음악교본 2권』(1948)	21	2 - 약 10%
22	17	『중등음악교본 2권』(1948.8.30.이후)	22	2 - 약 9%
23	4	『여자중등음악교본 중』(1947)	12	1 - 약 8%

되지 않는다. 음악 교과의 경우 해방공간 시기 동안 교수요목도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미루어볼 때, 이 기준들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과서 수록곡 중 조선곡의 비중’별 교과서 수와 해당 교과서를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교과서 수록곡 중 조선곡 비중’별 교과서 수와 해당 교과서

	교과서 수록곡 중 조선곡 비중(%)	교과서 수	교과서(번호)
1	1% 이상 ~ 10% 미만	2	4, 17
2	10% 이상 - 20% 미만	5	8, 13, 15, 16, 18
3	20% 이상 - 30% 미만	6	2, 11, 14, 19, 21, 22
4	30% 이상 - 40% 미만	4	5, 7, 12, 20
5	40% 이상 - 50% 미만	4	1, 9 10, 23
6	50% 이상 - 60% 미만	2	3, 6

<표 Ⅲ-1>과 <표 Ⅲ-2>를 통하여 볼 때, 『해방중등』 23종 개별 교과서의 총 곡수 중 ‘조선곡’의 비중은 8% ~ 59%의 범위에 있다. 조선곡이 1곡도 실리지 않은 교과서는 없으며, 조선곡의 비중이 ‘20% 이상 - 30% 미만’ 비중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6종으로 가장 많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중등』 전체 수록곡 내 조선곡 비중은 약 30%이나, 교과서별 조선곡 비중 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3종 모든 교과서에 빠짐없이 조선곡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곡을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편찬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128] 교과서별 조선곡 비중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로 미루어 당시 중등음악교과서 편찬자들 간에 조선곡 비중에 대한 일종의 합의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곡 비중이 비교적 높은(40% 이상) 교과서 6종을 ‘편찬자’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1946)과 교과서 10『중등음악교본』(1948), 그리고 교과서 9『음악교본』(1947 추

128) 예컨대,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서언’ 가운데 조선의 새로운 예술가곡, 건국적 가요를 수록하고자 했다는 내용, 김신덕 『여자중등 음악교본』 상중하(上中下)권 ‘자서(自序)’의 “... 조선 작곡가의 명곡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곡을 엄선”, 『중학 음악교본』 ‘서언’의 “우리 예술가곡은 본서를 위하여 새로히 작곡한...”, 『중등 음악교본 1』(최희남, 1950) ‘머리말’의 “가곡 교재는 우리나라의 것을 비롯하여...”,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1950, 5, 10) ‘머리말’의 “우리 신작 예술 곡조를 특히 이 교본을 위하여 새로 작시와 작곡한 것을 많이 모았다.”, 『중등음악』(오창진, 1947) ‘머릿말’의 “부록으로 조선인 작곡가의 작품 수편과...” 등의 부분에서 편찬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정) 등 세 교과서의 조선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교과서 1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장 먼저 편찬된 교과서 1의 조선곡 비중이 44%인데, 교과서 10은 교과서 1의 개정판 형태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두 교과서의 수록곡 구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조선곡 비중 또한 유사하다. 또한 교과서 9의 경우 수록곡 총 42곡 가운데 28곡(2/3)이 교과서 1의 수록곡으로, 교과서 1의 수록곡이 상당 부분 참고 또는 차용되어 있는데(이유로, 2020: 162), 수록 조선곡을 살펴보면 교과서 9의 18곡 가운데 14곡이 교과서 1의 수록곡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교과서의 조선곡 비중의 경향성은 교과서 1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되므로, 교과서 1의 편찬자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이 경향성의 이유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편찬위원회가 작성한 교과서 1의 '서언(序言)'에서 조선곡의 비중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나, 교과서 양상에서 발견되는 특징들 즉 조선 '예술가곡'과 '애국가곡'[129]으로 분류되는 곡들이 다수 수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교과서 1의 개정판 형태로 교과서 10이 발행되면서 수록곡에 다소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조선곡의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가 조선곡 수록 및 비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과서 6과 23의 편찬자는 각각 '전국교육음악협회'와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로 다르나 공히 '국민음악연구회'에서 발행되었다. 이에 '국민음악연구회' 발행 교과서들의 조선곡 비중에 어떠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피기 위하여 이 두 교과서 외에 국민음악연구회에서 발행된 3종의 교과서 11, 19, 21의 경우를 확인해보면 각각 23%, 26%, 26%의 높지 않은 비중을 보이는 바,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음악연구회가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의 조선곡 수록 비중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3『여자중등음악교본 상』(1947)의 경우 편찬자 김신덕이

129) 목차의 "애국가곡" 범주에 <애국가>, <한글 노래>와 다수의 해방가요, 건국가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언'의 선곡 요령 중에 '해방 후의 건국적 가요를 가급적 수록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자중등음악교본』 상중하 시리즈 가운데 특히 상권(上卷)에 조선곡을 집중적으로 수록하면서 조선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상권(上卷)의 조선곡 비중이 약 53%인 것과 비교하면, 중권(中卷)의 경우는 약 8%, 하권(下卷)의 경우가 약 31%로 교과서 간 비중 차이가 크기 때문에, 김신덕을 조선곡 수록 비중을 높게 두는 경향이 있는 편찬자로 보긴 어렵다.

반면에 조선곡 비중이 비교적 낮은(15% 이하) 교과서 6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4의 편찬자 김신덕이 『여자중등음악교본』 상중하 시리즈 가운데 중권(中卷)인 이 교과서에 외국곡의 비중을 특히 크게 두면서 조선곡의 비중이 약 8%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권별(卷別) 특징을 부여하고자 한 편찬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김신덕을 조선곡 수록 비중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편찬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교과서 16, 17의 편찬자는 공히 이승학이다. 이 2종의 교과서는 동일 제목으로 동일 출판사에서 펴내어져 수록곡 간 유사점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권의 교과서 비중을 근거로 하여 편찬자의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그가 편저한 교과서 15『중등음악교본 1권』(1948)의 조선곡 비중 또한 15%로 조선곡 비중이 낮은 순위에서 6위인 것에 비추어, 이승학이 조선곡 수록 비중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18『중등음악 1』의 편찬자 나운영의 경우, 그가 편저한 교과서 13『중등음악 2』(1948), 교과서 14『중등음악 3』(1948)의 조선곡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19%, 21%로, 『중등음악』 시리즈 세 권 가운데 두 권이 10%대이고 한 권이 20% 남짓이다. 이로 미루어 나운영 또한 조선곡 수록 비중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해방중등』 23종 교과서의 조선곡 비중을 살폈고, 이 비중의 다소(多少)를 해당 교과서 편찬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나가기엔 교과서, 편찬자, 편찬자가 저술한 또 다른 교과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황이다. 따라서 조선곡의 비중과 관련한 검토에서는 23종 교

과서별 조선곡 비중을 파악한 점, 그리고 교과서별 조선곡 비중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논의를 시도한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어지는 '장르'와 '작곡자' 측면 고찰의 구체적 대상은 『해방중등』 23종 수록 조선곡 97개 곡조, 203곡이다.[130]

1.1 장르

서술상의 편의에 따라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의 장르를 '조선 예술가곡'[131]·'애국가요'·'학교 교육 관련 노래'·'동요'·'민요'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기타'로 분류하여 살핀다.[132] 본 고찰에서 사용되는 각 장르명의 개념 또는 장르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선 예술가곡'의 경우 민경찬이 언급한 1920년대, 30년대 가곡의 특징을 반영하여, 주로 서정적 노랫말로 되어 있으며 독창과 건반 반주로 이루어진 단순 소박한 특징을 지닌 성악곡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민경찬, 2006: 107-108). 이는 『해방중등』 수록 '조선 예술가곡' 가운데 주로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작곡된 예술가곡들이 곡 수와 수록 횟수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수록된 40년대 곡도 음악적, 언어적, 정서적 특징 면에서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작곡된 곡들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개념이다.

동일한 '예술가곡'이나 '조선 예술가곡'은 '서양 예술가곡'과는 차이가 있다.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등에 의하여 작곡된 '서양 예술가곡'은 '독창과 독립적 건반 반주로 구성되며, 전통적 또는 대중적

130) [부록 1] 참조

131) '가곡'이 아닌 '예술가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애국가곡'·'민족가곡' 등 과거 다양한 성격의 '가곡'들이 존재했던 바, '가곡'보다는 '예술가곡'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체성을 더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132) 해당 곡 수가 많은 장르 순이며, 이 순서대로 고찰한다.

가창곡과 대조되는 진지한 예술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짧은 성악곡'[133]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민경찬, 2006: 103) '조선 예술가곡'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른 장르적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지닐 수 없었다. 즉 '조선 예술가곡'은 전문 작곡가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민경찬, 2006: 107) '독립적 건반 반주' 작곡이나 '진지한 예술성' 표현에 필요한 음악적 전문성이 작곡가에게 다소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진지한 예술적 목적의 성악곡을 의미하는 '서양 예술가곡'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참작하여 본 고찰에서 사용될 '조선 예술가곡'의 개념을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애국가요'는 해방의 기쁨, 신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 애국애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방공간 시기에 불린 노래들을 지칭하는 장르명으로 사용한다. 해방공간 당시 '해방가요'·'건국가요'·'인민가요'(이진원, 2014: 31)·'애국가요' 등으로 분류되었던 곡들이 공통적으로 애국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애국가요'라는 용어로써 포괄하였다.[134]

'학교 교육 관련 노래'는 권학(勸學), 학생의 자세, 학교생활(등하교, 수업, 학우 및 교사와의 관계, 입학·졸업·방학·운동회·각종 의식 등의 학교 행사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래들을 지칭하는 장르명으로 사용한다. 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이 주로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곡들이 교과서에 적지 않게 수록되는데, 이러한 곡들을 '학교 교육 관련 노래'로 분류하여 살핀다.

'동요'는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 상태 등을 표현한 노랫말

133) 이 개념에 대하여서는 Ⅲ장 2절의 '서양 예술가곡' 장르에 관한 서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134) 교과서 10『중등음악교본』(1948)의 '차례'에서 <애국가>, <한글 노래>와 여러 해방가요들을 '애국가요'로 분류한 것을 참고하였다. '애국가곡'도 '애국가요'와 유사한 의미의 범주명으로 사용된 것이 발견되나(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1946)의 '차례') 해방 이후의 신문 기사에서 '애국가곡'에 비하여 '애국가요'가 더 많이 검색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널리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애국가요'를 사용한다.

에 곡을 붙인 노래(민경찬, 2006: 93)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민요’는 일반적으로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로 대별되는데, 수록된 두 곡은 공히 통속민요인 ‘신민요’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장르명으로는 ‘신민요’를 포함하는 범주명인 ‘민요’를 사용하며, 개념은 ‘신민요’의 것 즉 “개화기 이후 새로 창작된 민요 전반”[135]을 사용한다. 민요가 개사(改詞)된 형태로 수록된 경우라도 민요 곡조로 된 곡은 ‘민요’로 분류한다.

장르 고찰을 위하여 장르의 개념, 장르 구분 기준 등을 정하는 일, 그리고 개별 곡의 장르를 확인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일례로 현재 음악계에서 1920년대 ‘예술가곡’으로 분류되고 있는 곡들 가운데에는 음악적, 언어적 측면에서 ‘동요’와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르의 개념 및 장르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곡의 장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에 출판 발행된 작곡집, 동요집, 가요집 등의 악보집, 신문 기사, 음악 관련 사전류, 각종 온라인 사전, 연구 논문, 문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정보를 참고하였는데, 이 가운데 연구자가 가장 중심에 둔 문헌은 다음과 같다.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6)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악편]』(서울: 두리미디어, 2006)
손태룡, 『대구양악사 연구』(대구: 도서출판 대일, 1996)
손태룡, 『한국음악사의 큰 별』(대구: 중문출판사, 1994)
이강숙, 김춘미, 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서울: 현암사, 2001)
이유선, 『(증보판)한국 양악 백년사』(서울: 음악춘추사, 1985)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서울: 시공사, 1999)
네이버(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송방송, 한겨레 음악 대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1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민요’, 2022.9.23. 17:07 접속.

1.1.1 조선 예술가곡

‘조선 예술가곡’은 총 47**곡**이 20종 교과서에 113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곡 총 97곡조 가운데 약 48%, 총 203회 가운데 약 56%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곡목별 노랫말 관련 인물, 작곡자, 수록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조선 예술가곡’(곡목의 가나다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 · 기울인’*** 글씨체(예: ***안기영***)로 표시하였다.
※ ‘작곡/발표 연대’의 근거는 ‘1.3 작곡 · 발표 시기’ 내용 중 <표 Ⅲ-18>, <표 Ⅲ-19>, <표 Ⅲ-20>, <표 Ⅲ-22>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곡목	노랫말	곡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
1	가고파(가고 싶어)	이은상	김동진	1, 10	1930
2	가싯(시)덤불	김소월	김성태	10, 20	1940
3	가을	이병기	북양인	20	1940 추정
4	고요한 삼림(고요한 숲)	이은상	박태준	6, 23	1920
5	고향 생각	이은상	홍난파	20	1930
6	고향 생각	현제명	현제명	7, 14	1930
7	관덕정	이은상	홍난파	6, 23	1930
8	그네	김말봉	금수현	20	1940
9	그리운 강남	***김석송***	***안기영***	1, 10, 12, 14	1920
10	금강(산)에 살으리랏다	이은상	홍난파	1, 6, 9, 10, 12, 15, 22, 23	1930
11	꽃밭	권중찬	***안기영***	1, 10, 22	미상
12	낙엽	***윤복진***	박태준	19, 21	1930 추정
13	남산에 올라	이은상	***안기영***	19, 21	1920
14	내 고향	노천명	나운영	20	1940 추정
15	내 고향	미상	이흥렬	8	1920
16	눈	미상	김순애	20	1940
17	눈이 옵니다	***김안서***	함이영	23	미상
18	마의태자	이은상	***안기영***	1, 7, 9, 10, 11, 12	1930

19	물레	***김안서***	김순애	19, 20, 21	1940
20	물새	이은상	***안기영***	6	1920
21	물새발자욱(국)	***윤복진***	박태준	1, 5, 9, 10, 22, 23	1930
22	미풍	이은상	박태준	1, 9, 12	1920
23	봄	이은상	홍난파	18	1930
24	봄꿈	고장환	이제구	8	미상
25	봄처녀	이은상	홍난파	9, 19, 21, 22	1930
26	봉숭아(봉선화)	김형준	홍난파	1, 7, 9, 12, 15, 19, 21	1920
27	비들기	***박세영***	***이건우***	8	1940
28	사우(동무생각)	이은상	박태준	1, 9, 10, 12, 13	1920
29	산유화	김소월	***김순남***	10	1940
30	살구꽃	***김안서***	김순애	6, 23	미상
31	살구꽃	***김안서***	한시형	14	1940
32	성불사의 밤	이은상	홍난파	1, 9, 12, 16, 17, 22, 23	1930
33	순례자	이은상	박태준	15	1920
34	아(아아, 아-) 가을인가	***김수향***	나운영	6, 14, 23	1930
35	어머님	김일보	박태철	6	1930
36	어-이 어-이	***윤복진***	박태준	11	1930
37	여름 바다	***김안서***	김순애	11	미상
38	옛 동산에 올라	이은상	홍난파	19, 20, 21	1930
39	은덕가	효종	김성태	6, 23	미상
40	이고 진 저 늙은이	정철	함이영	21	미상
41	자네 집은 밭을 갈아	***윤복진***	김현재	20	1940 추정
42	자장가(자장의 노래, 자장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	***김동환(파인)***	이흥렬	7, 8, 19, 21, 22	1930
43	장안사	이은상	홍난파	6, 20, 23	1930
44	창백한 마을	이기순	이흥렬	6, 23	1930
45	청산곡	김상용	임원식	6	미상
46	평온(은)한 바다	이은상	박태준	16, 17	1920
47	흐르는 별	오수경	***정영재***	13	미상

개별 곡들의 수록 횟수를 살펴보면, <금강(산)에 살으리랏다>(이은상/홍난파) 8회, <봉숭아(봉선화)>(김형준/홍난파)와 <성불사의 밤>(이은상/홍난파) 7회, <마의태자>(이은상/안기영)와 <물새발자욱(국)>(윤복진/박태준) 6회, <사우(동무생각)>(이은상/박태준)과 <자장가(자장의 노래, 자장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김동환(파인)/이흥렬)>가 5회이다. 요컨대, <금강(산)에

살으리랏다>가 ‘조선 예술가곡’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되었으며, ‘이은상’의 노랫말로 된 곡 그리고 ‘홍난파’에 의하여 작곡된 곡들이 많이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난파의 곡은 <고향 생각>(이은상), <관덕정>(이은상), <금강(산)에 살으리랏다>(이은상), <봄>(이은상), <봄처녀>(이은상), <봉숭아(봉선화)>(김형준), <성불사의 밤>(이은상), <옛 동산에 올라>(이은상), <장안사>(이은상) 등 9곡으로 전체 47곡의 ‘조선 예술가곡’ 중 약 19% 즉 거의 1/5 비중에 육박한다.

홍난파의 예술가곡 대부분은 전문 성악가가 아닌 일반 대중, 중등학교 학생의 가창 능력이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곡되어 있다. 음악적으로 난도가 높지 않으며 길이도 짧고 형식도 단순한 편이므로 곡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홍난파 예술가곡이 지닌 이러한 성격들은 대중에게 그의 예술가곡이 빠르게 널리 보급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의 예술가곡 9곡 가운데 8곡의 노랫말이 ‘이은상’의 것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8곡의 노랫말은 ‘조선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소재뿐만 아니라 노랫말 내용 또한 그렇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고향 생각>), ‘영고성쇠(榮枯盛衰)의 무상함’(<관덕정>, <옛 동산에 올라>, <장안사>), ‘부정적인 현실을 떠나 이상향의 세계에 살고 싶은 마음’(<금강(산)에 살으리랏다>), ‘봄(새 계절)을 반김’(<봄>, <봄처녀>(1절 기준)), ‘조선의 환생(還生)을 소원함’(<봉숭아(봉선화)>), ‘산사에서 느끼는 외로움’(<성불사의 밤>) 등의 내용이 발견된다. 이러한 내용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조선 대중의 심경을 위로·대변하거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136]

이러한 음악적, 언어적 성격을 지닌 홍난파의 예술가곡은 1920년대부터 조선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137] 그의 예술가곡들이 앞서

136) 이은상 시/노랫말 일반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Ⅲ장 ‘1.3 노랫말 관련 인물’에서 이루어진다.

137) <봉숭아(봉선화)>가 라디오 방송된 것 확인됨.(조선일보, 1927.7.24.기사 ‘라듸오’)

서술한 바와 같이 대중 접근성이 높은 점, 그리고 조선·조선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해방중등』 수록곡으로 선정되기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작곡/발표 연대를 기준으로 '조선 예술가곡'을 살피면, 20년대 10곡이 28회, 30년대 18곡이 59회, 40년대 10곡이 13회, 연대 미상 9곡이 13회 수록되어 있다. 요컨대 수록곡 수로는 30년대 가곡이 18곡으로 가장 많고 20년대와 40년대 가곡이 10곡으로 같으며, 수록 횟수로는 30년대 가곡이 59회로 가장 많고 20년대 가곡이 28회, 40년대 가곡이 13회로 그 뒤를 잇는다. 1930년대 예술가곡은 수록곡 수 면에서 20년대·40년대의 그것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수록 횟수 면에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공간 당시 대중에게 익숙했던 2, 30년대 가창곡은 시간을 거쳐 '검증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138] 일제의 가혹한 조선 문화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조선 대중이 아끼고 사랑한 노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여, 이러한 곡들이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교과서 수록곡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2, 30년대 예술가곡 중에는 노랫말에 조선적 소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향을 그리는 내용'의 노랫말을 지닌 〈가고파(가고 싶어)〉, 〈고향 생각〉(홍난파 작곡), 〈고향 생각〉(현제명 작곡), 〈내 고향〉(이흥렬 작곡)을 비롯하여, 〈관덕정〉, 〈그리운 강남〉, 〈금강(산)에 살으리랏다〉, 〈남산에 올라〉, 〈마의태자〉, 〈봉숭아(봉선화)〉, 〈살구꽃〉(김순애 작곡), 〈성불사〉, 〈아(아아, 아-) 가을인가〉, 〈옛 동산에 올라〉, 〈은덕가〉, 〈자장가(자장의 노래, 자장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 〈장안사〉 등 전체 조선 예술가곡 가운데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조선적 정서를 느끼도록 해줄 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곡들은 『해방중등』 편찬자들에게 조선 및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데에 적

138) 1920, 30년대까지는 조선곡이 작곡, 발표, 연주, 악보 출판, 음반 유통, 방송이 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작곡된 곡들은 조선 대중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려질 수 있었다.

합한 도구로 여겨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30년대 예술가곡이 가장 많이 수록된 이유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30년대에 작곡된 예술가곡 수가 많은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20년대에 홍난파, 현제명, 안기영, 박태준 등의 작품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30년대에 들어서서 20년대부터 활동하던 작곡가들을 비롯하여 채동선, 김세형, 이흥렬, 김성태, 조두남, 김동진 등의 작품이 발표된다(민경찬, 2006: 103-110). 즉 창작자가 늘면서 30년대에 작곡 및 발표된 곡은 20년대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작품 수가 많은 30년대 예술가곡이 다른 시기의 그것보다 편찬자에게 선택될 가능성은 높았을 것이다.

30년대 예술가곡이 많이 수록된 또 하나의 이유로, 30년대 작품들이 20년대 작품들에 비하여 '예술가곡'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즉 조선 예술가곡이 장르로서의 틀로 형성되는 시기였던 20년대의 작품들은 사실 동요와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했던 데에 반하여(민경찬, 2006: 103), 30년대에는 작곡을 전공한 작곡가들이 등장하면서[139] 보다 본격적인 형태의 예술가곡이 작곡·발표되었다.[140] 따라서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이 30년대 예술가곡이 '중등학교' 수준 수록곡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다.

1940년대 예술가곡은 20년대 예술가곡과 수록곡 수는 10곡으로 동일하나 수록 횟수 면에서는 20년대 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의 주된 이유는 40년대 예술가곡이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말에서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일본 전시기 동안 조선 작곡가들이 '예술 음악'을 창작, 발표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일제가 치르는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 음악인들은 일제의 전쟁을 찬양하고 지원하도록 강요받았고(민경찬, 2006: 174, 179) 식민지 조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극심했다(이응호, 1974: 28-35; 검열

139) 채동선, 김세형 등이 해당된다.

140) 작곡 전공자를 비롯한 양악 전공자들이 계속 배출됨에 따라 전문 음악 인구가 누적되면서 양악계 전반의 음악적 전문성이 높아진 점도 '조선 예술가곡'이 장르로서의 틀을 갖춰가는 데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회, 2011: 453).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어 노랫말로 된, 조선적 정서를 담은 '예술가곡'과 같은 장르는 연주 및 발표가 몹시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민경찬, 2006: 173; 검열연구회, 2011: 453-454) 작품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창작된 곡들이 있어도 연주되기도 방송을 통하여 보급되기도 쉽지 않았다(민경찬, 2006: 174, 178). 해방 이후 드디어 예술가곡이 자유로이 작곡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때 작곡된 예술가곡들이 단시간 내에 대중에게 알려져 친숙해지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40년대 예술가곡이 20년대 예술가곡과 동일한 곡수만큼 수록된 것은,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서언(序言)'에서도 확인되듯이 편찬자들에게 새로운 조선 예술가곡을 수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41] 그러나 40년대 예술가곡의 낮은 대중적 친숙도로 인하여 수록 횟수는 20년대 예술가곡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 예술가곡'이 비교적 다수 수록된 교과서와 해당 교과서 수록 예술가곡 수를 살펴보면, 교과서 6(『중학음악교본』(1947))과 23(『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1950))에 11곡,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1946))과 20(『중등음악교본 2』(1949), 최희남 편))에 10곡, 교과서 10(『중등음악교본』(1948))에 9곡, 교과서 9(『음악교본』(1947추정))와 21(『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1950 인정 효력 연장))에 8곡, 교과서 12(『중등음악교과서』(대상(大商)(정부 수립 이전 추정))와 19(『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1949검정))에 7곡이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조선 예술가곡' 다수 수록 교과서(순위 순)

141) '서언'의 "작곡가로 하여금 해방 후의 앙양하는 건국 의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예술가곡의 창작을 종용하여 수록함 같은 진취적 선구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후략)"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새로운 예술가곡" 수록에 대한 의지가 편찬위원들에게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지는 비단 『임시중등음악교본』 편찬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존재했을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타 교과서 편찬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였다.

순위	1	2	3	4	5
교과서 번호	6, 23	1, 20	10	9, 21	12, 19
교과서 수	2	2	1	2	2
곡수	11	10	9	8	7

교과서 6과 23, 21, 19는 공히 ‘국민음악연구회’에서 발행되었으며, 교과서 6을 제외한 세 교과서의 편찬자는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이다. 이에 국민음악연구회에서 편저 또는 발행한 교과서에 ‘조선 예술가곡’이 다수 수록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20은 ‘최희남’에 의하여 편저되었는데 그가 편저한 또 다른 교과서인 교과서 22의 경우 6곡의 예술가곡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최희남은 예술가곡을 다수 수록하는 경향이 있는 편찬자라 하겠다.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의 ‘서언(序言)’에서 새로운 예술가곡을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예술가곡은 아닐지라도 다른 교과서들과 비교하면 다수의 ‘조선 예술가곡’을 수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10은 교과서 1의 개정판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조선 예술가곡의 수가 많은 점도 공통적이다. 또한 교과서 9와 12에 조선 예술가곡이 다수 수록된 이유는, 이 두 교과서가 교과서 1의 수록곡 구성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유로, 2020: 12).

1.1.2 애국가요

‘애국가요’는 총 20개 곡이 17종 교과서에 50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곡 총 97곡조 가운데 약 21%, 총 203회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이 20개 곡의 작곡/발표 시기는 <애국가>(1930년대 작곡)와 <청년의 노래>(30년대 작곡)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년대로 파악된다. 곡목별 노랫말 관련 인물, 작곡자, 수록 교과서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5> ‘애국가요’ (곡목의 가나다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목	노랫말	곡	교과서
1	건국의 노래	김태오	나운영	1, 9, 10
2	건국 행진곡	김태오	***김순남***	1, 10
3	농군의 노래	***여상현***	이흥렬	1, 9, 10, 22
4	독립행진곡	***박태원***	김성태	1, 9, 10
5	무궁화(는) 피고 피고	***윤복진***	박태준	5, 9
6	새 나라 세우면서	***조남령***	***안기영***	8
7	아침 해 고울시(씨)고	***임학수***	김성태	1, 9, 10
8	안중근 의사 추념가	***김향운***	계정식	2, 7
9	애국가	미상	안익태	1, 2, 3, 4, 5, 8, 9, 10, 12, 13, 14, 18
10	여명의 노래	화암	***이건우***	1, 9, 10, 12
11	에라 동무들아	윤기영	***정종길***	8
12	유관순	정몽주 母堂	***안기영***	11
13	이몸이 죽고 죽어(충성가)	정몽주	***박은용***	1, 10
14	조국의 노래	김태오	나운영	18
15	진달래 피는 나라	***김기림***	***이건우***	9
16	청년의 노래	계정식	계정식	10
17	학도 행진곡	이병기	박태준	6, 23
18	한글 노래	***(#이극로#)***	채동선	1, 10
19	해방 기념가	이병기	이흥렬	2, 7
20	해방 전사의 노래	***임화***	***안기영***	1

개별 곡들의 수록 횟수를 살펴보면, <애국가>가 12회, <농군의 노래>, <여명의 노래>가 4회, <건국의 노래>, <독립행진곡>, <아침 해 고울시(씨)고>가 3회로, <애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수록 횟수가 비교적 많은 이들 곡에서 ‘노랫말 관련 인물’이나 ‘작곡자’ 관련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안익태의 <애국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 식전(式典)’에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회(開會)’에 이어 ‘국기게양(國旗揭揚)’ 중 가창하도록 되어 있는데,[142] 통상적 국가 의례로 미

루어볼 때 <애국가>는 '국가(國歌)'로서 불렸다고 볼 수 있으며, 즉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식 행사에서 '국가'로서 공식화되었다고 하겠다.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11월 '애국가를 새 곡조로 부르자는' 신문 기사와 함께 악보가 실리기도 하면서[143] 보급되었고 1946년 발행된 『임시중등음악교본』을 시작으로 12종의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 『해방중등』 23종 수록곡 가운데 이 곡 이외의 우리나라 '애국가'나 '국가'는 발견할 수 없다.[144]

교과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애국가> 악보는 현행 4절의 노랫말 기준으로 1, 2, 4절만을 담고 있다.[145]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임시중등음악교본』에 1, 2, 4절만 수록됨으로써 이후의 교과서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노랫말도 현행 애국가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 곡이 수록된 12종의 교과서 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146] 현재의 연구 상황으로는 그 이유도 알기 어렵다.

'애국가요' 수록 교과서와 해당 교과서 수록 곡수를 살펴보면,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과 10(『중등음악교본』)에 각각 10곡, 교과서 9(『음악교본』)에 8곡, 교과서 2(『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6))와 8(『중등음악』)에 각각 3곡, 교과서 5(『여자중등음악교본 하』, 7(『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7)), 12(『중등음악교과서』), 18(『중등음악 1』)에 각각 2곡, 교과서 3, 4, 6(『중학음악교본』), 11, 13, 14, 22(『중등음악교본 1』), 23(『남녀중등음악교본 제 1권』)에 각각 1곡씩 실려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애국가요' 수록 교과서와 교과서 수, 곡수(곡수 많은 순)

---

142) 조선일보, 1948.8.15. 기사 '정부수립축하식전'. 식순에 <애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143) 자유신문, 1945.11.21. 기사 '장중활발하게 새 곡조로 부르자 우리 애국가'
144) '구(舊)애국가' 즉 영국민요 <Auld Lang Syne> 곡조의 애국가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에 불렸던 다양한 '애국가'가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23종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45) 나운영 편찬의 교과서 13, 14, 18에만 노랫말 1 ~ 4절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146) '하느님' / '하나님', '보우' / '보호', '바람서리' / '바람 이슬', '높고 구름 없이' / '구름 없이 높고' 등의 상이 양상을 볼 수 있다.

	수록 교과서(번호)	교과서 수	곡수
1	1, 10	2	10
2	9	1	8
3	2, 8	2	3
4	5, 7, 12, 18	4	2
5	3, 4, 6, 11, 13, 14, 22, 23	8	1

‘애국가요’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교과서가 해방 이후 중등음악교과서 제1호인 교과서 1 『임시중등음악교본』이라는 사실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 교과서의 ‘서언’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 처음 편찬 발행되는 교과서인 만큼 해방의 기쁨과 신국가 건설에의 희망이 담긴 노래를 여러 곡 담으려는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147]

교과서 1과 10(『중등음악교본』(1948)) 각각에 ‘애국가요’가 10곡 수록되었고 이 가운데 9곡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과서 10이 교과서 1의 개정판 성격을 띤다는 데에 기인한다. 교과서 9는 교과서 1과 수록곡 구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큰데(이유로, 2020: 162), ‘애국가요’도 교과서 1에 수록된 10곡 중 6곡이 교과서 9에 수록되어 있어 교과서 1의 영향으로 애국가요가 다수 수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서 7(『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7))은 교과서 2(『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6))의 개정판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2와 7의 수록곡 간 차이가 적지 않으나 교과서 2에는 3곡, 교과서 7에는 2곡의 애국가요가 실려 있으며, 이 중 2곡 <안중근 의사 추념가>(김향운/계정식), <해방 기념가>(이병기/이홍렬)가 두 교과서에 공히 수록되어 있다. <안중근 의사 추념가>의 수록 이유는, 편찬자가 해당 곡의 작곡자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7) 해방 후 첫 중등음악교과서인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에 가장 많이 수록되었으나, 해방공간 초기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실린 것은 아니다.

교과서 8(『중등음악』)에는 다른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애국가요 2곡 〈새 나라 세우면서〉(조남령/안기영), 〈에라 동무들아〉(윤기영/정종길)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편찬자 오창진은 해방공간 시기의 음악 단체인 '조선음악가동맹'의 중앙집행위원이었으며, 수록된 애국가요 두 곡의 작곡자인 안기영과 정종길이 각각 이 단체의 부위원장과 연주부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민경찬, 2014: 181). 이에 오창진과 두 작곡가가 동일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였다는 점이 이 두 곡이 수록된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교과서 18(『중등음악 1』)에 다른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조국의 노래〉(김태오/나운영)가 수록된 이유는, 편찬자가 해당 곡의 작곡자라는 데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애국가요'가 장르별 수록곡 수 면에서 '조선 예술가곡'에 이어 2위인 점, 23종 교과서 중 17종에 실렸다는 점, 17종 교과서에 50회나 수록된 점 등은 교과서 편찬자들이 '애국가요'를 수록곡으로서 선호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애국가요' 장르가 수록곡으로 선호된 이유는 해방 직후 학생들에게 해방의 기쁨, 신국가 건설에의 희망, 애국애족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 신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으로서 지녀야 할 주인의식과 크고 높은 포부를 갖게 하려는 편찬자의 '국민 교육적' 차원의 의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1.1.3 학교 교육 관련 노래

'학교 교육 관련 노래'는 총 13개 곡이 8종 교과서에 19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곡 총 97곡조 가운데 약 13%, 총 203회 가운데 약 9%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곡목별 노랫말 관련 인물, 작곡자, 수록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7> ‘학교 교육 관련 노래’ (곡목의 가나다 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목	노랫말	곡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
1	교문을 나슬 때	김재인	***박은용***	6	1940
2	대상 교가	이종림	김상환	12	1940
3	등산가	***안기영***	***안기영***	6, 23	1940 추정
4	무궁화	***박세영***	***안기영***	8	1940
5	송별가	김재인	***박은용***	6	1940
6	스승님 은혜	***임학수***	박태준	11	1940
7	신입생 환영	***임학수***	***안기영***	19, 21	1940
8	여름 방학	***임학수***	이홍렬	11	1940
9	응원가	윤계현	김상환	12	1940
10	즐거운 우리 교실	***임학수***	이홍렬	11	1940
11	학도가	***김안서***	***안기영***	6, 23	1940 추정
12	학생의 하로	***임학수***	(#이홍렬#)	19, 21	1940
13	학우	***김안서***	이홍렬	6, 22, 23	1940 추정

개별 곡들의 수록 횟수를 살펴보면, <학우>가 3회, <등산가>, <신입생 환영>, <학도가>, <학생의 하로>가 2회씩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곡자와 작곡자별 수록곡 수를 살펴보면, 안기영과 이홍렬 각각 4곡, 박은용 2곡, 박태준 1곡이 포함되어 있다.

안기영, 이홍렬, 박태준 등 당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작곡가들이 예술음악이 아닌 교과서 수록을 목적으로 한 ‘학교 교육 관련 노래’를 만드는 데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곡을 작곡하기까지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당시 신교육 수립 상황에서의 학교 교육, 학교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인식은 이홍렬, 박은용, 박태준 등이 해방 전후 시기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학교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148]

148) 이홍렬은 배재중학교,(두산백과, ‘이홍렬’, 2022.9.29. 00:13 접속) 박은용은 이화여자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한국작곡가사전』, p.217) 박태준은 마산 창신학교, 대구 계성학교에서 영어・음악교사로(『한국작곡가사전』, p.231) 근무하였다.

‘학교 교육 관련 노래’ 가운데 ‘임학수’의 노랫말이 여러 편 발견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의 노랫말로 된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의 곡이 합하여 5곡에 이르는데, 임학수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노랫말을 여러 편 만든 데에는 그의 해방 이전 중등학교 교사 경험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149]

총 13곡의 ‘학교 교육 관련 노래’는 해방 후에 교과서 수록을 목적으로 편찬 과정에서 작곡된 것으로 보인다. 권학(勸學), 학생의 자세, 학교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어 노랫말로 된 곡들은 ‘한일 강제 병합’ 이전부터 존재해왔다.[150] 물론 일본 창가 곡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은 『해방중등』에 수록될 수 없었겠으나, 조선인에 의하여 작사·작곡된 곡을 찾아 수록하거나 서양음악의 선율에 조선어 노랫말을 붙여 만든 곡들은 수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해방중등』에 수록된 거의 모든 ‘학교 교육 관련 노래’들이 해방 후 새로 만들어진 곡이라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제 식민교육을 청산하고 신교육의 수립·정초가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신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부를 ‘학교 교육 관련 노래’들은 ‘온전히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곡’, ‘새로운 교육, 음악교육, 문화를 이끌어 갈 당시의 교육자·음악교육자·예술인의 손으로 만든 곡’으로 수록하고자 한 편찬자들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편찬자들의 의도, 그리고 이 의도에 찬동하는 이들이 작사·작곡자로 적극적 참여가 만들어낸 양상으로 해석된다. ‘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양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49) 임학수는 해방 이전 호수돈여고·경신여고·한성상업·배화여고·성신여학교 교사로 근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학수(林學洙)’, 2022.9.10. 01:47 접속.

150) 우리나라 창작 음악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김인식의 〈학도가〉가 그 일례이다. 일제의 교육 침탈 이후의 곡들로는 우선 학부(學部) 편찬 음악교과서 『보통교육창가집』(1910)에 수록된 〈나아가〉·〈식송〉·〈학도가〉·〈권학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수록곡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의 선율이나 일본 창가 곡조에 조선어 노랫말을 붙여 만든 것이다. 『최신창가집』(1914)의 〈권학〉, 『풍금독습 중등창가집』(1921)의 〈학우〉 등도 서양 선율(찬송가)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이다.

1.1.4 동요

‘동요’는 총 9개 곡이 2종의 교과서에 9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곡 총 97곡조 가운데 약 9%, 총 203회 가운데 약 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곡목별 노랫말 관련 인물, 작곡자, 수록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8〉 ‘동요’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목	노랫말	곡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151]
1	감둥 병아리	백하	홍난파	3	1920
2	고향의 봄	이원수	홍난파	9	1920
3	기러기	·	홍난파	3	1930
4	꿀돼지	윤석중	홍난파	3	1930
5	박꽃 아가씨	오영수	홍난파	3	1930
6	봄노래	이은상	이홍렬	9	미상
7	봄편지	서덕출	홍난파	3	1920
8	봉숭아꽃	윤석중	홍난파	3	1930
9	하모니카	***윤복진***	홍난파	3	1920

모든 곡은 교과서에 1회씩만 수록되었으며, 교과서 3(『여자중등음악교본 상』)과 9(『음악교본』(대건중학교))에만 실려 있는데, 교과서 3에 7곡이 집중적으로 수록된 것이 특징적이다.[152]

작곡/발표 연대 확인이 어려운 한 곡을 제외하고 1920년대 동요 4곡, 1930년대 동요 4곡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홍렬 작곡의 〈봄노래〉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난파의 곡이다. 1920년대 작곡/발표된 곡에는 교과서 3에 실린 3곡 〈감둥병아리〉·〈봄편지〉·〈하모니카〉와 교과서 9에 실린 〈고향의 봄〉이 해당하며, 이 4곡은 모두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제1

151) ‘작곡/발표 연대’의 근거는 ‘1.3 작곡·발표 시기’ 내용 중 〈표 Ⅲ-18〉, 〈표 Ⅲ-19〉, 〈표 Ⅲ-20〉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152) 김신덕이 편찬한 『여자중등음악교본』 상중하(上中下) 시리즈 중 ‘상권(上卷)’인 교과서 3에만 동요가 수록되어 있다.

편』(1929)[153]의 수록곡이다. 그리고 1930년대 작곡/발표된 곡에는 교과서 3에 실린 <기러기>[154]·<꿀돼지>[155]·<박꽃아가씨>[156]·<봉숭아꽃>[157]이 해당하며, 4곡 모두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1930년 초판)의 수록곡이다. 요컨대, 1곡을 제외하고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1929) 또는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1930년 초판)의 수록곡이다.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홍난파의 동요가 연주되거나[158] 음반(배연형, 2011:160, 182) 및 라디오 방송[159]을 통하여 보급되면서 대중에게 친숙해져 있었던 점, 편찬자의 홍난파 동요에 대한 선호, 그리고 홍난파의 동요가 당시 유명 아동문학가 또는 시인인 윤석중(1911~2003)·윤복진(1907~1991)·이원수(1911~1981)·서덕출(1906~1940)·오영수(1909~1979) 등의, 정형률을 지니며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은 동요(시)/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이 홍난파의 동요가 다수 수록된 양상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요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중등』 가운데 2종에만 수록되어 있다. 즉 『해방중등』 편찬자들 대부분은 동요 장르를 수록곡으로 선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요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노래라는 일반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공간 초등음악교과서에서는 동요 장르의 수록곡이 다른 장르와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볼 때 교과서 3과 9의 편찬자들의 '동요'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 인식 또는 다른 편찬자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동요' 장르가 초등학교 수준만이 아닌 중등학교 수

153) 조선일보, 1929.10.31. 기사 '신간 소개'
154)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수록 곡목은 '기럭이'
155)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수록 곡목은 '꿀돼지'
156)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수록 곡목은 '박꼿아가씨'
157)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수록 곡목은 '봉사꼿'
158) 조선일보, 1932.5.16. 기사 '동경유학생들의 조선곡연주여행'; 조선일보, 1933.7.7. 기사 '출발일 임박한 경성보육 순회연주' 등
159) 조선일보, 1934.9.23. 기사 '라디오'; 조선일보, 1935.4.8. 기사 '라디오'; 조선일보, 1935.9.10. 기사 '라디오'; 조선일보, 1936.9.25. 기사 '라디오' 등

준에서도 교수 학습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록된 동요들 대부분이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1.5 민요

‘민요’는 총 2개 곡이 1종의 교과서에 2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곡 총 97**곡조** 가운데 약 2%, 총 203회 가운데 약 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곡목별 수록 교과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9> ‘민요’

	곡목	교과서	비고
1	도라지 타령	5	미리영 편곡
2	천안삼거리	5	·

『해방중등』 23종 교과서 가운데 ‘민요’는 김신덕[160]이 편저한 교과서 5, 단 1종에만 수록되어 있다. 22종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민요’가 이 1종에만 2곡 실린 것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만하다. 이 사실에 비추어볼 때, 편찬자 김신덕은 ‘민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른 22종 교과서의 편찬자들과 차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신덕의 ‘민요’ 수록은, ‘민요’를 비롯한 우리 ‘전통음악’이 (중등)음악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다거나 (중등)학교 교육에서 교수 학습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발로하였다고 해석되는데, 이에 반해 22종의 편찬자들은 이와는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의 『해방중등』 연구에서 이 2곡도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자들은 『해방중등』 수록곡 가운데 ‘민요’를 비롯한 우리 ‘전통음악’이 한 곡도 없다고 보고하였다(김정미, 2002: 110-111;

160) 평양 정의여고보와 무사시노음악학교 출신의 피아니스트.(동아일보, 1938.10.27. 기사 ‘“소프래노” 이관옥양 독창회’) 이화여고에서 교사로 근무.(동아일보, 1938.9.15. 기사 ‘피아노독주’)

권혜근, 2016: 130; _____, 2013: 175-176; ____, 2014: 270; _____, 2016: 284). 본 연구를 통하여 최소한 2곡은 수록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우리 전통음악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교육하고자 한 편찬자이자 음악교육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무(全無)'가 아닌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도라지타령>의 경우, 미리영(美理英, Mary E. Young)에 의하여 편곡된 것으로서[161] 본래의 노랫말 내용과 달리 권학가(勸學歌)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162]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민요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전통음악 가운데 '민요' 장르가 수록된 이유는, '정악'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으며 대개 곡의 용도, 길이, 편성 등의 음악적 특성상 『해방중등』 수록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는 데에 반하여,[163] '속악' 중에서도 '민요'의 경우 대중에게 친숙하며 필요에 따라 길이나 편성에 변화를 주는 편곡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편찬자들이 수록곡으로 선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닌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중등』 전체를 놓고 볼 때 전통음악의 극히 미미한 비중은 의

---

161)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에서 발행한 『조선민요합창곡집』(1931)에 수록된 미리영 편곡의 <도라지 타령>은 4성부 곡으로 '독창과 3성부 합창' 구성으로 되어 있다(미리영(1931), pp.1-3). 교과서 5에 실린 악보는 이 구성에서 독창 부분을 뺀 '3성부 합창' 편성으로 되어 있다.

162) '도라지 캐러 간다고 핑계 대고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라지타령>의 노랫말 내용과 다르다. 이상준(李尙俊)의 『조선속곡집 상권』(1914) 수록 노랫말에 근거하여, 이상준에 의하여 개사(改詞)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추정 근거는 [부록 1]의 <도라지타령> 항목의 '비고'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163) 음악적 특성 외에 '정악'이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정악'에 대한 당시 좌익 성향의 음악가나 음악교육자의 인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민경찬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근래까지도 "착취 계급의 음악, 봉건적 음악, 복고주의 음악, 통치배들의 향락적 취미를 반영한 음악(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93, 466)" 이라는 이유로, 궁중음악, 아악, 정악이 부르주아 음악이라고 배격되어 왔다.(민경찬, '남과 북, 같이 부르는 노래-교류와 협력의 관점에서 본 21세기 북한 음악'(『21세기 북한의 예술』(2020)) 이로부터 해방공간 음악 단체 조선음악건설본부, 프롤레타리아 음악동맹, 조선음악가동맹 등에서 지양할 음악으로서 여겨진 '전제주의, 봉건적, 부르조아 음악'(민경찬(2014), p.174, pp.177-178, pp.180-181)이 이 음악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당시의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중등음악교과서에서 '민요'를 제외한 전통음악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편찬자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아닐 수 없다. 『해방중등』 조선어화의 중요한 목적이 조선의 정체성이 담긴 음악교육에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국어 교과에서 '조선어'를 되찾는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 교과에서는 '전통음악'을 되찾고 수록하는 방법으로 조선어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중등』 23종의 총 681곡의 수록곡 가운데 단 2곡에 불과한 전통음악 비중의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첫째, 편찬자들이 거의 서양음악을 공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편찬자가 단체인 경우 편찬위원들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확인이 가능한 편찬자들 중 전통음악 관련 인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의 음악계·음악교육계 상황으로 볼 때 전통음악인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이들이 중등음악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전통음악인이 공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이 해방공간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서양음악 분야 인물들에 의하여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서양음악 위주의 선곡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조선 대중이나 편찬자가 지닌 '조선의 음악'에 대한 관념이 '전통음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서양음악적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특히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양악 창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일제 말기까지 많은 작곡가가 출현하여 수많은 곡을 작곡/발표하였다. 이들이 만든 곡은 연주회장에서 연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성기 음반으로 취입되었고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되기도 하면서 조선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물론 전통음악도 공연장에서 연주되었으며 음반으로 취입되고 방송되는 등 사랑받았으나 일제의 조선 문화 탄압으로 점차 입지가 줄어들면서, 양적으로 볼 때 조선 대중이 학교 교육·종교 시설(특히 기독교)·방송·음반 등을 통하여 더 많이 접하게 된 것은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이었다고 볼 수 있다.[164] 이러한 과

정 속에서 익숙해진 ‘조선인에 의하여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도 대중에게 ‘조선의 음악’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제에 의한 조선 문화 탄압, 말살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들도 탄압과 말살의 대상이 되면서, 조선 대중에게 ‘일제의 탄압을 받은, 조선인이 만든, 조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음악’이면 ‘조선의 음악’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중의 관점에서는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봉숭아(봉선화)>, <사우(동무생각)>, <고향의 봄>, <하모니카> 등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조선 예술가곡과 동요 또한 우리 ‘조선의 음악’으로 생각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전통음악을 수록하지 않더라도 ‘조선의 음악’이 수록된 ‘조선의 정체성이 담긴 음악교과서’가 편찬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해방중등』이 23종 가운데 22종이다.

셋째, 전통음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대중에게 ‘민요’, 그 가운데에서도 ‘신민요’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전통음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유성기가 보급되고 라디오 방송도 시작되면서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던 상업성을 띤 신민요들이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되었다(배연형, 2011: 68-69). 명창들과 기생 출신 민요 가수들이 음반을 취입하여 인기를 모으면서, 신민요가 대중가요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165]

일제강점기 조선 대중은 전통음악에 대하여 제한적·부분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에게 매우 친숙한 전통음악인 ‘민요’(신민요)를 기준으로 ‘전통음악’ 전반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제가 지속적으로 조선 대중에게 심어 놓은 조선 전통문화에 대한

164) 1930년대에만 해도 전통음악에서도 히트곡이 나왔고, 신민요 음반도 많이 팔렸지만, 193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전통음악은 유행가에 밀려났고,(배연형(2011), p.69) 전통음악이 위축된 상황은 일제 말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165) 명창들에 의해 일부 일본식 유행가가 취입되기도 했는데(배연형(2011), p.49), 이러한 일은 대중들로 하여금 전통음악 가창자들을 유행가 가수로 인식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왜곡된 인식(김운태, 1975: 88), 여기에 기존하던 전통예술인 계층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으로 인하여, 민요 또는 전통음악을 '가치 있는 음악'·'예술 음악'·'교육적 음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66]

안기영이 1928년에서 32년 사이 이화여전 교수 재직 시 '민요'를 합창 편곡한 곡을 레퍼토리로 하여 이화여전 합창단을 이끌고 전국 순회 연주를 한 일로(민경찬, 2006: 75) "이화여전 학생들이 기생이나 부르는 민요를 부른다며 '이화 권번'이라는 비방"[167]을 받은 사실, 그리고 "이상준(1884-1948)이 한국민요를 편곡해서 학생들이 불렀을 때는 선교사들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욕설이 대단했었다." (이유선, 1985: 163)는 사실은 이러한 인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요'를 비롯한 전통음악을 교과서에 수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16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음악이 수록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

166) 교과서 1의 '서언' 중 "외국가요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민요와 가곡 가운데서 ...(중략)... 채록할 것.", 그리고 교과서 22의 '머리말' 중 "가곡 교재는 ...(중략)... 특히 흙에서 빚어진 각국의 우수한 민요를 다수히 택하였다" 등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외국민요에 대한 선호'는 실제로 외국민요가 전체 수록곡에서 차지하는 적지 않은 비중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설령 '외국민요'와 '우리 민요'의 성격에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록곡 가운데 우리의 민요가 2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해방중등』편찬자들이 우리 민요에 대하여 조선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167) 한겨레신문, 1991.5.10. 기사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 68 안기영 서양음악 풍미 속 민족음악 기틀 마련'. '권번'은 일제강점기에 기생들의 조합을 이르던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on-line), '권번')

168)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을 편찬한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의 일원이었던 박용구는 한 인터뷰에서 "... 그때는 국악에 손을 댈 생각도 못 했지. 국악이 원체 도외시되던 시절이었으니 말이야." 라며, 이 교과서에 전통음악을 수록되지 않은 이유를 당시의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과 관련지어 밝힌 바 있다.(객석 1990. 5월호(통권 75). '원로 박용구의 삶에 비춰본 한국예술사/그토록 겨운 바람의 세월' 중, p.184) 일제강점기 양악 및 전통음악 분야 인물들에 의하여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오선보로의 채보가 적지않이 이루어져 있었고,(김유진(2020), pp.29-32) 서양음악기법적으로 편곡된 민요합창곡들이 실린 악보집도(예컨대 미리영(1931)의 『조선민요합창곡집 제1집』을 들 수 있음) 존재했다는 사실은, 교과서 수록곡 가운데 전통음악이 매우 적게 발견되는 양상이 비단 『해방중등』 편찬 시 입수가능한 전통음악 자료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상당히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불구하고 김신덕이 ‘민요’를 수록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민요’를 수록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169]

신민요 ‘2곡’을 들어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있어서의 전통음악 수록의 의미를 언급하기는 몹시 부족하다. 『해방중등』 수록곡 가운데 전통음악이 전무(全無)한 것은 아니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1.6 기타

기타에는 종교 음악, 대중가요, 의식가[170] 등 6곡이 포함된다. 이는 조선곡 총 97곡조 가운데 약 6%, 총 203회 가운데 약 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노랫말 관련 인물과 작곡자, 수록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 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0> 기타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 목	노랫말	곡	교과서	작곡/발표 연대[171]	장르
1	개천가	·[172]	·	2	1940 추정	종교 음악
2	눈 오는 밤	***김안서***	현제명	13	미상	대중가요
3	백로곡	정몽주	이흥렬	1, 10	미상	?

169) 신문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김신덕에 대한 단편적 면면은, 그가 소프라노 이관옥(1918 ~ 1976)과 무사시노(武藏野)음악학교 동기동창이며 평양 정의여고보 출신이라는 점이다. 김신덕과 이관옥을 비슷한 연배로 본다면 30년대 초 평양에서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안기영 관련 기사 가운데 1930년 평양 백선행기념관에서 12월 26, 27일 안기영과 함께 이화여전 학생들이 <아리랑>·<양산도>·<방아타령>·<도라지 타령>·<농부가> 등을 합창과 독창으로 연주하였으며, 여기에 천오백여 명의 청중이 몰렸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김신덕이 이 청중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합창 편곡’된 민요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그가 편찬하는 교과서에 합창 편곡 민요를 수록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170) 본 논문에서 ‘의식 행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노래’의 의미로 사용한다.

		母堂				
4	전원의 평화	이은상	박태준	1, 10	미상	?
5	풍년 노래	미상	장하린	2, 7	1940	?
6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이병기	나운영	2, 7	1940	의식가[173]

<개천가>는 대종교(大倧敎)의 음악이다. 수록 교과서 2의 편찬자 계정식(1904-1977)은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국교는 단군교(대종교)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해오고 있는 조상숭배는 단군교에서 기인한 것이다. <삼대 조상>들 - 단군(예지하라!)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은 4천 년이 넘도록 추앙받아오고 있다.” (박균, 2016: 250)며 대종교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계정식이 포교 목적으로 <개천가>를 ‘교과서’에 수록하였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민족주의적 노랫말을 담고 있는 <개천가>가 ‘민족주의’가 강조되던 해방공간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과서 수록곡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눈 오는 밤>은 음악적 특성으로도 다양한 정보 검색을 통해서도 명확한 장르를 파악하기 어려워, 부득이 콘텐츠 제공 사이트의 분류를 따랐다.[174] <백로곡>, <전원의 평화>, <풍년 노래> 등의 장르 또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는 1946년 10월 9일에 있었던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식’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기념식에서 <한글 노래>(이극로/채동선)와 함께 가창된 것으로 확인된다(이응호, 1974: 499).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예술가곡’, ‘애국가요’, ‘학교 교육 관련 노래’, ‘동요’, ‘민요’ 장르별 수록곡이 조선곡 전체 총 97곡조, 203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면 <표 Ⅲ-11>과 같다.

---

171) ‘작곡/발표 연대’의 근거는 ‘1.3 작곡·발표 시기’ 내용 중 <표 Ⅲ-18>, <표 Ⅲ-19>, <표 Ⅲ-20>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172)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최남선의 노랫말로 확인된다.(한정호(2020), p.17)

173) 이 노래는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식〕에 사용될 목적으로 작곡됨. (이응호(1974), p.496, 499)

174) 문화콘텐츠닷컴에 대중가요로 분류되어 있음.

<표 Ⅲ-11> 장르별 조선곡 전체 총 97곡조, 203곡 중 비중

	장르	총 곡조수 내 비중(곡조수)	총 곡수 내 비중(곡수)
1	조선 예술가곡	약 48% (47)	약 56%(113)
2	애국가요	약 21% (20)	약 25%(50)
3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약 13% (13)	약 9%(19)
4	동요	약 9% (9)	약 4%(9)
5	민요	약 2% (2)	약 1%(2)
6	기타	약 6% (6)	약 5%(10)

‘조선 예술가곡’ 장르의 수록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우선 학생을 비롯한 조선 대중에게 비교적 익숙한 곡들이기도 할 뿐 아니라 편찬자의 시각에서 중등학교 음악교육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곡조 측면에서 길이가 짧고 형식도 단순하며 일반 대중이나 학생들이 가창하기에 난도가 높지 않은 곡들이 많았다는 점, 노랫말 측면에서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데에 기능할 수 있는 점, 다양한 시문학을 통하여 우리말글을 교수·학습할 수 있다는 국어교육적 의도 등을 미루어볼 수 있다.

‘애국가요’ 장르의 수록곡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주로 해방 직후라는 시기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편찬자들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기쁨, 되찾은 나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신국가 건설에의 희망을 담은 노래들을 국민 교육적 차원에서 교과서에 다수 수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장르의 수록곡 비중의 이유는 교과서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조선곡’의 장르에 대한 고찰 결과를 ‘음악교과서 조선어화’의 측면에서 살필 때 매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즉 ‘민요’가 『해방중등』 수록곡 장르 중 유일한 ‘조선 전통음악’ 장르라는 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곡이 총 곡조수 중 약 2%, 총 곡수 중 약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조선곡’ 전체 203곡 가운데 ‘조선 전통음악’은 ‘민요’ 단 2곡뿐이며, 이는 외국곡을 포함한 『해방중등』 수록곡 전체 681곡 가운데

이 2곡만이 ‘조선 전통음악’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2곡 외에는 거의[175] 모든 곡이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비추어볼 때 곡조 측면의 이러한 양상은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이 양상의 원인은, 앞서 ‘민요’ 장르 수록곡의 비중이 적은 이유에 대한 서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무엇보다 조선 대중이 서양음악에 익숙했으며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조선 음악의 주류가 되어 있었던 해방공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총독부가 식민조선의 음악교육을 서양음악 중심 교육으로 정한 것을(이유선, 463-464) 들 수 있다. 일본 음악교육은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서양음악 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176] 이는 음악교과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188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발행된 일본 중등음악교과서 수록곡은 대부분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본 전통 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도 발견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서양 작곡자의 곡조에 일본어 노랫말을 붙여(번역/작사) 만든 곡 또는 일본어 노랫말을 토대로 일본인 작곡자가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든 곡이 교과서 수록곡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小學唱歌集』(초편(1889), 2편(1885), 3편(1885)),[177] 『新編中學唱歌集中卷』(1902),[178] 『中等唱歌』(1909),[179] 『如學唱歌』(1908),[180] 『如學唱歌』(1922)[181]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음악교육은 조선총독부의 대조선 음악교육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일제강점기 음악교육이 서양음악 중심이 되면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에 노출되고 이 음악을 학습

175) 중국곡 <모리화>는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176) 이는 19세기 말 일본 음악교육의 중추적 기관이었던 동경음악학교(1887년 설립. 전신 음악취조괘(音楽取調掛, 1878년 설치)가 서양음악 교육을 중시함에 따른 것이었다.
177) 文部省 音楽取調掛 편찬. 표지에 小學校 師範學校 中學校 教科用 書
178) 東京 十字屋 발행. 鈴木米次郎, 野村成仁 공편
179) 東京音樂學校 편찬. 合資會社 共益商社樂器店 발행
180) 山田源一郎(야마다반이치로) 편. 合資會社 共益商社樂器店 장판(藏版)
181) 山田源一郎 편. 合資會社 共益商社樂器店 장판(藏版)

하면서 익숙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김용희, 2002: 8; 김지선, 2012: 116-117). 또한 일제강점기의 서양음악 중심의 음악교육은 조선의 서양음악 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일조하였으며(김지선, 2012: 127), 서양음악을 공부한 일본인/조선인이 교사가 되면서(김지선, 2012: 118-120) 서양음악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조선 음악교육계의 주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기독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먼저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서양음악 교육을 들 수 있는데, 19세기 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세운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찬송가와 서양음악을 교재로 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졌다(민경찬, 2006: 64, 66-67). 전국적으로 다수의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교육을 이어 나갔으므로, 이들 학교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의 영향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찬송가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19세기 말부터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이 앞다투어 조선에 들어왔고, 각 교단들이 찬송가집을 편찬·발행하면서 여러 찬송가집류가 존재하였다(문옥배, 2002: 26). 그 가운데에서 특히 1909년 발간된 연합 찬송가집 『찬숑가』의 경우, 1910년까지 1년 사이에 22만 5,000부가 발행되었다(민경찬, 2006: 34). 이 사실로부터 20세기 초 조선의 기독교 선교가 매우 급속도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수많은 조선 대중이 교회를 통하여 찬송가를 비롯한 서양음악에 익숙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양한 찬송가 곡조들은 향후 조선에서 다양한 애국가류, 독립군가, 항일투쟁가 등의 곡조로서 사용되었으며 이 땅에 서양음악이 정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민경찬, 2006: 34-35).

셋째, 음반 시장의 주류가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된 상황을 들 수 있다. 1920년대까지는 전통음악 음반이 대량 취입되고 유통되었으나, 1930년대에 대중가요(유행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통음악 음반 시장이 위축되었고(배연형, 2011: 68-69) 이후에도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다. 대중가요는 대중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중 접근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음반·방송으로 대량 보급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일본 대중가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이영미, 1998: 57-58),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전형적인 모습인 트로트라고 부르는 엥카(이영미, 1998: 57) 가운데에는 음계, 화성, 리듬 등의 측면에서 서양 음악적 성격을 지닌 곡이 많았다. 일제 말기로 갈수록 음반 시장에서 대중가요, 서양 클래식 음악, 우리 창작음악 등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득세하게 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일제 전쟁기 동안 집중적으로 방송되고 가창된 군국가요, 친일가요를 들 수 있다. 총독부 정책에 따라 음반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급된 이 노래들의 파급효과와 영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이강숙 외 2인, 2001: 185). 이 곡들은 대부분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곡이었다.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대중이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군국가요 외에 없었을 정도였으므로(민경찬, 2006: 178) 일제 말기 조선 대중은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에 더욱 익숙해졌을 것이다.

다섯째, 서양음악 연주회 및 공연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전문 연주 단체의 연주회나 공연을 비롯하여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경성보육학교, 중앙보육학교, 숭실전문학교 등 다양한 학교의 음악부 또는 연주단이 전국의 도시/지방에서 순회 연주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182] 이들의 연주회 레파토리에 서양음악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음반이나 방송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미치는 지방의 조선 대중에게 순회 연주는 서양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조선 대중이 일제에 대항하여 불렀던 노래들을 들 수 있다.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불린 독립군가・광복군가・애국가류 노래들은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조선 대중에게는 '조선의 음악'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 음악들은 조선 대중이 지닌 '조선의 음악'에 대한 관념을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곡에까지 확장시킨 중요한

182) 조선일보 '기일임박한 연전(延專)순회음악'(1933.6.4.), 동아일보 '이전(梨專)순회음악'(1930.12.29.), 조선일보 '출발일 임박한 경성보육 순회연주'(1933.7.7.), 조선일보 '중앙보육순회 신춘음악성황'(1934.3.15.), 조선일보 '숭전(崇專)기청음악부 순회음악연주회'(1931.2.6.)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사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교, 개인, 교회, 음악 단체 등이 주최한 '음악강습회'의 영향도 들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해방공간의 주류 음악은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하여, '전통음악'은 일제강점기 동안 점차 위축되어 조선 대중과 주류 음악계 및 음악교육계에서 멀어졌다. 그 중요한 이유로 학교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이 배제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조선의 음악교육을 서양음악 중심 교육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이 배제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전통음악계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이 배제됨으로써, 전통음악인이 교사로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통음악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없었으며, 전통음악인이 음악교육계 및 주류 음악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전통음악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 전통음악인 교육 및 양성의 기회와 장이 제한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크게 저하되어 전통음악의 명맥을 잇는 데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음악교육에서의 전통음악 배제는 조선 전통음악 문화 보존 및 계승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일제의 서양음악 교육을 통한 조선 전통음악 말살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서양음악 중심의 음악교육 이외에 전통음악이 조선 대중과 주류 음악계 및 음악교육계에서 멀어진 중요한 이유로, 조선 대중이 전통음악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30년대부터 전통음악 음반 시장이 위축되어 회복되지 못하였으며(배연형, 2011: 68-69),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동화정책이 심화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도 조선 전통음악을 접하기 어려웠다. 물론 음악인 및 음악 단체의 전통음악 공연도 어려웠다. 요컨대 서양음악은 점차 조선 대중에게 익숙해지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데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전통음악은 점차 멀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조선 전통음악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은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측면에 부합한다고 해석되기 어렵다. 그러나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조선 전통음악의 비중이 매우 미미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일제강점기 동안 편찬자를 비롯한 조선 대중이 매우 복잡한 음악적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통음악의 비중과 관련된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 부합 여부 판단은,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작곡자

『해방중등』에는 총 27명의 작곡자에 의한 조선곡이 수록되어 있다.[183] 27명의 작곡자명과 그들의 수록곡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2> 조선곡 작곡자 및 작곡자별 수록곡(작곡자명은 가나다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작곡자명	수록곡
1	계정식	안중근 의사 추념가, 청년의 노래
2	금수현	그네
3	김동진	가고파(가고 싶어)
4	김상환	대상교가, 응원가
5	김성태	가싯(시)덤불, 독립행진곡, 아침 해 고울씨고, 은덕가
6	***김순남***	건국행진곡, 산유화
7	김순애	눈, 물레, 살구꽃, 여름바다
8	김현재	자네 집은 밭을 갈아
9	나운영	건국의 노래, 내 고향, 아 가을인가, 조국의 노래,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10	***박은용***	교문을 나슬 때, 송별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충성가)

183) <도라지 타령>, <천안삼거리>, <개천가> 등 3곡은 작곡자 미상.

11	박태준	고요한 삼림(고요한 숲), 낙엽, 무궁화(는) 피고 피고, 물새 발자욱(국), 미풍, 사우(동무생각), 순례자, 스승님 은혜, 어-이 어-이, 전원의 평화, 평온(은)한 바다, 학도 행진곡
12	박태철	어머님
13	북양인	가을
14	***안기영***	그리운 강남, 꽃밭, 남산에 올라, 등산가, 마의태자, 무궁화, 물새, 새 나라 세우면서, 신입생 환영, 유관순, 학도가, 해방전사의 노래
15	안익태	애국가
16	***이건우***	비들기, 여명의 노래, 진달래 피는 나라
17	이제구	봄 꿈
18	이홍렬	내 고향, 농군의 노래, 백로곡, 봄노래, 자장가(아기 재우는 노래, 자장노래, 자장의 노래), 여름방학, 즐거운 우리 교실, 창백한 마을, 학생의 하로, 학우, 해방 기념가
19	임원식	청산곡
20	장하린	풍년 노래
21	***정영재***	흐르는 별
22	***정종길***	에라 동무들아
23	채동선	한글 노래
24	한시형	살구꽃
25	함이영	눈이 옵니다, 이고 진 저 늙은이
26	현제명	고향 생각, 눈 오는 밤
27	홍난파	감둥병아리, 고향 생각, 고향의 봄, 관덕정, 금강에 살으리랏다, 기러기, 꿀돼지, 박꽃 아가씨, 봄, 봄처녀, 봄편지, 봉숭아(봉선화), 봉숭아꽃,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장안사, 하모니카

작곡자별 수록곡 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3> 작곡자별(27명) 수록곡 수 (순위 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순위	작곡자명	수록곡 수
1	홍난파	17
2	박태준, ***안기영***	12
4	이홍렬	11
5	나운영	5
6	김성태, 김순애	4
8	***박은용, 이건우***	3
10	계정식, 김상환, ***김순남***, 함이영, 현제명	2
15	금수현, 김동진, 김현재, 박태철, 북양인, 안익태, 이제구,	1

	임원식, 장하린, ***정영재, 정종길***, 채동선, 한시형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록곡 수 면에서 1 ~ 4위에 해당하는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의 수록곡 수를 더하면 52곡으로 전체 97곡 가운데 약 54%로 절반을 넘는다. 네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편찬자들의 집중적인 선곡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위 홍난파의 수록곡 수는 2 ~ 4위의 그것과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전체 97곡 중 약 1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작곡자별 수록 횟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4〉 작곡자별 수록 횟수 (순위 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 · *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순위	작곡자 명	수록 횟수
1	홍난파	44
2	박태준	29
3	***안기영***	26
4	이흥렬	24
5	안익태	12
6	김성태, 나운영	10
8	김순애	7
9	***이건우***	6
10	***박은용***	4
11	계정식, ***김순남***, 현제명	3
14	김동진, 김상환, 장하린, 채동선, 함이영	2
19	금수현, 김현재, 박태철, 북양인, 이제구, 임원식, ***정영재, 정종길***, 한시형	1

홍난파 곡의 수록 횟수는 2 ~ 4위인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 곡의 그것과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전체 조선곡 수록 횟수 203회 중 약 22%에 해당한다. 수록 횟수 면에서 1 ~ 4위인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 곡의 수록 횟수를 더하면 123회로 전체 203회 가운데 약 61%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작곡자별 수록곡 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우선 수록곡 수 면에서 1 ~ 4위와 수록 횟수 면에서 1 ~ 4위에 해당하는

작곡자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위의 <표 Ⅲ-13>과 <표 Ⅲ-1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의 수록곡 수와 수록 횟수는 다른 작곡자들의 그것보다 현격히 앞서 있으며 네 명의 수록곡 수는 조선곡 전체 수록곡 수 97곡 가운데 약 54%, 수록 횟수는 약 6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교과서 편찬자들의 네 작곡자의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를 발견할 수 있다.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 이 네 명의 작곡가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 늦어도 30년대부터 작곡 및 연주 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였으며 이들이 작곡한 많은 곡이 대중에게 사랑받음으로써 명성을 얻었다.[184] 해방공간 시점에서 이들의 곡은 대중적 선호가 검증되었다는 점, 사회적으로나 음악계에서나 인정받는 작곡가의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조선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수록곡으로서 채택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창 교수·학습을 하기에 이들의 곡이 난도가 높지 않은 점도 수록곡으로 선곡되는 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난파의 경우, 수록곡 수나 수록 횟수 면에서 독보적 우위에 있다. 홍난파의 곡들은 근간의 친일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는 초·중등 음악교과서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후 20세기가 끝나가도록 '민족의 음악가'로 불렸으며 그의 곡들은 초·중등 음악교과서에 다수 수록되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오늘날 홍난파는 대표적인 '친일파 음악인'으로 불리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제1호 중등음악교과서인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1946)의 '서언'에는 '친일파 작품 배제'가 선곡 기준의 하나로 공언되어 있다.[185] 친일파 작품 배제를 선곡 기준으로

184) 홍난파는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평론가, 소설가, 잡지 발행인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이름을 알렸고, 그의 <고향의 봄>, <하모니카>를 비롯한 수많은 동요와 예술가곡 <봉선화>가 큰 사랑을 받았다. 박태준은 작곡가, 합창지휘자, 교육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동요와 예술가곡을 작곡하였는데, 동요 <오빠생각>, 예술가곡 <사우(동무생각)>가 특히 사랑받았다. 안기영은 성악가, 작곡가, 교육자, 문필가로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예술가곡 <마의태자>, <그리운 강남>이 큰 사랑을 받았다. 이흥렬은 피아니스트, 작곡가,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예술가곡 <바위고개>, <자장가>로 사랑받았다.

명시한 교과서는 『해방중등』 23종 가운데 이 교과서 1뿐이지만, 이 선곡 기준은 단지 이 교과서에서만 국한되어 적용된 것이라기보다는 해방공간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 기준이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제명'의 곡이 23종의 음악교과서 안에 2곡뿐이라는 점이 설명된다. 현제명은 일제 말기 다수의 친일 행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손태룡, 1994: 139-141). 일제강점기 동안 성악가로도 작곡가로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현제명의 친일 행적은 그의 유명세를 타고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므로, 해방 직후에도 그의 곡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교과서 수록곡으로 다수 선정되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186]

그렇다면 홍난파의 곡이 『해방중등』에 있어서 수록곡 수 1위, 수록 횟수에서도 압도적 1위인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 사실은 당시 음악계 및 음악교육계에서 홍난파를 "친일파적 작곡가"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로 하여금 홍난파에 대한 근간의 평가가 지니는 타당성이 재고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만든다.

홍난파가 일제강점기에 이름이 나지 않은 음악인도 아니었고 그의 행적 또한 유명세를 타고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해방공간 음악계 및 음악교육계에서 그를 친일파로 여기지 않은 것은 그의 행적이 친일적이라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거나, 친일파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홍난파를 친일파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홍난파가 수록곡 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압도적 1위에 오를 수는 없다.

물론 홍난파는 1937년에서 1938년에 걸친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185) '서언' 내용 중 선곡 요령의 세 번째 항목이 "이미 발표된 예술가곡 중 친일파적 작사자, 작곡자의 가곡은 이를 제외할 것"이다.

186)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자인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박용구는 이 교과서의 선곡 기준과 관련하여 "처음 그, 원칙을 하나 세운 게, 친일파는 그만두자. 이제 새로 수록하자. 현제명 곡은 한 곡도 없어요."라고 구술한 바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9) 그러나 타교과서에는 현제명의 <고향 생각>(교과서 7, 14)과 <눈 오는 밤>(교과서 13)이 수록되어 있다.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후 글과 음악을 통한 친일 행적을 남긴 바 있으나,[187] 일제 말기 참전 선동, 전쟁 찬양, 후생악단 활동 등의 적극적 친일 행적을 보인 이들과 비교할 때 소극적이며 행적 건수도 많지 않았다. 여기에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앓다가 사망했다는 설(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 2006: 175-176), 검거되기 전까지 민족주의자적 행보를 보인 점 등이 해방공간 조선 대중과 음악계로 하여금 그를 친일파로 규정하지 않게 하는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그의 동요와 가곡들이 해방공간 시기에도 우리 구성원들에게 계속 사랑받았으며 교과서에도 수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록곡을 『해방중등』 편찬 당시의 작곡자들의 연령과 관련하여 살피기 위하여, 작곡자의 생몰년도를 확인하였다. 작곡가별 생몰년도와 출생연대별 작곡가를 각각 <표 Ⅲ-15>와 <표 Ⅲ-16>으로 나타내었다.

<표 Ⅲ-15> 27명의 작곡자별 생몰년도[188]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작곡자명	생몰년도
1	계정식	1904 - 1974[189]
2	금수현	1919 - 1992[190]
3	김동진	1913 - 2009[191]
4	김상환	?
5	김성태	1910 - 2012[192]
6	***김순남***	1917 - 1986경[193]
7	김순애	1920 - 2007[194]
8	김현재	?
9	나운영	1922 - 1994[195]
10	***박은용***	1919 - 1985[196]
11	박태준	1900 - 1986[197]
12	박태철	?
13	북양인	?
14	***안기영***	1900 - 1980[198]

187) 김양환(2009), p.27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홍난파', 2022.11.17. 00:30 접속.
188) 생몰년도 확인 불가 7명

15	안익태	1906 - 1965[199]
16	***이건우***	1919 - ?[200]
17	이제구	?
18	이홍렬	1909 - 1980[201]
19	임원식	1919 - 2002[202]
20	장하린	?
21	***정영재***	?
22	***정종길***	1911 - 1995[203]
23	채동선	1901 - 1953[204]
24	한시형	1925 - ?[205]
25	함이영	1915 - 1957[206]
26	현제명	1903 - 1960[207]
27	홍난파	1897 - 1941[208]

<표 Ⅲ-16> 출생연대별 해당 작곡자 (5년 단위로 구분)

※ 생몰년도가 확인되는 작곡가 20명을 대상으로 함.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출생연대	작곡자	인원(명)
1	1895 - 1900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3

1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계정식', 2021.12.1.02:12 접속.
190)『한국 작곡가 사전』, p.40
191) 두산백과, '김동진', 2021.12.1.02:03 접속.
192) 인명사전, '김성태', 2021.12.1.02:24 접속.
193)『한국 작곡가 사전』, p.107
1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순애', 2021.12.1.02:36 접속.
195)『한국 작곡가 사전』, p.178
196)『한국 작곡가 사전』, p.217
197)『한국 작곡가 사전』, p.230
198)『한국 작곡가 사전』, p.269
199)『한국 작곡가 사전』, p.273
200)『한국 작곡가 사전』, p.324
201)『한국 작곡가 사전』, p.381
2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원식', 2021.12.1.02:52 접속.
203)『한국 작곡가 사전』, p.424
204)『한국 작곡가 사전』, p.452
205)『한국 작곡가 사전』, p.483
206) Daily 월간조선 07 2020 매거진, 기사 '동요<우리나라 꽃>의 작곡가 함이영'
207)『한국 작곡가 사전』, p.494
208)『한국 작곡가 사전』, p.497

2	1901 - 1905	계정식, 채동선, 현제명	3
3	1906 - 1910	김성태, 안익태, 이흥렬	3
4	1911 - 1915	김동진, ***정종길***, 함이영	3
5	1916 - 1920	금수현, ***김순남***, 김순애, ***박은용, 이건우***, 임원식	6
6	1921 - 1925	나운영, 한시형	2

수록곡 수와 수록 횟수 면에서 1 ~ 4위에 해당하는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의 출생년은 1910년 이전으로, 해방 이전에 작고한 홍난파를 제외한 세 명의 연령은 해방공간 기준 30대 중반 ~ 40대 중반이었다. 작곡자들 전체의 출생연대로 볼 때, 20세 ~ 45세 사이의 작곡자들의 곡이 『해방중등』을 채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6년 ~ 1920년 사이에 출생한 작곡자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이보다 더 낮은 연령인 1921년 ~ 1925년 사이에 출생한 작곡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해방공간 기준 20대 초반 ~ 30세 정도 연령의 '신진 작곡가'들이 27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이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연령의 중견 작곡가들의 곡은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고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된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편찬자가 수록곡으로 선정하기에 좋은 조건인데, 이들의 곡으로 수록곡을 다 채우지 않고 대중에게 낯설 수 있는 신진 작곡가들의 곡을 다수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진 작곡가들의 곡을 수록하고자 하는 편찬자들의 의지에서 발로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신진 작곡가들의 경우, 연령이 낮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아예 활동할 수 없었거나 또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조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친일파'적 행위를 하기에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신진 작곡가들은, 일제강점기에 활발히 활동하면서 크든 작든 친일적 행위를 했던 중견 작곡가들과 비교하여 '친일'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신진 작곡가들 가운데에는 중견 작곡가들과는 달리 작곡을 전공한 전문 작곡가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 수준 또한 초기 작곡가들과는 달랐다. 따라서 '친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거나 전문 작곡가의 곡을 싣고

자 했던 편찬자들에게, 신진 작곡가들의 곡이 『해방중등』 수록곡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 작곡가들 가운데 해방공간 시기 중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한 이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금수현,[209] 박은용,[210] 나운영,[211] 김순애,[212] 이건우,[213] 임원식,[214] 함이영[215]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시중등음악교본』의 경우 이 교과서의 편찬위원이었던 박용구의 구술로부터[216] 새로 작곡되어 발표된 곡, 추천된 곡 가운데 수록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과서의 경우, 편찬위원회의 구성원이 서울 지역 중등학교 음악교사였고 이들 가운데에는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이 해방 이전 또는 이후에 만든 곡이 수록곡으로 추천되거나 수록되는 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교과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 중인 신진 작곡가의 곡을 수록하는 일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신진 작곡가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들 가운데 좌익 계열에 속하는 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종길, 김순남, 이건우, 박은용, 한시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은 식민지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 운동, 독립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해방 전후 민족계몽,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던 젊은 문화 예술계, 교육계 인사들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이들의 비중은 컸고, 음악계 및 음악교육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해방 직후부터 결성된

---

209) 해방 당시 동래고등여학교 재직.(금수현(1989), pp.65-88)
210) 해방 당시 이화 여고 음악교사.(한겨레음악대사전, ‘박은용’, 2022.5.13. 13:49 접속. ;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1994)
211) 나운영기념사업회(2013), p.37, p.40
212) 한겨레음악대사전, ‘김순애’, 2022.5.13. 13:45 접속.
213) 『한국작곡가사전』, p.324
2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원식’, 2022.5.13.14:35 접속.
215) 월간조선 2020년 7월호, 기사 ‘동요 <우리나라 꽃>의 작곡가 함이영’, 2022.5.13. 15:03 접속.
216)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9

음악단체 ‘조선음악건설본부’,[217] ‘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218] ‘조선음악가동맹’,[219] ‘조선음악건설동맹’[220] 등에서 정종길, 김순남, 이건우, 박은용 등이 활동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박은용을 제외한 세 사람은 각각의 단체에서 요직을 맡기도 하는 등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221]

『해방중등』 수록 작곡자별 수록곡, 수록곡 수, 수록 횟수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작곡자별 수록곡, 수록곡 수, 수록 횟수(작곡자명의 가나다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작곡자명	수록곡수	수록횟수	수록곡 곡목
1	계정식	2	3	안중근 의사 추념가, 청년의 노래
2	금수현	1	1	그네
3	김동진	1	2	가고파 (가고 싶어)
4	김상환	2	2	대상교가, 응원가
5	김성태	4	10	가싯(시)덤불, 독립행진곡, 아침 해 고울시(씨)고, 은덕가
6	***김순남***	2	3	건국행진곡, 산유화
7	김순애	4	7	눈, 물레, 살구꽃, 여름바다
8	김현재	1	1	자네 집은 밭을 갈아
9	나운영	5	10	건국의 노래, 내 고향, 아(아아, 아-) 가을인가, 조국의 노래,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10	***박은용***	3	4	교문을 나슬 때, 송별가, 이 몸이 죽고 죽어(충성가)
11	박태준	12	29	고요한 삼림(고요한 숲), 낙엽, 사우(동무생각), 무궁화(는) 피고 피고, 물새 발자욱(국), 미풍, 순례자, 스승님 은혜, 어-이 어-이, 전원의 평화, 평온(은)한 바다, 학도 행진곡
12	박태철	1	1	어머님
13	북양인	1	1	가을

217) 1945년 8월 16일 결성.(민경찬(2014), p.172)
218) 1945년 9월 28일 결성.(민경찬(2014), p.176)
219) 1945년 12월 결성.(민경찬(2014), p.181)
220) 1947년 6월 15일 결성.(민경찬(2014), p.188)
221) ‘조선음악건설본부’의 회원이었던 김순남과 이건우, ‘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과 ‘조선음악가동맹’의 회원이었던 김순남, 정종길, 이건우, ‘조선음악건설동맹’의 회원이었던 김순남, 박은용.(민경찬(2014) 참고)

14	***안기영***	12	26	그리운 강남, 꽃밭, 남산에 올라, 등산가, 마의태자, 무궁화, 물새, 새 나라 세우면서, 신입생 환영, 유관순, 학도가, 해방 전사의 노래
15	안익태	1	12	애국가
16	***이건우***	3	6	비들기, 여명의 노래, 진달래 피는 나라
17	이제구	1	1	봄 꿈
18	이홍렬	11	24	내 고향, 농군의 노래, 백로곡, 봄노래, 자장가(아기 재우는 노래, 자장의 노래, 자장노래), 여름방학, 즐거운 우리 교실, 창백한 마을, 학생의 하로, 학우, 해방 기념가
19	임원식	1	1	청산곡
20	장하린	1	2	풍년 노래
21	***정영재***	1	1	흐르는 별
22	***정종길***	1	1	에라 동무들아
23	채동선	1	2	한글노래
24	한시형	1	1	살구꽃
25	함이영	2	2	눈이 옵니다, 이고 진 저 늙은이
26	현제명	2	3	고향 생각, 눈 오는 밤
27	홍난파	17	44	감둥병아리, 고향 생각, 고향의 봄, 관덕정, 금강(산)에 살으리랏다, 기러기, 꿀돼지, 박꽃 아가씨, 봄, 봄처녀, 봄편지, 봉숭아(봉선화), 봉숭아꽃,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장안사, 하모니카

1.3 작곡·발표 시기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을 '작곡·발표 시기'의 측면에서 살핀다. 하나의 곡에 있어서 '작곡 시기'는 작곡된 때, '발표 시기'는 곡이 연주나 악보 출판 등을 통하여 발표된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곡에 따라서 '작곡 시기'와 '발표 시기'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둘 중 하나의 시기가 겨우 확인되기 때문에 '작곡 시기' 또는 '발표 시기' 둘 중 하나의 기준으로 해당 수록곡을 정리하여 서술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부득이 본 고찰에서는, 둘 중 하나의 시기를 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둘 중 어느 것이든 확인되는 시기를 '작곡·발표 시기'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칭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시기 구분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등 10년 단위로 하였다.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한 것은 한국 가창곡(양악)의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인 점에 기인한다. 먼저 192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1920년대 곡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 목	노랫말	곡	교과서
1	감둥 병아리[222]	백하	홍난파	3
2	고요한 삼림(고요한 숲)[223]	이은상	박태준	6, 23
3	고향의 봄[224]	이원수	홍난파	9
4	그리운 강남[225]	***김석송***	***안기영***	1, 10, 12, 14
5	남산에 올라[226]	이은상	***안기영***	19. 21
6	내 고향[227]	미상	이홍렬	8
7	물새[228]	이은상	***안기영***	6
8	미풍[229]	이은상	박태준	1, 9, 12
9	봄편지[230]	서덕출	홍난파	3
10	봉숭아(봉선화)[231]	김형준	홍난파	1, 7, 9, 12, 15, 19, 21
11	사우(동무생각)[232]	이은상	박태준	1, 9, 10, 12, 13
12	순례자[233]	이은상	박태준	15
13	평온(은)한 바다[234]	이은상	박태준	16, 17
14	하모니카[235]	***윤복진***	홍난파	3

222) 홍난파(1929)

223) 동아일보, 1928.9.13. 기사 '청년성악가 권태호군의 독창호와 그 곡목' 중 박태준의 <고요한 삼림> 있음.

224) 홍난파(1929)

225) 안기영(1929)

226) 안기영(1929)

227) 이홍렬(1934) 수록 악보에 1926.10으로 표기되어 있음.

228) 안기영(1929)

229) 박태준(1927)

230) 홍난파(1929)

231) 홍영후(1926)

232) 박태준(1927)

233) 동아일보, 1928.9.13. 기사 '청년성악가 권태호군의 독창호와 그곡목' 중 박태준의 <순례자> 있음.

234) 경향신문, 1986. 4. 24. 기사 '최초 가곡은 박태준의 <사우>'에서 이상만은 박태준이 교사로서의 최초의 부임지인 창성(창신-필자)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노산 이은상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20년대에 작곡·발표된 14곡이 총 32회 수록되었다. 이 14곡에는 홍난파의 5곡, 박태준의 5곡, 안기영의 3곡, 이흥렬의 1곡이 포함된 바, 홍난파와 박태준의 곡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홍난파의 곡 가운데 1곡(<봉숭아(봉선화)>)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요' 장르에 해당한다. 그리고 1920년대 곡의 주된 장르는 '예술가곡'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동요' 장르의 비중도 적지 않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14곡 가운데 7곡이 이은상의 시/노랫말로 되어 있어 압도적 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은상의 시/노랫말을 가지고 작곡된 박태준과 안기영의 '예술가곡'들이 다수 수록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으로 193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1930년대 곡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 목	노랫말	곡	교과서
1	가고파(가고싶어)[236]	이은상	김동진	1, 10
2	고향 생각[237]	이은상	홍난파	20
3	고향 생각[238]	현제명	현제명	7, 14
4	관덕정[239]	이은상	홍난파	6, 23
5	금강(산)에 살으리랏다[240]	이은상	홍난파	1, 6, 9, 10, 12, 15, 22, 23
6	기러기[241]	표기없음[242]	홍난파	3
7	꽃밭[243]	권중찬	***안기영***	1, 10, 22
8	꿀돼지[244]	윤석중	홍난파	3
9	낙엽[245]	***윤복진***	박태준	19, 21
10	마의태자[246]	이은상	***안기영***	1, 7, 9, 10, 11, 12,
11	물새 발자욱(국)[247]	***윤복진***	박태준	1, 5, 9, 10, 22, 23
12	박꽃 아가씨[248]	오영수	홍난파	3

을 만난 후 노산의 시에 맞춰 노래를 작곡했다며 <평온한 바다>도 그렇게 작곡된 곡들의 하나로 언급하였으나, 작곡년도를 추정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손태룡에 의하면 박태준은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였으므로 이 곡은 20년대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태룡(2010) 참고. 2021.7.19. 접속.

235) 홍난파(1929)

13	백로곡[249]	정몽주母堂	이홍렬	1, 10
14	봄[250]	이은상	홍난파	18
15	봄처녀[251]	이은상	홍난파	9, 19, 21, 22
16	봉숭아꽃[252]	윤석중	홍난파	3
17	성불사의 밤[253]	이은상	홍난파	1, 9, 12, 16, 17, 22, 23
18	아(아아, 아-) 가을인가[254]	***김수향 (김수경)***	나운영	6, 14, 23
19	애국가[255]	표기없음	안익태	1, 2, 3, 4, 5, 8, 9, 10, 12, 13, 14, 18
20	어머님[256]	김일보	박태철	6
21	어-이 어-이[257]	***윤복진***	박태준	11
22	옛 동산에 올라[258]	이은상	홍난파	19, 20, 21
23	자장가(자장의 노래, 자장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259]	***김동환 (파인)***	이홍렬	7, 8, 19, 21, 22
24	장안사[260]	이은상	홍난파	6, 20, 23
25	창백한 마을[261]	이기순	이홍렬	6, 23
26	청년의 노래[262]	표기없음	계정식	10

---

236) 『한국작곡가사전』, p.73
237) 홍난파,『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38) 현제명(1931)
239) 홍난파,『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40) 홍난파,『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41) 홍난파(1931)(1930년 초판)
242) 수록 악보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홍난파(1931)을 통하여 홍난파의 노랫말임을 확인하였음.
243) 안기영(1931)
244) 홍난파(1931)(1930년 초판)
245) 박태준 가요곡집 『물새발자옥』(1939) 수록 악보에 "昭和9年8月作曲"(1934년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음.
246) 안기영(1931)
247) 박태준 가요곡집 『물새발자옥』(1939) 수록 악보에 "昭和10年8月作曲"(1935년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음.
248) 홍난파(1931)(1930년 초판)
249) 『이홍렬작곡집 제1편』(1934) 수록 악보에 1932.10.10으로 표기되어 있음.
250) 홍난파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51) 홍난파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52) 홍난파(1931)(1930년 초판)
253) 홍난파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54) 1936년. 나운영 홈페이지(www.launyung.co.kr)
255) 안익태의 <애국가>는 그의 <한국환상곡>의 구성곡인데, 음악학자 허영한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환상곡>은 1935년 작곡으로 추정됨.

1930년대에 작곡・발표된 26곡이 총 81회 수록되었다. 이 26곡에는 홍난파의 12곡, 박태준의 3곡, 이흥렬의 3곡, 안기영 2곡, 그리고 김동진・현제명・나운영・안익태・박태철・계정식 등의 각 1곡씩이 포함된다. 즉 1920년대에 작곡・발표된 수록곡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홍난파의 곡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의 12곡은 '예술가곡' 또는 '동요' 장르에 해당한다. 그리고 1930년대 곡의 주된 장르는 '예술가곡'으로 볼 수 있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26곡 가운데 10곡의 노랫말이 이은상의 것으로서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 그가 독보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은상의 시/노랫말을 가지고 작곡된 홍난파의 8곡, 안기영과 김동진의 각각 1곡이 수록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은상 외에 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의 노랫말로 된 곡도 4곡에 이르는데, 이 4곡은 모두 박태준의 '예술가곡'이다.

1930년대 곡이 가장 많이 수록된 교과서는 [교과서 1]・[교과서 10]으로 각각 8곡씩 수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7곡이 수록된 [교과서 23], 그리고 6곡씩 수록된 [교과서 6], [교과서 9], [교과서 22] 등이 뒤를 잇는다. 다음으로 194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20>과 같다.

<표 Ⅲ-20> 1940년대 곡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

256) 나운영의 글 '한국양악의 뒤안길 3. 안기영, 현제명에서 태동된 가곡 창작시대'에 1934년 6월 박태철 '가요작곡집 제1집'이 출판되었으며 수록 독창곡 중에 <어머님>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나운영 공식 홈페이지)

257) 박태준 『양양범버궁』(1931). 손태룡(2012), p.22

258) 홍난파『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59) 이흥렬(1934) 악보에 '1932.10.5.'로 표기되어 있음.

260) 홍난파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

261) 이흥렬(1934) 수록 악보에 '1932.9.22.'로 표기되어 있음.

262) 악보에 'September 1937'로 표기되어 있음.(KBS 'TV쇼 진품명품'(2020.1.12.방송)에 <안중근의사 추념가> 악보와 함께 소개됨.)

	곡 목	노랫말	곡	교과서
1	가싯(시)덤불[263]	김소월	김성태	10, 20
2	가을[264]	이병기	북양인	20
3	개천가[265]	표기없음[266]	표기없음	2
4	건국의 노래[267]	김태오	나운영	1, 9, 10
5	건국 행진곡	김태오	***김순남***	1, 10
6	교문을 나설 때	김재인	***박은용***	6
7	그네[268]	김말봉	금수현	20
8	내 고향[269]	노천명	나운영	20
9	농군의 노래	***여상현***	이홍렬	1, 9, 10, 22
10	눈[270]	표기없음[271]	김순애	20
11	대상 교가[272]	이종림	김상환	12
12	독립행진곡	***박태원***	김성태	1, 9, 10
13	등산가	***안기영***	***안기영***	6, 23
14	무궁화	***박세영***	***안기영***	8
15	무궁화(는) 피고 피고	***윤복진***	박태준	5, 9
16	물레[273]	***김안서***	김순애	19, 20, 21
17	비들기[274]	***박세영***	***이건우***	8
18	산유화[275]	김소월	***김순남***	10
19	살구꽃[276]	***김안서***	한시형	14
20	새 나라 세우면서	***조남령***	***안기영***	8
21	송별가	김재인	***박은용***	6
22	스승님 은혜	***임학수***	박태준	11
23	신입생 환영	***임학수***	***안기영***	19, 21
24	아침 해 고울시(씨)고	***임학수***	김성태	1, 9, 10
25	안중근 의사 추념가[277]	***김향운***	계정식	2, 7
26	에라 동무들아[278]	윤기영	***정종길***	8
27	여름방학	***임학수***	이홍렬	11
28	여명의 노래	화암	***이건우***	1, 9, 10, 12
29	유관순	***임학수***	***안기영***	11
30	응원가[279]	윤계현	김상환	12
31	이 몸이 죽고 죽어(충성가)	정몽주	***박은용***	1, 10
32	자네 집은 밭을 갈아[280]	***윤복진***	김현재	20
33	조국의 노래	김태오	나운영	18
34	즐거운 우리 교실	***임학수***	이홍렬	11
35	진달래 피는 나라	***김기림***	***이건우***	9
36	학도 행진곡	이병기	박태준	6, 23
37	학도가	***김안서***	***안기영***	6, 23
38	학생의 하로	***임학수***	이홍열	19, 21

39	학우	***김안서***	이홍렬	6, 22, 23
40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281]	이병기	나운영	2, 7
41	한글 노래[282]	***이극노***	채동선	1, 10
42	해방 기념가	이병기	이홍렬	2, 7
43	해방 전사의 노래	***임화***	***안기영***	1

263) 『김성태의 음악세계』(김용환(1998), p.44)와 『한국 작곡가 사전』(p.97)에 1950년 작으로 되어 있으나, 1948년 『중등음악교본』(교과서 10)에 수록되어 있다.

264) 노랫말인 시 '저무는 가을'(원제)은 『가람시조집』(1939)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집의 발행 연도에 비추어 볼 때 40년대에 작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65) 교과서2 수록 악보에 '대종교 『한얼노래』에서'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얼노래』(1942)의 '머릿말'(이극로 작성)에는 "새로 스물 일곱장을 더 지어 보태어"(한정호, '이극로의 대종교 활동과 『한얼노래』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20. 21권 2호, p.17) 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여기에 <개천가> 또한 포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1940년대에 작곡된 것으로 보았다.

266) 표기는 없으나 최남선으로 확인됨.(한정호(2020), p.17)

267) 나운영(2013), p.46

268) 『한국 작곡가 사전』(p.40)에는 1946년 작곡으로 되어 있으나, 금수현의 자서전 『금수현 나의 시대 70』(pp.107-109)에는 1947년으로 되어 있다.

269) 나운영 공식 홈페이지에 1950년 작곡으로 되어 있으나, 교과서 2『중등음악교본 2』(1949)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40년대 곡.

270) 『한국 작곡가 사전』(p.110)에는 1951년으로 되어 있으나, 최희남 편저 『중등음악교본 2』(1949, 교과서 20)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40년대 곡.

271) 표기 없으나 양주동으로 확인됨.(『김순애 가곡집 1』(1954))

272) 작사자 이종림(1945~1953 교장 재직)이 취임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유로(2020), p.146)

273) 『한국 작곡가 사전』(p.110)에는 1951년으로 되어 있으나, 최희남 편저 『중등음악교본 2』(1949, 교과서 20)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40년대 곡.

274) 노랫말 내용 중 '비 걷칠 줄 알아도 네가 알겠니, 빼앗겼던 우리 땅 도루 찾인(은) 줄'로 볼 때 해방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75) 김순남 가곡집 『산유화』(1947).

276) 한시형이 1925년 출생으로 1942년부터 작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므로 40년대 작품으로 추정.(『한국 작곡가 사전』, p.483)

277) 악보에 'March 1946'으로 표기되어 있음.(KBS 'TV쇼 진품명품'(2020.1.12.방송))

278) 노랫말 내용 중 '해 떠온다네 삼천리 강산에, 잠겼던 토막이 밝아오네', '우리 살림살이 새 뜻에 기둥시고 영원히 빛내자 이 강산을' 부분은 해방의 기쁨과 앞날에 대한 다짐으로 해석되므로 40년대 작곡으로 추정.

279) 김상환은 해방공간 당시 대상(大商) 재직 교사로 확인됨. (이유로(2020), p.145) 해방 이후 김상환에 의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

280) '자네 집은 밭농사, 우리 집은 논농사를 지어, 이웃끼리 겨레끼리 나누어 먹자'는 노랫말 내용으로 볼 때 해방 이후에 작곡된 노래로 추정.

281) 1946년 10월 9일에 열렸던 한글 반포 오백돌 기념 행사에서 연주되었다. (이응호(1974), p.496)

282) 자유신문(自由新聞) 1945년 10월 9일자에 <한글노래>가 실려 있는데,(이응호(1974), p.489) 노랫말 3절에 '오래동안 묻힌 옥돌 갈고 닦아서 새 빛나는 하늘 아래 골고루

이 43곡 가운데 해방 이전에 작곡·발표된 곡을 나타내면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1940년대 곡 - 해방 이전

	곡목	노랫말	곡	교과서
1	개천가	표기없음	표기없음	2

1940년대 곡 가운데 작곡·발표 시기가 해방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곡들을 나타내면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1940년대 곡 - 해방 이전/후 확인 불가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목	노랫말	곡	교과서
1	가을[283]	이병기	북양인	20
2	살구꽃[284]	***김안서***	한시형	14

<표 Ⅲ-21>의 1곡과 <표 Ⅲ-22>의 2곡을 제외한 40곡의 1940년대 곡은, 모두 해방 이후에 작곡된 것으로 파악된다.[285] 해방을 맞아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해진 조선인 작곡자들이 작곡·발표한 '예술가곡', '애국가요' 등과 함께 조선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를 담은 '학교 교육 관련 노래'들이 중등음악교과서에 대거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에 작곡·발표된 43곡이 총 72회 수록되었다. 이 43곡에는 안기영의 7곡, 이흥렬의 6곡, 나운영의 4곡, 박태준의 3곡, 박은용의 3곡, 김순남의 2곡, 이건우의 2곡, 김순애의 2곡 그리고 그 외 여러 작곡자의

뿌리세'로 보아 해방 이후 작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83) 노랫말인 시 '저무는 가을'(원제)은 『가람시조집』(1939)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집의 발행 연도에 비추어 볼 때 40년대에 작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4) 한시형이 1925년 출생으로 1942년부터 작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므로 40년대 작품으로 추정.(『한국 작곡가 사전』, p.483)

285) 각종 문헌 자료를 비롯하여 작사/작곡자의 생몰년 및 해방공간 시기 동안의 활동 상황, 수록곡의 노랫말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안기영과 이흥렬의 곡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나, 193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에 비하여서도 훨씬 다수의 작곡자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86]

1920, 30년대에 작곡·발표된 수록곡 가운데에서 홍난파와 박태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던 안기영과 이흥렬의 곡이, 1940년대에 작곡·발표된 수록곡 가운데에서는 각각 1, 2위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그 이유로는 홍난파가 1941년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작품이 더 이상 창작되지 못한 점과, 안기영과 이흥렬의 '애국가요'와 '학교 교육 관련 노래'들이 다수 수록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194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들의 노랫말을 살펴보면, 임학수의 7편, 김안서의 4편, 이병기의 4편, 김태오의 3편, 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의 2편, 김소월의 2편, 김재인의 2편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은상의 시/노랫말이 1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이는 1920, 30년대에 작곡·발표된 수록곡 가운데 '이은상'의 노랫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던 양상과 확연히 비교된다.

임학수의 시/노랫말로 된 곡들은 '애국가요'와 '학교 교육 관련 노래', 김안서의 시/노랫말로 된 곡들은 '예술가곡'과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이병기의 시/노랫말로 된 곡들은 '예술가곡', '애국가요', '의식가', 김태오의 시/노랫말로 된 곡들은 '애국가요', 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의 시/노랫말로 된 곡들은 '애국가요'와 '예술가곡', 김소월의 시/노랫말로 된 곡들은 '예술가곡', 김재인의 시/노랫말로 된 곡들은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장르에 해당한다. 1920, 3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들과 비교해볼 때, 다수의 인물에 의한 시/노랫말이 발견되는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287]

1940년대 곡이 가장 많이 수록된 교과서는 10곡이 수록된 [교과서

286) 수록곡 가운데 192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의 작곡자는 4명, 1930년대 10명, 1940년대 17명으로 1940년대가 최다.

287) 1920년대 작곡·발표된 수록곡의 '노랫말 관련 인물' 9명, 30년대 10명(미상 2명 포함), 40년대 26명(미상 2명 포함).

10]이며, 그다음으로 9곡이 수록된 [교과서 1], 7곡이 수록된 [교과서 9]와 [교과서 20] 등이 뒤를 잇는다. 한편, 작곡·발표 연대 미상 곡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작곡·발표 연대 미상 곡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곡 목	노랫말	곡	교과서
1	눈 오는 밤	***김안서***	현제명	13
2	눈이 옵니다	***김안서***	함이영	23
3	도라지 타령	표기없음	조선민요/미리영 편곡	5
4	봄 꿈	고장환	이제구	8
5	봄노래	이은상	이홍렬	9
6	살구꽃	***김안서***	김순애	6, 23
7	여름 바다	***김안서***	김순애	11
8	은덕가	효종	김성태	6, 23
9	이고 진 저 늙은이	정철	함이영	21
10	전원의 평화	이은상	박태준	1, 10
11	천안삼거리	표기없음	조선민요	5
12	청산곡	김상용	임원식	6
13	풍년 노래	미상	장하린	2, 7
14	흐르는 별	오수경	***정영재***	13

이 곡들이 연대 미상인 이유는, 대체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헌 자료나 관련 정보 입수가 어렵고 이로 말미암아 작곡·발표 시기 확인이 쉽지 않은 데에 있다. 그러나 '민요' 두 곡은 해방공간 시기에도 현재에도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미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을 '작곡·발표 시기'의 측면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7곡조의 '조선곡' 수록곡 가운데 연대 미상곡을 제외하고, 1920년대에 작곡·발표된 것이 14곡, 1930년대에 작곡·발표된 것이 26곡, 1940년대에 작곡·발표된 것이 43곡이다. 먼저 192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들에는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 가운데 수록곡 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최상위에 있는 네 작곡가 홍난파·박태준·안기영·이홍렬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포함되

어 있는데, 그 가운데 홍난파・박태준의 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 수록 편수가 가장 많은 이는 이은상으로, 그의 노랫말 7편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수록곡 장르 면에서는 '예술가곡'의 비중이 가장 크고 '동요'가 그 뒤를 잇는다.

193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들에는, 20년대 곡의 작곡가 홍난파・박태준・이흥렬・안기영을 비롯하여 김동진・나운영・박태철・계정식・안익태・현제명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홍난파의 곡이 12곡으로 가장 많으며, 박태준, 이흥렬의 곡이 그다음으로 많다.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 수록 편수가 가장 많은 이는 2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은상으로, 그의 노랫말 10편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수록곡 장르 면에서는 '예술가곡'이 주를 이룬다.

1940년대에 작곡・발표된 곡들에는, 안기영・이흥렬・나운영・박태준・박은용・김순남・이건우・김순애・김성태・북양인・금수현・한시형・계정식・정종길・김현재・채동선・김상환 등 다수의 작곡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안기영의 곡이 7곡으로 가장 많으며, 이흥렬, 나운영, 박태준, 박은용, 김순남, 이건우, 김순애 등의 곡이 뒤를 잇는다.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 수록 편수가 가장 많은 이는 임학수로, 그의 노랫말 7편이 수록되었다. 임학수에 이어 김안서, 이병기, 김태오, 윤복진, 김소월, 김재인 등이 다수의 노랫말을 수록하였다. 수록곡 장르 면에서는 '애국가요'・'학교 교육 관련 노래'가 주를 이루는데, 두 장르에 해당하는 곡이 40년대 곡 총 43곡 가운데 33곡[288]의 비중을 차지한다.

1920, 30, 40년대에 작곡・발표된 수록곡에 대하여 서술한 바를 간단히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 1920, 30, 40년대에 작곡・발표된 수록곡 정리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288) '애국가요' 20곡, '학교 교육 관련 노래' 13곡.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수록곡 수	14	26	43
수록 횟수	32	81	72
작곡자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홍렬	홍난파, 박태준, 이홍렬, ***안기영***, 김동진, 나운영, 박태철, 계정식, 안익태, 현제명	***안기영***, 이홍렬, 나운영, 박태준, ***박은용***, ***김순남***, ***이건우***, 김순애, 김성태, 북양인, 금수현, 한시형, 계정식, ***정종길***, 김현재, 채동선, 김상환
노랫말 관련 주요 인물	이은상	이은상	***임학수***, ***김안서***
중심 장르	예술가곡, 동요	예술가곡	애국가요, 학교 교육 관련 노래

1920, 30, 40년대를 비교해보면, 30년대 곡은 수록곡 수 면에 있어서는 40년대 곡에 비하여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수록 횟수 면에서는 40년대를 현저히 앞선다. 이를 통하여 40년대의 '애국가요'와 '학교 교육 관련 노래'들이 수록곡 수는 많은 반면, 30년대 '예술가곡'만큼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40년대 곡이 2, 30년대 곡에 비해 수록곡 수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해방 이후에 작곡·발표된 '애국가요'와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장르의 비중에 있다. 이 두 장르는 해방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한 해방의 기쁨, 애국애족의 정서, 신교육 수립에 대한 열의와 기대감과 관련된다. 요컨대, 40년대 곡의 비중은 교과서 편찬 당시의 국가적·교육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별 중심 장르를 비교해보면, '예술가곡'이 2, 30년대 곡 가운데에서는 중심 장르인 데 반하여 40년대 곡 가운데에서는 중심 장르가 아니다. 1930년대 말부터 해방까지 일제가 치르는 전쟁의 전초 기지이자 인적·물적 동원의 거점으로서의 국가적 상황, 그 안에서의 억압적·통제적 음악 창작 상황과 관련된 양상으로 파악된다.[289]

1940년대 해방공간 시기 새로 곡을 만들고 그 곡들을 수록하는 일은 '조선 음악교육 정체성 수립'을 위한 '새로 만들기' 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새로 만든 '애국가요', '학교 교육 관련 노래'를 많이 수록한 것은, 일본 작곡자의 곡을 선정하지 않는 식의 소

289) '장르'별 고찰의 '예술가곡' 부분에서 이와 관련하여 서술한 바 있음.

극적 ‘조선어화’ 방법과 비교해볼 때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잊을 뻔했던, 또는 잃을 뻔했던 1920, 30년대의 ‘조선곡’을 다시 찾아 수록하는 일은 ‘조선 음악교육 정체성 회복·수립’을 위한 ‘되찾기’ 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말 우리의 언어, 문화에 대한 말살 정책이 심화되면서 조선·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까지 겪고 난 후의 해방공간 시기에, 2, 30년대 ‘조선 예술가곡’과 ‘동요’ 즉 조선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노래들은 조선 대중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노랫말 관련 인물

『해방중등』 조선곡의 노랫말 관련 인물은 총 46명이다.[290] 노랫말 관련 인물 미상 곡은 〈도라지타령〉, 〈천안삼거리〉, 〈애국가〉, 〈풍년 노래〉, 〈내 고향〉 등 5곡이다.[291]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시/노랫말 편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5〉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시/노랫말 편수(篇數)(순위 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순위	노랫말 관련 인물	시/노랫말 편수
1	이은상	19
2	***김안서***	8
3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임학수***	7
5	이병기	4

290) ‘동일 인물 다른 표기’를 확인한 결과임.(‘김수향’은 윤복진의 필명, ‘김수경’은 ‘김수향’의 오기, ‘파인’은 김동환의 호)
291) 교과서에 인명이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연구자에 의하여 노랫말 관련 인물이 확인된 경우, 고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상곡에서 제외하였다.

6	김태오	3
7	김소월, ***박세영***, 윤석중	2
10	계정식, 고장환, 권중찬, ***김기림, 김동환(파인)***, 김말봉, 김상용, ***김석송***, 김일보, 김재인, ***김향운***, 김형준, 노천명, ***박태원***, 백하, 서덕출, ***안기영***, 양주동, ***여상현***, 오수경, 오영수, 윤계현, 윤기영, ***이극노***, 이기순, 이원수, 이종림, ***임화***, 정몽주, 정몽주 모당, 정철, ***조남령***, 최남선, 현제명, 홍난파, 화암, 효종	1

시/노랫말 편수 면에서 이은상이 19편으로 1위, 김안서가 8편으로 2위, 윤복진(김수향, 김수경)과 임학수가 각각 7편으로 3위이다. 이들의 수록 편수와 나머지 인물들의 수록 편수 간 차이는 상당하다. 특히 이은상의 수록 편수는 2위인 김안서의 그것보다 약 2.4배나 많으며, 이은상의 19편은 조선곡 전체 97곡조의 노랫말 97편 중 약 20%에 육박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랫말 관련 인물 총 46명 중 37명의 시/노랫말은 1편씩만 수록되었고, 나머지 9명의 것이 2편 이상, 그중에서 4명의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이 중 1명의 것이 전체 97편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등 편중 양상이 뚜렷하다. 인물별 시/노랫말 수록 횟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6> 노랫말 관련 인물별 시/노랫말 수록 횟수(순위 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순위	노랫말 관련 인물	시/노랫말 수록 횟수
1	이은상	56
2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16
3	***김안서***	14
4	***임학수***	11
5	김형준, 이병기	7
7	김태오	6
8	***김동환(파인)***	5
9	***김석송, 여상현***, 화암	4
12	권중찬, 김소월, ***박태원***	3
15	김재인, ***김향운, 박세영, 안기영***, 윤석중, ***이극노***, 이기순, 정몽주, 정몽주 모당, 현제명, 효종	2

26	계정식, 고장환, ***김기림***, 김말봉, 김상용, 김일보, 노천명, 백하, 서덕출, 양주동, 오수경, 오영수, 윤계현, 윤기영, 이원수, 이종림, ***임화***, 정철, ***조남령***, 최남선, 홍난파	1

노랫말 수록 횟수 면에서 이은상이 56회로 1위, 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이 16회로 2위, 김안서가 14회로 3위, 임학수가 11회로 4위이며, 이들과 나머지 인물들 간 수록 횟수 격차는 크다. 특히 이은상의 수록 횟수는 2위인 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의 그것보다 약 3.5배나 많으며, 이은상의 수록 횟수 56회는 조선곡 전체 수록 횟수 203회 가운데 약 28%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은상은 수록 편수와 횟수 두 가지 면에서 독보적 1위이며,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김안서, 임학수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노랫말 관련 인물 총 46명 중 21명의 시/노랫말은 1회씩만 수록되었으며, 11명의 시/노랫말은 2회씩, 3명의 시/노랫말은 3회씩 수록되었다. 5회 이상 수록된 인물은 8명이며 이 8명 중 10회 이상 수록된 인물이 4명이다. 즉 소수 인물의 노랫말이 전체 수록 횟수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편중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노랫말 관련 인물들과 그들의 노랫말로 된 수록곡의 작곡자와 수록 편수, 횟수 등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수록곡의 작곡자・수록곡 제목・수록 편수・수록 횟수 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부록 2]와 같다.[292)]

이은상의 노랫말로 된 19곡은 총 56회 수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홍난파의 8곡이 29회, 박태준의 6곡이 15회, 안기영의 3곡이 9회, 김동진의 1곡이 2회, 이흥렬의 1곡이 1회 포함된다. 이를 볼 때, 이은상 노랫말의 압도적 비중은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의 곡들이 많이 수록된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93)]

---

292) [부록 2]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에 표기된 노랫말 관련 인물들의 호칭 중에는 본명(本名)뿐 아니라 이칭(異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명'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부록 3]과 같다.

293) 앞서 본 장의 '1.2 작곡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은 수록곡 수와 횟수 면에서 1 ~ 3위에 해당한다.

김안서의 노랫말로 된 8곡은 총 14회 수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김순애의 3곡이 6회, 안기영의 1곡이 2회, 이흥렬의 1곡이 3회, 한시형의 1곡이 1회, 함이영의 1곡이 1회, 현제명의 1곡이 1회 포함된다. 이를 볼 때, 김안서 노랫말의 비중은 특히 김순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노랫말 관련 인물들과 비교해볼 때 수록 곡수에 비하여 '다수의 작곡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의 노랫말로 된 7곡은 총 16회 수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박태준의 4곡이 11회, 김현재의 1곡이 1회, 홍난파의 1곡이 1회 포함된다. 이를 볼 때,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노랫말의 비중은 특히 박태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학수의 노랫말로 된 7곡은 총 11회 수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흥렬의 3곡이 4회, 안기영의 2곡이 3회, 김성태의 1곡이 3회, 박태준의 1곡이 1회 포함된다. 이를 볼 때, 임학수 노랫말의 비중은 이흥렬, 안기영, 김성태 등 여러 작곡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랫말 수록 편수, 횟수 면에서 1 ~ 4위에 해당하는 이은상, 김안서,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임학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4.1 이은상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 수록 편수나 수록 횟수 면에서 이은상(1903 ~ 1982), 김안서,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임학수 등 네 명의 인물은 공히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상당히 우위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은상은 독보적이다. 이은상의 노랫말로 된 수록곡 수는 19곡이며,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 김동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들이다. 수록곡은 대개 1920 ~ 30년대에[294] 작곡된 '조선 예술가곡'이며, 곡을 붙인

294) 홍난파의 수록 예술가곡은 주로 30년대, 김동진의 것도 30년대, 박태준의 것은 20년대에, 안기영의 것은 2 ~ 30년대에 작곡되었다.

이들이 당시의 유명 작곡가라는 점이 눈에 띈다.

박태준은 이은상의 시/노랫말에 곡을 붙인 첫 작곡자라고 할 수 있다.[295] 이은상의 시/노랫말을 바탕으로 한 수록곡 19곡 가운데 6곡이 박태준에 의하여 작곡된 것인데, 이는 이은상이 박태준과 마산 창신학교에서 같은 시기 각각 국어 교사와 음악 교사로서 재직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296] <사우(동무생각)>(1922)과 <미풍>[297](1922)이 두 사람이 함께 창신학교 재직하던 때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지는데, 두 사람이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박태준은 이은상의 시/노랫말을 바탕으로 여러 곡을 작곡하였다. 박태준은 20년대부터 이름을 알렸고, 30년대 초반부터는 라디오를 통하여 그의 곡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298]

홍난파는 이은상의 시/노랫말로 만든 곡을 『해방중등』에 가장 많이 수록한 작곡자이다. 총 8곡이 수록되었는데, 이 곡들 모두 홍난파가 1933년에 낸 『조선가요작곡집 노산[299]시조편』(한성도서주식회사)에 실려 있다. 이 작곡집에 실린 곡들이 홍난파의 예술가곡 전곡에 가까우므로, '홍난파 예술가곡'의 성격에 있어서 이은상 시/노랫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300] 홍난파는 20년대에 이미 바이올린, 성악, 작곡, 평론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였고, 음반과 라디오를 통하여 그의 곡은 일제강점기 동안 대중적으로 알려졌다.[301]

안기영이 이은상의 시/노랫말로 만든 3곡이 『해방중등』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곡들은 1929년과 1930년 사이에 작곡되었다. 안기영은 성악가로서 그리고 작곡가로서 음악교육자로서[302] 20년대부터 악단의 주목받

---

295) 『한국작곡가사전』 pp.230-231 내용 참고.

296) 박태준은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다고 알려진다. 손태룡(2010), 2021.7.19. 접속.

297) 손태룡(2010)에는 박태준이 창신학교 재직 시 <미풍>을 작곡했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작곡가사전』(p.231)에는 1922년에 작곡된 것으로 되어 있다.

298) 조선일보, 1932.12.11. 기사 '라듸오'; 조선일보, 1933.5.25. 기사 '라듸오'; 조선일보, 1934.6.9. 기사 '라디오'; 조선일보, 1935.1.19. 기사 '라디오'; 조선일보, 1936.10.11. 기사 '라디오'; 조선일보, 1937.3.31. 기사 '라디오' 등.

299) '노산(鷺山)'은 이은상의 호.

300) 예컨대, 이은상의 조선적 정서를 담은 시조/노랫말은 홍난파의 예술가곡을 조선적 정서를 담은 것으로 평가받게 하는 측면이 있다.

301)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2006), 부록 p.7 및 '蘭坡 홍영후 연표'

302) 이화여전 성악과 교수 역임.

았다.[303] 또한 이 수록곡 3곡 가운데 특히 <마의태자>는 음반으로 취입되었을 뿐만 아니라(배연형, 2011: 177)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박용구는 『임시중등음악교본』 편찬 시의 선곡 기준으로 '그때까지 많이 알려진 곡'을 언급한 바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239).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많이 알려진 곡'은 대중적 선호를 얻을만한 장점을 지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자가 수록곡으로 선정하기에 고심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박태준, 홍난파, 안기영의 곡들이 교과서 수록곡으로 다수 선곡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수록곡들 중 이은상의 시/노랫말로 된 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방중등』에 그의 시/노랫말이 다수 수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중등』 전체 수록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조선 예술가곡'인데, 이은상의 시/노랫말로 된 수록곡들 가운데 '조선 예술가곡'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의 시/노랫말이 교과서에 다수 수록될 수 있었던 측면 또한 존재한다.

조선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곡을 붙이기에 용이한 '정형률'을 지닌 이은상의 시/노랫말은,[304] 1920, 30년대 작곡자들에게도 곡을 붙이기에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시/노랫말로 만들어진 많은 곡들이 해방공간 시기에 가서는 조선·조선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 필요한 곡으로서 『해방중등』 편찬자들에게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1.4.2 김안서[305]

303) 『한국작곡가사전』 p.269

304) 이은상은 1926년 '국민문학운동'을 기점으로 시조 또는 전통문학에 경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조 창작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은상', 2022.4.30. 22:28 접속.

305) 『해방중등』에 '김안서'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명 김억이 아닌 '김안서'로 표기.

김안서(본명 김억, 1896 ~ ?)는 시/노랫말 수록 편수로는 2위, 수록 횟수로는 3위에 해당한다. 김순애에 의한 곡이 3곡, 안기영, 이흥렬, 한시형, 함이영, 현제명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이 1곡씩 수록되어 있으며, 김순애의 곡이 비교적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안서는 주로 서구시 및 시론의 번역 소개 활동을 하다가 1925년 이후 전통지향성으로 회귀, 조선적 정서와 가락을 살려낸 민요시 제작에 몰두하였고, '격조시'(格調詩)라는 이름으로 7·5조 4행의 정형률을 창안하였다고 알려진다.[306] 이은상과 마찬가지로 김안서의 시/노랫말 또한 조선적 정서와 정형률을 지닌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러 작곡자에 의하여 곡이 붙여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곡들이 교과서에도 수록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시/노랫말로 된 수록곡들의 주 장르는 '조선예술가곡'이다.

1.4.3 윤복진(김수향(金水鄕), 김수경(金水卿))[307]

윤복진(1907~1991)은 수록 편수로는 3위, 수록 횟수로는 2위에 해당한다. 수록곡 수는 7곡이며 이에 박태준, 김현재, 홍난파, 나운영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이들의 곡이 1곡씩 수록된 데에 비하여 박태준의 곡만 4곡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태준은 윤복진의 시/노랫말을 바탕으로 59곡 이상을 창작하였는데(손태룡, 2014: 9-10), 박태준의 『중중떼떼중』(1929), 『양양범버궁』(1931), 『물새발자옥』(1939), 등 작곡집 세 편의 수록곡의 노랫말이 모두 윤복진의 것일 정도로(손태룡, 2012: 11) 박태준은 1920, 30년대에 가창곡 작곡에 있어서 윤복진의 시/노랫말을 매우 선호하였다.

---

306)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김억', 2021.7.19. 20:45 접속.

307) 『해방중등』에 윤복진은 본명인 '윤복진', 필명인 '김수향'(조선어)(교과서 14·23), 필명 김수향(金水鄕)의 오식(誤植) 또는 오기(誤記)인 '金水卿'(김수경, 한자)(교과서 6) 세 가지 명칭으로 실려 있다.

『해방중등』 수록곡 가운데 박태준의 곡은 곡수와 횟수 면에서 2위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박태준의 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가곡’ 가운데 윤복진의 시/노랫말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복진의 시/노랫말이 교과서에 다수 수록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윤복진은 아동문학가로서 소위 ‘동요시’를 쓴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동요시는 3·4조, 7·5조 정형률을 기조로 한다.[308] 이은상, 김안서와 마찬가지로 윤복진의 시/노랫말 또한 조선적 정서와 정형률을 지닌 것이 많다는 점에서, 여러 작곡자에 의하여 곡이 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곡들이 교과서에도 수록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시/노랫말로 된 수록곡들의 주 장르는 ‘조선 예술가곡’이다.

1.4.4 임학수

임학수(1911 ~ ?)는 수록곡 수로는 윤복진과 마찬가지로 3위, 수록 횟수로는 4위에 해당한다. 그의 노랫말로 된 수록곡 수는 7곡이며, 이흥렬, 안기영, 김성태, 박태준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이 포함되어 있다. 이흥렬의 곡이 3곡, 안기영의 곡이 2곡, 김성태와 박태준의 곡이 각각 1곡이다.

이흥렬의 3곡은 〈여름방학〉, 〈즐거운 우리 교실〉, 〈학생의 하로〉 등으로 모두 ‘학교 교육 관련 노래’인 점이 특징적이다. 안기영의 2곡은 〈신입생 환영〉과 〈유관순〉인데 전자는 ‘학교 교육 관련 노래’, 후자는 ‘애국가요’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성태의 〈아침 해 고울시고〉는 ‘애국가요’, 박태준의 〈스승님 은혜〉는 ‘학교 교육 관련 노래’에 해당한다. 요컨대, 임학수의 시/노랫말로 된 수록곡 7곡은 ‘학교 교육 관련 노래’ 또는 ‘애국가요’ 장르이다.

이 장르의 곡들이 진지한 예술적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3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윤복진’, 2022.5.1. 21:34 접속.

일정한 메시지 전달 또는 교육적 용도에 맞도록 작사·작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노랫말들은 '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노랫말'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애국가요'인 <유관순>과 <아침 해 고울시고>는 각각 안기영과 김성태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해방 직후 '조선음악건설본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애국가요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309] 김성태가 이 단체의 작곡부 위원장, 안기영이 성악부 위원장이었고, 임학수는 '조선음악건설본부'의 상위단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관련자였다는 점에서,[310] 이 두 곡의 작사·작곡 계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의 시/노랫말로 된 곡 가운데 '학교 교육 관련 노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런데 교과서 11(『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과 교과서 21(『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의 수록곡을 살펴보면, 조선곡과 외국곡을 막론하고 임학수(풍만)에 의하여 작사, 번역된 노랫말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임학수가 편찬자의 일원 또는 노랫말 감수자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311] 즉 그가 편찬 또는 노랫말 감수 활동 중에 음악교과서에 수록할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창작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랫말이 아닌, 임학수의 '시(詩)'는 기본적으로 정형률과는 거리가 멀다.[312] 그러나 그의 '노랫말'은 기본적으로 음수율을 지니는 것으로 볼 때, 임학수의 노랫말은 대부분 시작(詩作)이 아닌 '작사(作詞)'의 결과로 판단된다.

'노랫말 관련 인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수록 편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상위 7명에 이은상, 김안서,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임학수, 이병기, 김태오, 김소월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이은상·김안서·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이병기·김소월의 시/노랫말은

309) 경향신문, 1955.8.13. 기사 '문화십년 음악 (2)'
3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학수', 2021.10.7. 03:09 접속.
311) 두 교과서의 편찬자는 각각 교육음악연구협회,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이다.
312) 이명찬(2011), pp.125-127.

‘정형률’을 기조로 한다. 이들의 시/노랫말에 박태준, 안기영, 홍난파, 이흥렬, 김순애 등이 곡을 붙인 노래들이 교과서에 다수 수록되었다. 규칙적 음수율을 지닌 시/노랫말이, 그렇지 않은 시/노랫말에 비하여 가창곡 작곡에 보다 용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은상・김안서・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이병기・김소월의 시/노랫말은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1920, 30년대 시조(時調)를 비롯한 ‘정형률’을 지닌 시 가운데 ‘조선적 소재’를 지닌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정형률’과 ‘조선적 소재와 정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들이 많은 곡을 붙인 시/노랫말을 창작한 인물들이, 수록곡 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상위를 차지한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유명 작곡가들의 곡들은 음반화되거나 방송을 통하여 보급되는 경우가 많아 대중에게 짧은 시간 내에 널리 알려질 수 있다. 대중에게 익숙해진 곡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편찬자에 의하여 선정되어 교과서에 수록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여러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이러한 곡들의 시/노랫말을 만든 인물이 수록 편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상위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요컨대, ‘정형률’을 지니면서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은 시/노랫말,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곡가들이 많은 곡을 붙인 시/노랫말을 쓴 인물들이 수록 편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중등』 교과서 수록 ‘조선곡’의 노랫말 가운데 분단 이후의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노랫말의 계승 여부를 결정지은 주된 기준은 노랫말 관련 인물과 작곡자의 ‘월북’이었다. ‘납북자’로 알려진[313] 노랫말 관련 인물과 작곡자의 노랫말과 곡조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으나,[314] ‘월북자’로 알려진 이들의 노랫말과 곡조의 경우는 달랐다.

313) 사실 정확한 월북, 납북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314) 노랫말 관련 인물의 경우에는 김안서, 김동환(파인) 등이 해당된다.

우선 작곡자가 ‘월북’으로 알려진 경우, 그 곡은 아예 선곡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노랫말 역시 수록되지 못했다. 한편 노랫말 관련 인물이 ‘월북’으로 알려진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월북자의 노랫말은 교과서 수록에서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노랫말과 함께 곡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곡에 따라서 곡조는 그대로 둔 채 기존의 노랫말을 약간 변형하고 노랫말 관련 인물명을 바꿈으로써 분단 이후에도 교과서에 수록된 경우가 적지 않다. 윤복진 노랫말/홍난파 작곡의 <하모니카>(교과서 3 수록)가, 윤석중 노랫말/홍난파 작곡의 <옥수수 하모니카>로 수록된 경우가 일례이다. 또한 특이하게 노랫말 관련 인물명이 오기(誤記)됨으로 인하여 곡과 함께 노랫말이 살아남아 분단 이후의 교과서에 수록된 일도 있는데, 윤복진(‘김수향’, ‘김수경’으로 표기됨) 노랫말/나운영 작곡의 <아- 가을인가>(교과서 6, 14, 23 수록)가 이에 해당한다. 윤복진은 ‘월북자’로 분류되어 ‘윤복진’과 그의 이칭(異稱)인 ‘김수향(金水鄕)’의 노랫말로 된 곡은 분단 이후 교과서에 수록될 수 없었으나, ‘김수향’이 ‘김수경’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됨으로써 수록될 수 있었다. 『해방중등』 중 교과서 6에 수록된 <아- 가을인가> 악보에 노랫말 관련 인물명이 한자로 ‘金水卿’(김수경)으로 오기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 수록 악보가 분단 이후 교과서 편찬 시 참고 또는 차용됨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렇듯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의 노랫말 가운데 분단 이후의 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하면서 계승되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조선곡’ 노랫말 가운데 수록 편수나 횟수 면에서 상위 4위 안에 드는 임학수, 윤복진(김수향, 김수경) 등의 노랫말이 거의 계승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로도 계승되지 못한 노랫말의 편수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노랫말이 계승되지 않아 곡도 계승이 되지 않은 점, 보다 다양한 노랫말을 접할 기회를 놓친 점, 원곡의 형태 그대로 노랫말과 곡을 향유할 수도 배울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은 음악적·음악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Ⅲ - 1의 요약〉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 중 ‘조선곡’의 비중은 약 30%이며, 23종 교과서별로 볼 때 조선곡을 50% 이상 수록한 교과서는 2종에 불과했다. 조선곡 중 가장 많이 수록된 장르는 ‘조선 예술가곡’이며, 이 가운데 홍난파의 곡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1곡을 제외하고 모든 노랫말이 이은상의 것이다.

‘조선 예술가곡’ 가운데 1930년대 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선적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랫말로 된 곡이 많고 음악적 난이도가 중등학교 수준의 수록곡으로 적절하며, 시간을 거쳐 조선 대중에게 검증되었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애국가요’는 ‘예술가곡’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이다.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해방의 기쁨과 신국가 건설에의 희망이 담긴 노래를 교과서에 수록하고자 한 『해방중등』 편찬자들의 의도가 ‘애국가요’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애국가요’의 뒤를 잇는 ‘학교 교육 관련 노래’의 비중 또한 ‘애국가요’와 마찬가지로 해방 직후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서, 당시 일제 식민교육 청산 및 조선 신교육의 수립 및 정초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의 학교 교육, 학교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창작에 당시 유명 문인·작사가, 그리고 작곡가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적이다.

‘민요’의 경우 전통음악으로서 유일하게 『해방중등』에 수록된 장르인데, 단 2곡뿐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편찬자들이 거의 서양음악을 공부한 인물이라는 점, 편찬자들과 조선 대중의 입장에서 『해방중등』에 실려야 하는 ‘조선의 음악’이 ‘조선 전통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곡’에 국한된 관념이 아닌, 음악 기법의 유래와 관계없이 ‘노랫말과 곡이 조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음악’이었을 당시의 상황, 전통음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기인한 양상으로 해석된다.

‘작곡자’ 가운데 홍난파, 박태준, 안기영, 이흥렬 등 네 명의 곡조가 전체 97곡조 중 약 54%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 홍난파의 곡은 수록 곡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독보적이다. 이들 기성 작곡가 외에 해방공간 기준으로 20대 초반 ~ 30세 정도의 신진 작곡가들의 수가 전체 작곡자 수의 30% 비중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곡이 조선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중견 작곡가들에 비하여 친일에서 자유로운 점, 작곡을 전공한 전문 작곡가들이란 점 등이 이들의 곡이 편찬자에게 선택된 이유로 이해된다.

‘작곡/발표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1940년대, 그 가운데에서도 1945년 해방 이후에 작곡·발표된 곡이 수록곡 수 면에서 가장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양상의 주된 이유는 해방 이후 작곡되어 수록된 ‘애국가요’와 ‘학교 교육 관련 노래’의 비중에 있다. 해방공간 시기에 만들어진 곡이 다수 수록된 주요 원인으로는 해방으로 말미암은 국가적·교육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노랫말과 음악으로 일제 식민 음악교육과 차별화된 조선의 음악교육을 시작하려는 편찬자들의 의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에는 이은상이 수록 편수 및 수록 횟수 면에서 독보적이다. 수록 편수나 수록 횟수 면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이은상·김안서·윤복진(김수향, 김수경)·이병기·김소월의 노랫말이 작곡에 용이한 정형률을 지니며,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은 전체 수록곡 가운데 30%의 비중으로 ‘외국곡’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그러나 ‘장르’, ‘작곡자’, ‘작곡·발표 시기’, ‘노랫말 관련 인물’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결과,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르’와 ‘노랫말 관련 인물’ 고찰을 통하여 조선적 정서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수립하고 해방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특히 '작곡자'와 '작곡·발표 시기' 고찰을 통하여서는 되찾은 나라이자 곧 건설될 신국가와 조선의 정체성이 담긴 신교육을 향한 열의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과거의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 음악교육과 구별되는 새로운 조선 음악교육을 지향하려는 시도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장르' 고찰을 통하여 민요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미미한 비중이나 친일 행위가 상당한 작곡자들의 곡이 수록된 점 등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은 '음악교과서 조선어화'의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는 양상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외국곡 고찰

『해방중등』 23종에 수록된 전체 가창곡 681곡 가운데, '외국곡'은 228곡조로 된 총 478곡이며, 이 중 외국어 노랫말로 된 곡은 27곡[315]이다.[316] 전체 가창곡 681곡 중 '외국곡' 478곡은 약 70%에 이르는데, 이는 약 30%를 차지하는 '조선곡'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비중이다. 『해방중등』 23종 교과서별 외국곡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Ⅲ-27> 『해방중등』 23종 교과서별 외국곡 비중 (교과서 번호순)

	교과서명	총곡수	외국곡의 곡수 및 비중(%)	비중 순위
1	『임시중등음악교본』	50	28 - 56%	20
2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27	21 - 약 78%	9
3	『여자중등음악교본 상』	15	7 - 약 47%	22
4	『여자중등음악교본 중』	12	11 - 약 92%	1
5	『여자중등음악교본 하』	16	11 - 약 69%	15
6	『중학음악교본』	29	12 - 약 41%	23
7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27	19 - 약 70%	14

315) 국가(미국, 영국, 중국) 3곡과 원무곡(계명창) 1곡 포함.
316) [부록 4] 참조

8	『중등음악』	62	54 - 약 87%	5
9	『음악교본』	42	24 - 약 57%	19
10	『중등음악교본』	50	29 - 58%	18
1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	30	23 - 약 77%	10
12	『중등음악교과서』	35	24 - 약 69%	16
13	『중등음악 2』	21	17 - 약 81%	7
14	『중등음악 3』	24	19 - 약 79%	8
15	『중등음악교본 1권』	20	17 - 85%	6
16	『중등음악교본 2권』	21	19 - 약 90%	2
17	『중등음악교본 2권』	21	19 - 약 90%	2
18	『중등음악 1』	24	21 - 약 88%	4
19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34	25 - 약 74%	12
20	『중등음악교본 2』	30	20 - 약 67%	17
21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38	28 - 약 74%	11
22	『중등음악교본 1』	30	22 - 약 73%	13
23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	31	16 - 약 52%	21

23종의 교과서에서 '외국곡'은 곡수로는 최소 7곡부터 최다 54곡, 비중으로는 약 41%에서 약 92%의 범위에 있다. 외국곡 비중이 70% 이상인 교과서가 14종에 이를 정도로, 『해방중등』 내 외국곡의 비중은 크다. 외국곡을 가장 많이 수록한 교과서는 교과서 4『여자중등음악교본 중』(1947)이며, 교과서 16『중등음악교본 2권』(1948), 교과서 17『중등음악교본 2권』(1948. 8. 30. 이후), 교과서 18『중등음악 1』(1949), 교과서 8『중등음악』(1947) 등이 뒤를 잇는다.

교과서 4의 외국곡 비중이 23종 가운데 1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이유는, 김신덕이 『여자중등음악교본』 상중하(上中下) 시리즈를 편찬하면서 중권(中卷)에 외국곡을 집중적으로 수록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상권(上卷)(교과서 3)의 외국곡 비중이 약 47%, 하권(下卷)(교과서 5)의 외국곡 비중이 약 69%로, 약 92% 비중의 중권(中卷)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김신덕을 교과서에 외국곡을 다수 수록하는 편찬자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과서 16·17은 공히 이승학에 의하여 편저되었으며 외국곡 비중 또한 약 90%로 공히 2위에 해당한다. 두 교과서는 수록곡 구성에 있어서

큰 유사성이 있으므로 외국곡의 비중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높다. 이승학이 편저한 또 하나의 교과서가 있는데, 외국곡 비중 6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15로 85% 비중을 나타낸다. 이를 볼 때 이승학은 교과서에 외국곡을 다수 수록하는 편찬자로 평가될 수 있다.

외국곡 비중 4위인 교과서 18의 편찬자 나운영의 또 다른 교과서가 2종 더 있다. 교과서 13·14가 그것인데, 교과서 13 내 외국곡 비중은 약 81%로 7위, 교과서 14 내 비중은 약 79%로 8위에 해당한다. 교과서 18, 13, 14가 각각 비중 약 88%, 약 81%, 약 79%인 점으로 미루어, 나운영 또한 교과서에 외국곡을 다수 수록하는 경향이 있는 편찬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외국곡 비중 87%로 5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8의 편찬자 오창진의 경우에는, 다른 교과서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외국곡 수록 관련 경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조선곡’ 가운데에는 ‘하나의 곡조와 결합한 노랫말은 하나’인 경우만 있다. 그러나 노랫말이 번역/작사된 ‘외국곡’ 가운데에는 ‘하나의 곡조와 결합한 노랫말이 여럿’인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에 ‘외국곡’에 대한 고찰의 편의를 위하여 총 478곡의 ‘외국곡’을 228개의 ‘곡조’별로 정리하고[317]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고찰은 ‘장르’, ‘작곡자’, ‘노랫말 관련 인물(역/작사자)’, ‘번역/작사 시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첫째, ‘장르’ 고찰은 『원곡』[318]의 장르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장르의 외국곡이 어떤 비중으로 수록되었는지를 살핀다. 둘째, ‘작곡자’ 고찰은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작곡자의 곡이 어떤 비중으로 수록되었는지를 살핀다. 셋째, ‘노랫말 관련 인물’에 대한 고찰은 수록 외국곡의 조선어 노랫말을 만든 역사자 또는 작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인물들이 번역 또는 작사한 조선어 노랫말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는지 그리고 인물별 노랫말 비중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핀다.[319] 넷째, ‘번역/작사 시기’에 대한 고찰은 수록 외국곡의 조선어

317) [부록 4] 참조.
318) ‘원곡’은 본 논문에서 ‘처음 작곡되었을 때의 노랫말과 곡조로 된 곡’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노랫말이 어떤 시기에 번역 또는 작사되었는지 그리고 번역/작사 시기별 비중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핀다.[320]

2.1 장르

‘장르’에 대한 고찰은 『원곡』이 확인되는 수록곡만을[321] 대상으로 한다.[322] 즉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전체 228곡조 가운데 145곡조(전체 곡조수의 약 64%), 전체 478곡 가운데 370곡(전체 곡수의 약 77%)을 대상으로 검토한다.[323]

서술상의 편의에 따라 장르를 ‘대중가요·민요’, ‘서양 예술가곡’, ‘오페라 구성곡’, 기타로 구분하여 살핀다.[324] 각 장르명의 개념과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가요·민요’라는 장르명은 ‘대중가요’와 ‘민요’를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대중음악’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325] 단순함과 통속성 및 오락성을 지니며,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을 지닌[326] 음악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성격을 지닌 가창곡을 ‘대중가요’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민요’는 예술 음악의 반대되는 지점에 있으며,[327] 일반적으로 작자불명으로,[328] 원래 시간을 두고 구전되는 성

---

319) 『원곡』의 작사자에 대하여서는 다루지 않는다.
320) 『원곡』 노랫말이 만들어진 시기는 다루지 않는다.
321) 작곡자명, 곡조명, 곡목 등이 파악되는 곡들을 의미한다.
322) 수록 외국곡 가운데 원곡 확인이 불가한 곡이 매우 많다. 교과서 목차나 수록 악보에 표기된 ‘작곡자명’, ‘곡조명’, ‘곡목’, 유래 지역 등이 원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데, 이러한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323) ‘대중가요·민요’ 66곡조 194곡, ‘서양 예술가곡’ 26곡조 71곡, ‘오페라 구성곡’ 11곡조 32곡, 기타 42곡조 73곡 등 총 145곡조 370곡이다.
324) 해당 곡 수가 많은 장르 순이며, 이 순서대로 고찰한다.
325)Middleton, R., & Manuel, P. Popular music. Grove Music Online. Retrieved 31 May. 2023, from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43179.
326) Tagg, P. (1982). Analysing Popular Music: Theory, Method and Practice. Popular Music, 2, 37-67. http://www.jstor.org/stable/852975; 위키백과, ‘대중음악’, 2022.12.15. 04:04 접속.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윤을 얻는 자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격을 지니는[329] 가창곡이라 할 수 있다(Apel, 1969: 323). ‘대중가요’와 ‘민요’는 많은 이들에게 불리고 전하여지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창작자 확인 가능 여부와 상업성 측면에서는 구별된다. 특히 ‘창작자 확인 가능 여부’는 두 장르를 구분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330]

그런데 이러한 ‘대중가요’와 ‘민요’의 개념을 가지고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을 살피면, 특히나 ‘민요’로 표기된 곡 중에 ‘민요’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331] 일례로 수록 악보에 특정 지역의 ‘민요’라는 장르명과 작곡자명이 병기되어 있는 곡이 있는데, 작곡자가 분명한 ‘대중가요’로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민요’로만 표기되어 있음에도 ‘대중가요’로 확인되는 곡도 있다. 요컨대 교과서 내 이 두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검토에서는 ‘대중가요·민요’라는 포괄적 개념의 장르명을 사용하여 두 종류의 가창곡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여 살피고자 한다.

둘째, 본 고찰에서 ‘서양 예술가곡’은 전통적, 대중적 가창곡과 대조되는,[332] 즉 전통적 가창곡(민요)이 지니는 단순성, 통속성, 오락성이나 대중적 가창곡(대중가요)이 지니는 상업성, 대중성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진지한 예술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독창과 독립적 건반 반주로 구성된 성악곡[333]의 의미로 사용한다. 연구자는 본 검토에 있어서의

---

327) Wikipedia, ‘popular music’, 2023.6.1. 01:07 접속

328) Wikipedia, ‘folk music’, 2023.6.1. 02:07 접속

329) “The musical repertory and tradition of communities.(particularly rural), as opposed to art music, which is the work of musically trained composers. It generally develops anonymously, usually among the uneducated classes, and originally was(and may still be) transmitted aurally....” .... ; Nettl, B. (2023, May 1). folk music.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art/folk-music; Wikipedia, ‘folk music’, 2023.6.1. 01:50 접속

330) 기본적으로 이 두 종류의 가창곡은 일정한 음악적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음악 외적인 구분 조건이 중요하다.

331) 이와 관련하여서는 ‘2.1.1 대중가요·민요’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332) “A song intended for the concert repertory, as opposed to a traditional or popular song.” Art song. *Grove Music Online*. Retrieved 22 Sep. 2022, from https://www.oxfordmusiconline.com/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01381. 이를 근거로 ‘예술가곡’을 민요 및 대중가요와 구별한다.

‘서양 예술가곡’을 츄(G. Chew)의 ‘대중적인 범주’(popular category)와 ‘진지한 범주’(serious category)[334] 가운데 ‘진지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전문가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대중 시장의 비속성에서 벗어나 있는 곡으로 간주함으로써, ‘대중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대중가요·민요’ 장르와 차별점을 두었다.

셋째, ‘오페라 구성곡’은 본 서술에서 오페라를 구성하는 가창곡 즉 아리아(Aria), 중창곡, 합창곡 등을 포함한 개념의 장르명으로 사용한다.[335] 원작에 있는 오페라 구성곡만을 대상으로 하며, 오페라 작품 내 기악곡이 성악곡으로 편곡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기타에는 종교적 성악곡, 성악곡으로 편곡된 기악곡, 국가, 군가, Children’s song[336] 등 위의 세 가지 장르 범주에 들지 않는 곡들이

---

333) “A short vocal piece of serious artistic purpose. During the 18th century “art song” came to have its predominant modern meaning of secular solo song with an independent keyboard accompaniment...(후략)” Dickinson, P., Hitchcock, H., & Clifton, K. Art song. *Grove Music Online.* Retrieved 22 Sep. 2022, from https://www.oxfordmusiconline.com/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1002240068.

334) 츄(G. Chew)는 19세기 초의 성악곡 레퍼토리를 ‘popular’ category와 ‘serious’ category로 구분하였다.(“A far-reaching division occurred in the early 19th-century song repertory between a very large ‘popular’ category (i.e. including recreational song for a mass middle-class amateur market, song for edifying the lower and poorer classes, as well as folksong) and a much smaller ‘serious’ category (i.e. of songs written for connoisseurs and regarded as avoiding the vulgarity of the mass market).” Chew, G., Mathiesen, T., Payne, T., & Fallows, D. Song. *Grove Music Online.* Retrieved 23 Sep. 2022, from https://www.oxfordmusiconline.com/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50647.)

335) 가창곡이 아닌 서곡의 선율을 차용한 성악곡(예: <고요한 숲>)은 ‘기타’로 분류.

336) 현대 서양의 ‘Children’s song’·‘Kinderlied’과 우리 ‘동요’는 공히 ‘어린이 노래’를 의미하며, 각각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된 것부터 현대에 창작된 것까지 다양한 노래를 포함한 장르이다. 그런데 『해방중등』 외국곡 중 ‘어린이 노래’들은 현대의 우리 ‘동요’ 가운데 ‘전래동요’에 가까운, 즉 작곡자 미상의 오랜 시간에 걸쳐 구전된 어린이 노래인데, 이에 반하여 『해방중등』 조선곡 중 ‘동요’는 ‘창작동요’에 가까운, 즉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된 것이 아니며 창작자명이 알려진 노래이다. 따라서 외국곡과 조선곡의 어린이 노래를 동일하게 ‘동요’로 칭하기에는 각각의 개념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곡의 ‘어린이 노래’는 현대 우리 ‘전래동요’ 개념을 지닌 ‘Children’s song’으로, 조선곡의 ‘어린이 노래’는 현대 우리 ‘창작동요’의 개념을 지닌 ‘동요’로 구별하여 칭하였다.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장르 구분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서에 표기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곡에 따라서 이 장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원곡』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자료 정보, 그리고 악보에서 얻을 수 있는 음악적, 언어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록곡의 장르를 파악하였다.

2.1.1 대중가요・민요

‘대중가요・민요’ 장르로 볼 수 있는 수록곡들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Ⅲ-28>과 같다.

<표 Ⅲ-28> ‘대중가요・민요’(곡조별 정리)

곡조 번호	곡목	교과서	곡
1	Auld lang syne	2	Scotch air/William Shield
3	Dreaming of home and mother	2	J. P. Ordway
3-1	고향의 어머니/여수	15/1, 6, 9, 10, 12, 13, 22, 23,	J. P. Ordway
4	Early to Bed(윤창)	18	Old English Round
8	Long, Long ago	2	T. H. Bayly
8-1	고향의 추억/옛날	18/8	T. H. Bayly
10	Sing together(윤창)	18	Old English Round
13	The Cuckoo	2, 7, 18	German folksong
16	가을	22	A. Rubinstein, <Volkslied>, 12 Lieder, Op.48 중 4곡
17	가을	19, 21	Carl Friedrich Zöllner, <Wanderschaft>“Das Wandern ist des Müllers Lust“
20	가을 하늘/글공부	8/16, 17	<Comin’ Thro’ the Rye>, 영국민요
27	겨울 달/고향생각	19, 21/1, 9, 10,	Mary E. B. Dona, <Flee as a

		16, 17	bird to your mountain>
30	고별의 노래	14	F. Silcher, <Lebewohl>, op.22
32	고향	19, 21	<Her Hjemme>, 노르웨이 민요
34	고향을 떠나며/켄터키 옛집	19, 21/1, 9, 10, 12, 15, 22, 23	S. C. Foster, <My Old Kentucky Home>
35	고향의 쓰러진 집/고향의 폐가	19, 21/8, 16, 17	W. S. Hays, <My dear old sunny home>
38	귀향/집으로 가는 길	17/20	나이트(오기)->J. A. Carpenter, <The Home Road>
41	그리운 고향/망향	18/5	W. S. Hays, <Molly Darling>
42	그리운 동무	18	F. Silcher, <Der gute Kamerad>
45	기러기/주인은 땅속에	2, 7/15	S. C. Foster, <Massa's in de cold ground>
49	꾀꼴새	1, 9, 10, 12, 14	F. W. Kücken
51	나그내의 노래/불어라 봄바람/장미화가 말랐다	11/10/5	J. E. Spilman, <Flow Gently Sweet Afton>
57	나의 동무/동무	12/16, 17	W. T. Wrighton,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61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2, 5, 7, 21	James Bland, <Carry Me Back To Old Virginny>
66	농가의 아침 저녁	8	F. Silcher, <Annchen von Tharau>
69	늙은 흑인 죠오/블랙죠오	8/16, 17	S. C. Foster, <Old Black Joe>
73	도나부강	8	I. Ivanovici, <Valurile Dunării(Waves of the Danube)>
74	도라오라 쏘렌토에(로)/돌아오라 쏠렌토로	9, 12/8	E. de Curtis, <Torna a Surriento>
80	딕시/딕시랜드	20/19, 21	D. D. Emmett, <Dixie's Land>
82	로렐라이	1, 6, 9, 10, 12, 16, 17, 22, 23	F. Silcher, <Die Lorelei>
83	마리아 마리	9	E. di Capua, <Maria! Mari!>
85	말불그	22	<Marlbrough s'en va-t-en guerre>, 프랑스 민요
86	먼 싼타루치아/저 먼 산타루치아	11, 8/9	F. A. Mario, <Santa Lucia Luntana>
89	목동아	9	<Danny Boy>
94	바다로 가자	5, 9	Vergine, <Vieni sul mar>,

			Napolitan Folk Song
99	뱃노래/볼가의 뱃노래	2, 7/1, 10, 12, 15, 20	<Э й у х н е м(The Song of the Volga Boatman)>
106	봄 새벽	19, 21	F. W. Kücken, <Altes Libeslied, Op.14, No.4>
109	봄들로 가자	13	F. Silcher, <Muss I denn>
110	봄바람/스텐카 라진	4/1, 10, 12, 15, 18, 22	<Stenka Razin>
111	봄바람/순풍/학창을 향하야	18/8/11	독일 민요
112	봄소식	8	<The Cuckoo>, 오스트리아 민요
113	봄의 세레나데/오 나의 태양/오 소래 미오	3/1, 6, 10, 12/9	E. di Capua, <O Sole mio>
115	불어라 봄바람	2, 7	C. H. Gabriel
119	사랑하는 어머니/스와니강/향수	4/8/15, 23	S. C. Foster, <Old Folks At Home>
123	산타 루치아	1, 9, 10, 12, 14, 15, 19, 21, 22	<Santa Lucia>, 이탈리아 민요
125	샌터클로쓰 할아버지	3	미국 민요
127	세레나-데	9	Toselli, <Serenade>
128	소나무/전나무	19, 21, 18/22	<O, Tannenbaum>, 독일 민요
141	아(알)로하오에	8, 22	Queen Liliuokalani, <Aloha´ oe>
142	아름다운 꽃이어/홍화	19, 21/1, 10, 16, 17, 20	<茉莉花(모리화)>, 중국 민요
143	아름다와	22	<The Bluebells of Scotland>, 영국민요
147	아이, 아이, 아이	11	Osman Perez Freire, <Ay. Ay. Ay>
162	오 스산나	5, 18, 22, 23	S. C. Foster, <Oh! Susanna>
164	용서하세요 아버지	11	<Lito je mne muj taticku!>, 보헤미아 민요
166	우슴(웃음)	15, 18	L. Cherubini, <Ha Ha Ha>
167	원무곡(월스)	3	F. Lehar
169	웬일인지 비들기가	19, 21	<Paun I pause>, 보헤미아 민요
172	이 몸이 새라면	8	<Wenn ich ein Vöglein wär>, 독일 민요
177	자장가	22	W. Taubert, <Schlaf in guter Ruh> 12 Gesänge, Op. 27 중

179	잘 있거라 나폴리	19, 20, 21	<Addio a Napole>, T. Cottrau
180	잘 있거라 내 고향	12, 14, 20	<Der Letzte Abend>
184	잠의 신	22	J. Brahms, <Sandmanchen> 15 Volkskinderlieder, WoO 31 중 4곡
185	장속의 새	19, 21	<Chorinua kaiolan>, 스페인 민요
198	준령을 넘어	1, 10	L. Denza, <Funiculi Funicula>
216	친구의 이별	4	<Nita Juanita>, Caroline Norton
217	쿠쿠 왈쓰(월쓰, 월츠)/뻐꾹 월스	1, 10, 12, 13/4	J. E. Jonasson, <Kuckucks Walzer>
220	풍년	8	<O du lieber Augustin>
226	한 떨기 장미꽃	1, 6, 10, 12, 23	F. von Flotow, <The Last Rose of Summer>

'대중가요·민요' 장르는, 원곡이 확인되는 외국곡의 145곡조 중 약 45%(66곡조), 145곡조로 된 370곡 중에서는 약 52%(194곡)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장르는 곡조 수 면에서나 곡수 면에서 '외국곡'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과서에 '민요'로 표기된 외국곡들을 살펴보면,[337]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용어가 교과서 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시 전술하였듯이 작곡자명과 '민요'라는 표기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338] 특정 지역의 '민요'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대중가요'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가운데는 작곡자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해방공간 시기 기준으로 작곡된 지 100년도 채

337) 『해방중등』 수록곡 가운데에는 '민요'로 표기되어 있는 곡이 적지 않다. '[국가명·지명] + Air(선율))', 'Old [국가명·지명] Round', '古曲', 'Folk Song', '멜로디(melody)', '[국가명·지명] + Song' 등 포함), 'Old Melody' 등을 포함하여 '[국가명·지명] + 민요' 등으로 표기된 곡을 모두 '민요'의 범주로 본다면, 외국곡 총 228곡조 가운데 '민요'에 해당하는 곡조는 63개에 달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부록 5](『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중 '민요'로 표기된 63개 곡조)과 같다. 이 63개 곡조 가운데 작곡자명이 표기된 곡조는 곡조 번호 6, 27, 53, 80, 82, 94, 113, 123, 141, 162, 226 등 11곡조이다. 이 11곡조는 작곡자가 명시된 바, '민요' 장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38) <딕시/딕시랜드>, <산타 루치아>, <알로하오에>, <즐거운 나의 집>, <한 떨기 장미꽃> 등

되지 않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민요’로 표기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339] 『해방중등』 교과서 수록 외국곡 가운데 ‘민요’로 표기된 곡들 가운데에는, ‘민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중에게 불리고 사랑받은 타 장르의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곡들 대부분은 ‘대중가요’에 해당한다. 요컨대 『해방중등』 외국곡에 표기된 ‘민요’라는 용어는 전술한 ‘민요’와 ‘대중가요’의 개념을 포괄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민요’로 보기 어려운 곡들이 『해방중등』에 ‘민요’로 표기된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340] 일반적으로 (외국) ‘민요’는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살아남은 노래’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즉 ‘민요’로 표기함으로써 해당 곡의 가치와 위상이 검증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곡의 타당성 확보가 비교적 쉽다. 또한 상업성 목적을 지닌 ‘대중가요’에 비해 ‘민요’가 교육적 측면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중가요’의 범주에 있는 곡임에도 ‘민요’로 표기하는 방법이 편찬자들에게 선호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대중가요’이든 ‘민요’이든 인구를 거치면서 인지도가 생긴 데다, 대중에게 가치가 검증이 된 곡으로 여겨지는 측면에서 교과서 수록곡으로 선정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가요·민요’ 장르가 수록곡 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39) S. C. Foster의 경우, 그의 대표작 〈오, 수재너〉, 〈스와니강〉, 〈켄터키 옛집〉, 〈올드 블랙 죠〉, 〈꿈길에서〉 등이 184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작곡되었으므로(Wikipedia, ‘Stephen Foster’, 2022.5.3. 19:30 접속) 해방공간 기준으로 100년도 되지 않은 곡이 대부분인데, 그의 곡들은 『해방중등』에 ‘미국 민요’로 표기되어 있다.

340) 본 논문에서의 장르 구분 기준으로 볼 때, ‘민요’로 표기된 63곡([부록 5] 참조) 중 대중가요, 예술가곡, 오페라 구성곡(6, 6-1), 기타(152, 191은 성탄절 캐럴, 165는 종교적 성악곡, 196 썰매 노래 등) 장르로 볼 수 있는 곡이 포함되어 있다.(『標準』과 『해방중등』에 공히 ‘민요’로 표기된 외국 곡조는 7개 있다.(『해방중등』(『標準』)으로 표기. 『해방중등』의 곡조번호와 『標準』의 곡번호로 표기. 20(3), 99(48), 128(51, 52), 110(88), 143(109), 180(2), 113(113))

2.1.2 서양 예술가곡

‘서양 예술가곡’ 장르로 볼 수 있는 수록곡들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Ⅲ-29>와 같다.

<표 Ⅲ-29> ‘서양 예술가곡’(곡조별 정리)

곡조 번호	곡목	교과서	곡	비고
47	길손의 밤 노래	11	Fr. Schubert	〈Wanderers Nachtlied〉 Op.96, No.3
60	남해	11	F. Schubert	〈Wohin?〉 Op.25, No.2 《Die Schöne Müllerin》 중
65	녹음	11	R. Schumann	〈Erstes Grün〉
68	늙은 악사	11	F. Schubert	〈Der Leiermann〉 Op.89, No.24 《Winterreise》 중
70	니나의 死	12	G. B. Pergolesi	〈Nina〉
77	들장미	4, 22	C. M. Weber	Sechs Lieder 중 <Ich sah ein Röschen am Wege stehn〉
78	들장미/장미꽃/월계꽃	2, 16, 17, 20/7/14	H. Werner	〈Heidenröslein〉
84	마지막[341]	21	F. Schubert	〈Letzte hoffnung〉, Winterreise No.16 D.911 Op.89 추정
88	모오차르트(모찰트)의 자장가/자장가/잘 자거라	6, 23/1, 4, 9, 10, 14, 16, 17, 20/8	W. A. Mozart	J. F. A. Fleischmann,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103	보리수	1, 9, 10, 12, 14	F. Schubert	〈Der Lindenbaum〉, Op.89, No.5
114	부라암스(브람스)의 자장가/자장가/자장노래/아기 재우는 노래	21, 19/3/7/1, 10, 12	J. Brahms	〈Wiegenlied〉, Op.49, No.4
130	소녀의 꿈	3	FR. Chopin	〈Mädchens Wunsch〉, Polish Songs Op.74 중 No.1
132	소야가	12	F. Schubert	〈Ständchen〉, Last Opus, No.4 〈Schwanengesang》
134	수마	8	Brahms	〈Sandmännchen〉

138	슈베르트의 자장가/자장가/자장가	6, 23/1, 4, 7, 9, 10, 12, 15, 22/18	F. Schubert	〈Wiegenlied〉, D.498, Op.98, No.2
146	아베마리아	8	F. Schubert	〈Ellen’s Gesang. III.〉 D. 839, Op. 52, No. 6
158	연꽃	11	R. Schumann	〈Die Lotosblume〉 Myrthen Op.27, No.7
163	오호 종달새	1, 10	F. Mendelssohn	〈Lerchengesang〉, Op.48 no.4 from ‘6 Lieder’
168	월계꽃	1, 7, 9, 10, 12, 19, 21	F. Schubert	〈Heidenröslein〉 Op.3, No.3
174	이태리로	11	F. Mendelssohn (Fanny Mendelssohn-Hensel)	〈Italien〉
176	일요일	19, 21	F. Mendelssohn	〈Sonntagslied〉, 6 songs Op.34 중 5곡
193	조물주	8	L. van Beethoven	〈Die Ehre Gottes aus der Natur〉 (6 Lider, Op.48, No.4)
200	쥡시의 소년	11	C. G. Reißiger	〈Der Zigeunerbube im Norden〉
207	찬 비 치는 여사	19, 21	Schubert	〈Das Wirtshaus〉, Op.89, No.21 《Winterreise》 중
214	출진	18	Silcher	〈Der Soldat〉
228	흰 새	11	E. Grieg	〈En Svane〉 6 Songs, Op.25,

‘서양 예술가곡’ 장르는, 원곡이 확인되는 외국곡의 145곡조 중 약 18%(26곡조), 145곡조로 된 370곡 중에서는 약 19%(71곡)의 비중을 차지한다. 곡조 수 면에서나 곡수 면에서 외국곡 가운데 ‘대중가요·민요’ 장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대중가요·민요’ 장르와의 격차는 매우 크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6곡조 71곡에 슈베르트의 10곡조 31곡, 브람스의 2곡조 8곡, 멘델스존(J. L. F. Mendelssohn-Bartholdy)의 2곡조 4곡, 슈만의 2곡조 2곡 그리고 플라이슈만(J. F. A. Fleischmann)의 1곡조 11곡, 베르너의 1곡조 6곡, 베버의 1곡조 2곡과 함께, 베토벤,

341) 해당 쪽 소실.

쇼팽, 페르골레시, 그리그, 질허, 멘델스존(Fanny Mendelssohn), 라이시거(C. G. Reißiger) 각각의 1곡조 1곡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의 비중이 다른 작곡자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슈베르트의 예술가곡들은 1920 ~ 30년대의 다양한 악보집에서 발견될 뿐 아니라 1930년대 연주, 방송되고 음반으로도 취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342] 대중매체를 통하여 일제강점기부터 조선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한편으로는 일본 중등음악교과서의 수록곡으로서[343] 교사와 학생에게 익숙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해방중등』 수록에 적절한 곡으로 여겨짐으로써 그의 여러 예술가곡이 여러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서양 예술가곡’ 장르가 『해방중등』에 수록된 이유로는, 편찬자들의 시각에서 이 장르 가창곡들의 음악적 난이도나 노랫말 내용 등이 중등학교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곡조 수 및 곡수 면에서 ‘대중가요・민요’ 장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이유는, 편찬자들의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에 대한 뚜렷한 선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2.1.3 오페라 구성곡

‘오페라 구성곡’ 장르로 볼 수 있는 수록곡들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Ⅲ-30>과 같다.

---

342) 해방 이전의 악보집 『도훼미창가집』(홍영후(난파)(1919)), 『세계명작가곡선집』(홍영후(1926)), 『세계걸작가곡(백장미 제1집)』(이철(1927)), 『피아노선율법』(윤성덕(1930)), 『션발창가집』(김명철(1930)), 『특선가요곡집』(홍영후(1936)) 등에서 이 곡들이 발견되며, 음반으로 취입된 사실(배연형(2011), p.187, 189, 197, 213), 연주회・라디오 방송 곡 공지 기사(동아일보 ‘신춘음악대회 금야 십삼일 칠시반’(1932.2.14.), 조선일보 ‘라듸오’(1932.12.29.) 등 다수) 등도 확인된다.

343) 이 ‘예술가곡’ 장르에 포함된 모든 곡은 『標準』 수록곡이다. 『標準』 수록 외국곡 작곡자 가운데 가장 많은 곡을 수록한 이들이 슈베르트와 슈만인데, 특히 슈베르트의 곡 대부분은 ‘예술가곡’ 장르에 해당한다.

<표 Ⅲ-30> ‘오페라 구성곡’(곡조별 정리)

곡조 번호	곡목	교과서	곡	비고
6	Home Sweet home	2	H. R. Bishop	Clari(the Maid of Milan)(클라리)
6-1	즐거운 나의 집[344]	1, 6, 9, 10, 12, 16, 17, 20, 23	H. Bishop,	〃
23	개선/개선의 노래(2, 7)	1, 2, 7, 10, 12	G. F. Handel	Judas Maccabaeus(주다스 마카베우스) 합창곡
24	개선행진곡/우승가	6, 23/14	G. Verdi	Aida(아이다) 합창곡 <Gloria all Egitto>
39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	8	Thomas	Mignon(미뇽) <Connais tu le Pays>
81	라아르고	8	G. F. Handel	Xerxes(세르세)<Ombra mai fu>
100	뱃노래/야악	8/5	J. Offenbach	Les contes d'Hoffmann(호프만의 이야기), <Barcarolle>
107	봄날 아침/아침노래	6, 23/20	C. Gounod	Faust(파우스트) ‘난 청춘을 원해’
118	사냥꾼의 합창/사냥군의 노래	1, 5, 10/2	C. M. von Weber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
135	순례의 합창	6	R. Wagner	Tannhäuser(탄호이저)
157	여름의 바다	8	G. Verdi	Rigoletto(리골레토) 중 <La donna e mabile>
160	영광스러운 학도	14	Weber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 혼례의 합창. <Wir winden dir den Jungfernkranz>

‘오페라 구성곡’ 장르는, 원곡이 확인되는 외국곡의 145곡조 중 약 7%(11곡조), 145곡조로 된 370곡 중에서는 약 9%(32곡)의 비중을 차지한다. 곡조 면에서나 곡수 면에서 수록 외국곡 가운데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이긴 하나 그 비중은 적으며, 아리아(Aria)와 합창곡이 주로 수록되었음을 볼 수 있다.

11곡조 32곡에는 헨델의 2곡조 6곡, 베르디의 2곡조 4곡, 베버의 2곡조 5곡, 오펜바흐의 1곡조 2곡, 구노의 1곡조 3곡, 바그너의 1곡조 1곡, 비숍의 1곡조 10곡, 토마의 1곡조 1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곡조 수 면

344)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은 H. Bishop의 오페라 구성곡을 편곡하여 대중가요로 만든 곡. Wikipedia, 2021.11.12. 01:21. 접속.

에서는 헨델, 베르디, 베버가 동위로 1위이며, 곡수 면에서는 비숍이 9곡으로 1위이다. ‘작곡가별 오페라 작품 수’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작곡자들의 오페라 작품이 1개 수록된 데에 반하여 헨델과 베르디의 작품은 각각 2개씩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가장 다회(多回) 수록된 오페라 작품은 비숍의 <클라리(Clari(the Maid of Milan)>이다.

‘합창곡’이 ‘오페라 구성곡’ 11곡조 가운데 5곡조, 31곡 가운데 14곡의 비중을 차지한다. 『해방중등』 가운데에는 편찬자가 합창곡을 의도적으로 수록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을 서문에 밝힌 경우가 있는데,[345] 다양한 가창 형태의 곡을 수록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물론 원래 합창곡이 아닌 곡을 합창 편곡하여 수록할 수도 있으나, 수록의 용이성 면에서나 대중 친숙도가 보장되어 있다는 면에서 유명 오페라의 합창곡을 선정하는 방법이 더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2.1.4 기타

앞의 세 가지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수록곡들을 표로 나타내면 [부록 6]과 같다. ‘기타’에 해당하는 곡들은, 원곡이 확인되는 외국곡의 145곡조 중에서 약 29%(42곡조), 145곡조로 된 370곡 중에서는 약 20%(73곡)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종교적 성악곡, 기악곡 편곡 성악곡, 국가, 군가, Children’s song(어린이 노래), 극의 부수음악, 모음곡의 부수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곡이 포함된다.

‘종교적 성악곡’ 곡조로 된 곡이 다수 수록된 것은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찬송가 곡조가 많은데, 찬송가와는 다른 제목과 노랫말로 수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랫말이 찬송가와는 다르게 바뀌어 있는 일본 악보를 그대로 조선어로만 번역하여 수록한 것인지, 조선인이 찬송가 곡조를 토대로 새로 작사하여 수록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19세기 말

345) 교과서 3의 ‘자서’와 교과서 8의 ‘머릿말’에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찬송가가 유입되면서부터 찬송가 곡조에 조선어 노랫말을 붙인 다양한 노래가 매우 많이 만들어졌다. 1920년대가 되어서야 작곡가들이 점차 등장하여 양악 창작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노래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곡조 특히 찬송가 곡조에 노랫말만 바꾸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해방중등』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 시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노래를 만드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거나, 또는 『標準』에도 찬송가 곡조로 만들어진 수록곡이 적지 않았었으므로 일제강점기 동안 음악교육에 몸담았던 편찬자들도 이러한 곡들에 익숙한 탓에 찬송가 곡조로 된 노래들을 수록하였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수록된 ‘Children’s songs(어린이 노래)’는 대부분 윤창곡이다. 이 곡들은 주로 중창 및 합창 학습용으로 선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곡들은 길이가 짧고 노래의 형식이 단순하며 가창의 난도가 낮다. 윤창의 특성상 학생들이 즐겁게 가창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중창 및 합창 학습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여러 곡의 윤창이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공간 음악교육이 가창 중심이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가창 학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창 방식에 대한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윤창이 그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악곡을 성악곡으로 편곡한 곡’들이 여러 곡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잘 알려진 기악곡의 선율에 노랫말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대중적으로 친숙한 선율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율로 된 노래를 학생들이 흥미롭게 그리고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록곡으로 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곡의 장르에 대한 고찰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가운데 곡조 수나 곡수의 비중은 ‘대중가요·민요’ 장르가 압도적으로 크고, ‘서양 예술가곡’, ‘오페라 구성곡’ 장르가 그 뒤를 잇는다. ‘서양 예술가곡’ 장르에서는 슈베르트 곡의 비중이 독보적이고, ‘오페라 구성곡’ 가운데선 아리아와 합창곡이 주로 수록되었으며 비숍의 오페라 〈클라리(Clari(the Maid of Milan)〉가 교

과서에 가장 다회 수록되었다. 이들 장르 외에도 종교적 성악곡, 기악곡 편곡 성악곡, 국가, 군가, Children’s song(어린이 노래), 극의 부수음악, 모음곡의 부수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외국곡이 『해방중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해방중등』 편찬자들은 ‘대중가요·민요’ 장르를 수록곡으로서 상당히 선호하였으나, 매우 다양한 종류의 가창곡을 수록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작곡자

『해방중등』 외국곡 ‘작곡자’에 대한 고찰은 각 곡의 작곡자명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방중등』 수록곡 가운데에는 작곡자명이 표기되지 않은 곡이 많은 데다, 이름이 표기된 작곡자가 해당 곡의 실제 작곡자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아, 교과서에 ‘표기’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전제하여서는 실제적 고찰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목차나 수록 악보에 기명(記名)된 작곡자가 해당 곡의 작곡자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 오기(誤記) 또는 오식(誤植)된 작곡자명 확인, 그리고 작곡자명 표기가 없는 수록곡들의 작곡자 파악 등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먼저 교과서 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살피면, 파악되는 작곡자 수는 총 93명이며, 이들이 작곡한 곡조는 총 146개로 확인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부록 7]과 같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서술하였던 작곡자 관련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총 100명의 작곡자와[346] 이들이 작곡한 156곡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347]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Ⅲ-31>과 같다.

---

346) 이 100명이 교과서 표기를 기준으로 파악된 93명의 작곡자에 7명을 더한 것은 물론 아니다. 93명에서 제외된 작곡자들이 있으며, 확인 결과 추가된 작곡자들이 있어 합산된 결과이다.

347) 이 100명의 156곡조로 된 350곡은 외국곡 총 478곡 중 약 73%에 해당한다.

<표 Ⅲ-31> 외국곡 작곡자와 수록곡(검토 결과)

	작곡자명	곡조 번호	비고
1	Abt, Fr.	18, 40	
2	Adams, C. B.	203	
3	Aiken, W. H.	175	
4	Александров, А. В. (Alexandrov, A.)	131	곡조 131 <소련 국가>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Александров, А. В.로 확인됨. (Wikipedia 2023.4.15. 22:08 접속)
5	Bach, J. S.	37	
6	Barnby, J.	59	
7	Bayly, T. H.	8, 8-1	
8	Beethoven, L. van	52, 102, 108, 193	
9	Bellini, V.	26	
10	Bishop, H. R.	6, 6-1	
11	Bland, J.	61	
12	Bortniansky, D.	15	
13	Brahms, J.	97, 114, 134, 184	
14	Capua, E. di	83, 113	곡조 83 <마리아 마리>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E. di Capua로 확인됨.
15	Carpenter, J. A.	38	
16	Cherubini, L	67, 166	
17	Chopin, Fr.	130	
18	Cornelius, P.	212	
19	Cottrau, T.	179	곡조 179 <잘 있거(으)라 나폴(포/뽀)리>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T. Cottrau로 확인됨.
20	Curtis, E. de	74	
21	Davidson, ?	151	
22	Deaton, L. G.	153	
23	Denza, L.	198	
24	Dona, M. E. B.	27	
25	Dvorak, A.	50	
26	Emmett, D. D.	80	
27	Fleischmann, J. F. A.	88	곡조 88 <모오차르트(모찰트)의 자장가>/<자장가>는 모차르트 작

			곡으로 알려져 왔으나, J. F. A. Fleischmann의 곡으로 정정됨.(Wikipedia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독일어), ‘Johann Friedrich Anton Fleischmann’(독일어, 영어) 2023.2.23. 14:25 접속)
28	Flotow, F. von	226	
29	Foster, S. C.	34, 45, 69, 75, 119, 162	
30	Franck, C.	36	
31	Freire, O. P.	147	
32	Gabriel, C. H.	115	
33	Glinka, M.	194	
34	Gluck, C.	122	
35	Gounod, Ch.	107, 145	
36	Greser, ?	90	
37	Grieg, E.	133, 228	
38	Gruber, F.	25	
39	Gurlitt, C	79	
40	Händel, G. F.	23, 81, 218	
41	Harrison, ?	98	
42	Hauptmann, M.	188	
43	Haydn, F. J.	64, 159	
44	Hays, W. S.	35, 41	
45	Hetsch, K. L.	58	
46	Hullah, J.	48	
47	Ivanovici, I.	73	
48	Jonasson, J. E.	217	
49	King, T.	76	
50	Kipper, H.	54	
51	Kücken, F.	49, 106, 137, 209	
52	Lambillotte, L.	173	
53	Lehar, F.	167	
54	Levey, W.	201	
55	Liliuokalani	141	
56	Mario, E. A.	86	
57	Massenet, J.	116	
58	Mendelssohn, F.	29, 87, 95, 163, 176, 223	
59	Mendelssohn, F (Fanny Mendelssohn-Hensel)	174	

60	Miessner, W. O.	62	
61	Mozart, W. A.	46, 204, 215	곡조 12, 12-1은 교과서에 모차르트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곡조는 프랑스의 children’s song인 <Ah! vous dirai-je, maman>의 곡조. 모차르트가 이 곡조에 의한 12개 변주곡(Twelve Variations on “Ah vous dirai-je, Maman“, K. 265/300e)을 작곡하면서 널리 알려져, <Ah! vous dirai-je, maman> 곡조가 모차르트에 의해 작곡된 것으로 잘못 알려짐. 또한 곡조 88의 실제 작곡자는 J. F. A. Fleischmann이며, 곡조 105의 실제 작곡자는 미상으로 확인됨.
62	Nägeli, H. G.	187	
63	Nagler, F.	104	
64	Norton, C.	216	영국, 1808-1877
65	Offenbach, J.	100	
66	Ordway, J. P.	3, 3-1	
67	Pergolesi, G. B.	70	
68	Pierpont, J. L.	196	미국. 1822-1893
69	Purcell, H.	14	
70	Radecke, R.	211	
71	Reißiger, C. G.	200	
72	Root, G. F.	22, 33	
73	Rossini, G.	227	
74	Rubinstein, A.	16	
75	Schubert, F.	47, 60, 68, 84, 103, 132, 138, 146, 168, 207	
76	Schulze, ?	63	
77	Schumann, R.	65, 71, 158, 202	
78	Shield, W.	1	곡조 1 <Auld Lang Syne>은 작사/작곡자명 없이 Scotch air(스코틀랜드 선율)로 표기되어 있으나, 노랫말은 Robert Burns 그리고 곡조는 William Shield의 것으로 확인됨.(Wikipedia ‘Auld Lang Syne’ 2023.2.21. 23:08 접속)
79	Silcher, Fr.	11, 30, 42, 66, 82, 96, 101, 109, 214	- 곡조 101 <벗생각>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이 <Ich hatte einen Kameraden, einen bessern Finst mit> 곡조는 Silcher, Fr의 것으로 확인됨. - 곡조 109 <봄들로 가자>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 표기되지 않고 ‘독일 민요’로 되어 있으나, 이 <Muss I denn> 곡조

			또한 Silcher, Fr의 것으로 확인됨.
80	Spilman, J. E.	51	
81	Taubert, W.	177	
82	Thomas, ?	39	
83	Toselli, E.	127	
84	Türk, D. G.	121	
85	Verdi, G.	24, 157	
86	Vergine, ?	94	
87	Wagner, R.	135	
88	Walt, E. J.	56	
89	Webbe, S.	190	
90	Weber, C. M. von	31, 77, 118, 160	
91	Weise, ?	210	
92	Werner, H.	78	
93	Widman, B.	120	
94	Woodbury, I. B.	192	
95	Work, H. C.	171	곡조 171 <응원가>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이 <Marching Thro Georgia> 곡조는 Work, H. C.가 작곡한 것으로 확인됨. (Wikipedia 2023.4.15. 22:28 접속)
96	Wrighton, W. T.	57	
97	Wyman, A. P.	170	곡조 170 <은파를 넘어>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는 G. A. Glover로 되어 있으나, 이 <Silvery Waves> 곡조는 A. P. Wyman 작곡으로 확인됨.
98	Zelter, C. F.	224	
99	Zöllner, C. F.	17	
100	程懋筠	199	곡조 199 <중국 국가>의 작곡자명이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程懋筠으로 확인됨.

[부록 7]과 <표 Ⅲ-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곡자 및 수록곡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특징적 양상들이 발견된다.

먼저, 잘못 표기된 작곡자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기(誤記)나 오식(誤植)인 경우, 그리고 실제 작곡자명이 아닌 다른 인물명으로 표기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단순 오기나 오식의 경우는 십여 명의 작곡자명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즉 ‘Joseph Barnby’를 ‘Josep

Barnly’로, ‘J. B. Bland’를 ‘B. James’로, ‘Gounod’를 ‘Gohnod’로 표기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공간 시기에도 오기와 오식은 신문 잡지 등의 언론 매체를 비롯한 각 분야 인쇄물에 있어서 매우 만연한 문제였고, 심지어 ‘글자’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문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348] 더구나 조선인에 의한 음악 전문 출판이 겨우 이루어지기 시작한 해방공간 시기, 음악 교과서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시기적 상황으로 볼 때, 중등음악교과서 편찬자와 출판 및 사보 관련자 등이 서양의 외국어로 된 음악 용어·음악인명 등에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또한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실제 작곡자명이 아닌 다른 인물명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곡조 12,[349] 12-1[350]은 프랑스의 Children’s song인 <Ah! vous dirai-je, maman>에서 비롯된 것이나 모차르트의 곡으로 오기되어 있다.[351] 마찬가지로 모차르트 작곡으로 오기된 곡조 88[352]도 플라이슈만(J. F. A. Fleischmann) 작곡으로 확인된다.[353] 곡조 105[354]도 모차르트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작곡자 미상으로 확인된다.[355][356] 또한 곡조 170[357]의 경우 작곡자명이 글로버(G. A. Glover)로 오기되어 있으나 와이만(A. P. Wyman)이 작곡한 것으로 파악되며,[358] 곡조 220[359]도 작곡자명이 ‘Broom’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스트리아 민요 <O du lieber

348) 20세기 전반 한국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오식 문제로 인하여 시어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유형선, 윤애경(2020), p.109; 윤효녕(2019), pp.12-13))
349) <The Alphabet>/<알파베트>/<Alphabet>
350) <Twinkle, twinkle, little star>
351) [부록 4] 참조
352) <모오차르트(모찰트)의 자장가>/<자장가>
353) [부록 4] 참조
354) <봄노래>
355) Wikipedia ‘Alle vögel sind schon da’ 2023.5.4. 03:23 접속
356) 특히 모차르트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는 수록 곡조/곡 가운데 그의 작품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곡조 12, 88, 105가 이에 해당한다. 모차르트가 유명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널리 알려진 곡들뿐만 아니라 그와 아무 관련 없는 곡들까지 그의 곡으로 오인되는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
357) <은파를 넘어>
358) [부록 4] 참조
359) <풍년>

Augustin>에서 비롯된 것이다.[360] 이러한 오기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으나, 해방공간 상황에 비추어볼 때 편찬자들이 수록곡의 작곡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편찬자들이 편찬 시 참고/차용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검증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해방중등』에 반영하면서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목차에서 '밀려 쓰기'와 같은 단순 실수로 작곡자명이 오기된 경우도 발견된다.

작곡자 및 수록곡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적 양상은, 앞서 서술한 바 있지만 '민요'로 보기 어려운 곡들이 '민요'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곡자가 알려져 있고 작곡 시기가 해방공간 기준으로 1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곡이 '민요'로 표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곡조 80[361]은 에밋(D. D. Emmett)에 의하여 작곡된 것임에도 '미국민요'로만 표기되기도 하였으며, 곡조 109[362]은 질허(F. Silcher)에 의하여 작곡된 것이나 '독일 민요'로만 표기되어 있다.[363] 이러한 양상은 곡조 6, 6-1, 27, 34, 82, 113, 123, 141, 162, 179, 196, 226 등에서도 발견된다. 편찬자가 '민요'가 아님에도 '민요'로 표기한 이유로는, 우선 전술한 바대로 '민요'가 '대중가요'에 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는 점, 작곡자명 확인에 필요한 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참고/차용 자료 미검증 인용, 작곡자명 확인 책임 회피,[364] 편찬자가 지닌 '민요' 개념의 모호성 등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교과서에 작곡자명 표기가 없으나 탐색 결과 작곡자가 파악된 곡조로는 곡조 131<소련 국가>, 83(카푸아 <마리아 마리>), 179(코트라우 <잘 있거라 나폴리>), 101(질허, <독일 군가>), 171(워크, <응원가>), 199(<중국 국가> 程懋筠) 등이 있다.)

---

360) [부록 4] 참조
361) <딕시>/<딕시랜드>
362) <봄들로 가자>
363) [부록 4] 참조
364) '민요'로 표기함으로써 작곡자명을 확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작곡자와 수록곡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작성한 <표 Ⅲ-31>을 바탕으로 작곡자별 곡조수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32>와 같다.

<표 Ⅲ-32> 작곡자별 곡조수 (4곡조 이상, 10명까지)

순위	작곡자명	곡조수
1	Schubert, F.	10
2	Silcher, Fr.	9
3	Foster, S. C.	6
3	Mendelssohn, F.	6
5	Beethoven, L. van	4
5	Brahms, J.	4
5	Kücken, F.	4
5	Schumann, R.	4
5	Weber, C. M. von	4

<표 Ⅲ-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곡조수 면에서 슈베르트가 1위, 질허가 2위, 뒤이어 포스터와 멘델스존이 3위에 해당한다. 이 작곡자들의 출신 지역(국가)을 살피면,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질허・멘델스존・베버・베토벤・브람스・퀴켄・슈만은 독일, 포스터는 미국이다. 즉 곡조수 면에서 상위 10위까지의 작곡자 가운데 7명이 독일 출신이라는 사실에서, 독일 작곡자의 곡조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곡자별 수록 횟수를 나타내면 <표 Ⅲ-33>과 같다.

<표 Ⅲ-33> 작곡자별 수록 횟수 (5회 이상, 21명까지 순위순)

순위	작곡자명	수록 횟수
1	Schubert, F.	31
2	Foster, S. C.	23
3	Silcher, Fr.	19
4	Brahms, J.	11
5	Bishop, H. R.	10
5	Fleischmann, J. F. A.	10
5	Kücken, F.	10
5	Ordway, J. P.	10

8	Mendelssohn, F.	9
9	Beethoven, L. van	8
9	Weber, C. M. von	8
11	Dona, M. E. B.	7
11	Händel, G. F.	7
11	Hays, W. S.	7
11	Capua, E. di	7
14	Schumann, R.	6
14	Werner, H.	6
17	Dvorak, A.	5
17	Flotow, F. von	5
17	Hullah, J.	5
17	Jonasson, J. E.	5

<표 Ⅲ-33>에서 볼 수 있듯이, 곡조수 면에서 1위인 슈베르트가 수록 횟수 면에서도 1위이며,[365] 곡조수 면에서 5위인 포스터가 수록 횟수 면에서는 2위인 점이 눈에 띈다. 비숍의 경우, 곡조수는 <즐거운 나의 집> 1곡조에 불과하나 10회 수록됨으로써 수록 횟수 면에서 5위에 올랐으며, 오드웨이의 경우도 곡조수 면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하였으나 수록 횟수 면에서는 5위라는 사실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플라이슈만(J. F. A. Fleischmann)은 그가 작곡한 <모차르트 자장가>가 10회 수록되면서 수록 횟수 면에서 5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곡은 일제강점기에도 해방공간 당시에도 모차르트 작곡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 교과서 다회 수록의 주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 있다.

위의 <표 Ⅲ-32>와 <표 Ⅲ-33>을 비교하면 곡조수 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작곡자들에 의하여 높은 순위가 주로 점하여진 데에 비해, 수록 횟수 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작곡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의 작곡자들 또한 높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포스터, 비숍, 오드웨이, 헤이스 등의 소수의 곡이 다회 수록된 데에 기인하는데, 특히 포스터의 <고향을 떠나며/켄터키 옛집/켄터키의 옛집>(9회

365) 슈베르트의 <길손의 밤 노래>, <남해>, <늙은 악사>, <마지막>, <보리수>, <소야가>, <슈베르트의 자장가>, <아베마리아>, <월계꽃>, <찬 비 치는 여사> 등 10곡이 31회 수록되었다.

),[366] 비숍의 <Home sweet home>/<즐거운 나의(우리) 집>(9회),[367] 오드웨이의 <Dreaming of home and mother>/<고향의 어머니/여수>(9회), 헤이스의 <고향의 쓰러진 집/고향의 폐가>(5회). 플로토우의 <한 떨기 장미꽃>(5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수록 횟수 면에서 미국, 영국 작곡자들이 높은 순위에 있는 이유는 출신 지역이나 작곡자에 대한 편찬자의 선호 때문이라기보다, 주로 '특정 곡에 대한 선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작곡자들의 '출신 지역' 및 '생몰 연대'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부록 8]과 같다.

총 100명의 작곡자 가운데 출신 지역 확인이 어려운 15명을 제외한 85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곡자의 출신 '대륙'을 살피면 유럽(영국・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스위스・스웨덴・헝가리・러시아・체코・이탈리아・루마니아・프랑스・폴란드・노르웨이・러시아 제국・소련[368]) 출신의 작곡자가 67명, 아메리카(미국(하와이 포함), 칠레) 출신의 작곡자는 17명, 아시아(중국) 출신의 작곡자는 1명으로, 유럽 지역 작곡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작곡자의 출신 '국가'를 살피면 독일 28명, 미국 16명(하와이 1명 포함), 이탈리아 11명, 영국 8명, 오스트리아 4명, 프랑스 3명, 벨기에・러시아 각각 2명, 그리고 스웨덴・스위스・헝가리・체코・루마니아・폴란드・노르웨이・칠레・러시아제국・소련・중국 각각 1명으로, 독일 작곡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뒤이어 미국,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작곡자들의 비중이 크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4> 출신 지역(국가)별 작곡자 수 (순위 순)

순위	지역(국가)명	작곡자 수(명)

366) 포스터의 곡들은 일제강점기 여러 악보집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해방 이전부터 대중에게 친숙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67) <Home, Sweet home>은 일제강점기 여러 악보집에 서로 다른 조선어 노랫말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중 친숙도가 높았던 곡으로 판단된다.
368) 소련은 유라시아 북부에 위치하였던 국가이지만, 유럽 대륙 국가로 분류하였음.

1	독일	28
2	미국	16
3	이탈리아	11
4	영국	8
5	오스트리아	4
6	프랑스	3
7	벨기에, 러시아	4(2×2)
9	스웨덴, 스위스,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칠레, 러시아제국, 소련, 중국	11(1×11)
		총 85

『해방중등』 편찬자들의 독일 가창곡 선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Ⅲ-34>를 토대로, '출생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작곡자 84명의 출생 시기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35>와 같다.

<표 Ⅲ-35> 작곡자 출생 시기별 작곡자 수

	출생 시기	작곡자 수(명)
1	17세기 후반 (1651 - 1700)	3
2	18세기 전반 (1701 - 1750)	5
3	18세기 후반 (1751 - 1800)	19
4	19세기 전반 (1801 - 1850)	42
5	19세기 후반 (1851 - 1900)	15
		총 84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세기 전반 출생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의 순서로 많다. 상대적으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 출생자의 비중은 매우 적다. 세기별로 정리해 보면, 19세기 출생자가 57명으로 약 68%의 비중, 18세기 출생자가 24명으로 약 29%의 비중, 17세기 출생자가 3명으로 약 4%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19세기 특히 19세기 전반에 출생하여 활동한 작곡자의 곡이 『해

방중등』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서양음악사 시기 구분으로 보면 낭만주의 시기 작곡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곡이 『해방중등』에 가장 큰 비중으로 수록되었다는 의미이다.

작곡자별 수록 곡조, 곡조 수, 수록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부록 9](『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작곡자별 수록 곡조, 곡조 수, 수록 횟수)와 같다.

2.3 노랫말 관련 인물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의 노랫말 관련 인물 즉 역사자 또는 작사자를 곡목, 수록 횟수와 함께 나타내면 [부록 10]과 같다.

노랫말 관련 인물별 역/작사 노랫말 편수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Ⅲ-36>과 같다.

<표 Ⅲ-36> 노랫말 관련 인물별 역/작사 노랫말 수록 편수 (순위 순)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 · *기울인*'**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순위	역/작사자(활동 분야)	편수	수록 교과서
1	***오창진***(성악)	45	교과서 8 수록
2	***임학수***(영문학, 문학(시인), 시 번역)	25	교과서 11, 19, 21 즉 『남녀중등음악교본』 수록
3	오수경(미상)	20	1곡 외에 나운영 편찬 교과서 13, 14, 18 수록
4	***풍만(임학수 추정)***(영문학, 문학(시인), 시 번역)	11	교과서 19, 21 즉 『남녀중등음악교본』수록
5	김광섭(영문학, 문학(시인), 교육(영어 교사))	7	이승학이 편저한 교과서 15, 16, 17의 수록곡.
6	이헌구(불문학, 평론), 화암(박용구)(음악 평론)	6	이헌구 - 이승학이 편저한 교과서 16, 17 수록. 화암 - 교과서 1, 9, 10, 12, 15, 17, 18
8	홍난파(홍영후)(성악, 바이올린, 작곡, 문학(소설), 평론)	5	교과서 1, 9, 10, 13, 16, 17, 18, 19, 20, 21 등에 수록
9	***김수향(윤복진)***(아동문학), 김재인(교육(중등학교 교사)), 박제열(미상)	3	김수향 - 교과서 5, 9 수록 김재인 - 1, 2, 6, 7, 9, 10, 12,

			16, 17, 20, 23/ 박제열(이승학 편저 15, 16, 17, 13(나운영2), 23
12	국정효(영어영문학, 교육(교수)), 송정율(미상), 한갑수(성악, 국문학), 현제명(성악, 작곡)	2	국정효 - 1, 6, 9, 10, 12, 13, 15, 22, 23 송정율 - 1, 3, 5, 6, 9, 10, 12 한갑수 - 1, 2, 9, 10, 12, 13, 15, 20 현제명 - 8, 9
16	고순덕(독고선의 오기. 피아노), 김명진(미상), 김신덕(피아노), 김인식(작곡), 김형준(합창), 남궁요설(성악), 박태원(성악), 백철(문학, 평론), ***안기영***(성악, 작곡), 윤기성(성악), 이관옥(성악), 이규남, 이우건(미상), 이은상(문학(시인)), 홍순혁(사학)	1	

수록 편수 면에서 오창진이 1위, 임학수(풍만 추정)[369], 오수경이 다음 그룹이며, 김광섭, 이헌구, 화암, 홍난파, 김수향(윤복진), 김재인, 박제열, 국정효, 송정율, 한갑수, 현제명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오창진[370]이 편저한 교과서 8 『중등음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곡의 비중이 약 87%(23종 중 5위에 해당)에 이른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외국곡 악보에 '오창진 가사(歌詞)'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369) '풍만'은 '풍강'과 함께 임학수의 이칭(異稱)으로 추정된다. 교과서 1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1948)에서는 임학수 사, 작사, 역사가 발견되며, 교과서 2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2권』(1950.4.28 발행)-임학수 사, 작사, '풍만' 역사가 발견된다. 교과서 23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1950.5.10 발행)에는 '임학수'와 '풍만' 둘 다 발견되지 않으며, 『남녀중등음악교본 제3권』(1954)에서는 '임학수' 표기가 사라진 자리에 '풍강'이 대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풍강'은 이칭으로 파악된다.(교과서 1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1948)과 1954년에 발행된 『남녀중등음악교본 제3권』 비교하면, 교과서 11에서 임학수 작사로 되어 있던 <스승님 은혜>·<여름방학>의 작사자명이 '풍강'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학수가 해방공간 시기 좌익 성향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6·25전쟁 시 월북(납북)한 사실로 미루어, 임학수 표기를 '풍강'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풍강'의 경우처럼 임학수로 표기된 자리에 '풍만'이 대체된 경우는 찾을 수 없으나, 6·25전쟁 이전 임학수와 '풍만'으로 되어 있던 표기가 6·25전쟁 발발 즈음에 모두 사라지고 1954년 발행된 교과서에 임학수를 '풍만'의 첫 글자인 '풍'으로 시작되는 '풍강'으로 대체하여 표기한 것을 볼 때, '풍만'은 임학수의 이칭으로 보인다.

370) 일본 동양음악학교 출신의 성악가로,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집행위원 역임. 6·25전쟁 중 피랍된 것으로 확인됨.(동아일보 1957.11.20. 기사 '북한괴뢰 납치인사 생존자 명부(완)'에 43세이며 제주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음)

점이다. 노랫말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랫말 번역/작사뿐 아니라 기존하던 노랫말에 대한 부분적 조정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가사(歌詞)'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기본적으로 외국곡 비중이 높은 데다 대부분의 수록 외국곡의 노랫말 작업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수록 편수 1위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노랫말은 교과서 8 이외의 교과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임학수(1911~1982)의 경우, 교과서 11, 19, 21 등 『남녀중등(학)음악교본』 시리즈에 수록된 다수의 외국곡을 번역/작사하여 수록 편수 25편으로 2위에 올랐다. 특징적인 것은 번역의 경우는 '역사(譯詞)'로, 번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사(詞)'로 구분하여 표기한 것이다.[371] 이는 그가 영문학자이자 '시 번역가'로서 번역과 작사의 구분에 민감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4위에 해당하는 '풍만'은 임학수의 이칭으로 판단되는데[372] '풍만'의 수록곡 11곡까지 합하면 36곡에 이른다. 어떠한 이유로 그의 노랫말이 『남녀중등(학)음악교본』에 다수 수록되었는지는, 임학수와 편저자인 '교육음악연구협회' 및 '국민음악연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알기 어렵다.

다만 앞서 '조선곡'의 '학교 교육 관련 노래' 장르에서 서술한 바, 임학수의 노랫말로 된 '학교 교육 관련 노래'가 다수인 이유를 임학수가 편찬자의 일원 또는 노랫말 감수자로 활동하면서 노랫말 작업에

371) '작사(作詞)'라는 표기는 본인이('임학수'라는 이름으로) 노랫말을 만든 '조선곡'에만 사용하였다. 본명이 임영택인 그는 여러 이칭을 사용하였는데, 『해방중등』 수록 조선곡 작사자로서의 명칭으로는 '임학수'를 사용하였다.

372) 1948년 발행된 교과서 11에는 '임학수 사·작사·역사' 모두 발견된다. 1950년에 발행된 교과서 21에는 '임학수 사·작사', '풍만 역사'가 발견된다. '역사'의 경우 '풍만'이라는 이칭을 사용하여 임학수라는 이름의 등장 횟수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1920, 30년대 잡지에 한 인물이 여러 이칭을 사용하여 다수의 글을 싣는 일이 적지않이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경우로 보임. 또한 『標準』의 경우 구로사와 다카토모가 '미즈타 시센', '구와타 츠네시', '후지무라 슌'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하여 다수의 노랫말을 수록하였음을 볼 수 있음.) 1950년 발행된 교과서 23에는 '임학수'와 '풍만' 둘 다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954년 발행된 『남녀중등음악교본 3』에 '풍강'이 등장한다. 교과서 11과 이 교과서를 비교하면, <스승님 은혜>·<여름방학>의 작사자 임학수가 '풍강'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만'과 '풍강'의 공히 '풍'이 들어가는 별칭이라는 점도 풍강·풍만·임학수를 동일 인물로 추정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참여했을 가능성에서 찾았듯이, 임학수의 역/작사 노랫말이 다수 수록된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오수경의 경우, 나운영이 편저한 교과서 13, 14, 18 『중등음악』 시리즈에 수록된 다수의 외국곡을 번역/작사하여 수록 편수 20편으로 3위에 올랐다.[373] 거의 '오수경 시(詩)'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기를 통하여서는 번역/작사 여부를 알 수 없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번역된 것도 작사된 것도 있기 때문에, 번역/작사를 포괄하는 의미로 '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과서 13, 14, 18의 '머리말'에 "... 이 책을 위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주신 오수경님에게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운영의 위촉으로 오수경이 『중등음악』 시리즈의 노랫말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광섭의 경우, 이승학이 편저한 교과서 15, 16, 17 『중등음악교본』 시리즈에 수록된 외국곡들을 번역/작사하여 수록 편수 7편으로 5위에 올랐다. 거의 '역시(譯詩)'로 표기되어 있는데, 작사로 파악되는 경우도 '역시'로 표기되어 있어 이 표기에 대한 신빙성은 떨어진다. 이헌구의 경우 김광섭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16, 17에 수록된 외국곡을 번역/작사하여 수록 편수 6편으로 6위에 올랐다. 번역/작사 여부를 알 수 없이 대부분 '작시(作詩)'로 표기되어 있다.

김광섭, 이헌구의 노랫말이 이승학이 편저한 교과서들에 수록되어 있는 이유로는 이들 간의 친분을 들 수 있다. 해방 이전 이헌구 작사·이승학 작곡의 곡이 만들어진 바 있으며,[374] '연속 라디오 드라마'에서 이헌구, 김광섭, 이승학 등이 함께 작업한 일도 있다.[375] 이들이 일제강점기부터 쌓은 친분이 교과서 편찬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암(박용구)의 경우, 수록 편수 6편으로 이헌구와 함께 6위에 올랐

373) 20곡 중 1곡만이 다른 교과서에 실렸다.
374) 조선일보 1934. 7. 14. 기사 '라디오' 중 오후 12시 5분부터 방송되는 곡 가운데 이헌구 작사, 이승학 작곡의 '밤사공'이 포함되어 있음.
375) 조선일보 1935. 4. 23. 기사 '라디오'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 기사 내용에서 '8시 연속라디오드라마<춘희>'(듀마 피스 원작)의 각색자 이헌구, 출연진 중 이헌구, 김광섭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극예술연구회 음악 반주 이승학'도 발견된다.

다. 그의 노랫말은 총 10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6편의 노랫말 모두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에 수록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과서 1 편찬 시 그에 의하여 번역/작사된 노랫말이[376] 이후에 편찬된 교과서들에 참고·차용되어 수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난파(홍영후)의 경우, 수록 편수 5편으로 8위에 올랐다. 그의 노랫말은 총 10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수록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없다. 『해방중등』에 수록된 홍난파의 노랫말들은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발행된 그의 악보집에 실린 것들이다. 홍난파는 1910년대 말부터 외국 명곡을 실은 악보집을 여러 권 냈는데,[377] 그 수록곡의 노랫말 가운데 본인이 직접 번역/작사한 것이 적지 않다. 이 노랫말 중 여러 편이 『해방중등』에 수록되었다. 『해방중등』 편찬자들은 홍난파가 작곡한 조선곡 뿐만 아니라 그가 번역/작사한 외국곡의 노랫말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수록 편수 면에서 상위에 있는 인물들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은, 먼저 1 ~ 4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노랫말이 해방공간 이후로 거의 전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1위인 오창진과 2위(4위)인 임학수(풍만)의 경우에는, 월(납)북으로 인하여 그들의 노랫말은 해방공간 이후의 교과서에는 수록될 수 없었다(민경찬, 2006: 114).[378] 3위인 오수경의 노랫말도 현재 중등음악교과서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이들의 노랫말은 공통적으로 교과

376) 박용구는 『임시중등음악교본』 편찬 작업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 그때 내가 번역한 곡들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이정화(1990). p.183)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그의 노랫말들이 편찬 이전이 아닌 '편찬 당시'에 번역된 것이 다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77) 『세계명작가곡선집』(1926),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노산시조편』, 『광익창가집(1922)』, 『도쿄미창가집』(1919), 『통속창가집』(1917), 『특선가요곡집』(1936) 등.

378) 납북자의 작품은 금지되지 않았으나, 월북자의 작품은 금지되었다. 1988년 7월 19일 북한 전-현직 고위직 역임자를 제외한 월북 작가 백여 명의 해방 전 문학작품이 해금되었으며,(조선일보, 1988.7.20. 기사 '월북작가 백여명 해방전 작품 해금')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월북·납북 작가의 음악, 미술 작품 규제 해제' 조치로 인하여 금지되었던 월북 또는 월북으로 추정되는 음악가의 작품 중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만들었거나 발표된 작품이 해금되었다.(민경찬(2006), p.294) 해금 이후에도 월북자로 되어 있는 이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납북'을 주장한 일이 많았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월북/납북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나 주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서 수록을 위하여 『해방중등』 편찬 당시 번역/작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방공간 시기에 교과서 편찬을 위하여 만들어진 다수의 노랫말이 후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후의 음악교육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노랫말들이 전해졌다면 후대 학생들이 가창곡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노랫말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총 30명의 노랫말 관련 인물의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성악·기악·작곡·음악평론·영문학·불문학·국문학·국어학·번역문학·사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음악', '어문학' 분야 인물이 많이 발견된다. 먼저 '음악' 분야에서는 오창진·홍난파·남궁요설·안기영·윤기성·이관옥·현제명 등 '성악가' 출신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가창곡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랫말 관련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활동 중 노랫말 번역/작사 경험을 할 기회가 적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들이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 다수 포함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해 '어문학' 분야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어문학 분야 인물에는 한갑수, 이은상, 이병기, 김수향(윤복진), 백철, 임학수, 김광섭, 국정효, 이헌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대 유명 어문학자 및 문인들의 노랫말이 다수 수록된 점은 특징적이다. 특히 해방 이전에 이미 다른 인물에 의하여 번역/작사된 노랫말이 존재함에도, 『해방중등』 편찬 시 임학수, 김광섭, 이헌구, 국정효,[379] 한갑수[380] 등

379) 1915년경 출생 추정(동아일보. 1978.5.16. 기사 '신팔도기(31) 담양' 중 "서울대 상대 국정효 교수(63)"로 소개됨). 『임시중등음악교본』의 편찬위원인 박은용 및 박은용의 직장(이화여고) 동료인 김재인(〈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 번역자)과도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된다.(조선일보 1946.2.17. '부녀계몽잡지 『우리집』 발간' 기사 중 이 잡지 편집위원에 국정효, 김재인, 박은용이 포함되어 있음) 국정효가 번역한 〈여수〉·〈숲속의 노래〉의 노랫말이 『임시중등음악교본』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박용구의 구술에서, 박은용이 같은 학교 교사인 김재인에게 〈Home, sweet home〉의 번역을 맡겼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듯 박은용이 지인들에게 노랫말 번역을 부탁한 것을 볼 때 『임시중등음악교본』에 국정효의 번역 노랫말 두 편이 수록된 이유가 박은용이 함께 부녀계몽잡지 『우리집』 편집위원으로 일하는 국정효에게 〈여수〉의 번역을 부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80) 『임시중등음악교본』 편찬위원이기도 했던 한갑수는 이 교과서 수록곡인 〈볼가의 뱃노래〉·〈쿠쿠왈쓰〉를 편찬 당시 새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볼가의 뱃노래〉의 경우

이 노랫말을 새로 번역/작사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문학 분야 인물들이 『해방중등』 편찬 시 노랫말 번역/작사 작업에 참여한 것은, 이들이 『해방중등』 수록곡 노랫말이 지니는 '국어교육' 측면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노랫말이 지니는 문학성, 문학 번역 및 창작, 노랫말의 국어학적 측면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해방중등』 수록곡 노랫말의 중요성을 알았으리라는 것이다. 양질의 조선어 번역/작사 노랫말을 통하여 양질의 국어교육을 하려는 목적으로 어문학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있어서의 그들의 노력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존의 노랫말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이들이 새로 번역/작사한 '언어적 완성도 높은 노랫말'을 제공함으로써, 그 노랫말을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조선어를 학습하게 하려는 어문학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와 협력으로 『해방중등』의 언어적 측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립(正立)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4 번역/작사 시기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노랫말의 번역/작사 시기는 [부록 11]과 같다. 외국곡 가운데 노랫말이 번역/작사된 곡조는 총 214곡조이나 동일 곡조에 번역/작사 노랫말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381]가 있기 때문에, 총 262편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 노랫말 번역/작사 시기는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출처를 근거로 하여 파악하였다. 시기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로 구분하여 살핀다.[382]

[부록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62편의 노랫말 가운데, 번

해방 이전에 김형준에 의하여 이미 번역된 노랫말이 확인된다.(『독고선 가요곡선집 제2집』(1929) 수록)

381) 예컨대 <켄터키 옛집>의 경우, 동일 제목의 곡에 박태원·김광섭 두 인물의 노랫말이 존재한다.

382) 수록 외국곡 가운데 1910년대 이전에 번역/작사된 노랫말은 확인되지 않음.

역/작사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거나 추정이 가능한 노랫말이 158편이며, 시기를 알기 어려운 노랫말이 104편이다. 번역/작사 시기를 알 수 없는 노랫말이 104편에 이르는 이유로는, 먼저 노랫말 관련 인물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인물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론 해방 이전 시기의 악보집을 전체적으로 탐색하면서 시기와 관련된 단서를 찾고자 시도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번역/작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대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악보집인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악보집들이 시간의 경과로 손상되어 폐기되었거나 또는 3년 넘게 지속된 6·25전쟁 중 수많은 건물, 거리, 철도, 도로 등이 파괴될 때 분실 또는 소실(燒失)된 경우가 많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유봉호, 김융자, 1998: 190-191)). 이 가운데 주목받지 못한 악보집은 소실(消失)되기가 더욱 쉬웠을 것이다. 최근 한국근현대양악사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제강점기 악보집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 발굴·확인된 악보집은 매우 한정적이며, 그 가운데서 연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악보집은 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연구자는 부족하나마 현재까지 입수한 총 33종의 ‘창가집’, ‘가곡집’, ‘노래책’, ‘가요곡(선)집’, ‘명곡집’, ‘명가집’, ‘걸작가곡’, ‘명작가곡(선)집’ 등의 악보집을 토대로 하여 번역/작사 시기를 확인하였음을 밝힌다.[383]

383) 연구자가 검토한 33종의 악보집은 일제강점기 발행된 악보집 전체 중 매우 소수에 불과하나, 일제강점기 당시의 가창곡 연구에 있어서 그간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던 자료들이다. 33종은 강범형 『신식유행28청춘창가집』(1929), 강의영 『20세기 신청년수양창가집』(1928), 강의영 『세계명곡통속창가집』(1926)CDE악우회, CDE악우회 『만도린 바이오린 오르간 하모니까 「악전대요 부 유행창가」 세계유행명곡집전』(1927), 광문서시 『조선명승지리창가』(1921), 김명철 『션발창가집』(1930), 나운영 『어린이노래책 제1집』(1946), 노래동무회 『노래동무』(1948.6), 독고선 『가요곡선집 제1집』(1928), 독고선 『가요곡선집 제2집』(1929), 명문당 『아동교육가곡집』(1938), 박태현 『어린이노래책』(1947), 박태현『동요작곡집 제2집』, 아협 『조선동요백곡선 상권』(1946), 안애리 편 『챵가집』(1920), 오창진 『세계명가집』(1948.7.10.), 윤성덕 『피아노선율법』(1930), 이상준 『신유행창가』(1929), 이상준 『최신창가집 전』(1929), 이상준 『풍금독습 중등창가집』(1929추정), 이철 『세계걸작가곡(백장미 제1집』)(1927), 이홍렬 『작곡집 제1편』(1934), 정경휘 『20세기 청년

번역/작사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거나 추정이 가능한 노랫말 총 158편에는, 1910년대 노랫말 3편, 1920년대 노랫말 9편, 1930년대 노랫말 3편, 1940년대 노랫말 143편이 포함되어 있다. 즉 1910, 1920, 1930년대의 편수와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1940년대에 번역/작사된 노랫말 편수는 압도적이다. 이 노랫말은 거의 모두 1945년 해방 이후 해방공간 교과서 편찬 시 번역/작사된 것들로 파악된다.

번역/작사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거나 추정이 가능한 노랫말에 한정하여 본 것이지만, 해방공간 교과서 편찬 시에 새로 번역/작사된 노랫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랫말 수록 편수 면에서 최상위에 있는 인물들은 대개 『해방중등』 편찬 시 노랫말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로서, 이들이 많은 노랫말을 번역/작사한 결과 1940년대(특히 해방 이후)에 번역/작사된 노랫말이 143편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143편 가운데 오창진, 임학수(풍만), 오수경, 즉 특정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많은 편수의 노랫말을 수록한, 수록 편수 면에서 1 ~ 4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노랫말은 총 101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143편에서 이 101편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1940년대(해방 이후)에 번역/작사된 노랫말은, 1910 ~ 1930년대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물론 번역/작사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노랫말 가운데 1910 ~ 30년대에 번역/작사된 것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262편 가운데 1940년대(해방 이후)에 번역/작사된 노랫말은 '과반'이다. 『해방중등』 전체 노랫말에 있어서 1940년대(해방 이후)에 번역/작사된 노랫말이 지니는 비중의 의미는 크다.

해방 직후 조선어로 된 중등음악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조선어 노랫말' 수록은 가장 핵심적이며 중차대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대

여자창가』(1921),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1편』(1948),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2편』(1948. 1935년부터 발행 가능성), 홍난파 『세계명작가곡선집』(1926), 홍난파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1933)노산시조편』, 홍영후 『광익창가집(1922)』, 홍영후 『도쿄미창가집』(1919), 홍영후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홍영후 『조선동요백곡집 제2편』(1930), 홍영후 『조선동요백곡집 하편』(1933), 홍영후 『통속창가집』(1917), 홍영후 『특선가요곡집』(1936) 등이다. (가나다순)

개의 『해방중등』의 경우 외국곡의 비중을 조선곡보다 높게 둔 것을 놓고 볼 때, 편찬자들이 곡수가 많은 외국곡의 '번역/작사 노랫말' 선정 문제에 부딪혔을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쉽게 미루어 알 수 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해방 이전에 번역/작사된 노랫말이 있는 경우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사용하기, 둘째 해방 이전에 번역/작사된 노랫말을 찾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기, 셋째 새로 번역/작사하기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해방중등』 편찬 시 모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해방 이전에 이미 번역/작사된 노랫말을 찾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들이는 시간적으로나 노력 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서양음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외국 가창곡의 노랫말이 우리말로 번역/작사되기 시작하였는데(이강숙, 김춘미, 민경찬, 2001: 23-24),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여러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외국곡의 노랫말이 번역/작사되었고 곡과 함께 여러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노랫말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용이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없었다.

둘째, 해방 이전에 이미 번역/작사된 노랫말을 찾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 또한 시간적으로나 노력 면에서나 경제적이다. 이미 존재하는 노랫말에 약간의 수정을 하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다. 해방공간 당시는 우리나라에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던 시기가 아니기도 했고,[384] 음악 전문 출판사가 변변히 있던 때도 아니었으므로, 동일 곡에 붙은 동일 인물에 의한 노랫말이 수록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 흔하였다. 이것이 단순히 악보 제작 과정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으나, 편찬자의 의도적 수정으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셋째, 노랫말을 새로 번역/작사하는 일은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비하

384) 저작권 개념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으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해방공간 시기에도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동아일보 1945.12.17. 기사 '주시경선생의 유고 어학회서 회수계획';경향신문 1948.5.5. 기사 '저작권 침해에 고소 김동인작 〈젊은 그들〉 문제화'; 경향신문 1948.10.27. 기사 '저속유행가집으로 모리(謀利)' 등)

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가장 비경제적이다. 번역 또는 작사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고, 번역/작사료가 들 수 있으며,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과서에 대한 시급한 요구로 단기간에 편찬을 마쳐 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던 당시의 상황, 검인정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편수국(과)이라는 점, 게다가 음악교과서 편수관이 문과 출신인 박창해[385]라는 점 등은 편찬자가 새로 번역/작사된 노랫말을 수록할 용기를 갖기에 쉬운 조건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386] 여기에 해방공간 시기 검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가 매우 많았는데(전진성, 1948: 44), 검인정 심사 이전에 인쇄까지 마쳐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한 편찬·인쇄 비용, 따라서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투입된 비용은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는 상황까지 고려하면,[387] 이 셋째 방법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하기에 부담이 크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첫째와 둘째 방법이 아닌, 가장 어려운 셋째 방법인 '새로 번역/작사하기' 였다.

교과서 편찬 당시 새로운 번역/작사 노랫말의 필요는 첫째, 수록하고자 하는 곡의 조선어 번역/작사 노랫말이 없는 경우, 둘째, 기존의 번역/작사 노랫말이 있으나 새로운 노랫말이 요구되는 경우에 있었다고 하겠다. 사실 첫째 경우는 노랫말이 이미 번역/작사되어 있는 외국곡으로 대체하여 수록하면 될 일이고, 둘째 경우는 기존의 번역/작사 노랫말이 있으니 그대로 교과서에 수록해도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번역/작사하기'가 이루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해방중등』 편찬자와 노랫말 작업에 참여한 이들의 '적극적인 조선어화 태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번역/작사되지 않은 곡의 노랫말에 대한 번역/작사를

385) 1947년 9월까지 재임.

386) 기존의 대중적으로 알려진 노랫말에 비하여 새로 번역/작사된 노랫말은 심사의 강도가 높을 수 있다.

387) 조풍연, '(출판시감)중등교과서문제 - 교과서협회신설에 기대함', 민성 4권 6호. (이응호, p.304에서 재인용) "인쇄가 다 된 뒤에야 검정을 접수한다는 것은 검정에 부적합 또는 수정명령이 내려져서, 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현생 규정은...(후략)"

시도하거나,[388] 기존의 번역/작사 노랫말이 있음에도 새로운 노랫말을 제공하고자 번역/작사한 노력은, 일제강점기 음악·음악교육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조선 음악교육을 수립하고자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랫말 번역/작사 시기'를 살핀 결과,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번역/작사된 노랫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방중등』 편찬자들은 1910 ~ 30년대에 번역/작사된 노랫말들을 되찾아 싣는 한편, 『해방중등』 편찬 시 다수의 노랫말을 새로 번역/작사하여 수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노랫말을 수록하는 방식에는 '기존의 노랫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 '기존의 노랫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식, '새로 번역/작사'하는 방식 등이 있지만, 『해방중등』 편찬자들은 이들 방식 가운데 가장 비경제적이며 노력이 많이 필요한 세 번째 방식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이 '기존의 노랫말'이 일제의 조선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뻔하였던 우리의 것이고, 이를 다시 찾아 수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도 매우 크다. 새로 번역/작사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의미 있는 이유는, '기존의 노랫말'을 찾아 수록한 것보다 바람직해서라기보다는 전술한 바대로 비용과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극적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중등』 편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Ⅲ - 2의 요약〉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 중 '외국곡'의 비중은 전체 681곡 중 약 70%이다. 교과서 별 외국곡 비중의 범위가 41% ~ 92%에 이를 정도로,

388) 일본어로만 배운 곡들의 노랫말을 조선어로 처음 번역/작사하는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조선곡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대중가요·민요’는 외국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이다. 원곡이 확인되는 66곡조 중 약 45%, 이 66곡조로 된 194곡 중 약 5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높은 비중의 이유는, 대중가요나 민요가 대중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살아남은 즉 대중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찬자들이 선곡의 타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서양 예술가곡’은 ‘대중가요·민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이다. ‘서양 예술가곡’에 있어서 ‘슈베르트’의 곡은 곡조 수 및 수록 횟수 측면에서 단연 1위에 해당하는데, 수록 이유로는 중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노랫말 내용이나 음악적 난이도 등을 들 수 있지만 슈베르트 예술가곡에 대한 편찬자의 선호가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서양 예술가곡’의 뒤를 잇는 비중의 ‘오페라 구성곡’에는 유명 아리아(Aria)와 합창곡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다양한 장르의 외국곡이 『해방중등』에 수록되어 있다.

외국곡 ‘작곡자’ 가운데 ‘슈베르트’의 수록 곡조 수가 가장 많다. 곡조 수 면에서 독일·오스트리아 작곡자들의 순위가 높으며, 미국·영국의 작곡자들은 곡조 수보다는 수록 횟수 면에서 높은 순위를 점한다. 외국곡 전체 작곡자 가운데 유럽 지역, 그 가운데에서도 ‘독일’ 작곡자가 독보적으로 많고, 19세기에 출생하여 활동한 작곡자가 전체 작곡자 수 중 약 68%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곡 ‘노랫말 관련 인물’ 가운데 수록 편수 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오창진, 임학수(풍만), 오수경의 노랫말은 대개 『해방중등』 편찬 시 번역/작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후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의 번역/작사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음악과 어문학 분야 인물들의 노랫말 비중이 크다. 어문학 분야 인물들의 노랫말 가운데 『해방중등』 편찬 시 번역/작사된 것이 특징적인데, 이 양상은 이들이 노랫말을 통한 언어(조선어)교육적 효용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음악교과서에 수록할 노랫

말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참여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1940년대, 특히 1945년 해방 이후 교과서 편찬 시 번역/작사된 노랫말의 편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방 직후 단기간에 교과서를 편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비경제적이며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방법인 '새로 번역/작사하기'가 많이 선택된 데에는, 일제강점기 음악·음악교육과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조선음악교육을 펼치고자 한 편찬자들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해방중등』과 일제강점기 『標準』 수록 가창곡 곡조 및 노랫말 비교

1.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가창곡 곡조 비교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가창곡 곡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한 상이점이 있다. 『해방중등』에는 조선 곡조가 수록되어 있으나 『標準』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標準』에는 일본 곡조가 수록되어 있으나 『해방중등』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389] 이 뚜렷한 상이점과는 달리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외국곡 간에는 곡조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본 절에서는 이 유사 양상에 대하여 검토한다.

'곡조 비교'는 '공통곡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공통곡조'는 『해방중등』과 『標準』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곡조로서, 『해방중등』과 『標準』의 곡조 비교에서 발견되는 유사 양상이자 『해방중등』이 『標準』을 차용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통곡조'의 성격 고찰은 『標準』이 『해방중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피는 일과 관련되며, '공통곡조'와 '공통곡조로 된 곡'이 『해방중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고찰은 『해방중등』이 『標準』을 차용한 '정도'를 살피는 일과 관련된다. 이 고찰은 『해방중등』 조선어화를 통한 조선음악교육 정체성 수립 양상 및 『해방중등』에 있어서의 일제강점기 중등음악교과서의 영향 파악을 위하여 수행의 필요성이 크다.

먼저 『해방중등』과 『標準』 간 '공통곡조'들을 파악하고 이 '공통곡조'가 지닌 특징을 '작곡자'와 '장르'별로 검토한다. 이는 『標準』의 차용을 전제로 할 때 『標準』에서 어떠한 작곡자의 곡 그리고 어떠한 장르의 곡이 차용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해방중등』 전체 외국곡 내에서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그리고

389) 『標準』 수록곡 가운데, 외국곡의 경우는 곡조 또는 노랫말 관련 인물 관련 표기가 생략되기도 한 데에 반하여 일본곡(노랫말과 곡조가 일본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곡)의 경우에는 거의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곡에 대한 확인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해방중등』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등을 살핀다.

본 연구자는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과 『標準』 수록 외국곡을 비교한 결과 41개 ‘공통곡조’를 도출하였고, 이 41개 ‘공통곡조’로 된 『標準』 수록 가창곡은 46곡,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은 159곡임을 확인하였다. 이 공통곡조와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가창곡을 중심으로 곡조 비교 고찰을 전개한다.

1.1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標準』수록 가창곡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가창곡, 공통곡조의 곡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41개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가창곡, 공통곡조의 곡목[390]

『標準』		『해방중등』		공통곡조 곡목
	곡목(교과서 번호)		곡목(교과서 번호)	
1	故郷さらば(1)	1-1	잘 있거라 내 고향(14)	Der Letzte Abend
		1-2	잘 있거라 내 고향(20)	
		1-3	잘 있거라 내 고향(12)	
2	故郷の空(6)	2-1	글공부(16), 글공부(17)	comin’ thro’ the rye
		2-2	가을하늘(8)	
3	故郷の追憶(1, 6)	3-1	고향의 추억(18)	long long ago
		3-2	옛날(8)	

390)※ 교과서 번호는 <표 Ⅰ-1>과 <표 Ⅰ-2>에 의거함.
※『標準』 3 <故郷の追憶>, 14 <飛行機>, 21 <城山の秋>의 경우 각각 2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제목, 곡조, 가사가 모두 동일하다. 한편, 28 <鶯の歌>(1)와 <鶯のうた>(6), 그리고 34 <懐しの我が家>(6)와 <懐しの我家>(5) 의 경우 제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곡조, 가사는 같으므로 동일곡으로 취급.
※『해방중등』 노랫말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곡번호 뒤에 ‘-1’, ‘-2’ 등을 붙여 구분하여 나타냄.

4	舊都の月(1)	4-1	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my dear old sunny home
		4-2	고향의 폐가(8)	
5	ロオレライ(2)	5-1	로렐라이(1, 9, 10, 12, 16, 17, 22, 23), 로레라이(6)	Die Lorelei
6	モ-ツァルトの子守歌(1)	6-1	자장가(1, 9, 10, 14, 16, 17, 20), 모찰트의 자장가(6), 모오차르트의 자장가(23)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6-2	자장가(4)	
7	暮の鐘(2)	7-1	저녁종(4)	곡목 확인 불가 (보헤미아 민요)
8	牧人の歌(2)	8-1	목인의 노래(18)	곡목 확인 불가 (K. Greger)
9	白百合(2)	9-1	백백합(6), 흰백합(23)	곡목 확인 불가 (J. Brahms)
10	欵乃の調(4)	10-1	야악(夜樂)(5)	Barcarolle
		10-2	뱃노래(8)	
11	菩提樹(4)	11-1	보리수(1, 9, 10, 12, 14)	Der Lindenbaum
12	ヴオルガの舟歌(1)	12-1	볼가의 배ㅅ노래(1, 12), 볼가의 뱃노래(10, 15, 20)	Эй ухнем(Song of the Volga Boatman)
		12-2	뱃노래(2, 7)	
13	ブラ―ムスの子守歌(2)	13-1	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 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Wiegenlied
		13-2	자장가(3)	
14	飛行機(1, 6)	14-1	소나무(18)	O, Tannenbaum
		14-2	소나무(19, 21)	
		14-3	전나무(22)	
15	郭公ワルツ(2)	15-1	쿠쿠월쓰(1), 쿠쿠월츠(10), 쿠쿠-월쓰(12), 쿠쿠 왈쓰(13)	Kuckucks Walzer
		15-2	뻐꾹 월스(4)	
16	サンタ·ルチア(2)	16-1	산타 루치아(1, 9, 10, 22), 싼타 루치아(12, 14, 15, 19, 21,)	Santa Lucia
17	山のうた(3)	17-1	준령을 넘어(1, 10)	Funiculi Funicula
18	森のひびき(4)	18-1	숲속의 노래(1, 10)	곡목 확인 불가(Kücken)
19	雪雀の歌(5)	19-1	오호 종달새(1, 10)	Lerchengesang
20	聲(3)	20-1	노래 소리(13)	곡목 확인 불가 (O. Schulze)
21	城山の秋(2, 6)	21-1	늙은 흑인 죠오(8)	Old Black Joe
		21-2	블랙죠오(16, 17)	
22	夜の曲(5)	22-1	소야가(12)	Ständchen(Serenade)
23	少女の夢(3)	23-1	소녀의 꿈(3)	Mädchens Wunsch(쇼팽)

24	すみれ(2)	24-1	스텐카 라진(1, 10, 12, 15, 18, 22)	Степа́н Ра́зин (Stenka Razin)
		24-2	봄바람(4)	
25	あけぼの(1)	25-1	가을(15, 23)	St. Petersburg(tune)
26	樂しき農夫(2)	26-1	즐거운 농부(2, 7, 13)	Der Fröhliche Landmann
27	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27-1	아로하오에(8)	Aloha´ oe
		27-2	알로하 오에(22)	
28	鶯の歌(1), 鶯のうた(6)	28-1	꾀꼬리(6, 15, 20), 꾀꼴새(4(1절만 있음), 13)	곡목 확인 불가 (J. Hullah)
29	野薔薇(4)	29-1	월계꽃(1, 9, 10, 12, 19, 21), 월계꽃(7)	Heidenröslein
30	若草の古戰場(2)	30-1	아름다워(22)	The Bluebells of Scotland
31	獵人の合唱(3)	31-1	사냥군(꾼)의 노래(1, 10), 사냥꾼의 합창(5)	Chor der Jäger
		31-2	사냥군의 노래(2)	
32	我が太陽(4)	32-1	오 나의 태양(1, 6, 10, 12), 오-소래 미오(9)	O Sole mio
		32-2	봄의 세레나데(3)	
33	早春(1)	33-1	순풍(8)	곡목 확인 불가
		33-2	학창을 향하야(11)	
		33-3	봄 바람(18)	
34	懷しの我が家(6), 懷しの我家(5)	34-1	즐거운 우리 집(1, 10), 즐거운 나의 집(6, 9, 12, 16, 17, 20, 23)	Home, sweet home
35	秋の山樂(6)	35-1	풍년(8)	O du lieber Augustin
36	虫に寄せて(2)	36-1	동무(16, 17)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36-2	나의 동무(12)	
37	夏を樂しむ(2)	37-1	호숫가의 저녁(16, 17)	곡목 확인 불가(Rossini)
38	海邊の眺望(3)	38-1	여름의 바다(8)	La donna e mobile
39	花鳥(4)	39-1	들장미(2), 장미꽃(7)	Heidenröslein
		39-2	들장미(16, 17)	
		39-3	들장미(20)	
		39-4	월계꽃(14)	
40	地上の歡喜('第九交響曲'より)(3)	40-1	환희의 송가(1, 9, 10, 12)	Ode to Joy
		40-2	보금자리(9)	
41	ふろさとの夢(4)	41-1	꿈속의 고향(1, 9, 10, 16, 17)	Going home(“New World Symphony”)

〈표 Ⅳ-1〉의 공통곡조의 곡목과 『標準』 및 『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을 작곡자・작곡된 지역・원곡・곡목의 의미 등과 함께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標準』〈故郷さらば〉(고향 안녕)와 『해방중등』〈잘 있거라 내 고향〉의 곡조는 독일 민요 〈Der Letzte Abend〉(마지막 밤)에서 유래한다.
2. 『標準』〈故郷の空〉(고향의 하늘)과 『해방중등』〈글공부〉・〈가을하늘〉의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comin' thro' the rye〉(호밀밭으로 들어오는)에서 유래한다.
3. 『標準』〈故郷の追憶〉(고향의 추억)과 『해방중등』〈고향의 추억〉・〈옛날〉의 곡조는 베일리(T. H. Bayly)의 〈Long, long ago〉(먼 옛날에)에서 유래한다.
4. 『標準』〈舊都の月〉(고향의 달)과 『해방중등』〈고향의 폐가〉・〈고향의 쓰러진 집〉의 곡조는 헤이스(W. U. S. Hays)의 〈my dear old sunny home〉(햇빛 비치던 내 집)에서 유래한다.
5. 『標準』〈ロオレライ〉(로레라이)와 『해방중등』〈로렐라이(로레라이)〉의 곡조는 질허(F. Silcher)의 〈Die Lorelei〉(로렐라이)에서 유래한다.
6. 『標準』〈モ-ツァルトの子守歌〉(모찰트의 자장가)와 『해방중등』〈자장가〉・〈모찰트(모오차르트)의 자장가〉의 곡조는 플라이슈만(J. F. A. Fleischmann)의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자거라, 나의 어린 왕자, 자거라)에서 유래한다.[391]
7. 『標準』〈暮の鐘〉(저녁의 종)과 『해방중등』〈저녁종〉의 곡조는 제목 확인 불가의 보헤미아 민요[392] 에서 유래한다.
8. 『標準』〈牧人の歌〉(목동의 노래)과 『해방중등』〈목인의 노래〉의 곡조는 Karl Greger의[393] 곡(곡목 확인 불가)에서 유래한다.
9. 『標準』〈白百合〉(흰 백합)과 『해방중등』〈백백합〉・〈흰 백합〉의 곡

391) Wikipedia,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2023.4.23. 16:43 접속, 'Johann Friedrich Anton Fleischmann' (독일어, 영어) 2023.2.23. 14:25 접속)
392) 『標準』 2, 『해방중등』 4 수록 악보에 표기된 '보헤미아 민요' 인용.
393) 『標準』 2 수록 악보에 표기된 'Karl Greger' 인용.

조는 브람스(J. Brahms) 작곡의 곡(곡목 확인 불가)에서 유래한다.[394]

10. 『標準』<欸乃の調>(뱃노래)와 『해방중등』<야악>·<뱃노래>의 곡조는 오펜바흐(J. Offenbach)의 <Barcarolle>(뱃노래) 에서 유래한다.
11. 『標準』<菩提樹>(보리수)>와 『해방중등』<보리수>의 곡조는 슈베르트(F. Schubert)의 <Der Lindenbaum>(보리수)에서 유래한다.
12. 『標準』<ヴォルガの舟歌>(볼가의 뱃노래)와 『해방중등』<볼가의 뱃노래>·<뱃노래>의 곡조는 러시아 민요 <Эй ухнем(Song of the Volga Boatman)>(볼가 뱃사공의 노래)에서 유래한다.
13. 『標準』<ブラームスの子守歌>(브람스의 자장가)와 『해방중등』<자장가>·<아기 재우는 노래>·<자장노래>·<브람스(부라암스)의 자장가>의 곡조는 브람스(J. Brahms)의 <Wiegenlied>(자장가)에서 유래한다.
14. 『標準』<飛行機>(비행기)와 『해방중등』 <소나무>·<전나무>의 곡조는 안쉿츠(Ernst Anschütz)의 <O, Tannenbaum>(오 전나무)에서 유래한다.
15. 『標準』<郭公ワルツ>(뻐꾸기왈츠)와 『해방중등』<쿠쿠월쓰(월츠, 왈쓰,)>·<뻐꾹 월스>의 곡조는 요나손(J. E. Jonasson)의 <Kuckucks Walzer>(뻐꾸기 왈츠)에서 유래한다.
16. 『標準』<サンタ・ルチア>(산타 루치아)와 『해방중등』<산타(싼타) 루치아>의 곡조는 나폴리 민요[395] <Santa Lucia>(싼타 루치아)에서 유래한다.
17. 『標準』<山のうた>(산의 노래)와 『해방중등』<준령을 넘어>의 곡조는 덴짜(L. Denza)의 <Funiculi Funicula>(산악철도 타고)에서 유래한다.
18. 『標準』<森のひびき>(숲의 울림)와 『해방중등』<숲속의 노래>의 곡조는 퀴켄(F. Kücken)의 곡(곡목 확인 불가)에서 유래한다.[396]

---

394) 『標準』 2 수록 악보에 표기된 'J. Brahms' 인용.
395) Wikipedia, 'Santa Lucia(Song)', https://en.wikipedia.org/wiki/Santa_Lucia_(song)2022.12.11. 00:14 접속.
396) 『해방중등1 수록 악보에 표기된 'F. Kücken' 인용.

19. 『標準』<雪雀の歌>(종달새의 노래)와 『해방중등』<오호 종달새>의 곡조는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Lerchengesang>(종달새의 노래)에서 유래한다.
20. 『標準』<聲>(소리)와 『해방중등』<노래 소리>의 곡조는 O. Schulze의 곡(곡목 확인 불가)에서 유래한다.[397]
21. 『標準』<城山の秋>(시로야마의 가을)>과 『해방중등』<늙은 흑인 죠오>·<블랙죠오>의 곡조는 포스터(S. C. Foster) 작곡의 <Old Black Joe>(늙은 흑인 죠오)에서 유래한다.
22. 『標準』<夜の曲>(야상곡)과 『해방중등』<소야가>의 곡조는 슈베르트의 <Ständchen>(야상곡)에서 유래한다.
23. 『標準』<少女の夢>(소녀의 꿈)과 『해방중등』<소녀의 꿈>의 곡조는 쇼팽(F. Chopin)의 <Mädchens Wunsch>(소녀의 꿈)에서 유래한다.
24. 『標準』<すみれ>(제비꽃)과 『해방중등』<스텐카 라진>·<봄바람>의 곡조는 작곡자 미상의 <Степа́н Ра́зин(Stenka Razin)>(스텐카 라진)에서 유래한다.[398]
25. 『標準』<あけぼの>(새벽)과 『해방중등』<가을>의 곡조는 보르트니안스키(D. S. Bortniansky)의 <St. Petersburg>(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유래한다.
26. 『標準』<樂しき農夫>(즐거운 농부)과 『해방중등』<즐거운 농부>의 곡조는 슈만(R. Schumann)의 (기악곡) <Der Fröhliche Landmann>(즐거운 농부)에서 유래한다.
27. 『標準』<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안녕 하와이(아로하 오에))와 『해방중등』<알로하(아로하) 오에>의 곡조는 릴리우오칼라니 여왕(Queen Liliuokalani)의 <Aloha´ oe>(안녕 그대여)에서 유래한다.
28. 『標準』<鶯の歌>·<鶯のうた>(꾀꼬리의 노래)과 『해방중등』<꾀꼬리>·<꾀꼴새>의 곡조는 헐러(J. Hullah)의 곡(곡목 확인 불가)에서 유래한다.
29. 『標準』<野薔薇>(들장미)와 『해방중등』<월계꽃>의 곡조는 슈베르

397) 『해방중등』 13 수록 악보에 표기된 'O. Schulze' 인용.
398) Wikipedia, 'Stenka Razin', 2022.10.10.02:53 접속.

트(F. Schubert) 작곡의 〈Heidenröslein〉(들장미)에서 유래한다.

30. 『標準』〈若草の古戰場〉(어린 풀 돋아난 옛 전장)과 『해방중등』〈아름다워〉의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The Bluebells of Scotland〉(스코틀랜드의 초롱꽃)에서 유래한다.

31. 『標準』〈獵人の合唱〉(사냥꾼의 합창)와 『해방중등』〈사냥군(꾼)의 노래〉·〈사냥꾼의 합창〉의 곡조는 베버(C. M. von Weber)의 〈Chor der Jäger〉(사냥꾼의 합창)에서 유래한다.

32. 『標準』〈我が太陽〉(나의 태양)과 『해방중등』〈오 나의 태양〉·〈오 소래 미오〉의 곡조는 카푸아(E. di Capua)[399]의 〈O Sole mio〉(오 나의 태양)에서 유래한다.

33. 『標準』〈早春〉(이른 봄)과 『해방중등』〈순풍〉·〈학창을 향하야〉·〈봄바람〉의 곡조는 제목 확인 불가의 독일민요에서 유래한다.[400]

34. 『標準』〈懷しの我が家〉·〈懷しの我家〉(그리운 나의 집)과 『해방중등』〈즐거운 우리 집〉·〈즐거운 나의 집〉의 곡조는 비숍(H. Bishop)의 〈Home, sweet home〉(집, 즐거운 집)에서 유래한다.

35. 『標準』〈秋の山樂〉(가을 산의 즐거움)과 『해방중등』〈풍년〉의 곡조는 독일민요 〈O du lieber Augustin〉에서 유래한다.[401]

36. 『標準』〈虫に寄せて〉(벌레에게 부치는 노래)와 『해방중등』〈동무〉·〈나의 동무〉의 곡조는 라이튼(W. T. Wrighton)의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그녀의 밝은 미소가 잊혀지지 않네)에서 유래한다.

37. 『標準』〈夏を樂しむ〉(여름을 즐기다)와 『해방중등』〈호숫가의 저녁〉의 곡조는 로시니(G. A. Rossini)의 곡(곡목 확인 불가)에서 유래한다.

38. 『標準』〈海邊の眺望〉(여름을 즐기다)와 『해방중등』〈여름의 바다〉의 곡조는 베르디(G. Verdi)의 〈La donna e mobile〉(일명 '여자의 마

399) 교과서에는 카푸아 이름만 표기되어 있으나, 카푸아와 마주치(A. Mazzucchi(1878-1972)) 공동 작곡. Wikipedia, 'O sole mio', 2022.10.4.20:27 접속.
400) 『標準』 1 수록 악보에 표기된 '독일민요' 인용.
401) 『標準』 6 수록 악보에 표기된 '독일민요' 인용.

음’)에서 유래한다.

39. 『標準』<花鳥>(꽃과 새)와 『해방중등』<들장미>·<장미꽃>·<월계꽃>의 곡조는 베르너(H. Werner)의 <Heidenröslein>(들장미)에서 유래한다.

40. 『標準』<地上の歡喜(‘第九交響曲’より>(지상의 환희(제9교향곡에서)와 『해방중등』<환희의 송가>·<보금자리>의 곡조는 베토벤(L. van Beethoven)의 <Ode to Joy>(환희의 송가)에서 유래한다.

41. 『標準』<ふろさとの夢>(고향의 꿈)과 『해방중등』<고향의 꿈>의 곡조는 드보르자크(A. Dvořák)의 <Going Home(교향곡 9번 Op.95 “신세계로부터” 2악장 선율을 토대로 성악곡으로 편곡)>에서 유래한다.

위와 같이 41개 공통곡조와 이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수록곡 159곡 및 『標準』 수록곡 46곡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이 41개 공통곡조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2 공통곡조의 특징

공통곡조의 특징을 ‘작곡자’와 ‘장르’ 범주로 구분하여 살핀다. 먼저 ‘작곡자’에 대하여 어떤 작곡자의 곡이, 어느 지역의 작곡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다음으로 ‘장르’에 대하여서는 공통곡조 41곡조를 ‘대중가요·민요’, ‘예술가곡’, ‘오페라 구성곡’ 등의 장르별로 구분하여 장르별 비중을 살피고, 이어서 작곡자의 출신 지역과 공통곡조 장르의 관련성을 살핀다.

1.2.1 작곡자

작곡자별 공통곡조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IV-2>와 같다.

<표 Ⅳ-2> 작곡자별 공통곡조[402]

	작곡자명	공통곡조(곡목)
1	Ernst Anschütz	O, Tannenbaum
2	Thomas Haynes Bayly	Long, long ago
3	L. van Beethoven	Ode to Joy
4	H. Bishop	Home, sweet home
5	D. S. Bortniansky	St. Petersburg
6	J. Brahms	백백합(흰 백합)
		Wiegenlied
7	E. di Capua	O Sole mio
8	F. Chopin	Mädchens Wunsch
9	L. Denza	Funiculi Funicula
10	A. Dvořák	Going Home
11	J. F. A. Fleischmann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12	S. C. Foster	Old Black Joe
13	William Shakespear Hays	My dear old sunny home
14	J. Hullah	꾀꼴새(꾀꼬리)
15	J. E. Jonasson	Kuckucks Walzer
16	F. W. Kücken	숲속의 노래
17	Queen Liliuokalani	Aloha oe
18	F. Mendelssohn	Lerchengesang
19	J. Offenbach	Barcarolle
20	G. Rossini	호숫가의 저녁
21	F. Schubert	Der Lindenbaum
		Heidenröslein
		Ständchen
22	R. Schumann	Der Fröhliche Landmann
23	F. Silcher	Die Lorelei
24	G. Verdi	La donna e mobile
25	C. M. von Weber	Chor der Jäger
26	H. Werner	Heidenröslein
27	W. T. Wrighton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위의 <표 Ⅳ-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슈베르트의 곡이 3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브람스의 곡이 2곡으로 뒤를 잇는다. 슈베르트

402)※ 작곡자명이 확인되는 곡조만을 대상으로 함.(작곡자 28명, 31개 공통곡조)
※ 공통곡조 곡목 확인 불가 경우에는 『해방중등』 수록 곡목으로 표기.

와 브람스를 제외한 25명의 작곡자는 각각 1곡조의 비중을 지닌다. 27명 작곡자의 출신 지역(국가)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27명 작곡자의 출신 지역(국가)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		작곡자
1	독일	1	Ernst Anschütz
		2	L. van Beethoven
		3	J. Brahms
		4	J. F. A. Fleischmann
		5	F. W. Kücken
		6	F. Mendelssohn
		7	J. Offenbach
		8	R. Schumann
		9	F. Silcher
		10	C. M. von Weber
		11	H. Werner
2	영국	1	Thomas Haynes Bayly
		2	H. Bishop
		3	J. Hullah
		4	W. T. Wrighton
3	이탈리아	1	E. di Capua
		2	L. Denza
		3	G. Rossini
		4	G. Verdi
4	미국	1	William Shakespear Hays
		2	S. C. Foster
		3	Queen Liliuokalani
5	오스트리아	1	F. Schubert
6	폴란드	1	F. Chopin
7	러시아 제국	1	D. S. Bortniansky
8	스웨덴	1	J. E. Jonasson
9	체코	1	A. Dvořák

위의 <표 IV-2>와 <표 IV-3>을 통하여 살펴보면, ‘독일 - 작곡자 11명 - 12곡조’, ‘영국 - 작곡자 4명 - 4곡조’, ‘이탈리아 - 작곡자 4명 - 4곡조’, ‘미국 - 작곡자 3명 - 3곡조’, ‘오스트리아 - 작곡자 1

명 - 3곡조', '폴란드 - 작곡자 1명 - 1곡조', '러시아 제국 - 작곡자 1명- 1곡조', '스웨덴 - 작곡자 1명 - 1곡조', '체코 - 작곡자 1명 - 1곡조'의 양상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별 작곡자 수, 공통곡조 수(순위순)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	작곡자 수	공통곡조 수
1	독일	11	12
2	영국	4	4
3	이탈리아	4	4
4	미국	3	3
5	오스트리아	1	3
6	폴란드	1	1
7	러시아 제국	1	1
8	스웨덴	1	1
9	체코	1	1

상위 5위까지 보자면, '작곡자 수' 면에서는 독일이 독보적 1위, 영국·이탈리아가 동위로 2위, 미국이 4위, 오스트리아는 다른 4개국과 함께 5위이다. '공통곡조 수' 면에서 독일이 독보적 1위, 영국·이탈리아가 동위로 2위, 미국·오스트리아가 동위로 4위이다. 요컨대, 작곡자 수와 공통곡조 수 면에서 '독일'은 독보적 1위이며, 영국·이탈리아는 작곡자 수와 공통곡조 수 면에서 동위로 2위이다. 오스트리아는 작곡자 수 면에서 1명으로 5위에 해당하나, 공히 작곡가 수가 1명인 다른 4개국과는 달리 공통곡조 수가 3곡이다.

작곡자의 출신 지역을 대륙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일·이탈리아·영국·오스트리아·폴란드·스웨덴·러시아 제국·체코 등 거의 모두 '유럽'에 속한 국가임이 확인된다. 즉 작곡자의 출신 대륙은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 작곡자명, 공통곡조 곡목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Ⅳ-5>와 같다.

<표 IV-5>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별 작곡자명, 공통곡조 곡목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		작곡자명	공통곡조 곡목
1	독일	1	Ernst Anschütz	O, Tannenbaum
		2	L. van Beethoven	Ode to Joy
		3	J. Brahms	백백합(흰백합)
				Wiegenlied
		4	J. F. A. Fleischmann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5	F. W. Kücken	숲속의 노래
		6	F. Mendelssohn	Lerchengesang
		7	J. Offenbach	Barcarolle
		8	R. Schumann	Der Fröhliche Landmann
		9	F. Silcher	Die Lorelei
		10	C. M. von Weber	Chor der Jäger
		11	H. Werner	Heidenröslein
2	영국	1	Thomas Haynes Bayly	Long, long ago
		2	H. Bishop	Home, sweet home
		3	J. Hullah	꾀꼴새(꾀꼬리)
		4	W. T. Wrighton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3	이탈리아	1	E. di Capua	O Sole mio
		2	L. Denza	Funiculi Funicula
		3	G. Rossini	호숫가의 저녁
		4	G. Verdi	La donna e mobile
4	미국	1	William Shakespear Hays	My dear old sunny home
		2	S. C. Foster	Old Black Joe
		3	Queen Liliuokalani	Aloha oe
5	오스트리아	1	W. A. Mozart	Wiegenlied
		2	F. Schubert	Der Lindenbaum
				Heidenröslein
				Ständchen
6	폴란드	1	F. Chopin	Mädchens Wunsch
7	러시아 제국	1	D. S. Bortniansky	St. Petersburg
8	스웨덴	1	J. E. Jonasson	Kuckucks Walzer

9	체코	1	A. Dvořák	Going Home

공통곡조 가운데 작곡자 확인이 불가한 것은 7곡조로, 독일 3곡조, 영국 2곡조, 러시아 2곡조, 이탈리아 1곡조가 이에 포함된다.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작곡자 확인 불가 공통곡조[403]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	공통곡조 곡목
1	독일	순풍/학창을 향하여/봄바람
		Der Letzte Abend
		O du lieber Augustin
2	영국	comin’ thro’ the rye
		The Bluebells of Scotland
3	러시아	Эй ухнем(Song of the Volga Boatman)
		Степа́н Ра́зин(Stenka Razin)
4	이탈리아	Santa Lucia[404]

작곡자 확인 불가 공통곡조 가운데에서도 독일 지역의 곡조는 3곡조로 최다이다. 이로써 독일 지역 관련 공통곡조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통곡조의 작곡자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개별 작곡자로는 ‘슈베르트’의 곡조 비중이 1위라는 점, 그리고 ‘독일’ 작곡자에 의한 곡조 비중이 독보적 1위이며, 영국・이탈리아・미국・오스트리아까지 5개 지역(국가) 작곡자들에 의한 곡조 비중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이 앞서 Ⅲ에서 ‘외국곡’ 작곡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발견된 내용들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Ⅲ에서의 고찰 결과 가운데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의 작곡

403)※『원곡』 제목 확인 불가 경우에는 『해방중등』 곡목으로 표기.

404) 교과서 수록 악보에 코트라우(T. Cotrau)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코트라우는 이 곡의 나폴리어 노랫말을 이태리어로 번역한 사람. Wikipedia, ‘Santa Lucia(Song)’, 2022.10.10.01:27 접속.

자 가운데 ‘슈베르트’는 수록 곡조 수와 수록 횟수 양 측면에서 1위인 점,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 가운데 ‘독일’이 독보적 1위이며 미국,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자들의 곡조/곡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이 ‘공통곡조’의 작곡자 관련 특징과 큰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41개 ‘공통곡조’에서 발견되는 작곡자 관련 특징이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 관련 특징과만 유사성이 있는지, 아니면 『標準』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 관련 특징과도 유사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해방중등』에서 발견되는 공통곡조의 작곡자 관련 특징이 『標準』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 관련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방중등』 편찬자들의 독자적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標準』 수록 가창곡 173곡 중 작곡자명 및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을 확인할 수 있는 곡을,[405] 작곡자 출신 지역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7>과 같다.

<표 Ⅳ-7>『標準』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 출신 지역별 정리[406]

	순위	작곡자 출신 지역(국가)	해당곡 번호
1	1	독일	7, 24, 32, 42, 43, 44, 50, 59, 62, 64, 67, 91, 100, 101, 114, 121, 122, 125, 132, 142, 145, 149&150, 152, 161, 165, 170, 173, 174, 175 (30곡)
2	2	영국	4&5, 54, 65, 71, 104&105, 112, 135&136, 144&145, 147, 151 (14곡)
3	3	미국	9, 23, 37, 73&74, 100, 108, 130, 140, 143 (10곡)
4	4	오스트리아	30, 46, 75, 77, 83, 93, 107, 163 (8곡)
5	5	이탈리아	58, 102, 113, 156, 159, 160, 164 (7곡)
6	6	스웨덴	53, 146 (2곡)
7	6	러시아	80 (1곡)
8	8	폴란드	78 (1곡)
9	8	러시아 제국	94 (1곡)
10	8	체코	16 (1곡)
11	8	노르웨이	123 (1곡)

405) R. F. Reutel, Karl Greger, H. Aller, Wilhelm, Ernst Schmid, Helston, Schwarz, Spenger, J. S. Hamilton 등의 경우는 작곡자명이 표기되어 있긴 하나 작곡자 출신 지역 확인 불가.

406) 곡번호는 [부록 11](『標準』 수록 가창곡)에 의거.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곡이 압도적 1위로서 『標準』 수록 외국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2위 영국 곡, 3위 미국 곡, 4위 오스트리아 곡, 5위 이탈리아 곡 순의 비중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標準』 수록 가창곡 중 작곡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곡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8>과 같다.

<표 Ⅳ-8>『標準』 수록 외국곡 중 작곡자 확인 불가 곡(지역별)[407]

	순위	지역	해당곡 번호
1	1	독일	1, 2, 19, 29, 47, 51&52, 68&69, 85, 92, 120&121, 126, 132, 139, 157, 158, 162 (19곡)
2	2	영국	3, 109, 127 (3곡)
3	3	러시아	48, 88 (2곡)
4	4	이탈리아	56 (1곡)
5	4	미국	140 (1곡)
6	4	프랑스	99 (1곡)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곡이 독보적 1위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2위 영국 곡, 3위 러시아, 4위 이탈리아·미국·프랑스 곡이 동위의 비중임을 알 수 있다.

<표 Ⅳ-7>과 <표 Ⅳ-8>을 통하여, 독일 작곡자 또는 독일 지역의 곡은 『標準』 수록 가창곡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미국의 곡 비중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標準』에 다수 곡이 수록된 외국 작곡가를 나타내면 <표 Ⅳ-9>와 같다.

<표 Ⅳ-9> 『標準』 외국곡 작곡자 중 다수 곡 수록자(6명)[408]

---

407) 곡번호는 [부록 12](『標準』 수록 가창곡)에 의거.

408) 곡번호는 [부록 12](『標準』 수록 가창곡)에 의거. 2곡 이상 수록된 작곡자에 해당한다.

순위	작곡자명	해당 곡 번호
1	슈베르트	30, 46, 75, 77, 107, 163 (6곡, 6곡조)
2	슈만	39, 97, 122, 149&150, 167 (6곡, 5곡조)
3	브람스	43, 50, 59 (3곡)
3	멘델스존	67, 142, 158 (3곡)
5	모차르트	83, 93(2곡)
5	포스터	73&74 (2곡)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슈베르트와 슈만은 곡수로는 동위로 1위이나 수록 곡조 면에서 슈베르트가 앞서 있으며, 브람스・멘델스존・모차르트・포스터가 뒤를 잇는다.

『標準』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 관련 특징을 살펴본 결과, '슈베르트'의 곡이 외국곡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독일' 작곡자 또는 독일 지역의 곡의 비중이 가장 크며, 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미국 등 5개 지역 작곡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공통곡조'에서 발견되는 작곡자 관련 특징과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외국곡에서 발견되는 작곡자 관련 특징은 서로 유사성이 큰데, 이러한 유사성을 우연으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이어 해방공간 시기에도 독일 음악은 세계 클래식 음악의 중심에 있었고 슈베르트의 가창곡과 영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지역 가창곡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標準』과 『해방중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띤 양상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필연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 '공통곡조'・『해방중등』・『標準』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은, 『標準』 외국곡의 성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곡조'(공통곡조)가 『해방중등』에 차용됨으로써 『해방중등』의 성격에 영향을 끼친 결과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2.2 장르

장르에 대하여서는 Ⅲ장의 외국곡에서 사용한 장르명, 장르 개념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41개 공통곡조(원곡 제목), 작곡자, 장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공통곡조별 작곡자와 장르(공통곡조 알파벳순)[409]

	공통곡조(원곡 제목)	작곡자	장르
1	Aloha oe	Queen Liliuokalani	대중가요・민요
2	Barcarolle	J. Offenbach	오페라 구성곡
3	Chor der Jäger	C. M. von Weber	오페라 구성곡
4	Comin' thro' the rye	미상	대중가요・민요
5	Der Fröhliche Landmann	R. Schumann	기타(기악곡을 성악곡으로 편곡)
6	Der Letzte Abend	미상	대중가요・민요
7	Der Lindenbaum	F. Schubert	예술가곡
8	Die Lorelei	F. Silcher	대중가요・민요
9	Funiculi Funicula	L. Denza	대중가요・민요
10	Going Home	A. Dvořák	기타(기악곡을 성악곡으로 편곡)
11	Heidenröslein	F. Schubert	예술가곡
12	Heidenröslein	H. Werner	예술가곡
13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W. T. Wrighton	대중가요・민요
14	Home, sweet home	H. Bishop	오페라 구성곡
15	Kuckucks Walzer	J. E. Jonasson	대중가요・민요
16	La donna e mobile	G. Verdi	오페라 구성곡
17	Lerchengesang	F. Mendelssohn	예술가곡
18	Long, long ago	Thomas Haynes Bayly	대중가요・민요
19	Mädchens Wunsch	F. Chopin	예술가곡
20	My dear old sunny home	William Shakespear Hays	대중가요・민요
21	O du lieber Augustin	미상	대중가요・민요
22	O Sole mio	E. di Capua	대중가요・민요
23	O, Tannenbaum	Ernst Anschütz	대중가요・민요
24	Ode to Joy	L. van Beethoven	기타(교향곡 내 합창곡)
25	Old Black Joe	S. C. Foster	대중가요・민요
26	Santa Lucia	미상[410]	대중가요・민요
27	Ständchen	F. Schubert	예술가곡
28	St. Petersburg	D. S. Bortniansky	기타(종교적 성악곡)
29	The Bluebells of Scotland	미상	대중가요・민요

30	Wiegenlied	J. Brahms	예술가곡
31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J. F. A. Fleischmann[411]	예술가곡
32	Степа́н Ра́зин (Stenka Razin)	미상[412]	대중가요・민요
33	Эй ухнем(Song of the Volga Boatman)	미상	대중가요・민요
34	꾀꼴새(꾀꼬리)	J. Hullah	대중가요・민요
35	노래소리	O. Schulze	대중가요・민요
36	목인의 노래	Karl Greger	대중가요・민요
37	백백합(흰백합)	J. Brahms	예술가곡
38	숲속의 노래	F. W. Kücken	대중가요・민요
39	저녁 종	미상	대중가요・민요
40	학창을 향하여(봄바람, 순풍)	미상	대중가요・민요
41	호숫가의 저녁	G. Rossini	기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1개 공통곡조 가운데에는, ‘대중가요・민요’ 장르 23곡조, ‘예술가곡’ 장르 9곡조, ‘오페라 구성곡’ 장르 4곡조, 기타 5곡조가 포함된다.[413] 즉 ‘대중가요・민요’ 장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예술가곡’, ‘오페라 구성곡’, 기타 장르가 뒤를 잇는다. 이 공통곡조의 장르별 비중 순위는 Ⅲ장에서 살펴본 『해방중등』 외국곡의 장르 고찰 결과와 같다.

이 지점에서 공통곡조의 장르 관련 특징이 『標準』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해방중등』 편찬자들의 독자적 기준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標準』 수록 외국곡 173곡 중 장르 확인이 가능한 곡들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Ⅳ-11>과 같다.

---

409)※『원곡』 곡목 확인 불가 경우에는 『해방중등』 곡목으로 표기.

410)『해방중등』에 ‘Cottrau’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확한 작사자는 알려져 있지 않음. Wikipedia, ‘Santa Lucia(song)’, 2021.11.11. 23:28 접속.

411)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J. F. A. Fleischmann의 곡으로 정정됨.(Wikipedia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독일어), ‘Johann Friedrich Anton Fleischmann’(독일어, 영어) 2023.2.23. 14:25 접속)

412) Wikipedia, ‘Stenka Razin’, 2023.4.23. 16:21 접속.

413) 기타 장르에는 기악곡을 편곡한 성악곡, 교향곡 내 합창곡, 종교적 성악곡(찬송가) 등이 포함됨.

<표 Ⅳ-11> 『標準』 수록 외국곡 장르별 정리[414]

	장르명	해당곡 번호
1	대중가요・민요	1, 2, 3, 4, 5, 9, 23, 24, 29, 35, 36, 37, 42, 45, 47, 48, 51&52, 53, 54, 56, 58, 62, 63, 68&69, 71, 73&74, 81&82, 85, 88, 92, 100, 104&105, 106, 108, 109, 113, 115, 119, 120&121, 126, 127, 130, 131, 132, 134, 135&136, 139, 142, 151, 157, 162
2	예술가곡	20, 32, 39, 43, 46, 50, 67, 75, 77, 78, 107, 122, 129, 158, 163, 167, 170
3	오페라 구성곡	44, 80(글린카, 루슬란&루드밀라), 111, 164
4	기타	16, 30, 59, 64, 65, 83, 91, 93, 94, 97, 98, 99, 102, 112, 118, 123, 125, 140, 143, 144&145, 146, 147, 150, 156, 159, 160, 174, 172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標準』 수록 외국곡의 장르 비중은 '대중가요・민요', '예술가곡', '오페라 구성곡' 순으로 나타난다. 즉 『標準』 수록 외국곡의 장르 비중 관련 특징이, '공통곡조'와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의 장르 비중 관련 특징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통곡조'의 특징을 작곡자와 장르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통곡조의 작곡자 및 장르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標準』 및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면, 『標準』 외국곡의 작곡자 및 장르 측면의 특징이 『해방중등』 편찬자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영향으로 인하여 『해방중등』 편찬자들이 『標準』에서 차용한 곡조(공통곡조)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해방중등』 외국곡의 특징도 이와 유사하게 형성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파악해볼 수 있다.

1.3 『해방중등』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414) 곡번호는 [부록 12](『標準』 수록 가창곡)에 의거.

『해방중등』 수록 전체 외국곡 478곡에 있어서의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그리고 『해방중등』 23종 개별 교과서의 외국곡에 있어서의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을 검토함으로써, 『해방중등』 수록곡과 『標準』 수록곡 간 유사도 즉 『해방중등』 전체 수록곡 내 『標準』 수록곡의 차용 정도를 살핀다.

1.3.1 『해방중등』 수록 전체 외국곡에서의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곡조는 228개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 41개는 약 18% 비중에 해당한다. 곡수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외국곡 수는 478곡 중 ‘공통곡조로 된 곡’은 159곡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해방중등』 외국곡 곡조 중 공통곡조의 비중은 약 18%로 크지 않으나, 공통곡조로 된 곡들이 여러 교과서에 다회 수록됨으로써 『해방중등』 외국곡 중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약 33%에 이르게 된 것이다.[415] 전체 외국곡 곡수 중 약 33%라는 비중을 놓고 볼 때, 이 ‘공통곡조로 된 곡’이 『해방중등』 외국곡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결코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통곡조의 특징이 『해방중등』 외국곡 전체의 특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통곡조별 해당 ‘공통곡조로 된 곡’의 『해방중등』 수록 횟수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공통곡조별 해당 ‘공통곡조로 된 곡’의 『해방중등』 수록 횟수[416]

공통곡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공통곡조로 된 곡’의 『해방중등』 수록	3	3	2	5	9	10	1	1	2	2	5	7	7	4	5	9

415) 『해방중등』 편찬자들의 ‘공통곡조로 된 곡’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횟수(회)																

공통곡조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통곡조로 된 곡’의 『해방중등』 수록 횟수(회)	2	2	2	1	3	1	1	7	2	3	2	5	7	1	4

공통곡조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공통곡조로 된 곡’의 『해방중등』 수록 횟수(회)	6	3	9	1	3	2	1	6	5	5

이를 수록 횟수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수록 횟수별 공통곡조 정리(순위 순)

순위	‘공통곡조로 된 곡’의 『해방중등』 수록 횟수(회)	공통곡조 번호 (총 곡조 수)
1	10	6(1)
2	9	5, 16, 34(3)
3	7	12, 13, 24, 29(4)
4	6	32, 39(2)
5	5	4, 11, 15, 28, 40, 41(6)
6	4	14, 31(2)
7	3	1, 2, 21, 26, 33, 36(6)
8	2	3, 9, 10, 17, 18, 19, 25, 27, 37(9)
9	1	7, 8, 20, 22, 23, 30, 35, 38(8)

<표 Ⅳ-13>과 같이 ‘공통곡조로 된 곡’의 수록 횟수는 1 ~ 10회까지의 범주에 있다. 1회만 수록된 곡조가 8개로 41개 공통곡조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며, 이 8개 곡조를 제외한 33개 공통곡조로 된 곡이 『해방중등』에 복수 수록되었다. 5회 이상 수록된 ‘공통곡조로 된 곡’이, 41개 공통곡조로 된 159곡의 『해방중등』 외국곡 가운데 107곡에 이른다.[417] 즉 ‘공통곡조’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33개 곡조로 된 곡이 『해방중등』에 복수 수록되었으며, 5회 이상 수록된 ‘공통곡조로 된

416) 공통곡조 번호는 <표 Ⅳ-1>에 의거
417) (10×1)+(9×3)+(7×4)+(6×2)+(5×6)=107

곡’이 41개 공통곡조로 된 159곡의 『해방중등』 외국곡 중 약 67%를 차지한다. 모든 공통곡조, 모든 ‘공통곡조로 된 곡’이 다회 수록된 것은 아니지만, 약 80%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곡이 2회 이상 수록되었고 5회 이상 수록된 ‘공통곡조로 된 곡’이 41개 공통곡조로 된 159곡의 『해방중등』 외국곡 중 약 67%를 차지한다는 점은 『標準』 수록곡이 『해방중등』 전체 수록곡에 미친 영향 또는 『標準』 수록곡이 『해방중등』 전체 수록곡에의 차용 정도가 미미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1.3.2 『해방중등』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에서의 비중

『해방중등』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에 있어서의 ‘공통곡조 41개로 된 곡의 비중’에 대한 고찰로서, 『해방중등』 23종에 존재하는 『標準』 수록 곡조의 차용 정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교과서 수록 외국곡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을 알아본다. 개별 교과서 검토는 <표 I-1>의 교과서 번호순으로 이루어진다.

1.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편.

수록곡 총 50곡 가운데 외국곡은 28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17곡으로 외국곡 중 약 61%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17곡의 제목은 <표 IV-14>와 같다.

<표 IV-14> 교과서 1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41	꿈속의 고향
2	5	로렐라이
3	11	보리수
4	12	볼가의 배ㅅ노래
5	31	사냥꾼의 노래
6	16	산타 루치아

7	18	숲속의 노래
8	24	스텐카 라진
9	13	애(아)기 재우는 노래
10	32	오-나의 太陽
11	19	오호 종달새
12	29	월계꽃
13	6	자장가
14	17	峻嶺을 넘어
15	34	즐거운 우리 집
16	15	쿠쿠 월쓰
17	40	歡喜의 頌歌

2. 『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6) 계정식 저.

수록곡 총 27곡 가운데 외국곡은 21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4곡으로 외국곡 중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4곡의 제목은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교과서 2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39	들장미
2	12	뱃노래
3	31	사냥군의 노래
4	26	즐거운 농부

3. 『여자중등음악교본 상』(1947) 김신덕 편.

수록곡 총 15곡 가운데 외국곡은 7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3곡으로 외국곡 중 약 43%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3곡의 제목은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교과서 3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32	봄의 세레나데
2	23	소녀의 꿈
3	13	자장가

4. 『여자중등음악교본 중』(1947) 김신덕 편.

수록곡 총 12곡 가운데 외국곡은 10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교과서 4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28	꾀꼴새
2	24	봄바람
3	15	뻐꾹 월스
4	6	자장가
5	7	저녁종

5. 『여자중등음악교본 하』(1947) 김신덕 편.

수록곡 총 16곡 가운데 외국곡은 11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2곡으로 외국곡 중 약 18%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2곡의 제목은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교과서 5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31	사냥꾼의 합창
2	10	야악

6. 『중학음악교본』(1947) 교육음악연구협회 편.

수록곡 총 29곡 가운데 외국곡은 12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6곡으로 외국곡 중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6곡의 제목은 <표 Ⅳ-19>와 같다.

<표 Ⅳ-19> 교과서 6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28	꾀꼬리
2	5	로렐라이
3	6	모찰트의 자장가
4	9	백백합
5	32	오, 나의 태양
6	34	즐거운 나의 집

7. 『중등노래교본 초급용』(1947) 계정식 저.

수록곡 총 27곡 가운데 외국곡은 19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약 26%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교과서 7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12	뱃노래
2	29	월계꽃
3	13	자장노래
4	39	장미꽃
5	26	즐거운 농부

8. 『중등음악』(1947) 오창진 편.

수록곡 총 62곡 가운데 외국곡은 54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9곡으로 외국곡 중 약 17%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9곡의 제목은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교과서 8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2	가을 하늘
2	4	고향의 폐가
3	21	늙은 흑인 죠오
4	10	뱃노래
5	33	순풍
6	27	아로하오에
7	38	여름의 바다
8	3	옛날
9	35	풍년

9. 『음악교본』(1947 추정) 편찬자 미상(대건중학교).

수록곡 총 42곡 가운데 외국곡은 24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10곡으로 외국곡 중 약 42%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10곡의 제목은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교과서 9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41	꿈속의 고향
2	5	로렐라이
3	40	보금자리
4	11	보리수
5	16	산타루치아
6	32	오-소래 미오
7	29	월계꽃
8	6	자장가

9	342	즐거운 나의 집
10	40	환희의 송가

10. 『중등음악교본』(1948)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편.

수록곡 총 50곡 가운데 외국곡은 29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17곡으로 외국곡 중 약 59%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17곡의 제목은 <표 IV-23>과 같다.

<표 IV-23> 교과서 10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41	꿈속의 고향
2	5	로렐라이
3	11	보리수
4	12	볼가의 뱃노래
5	31	사냥군(꾼)의 노래
6	16	산타 루치아
7	18	숲속의 노래
8	24	스텐카 라진
9	13	아기 재우는 노래
10	32	오 나의 태양
11	19	오호 종달새
12	29	월계꽃
13	6	자장가
14	17	준령을 넘어
15	34	즐거운 우리 집
16	15	쿠쿠월츠
17	40	환희의 송가

1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표지엔 '중학음악교본')(1948) 교육음악연구협회 편.

수록곡 총 30곡 가운데 외국곡은 23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1곡으로 외국곡 중 약 4%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1곡의 제목은 <표 Ⅳ-24>와 같다.

<표 Ⅳ-24> 교과서 11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33	학창을 향하야

12. 『중등음악교과서』(정부수립 이전 추정). 편찬자 미상(大商)

수록곡 총 35곡 가운데 외국곡은 24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14곡으로 외국곡 중 약 58%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14곡의 제목은 <표 Ⅳ-25>와 같다.

<표 Ⅳ-25> 교과서 12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36	나의동무
2	5	로렐라이
3	11	보리수
4	12	볼가의 배ㅅ노래
5	22	소야가
6	24	스텐카라진
7	16	싼타루치아
8	13	아기 재우는 노래
9	32	오, 나의 태양
10	29	월계꽃
11	1	잘 있거라 내 고향
12	34	즐거운 나의 집
13	15	쿠쿠-월쓰
14	40	환희의 송가

13. 『중등음악 2』(1948) 나운영 편.

수록곡 총 21곡 가운데 외국곡은 15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4곡으로 외국곡 중 약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4곡의 제목은 <표 Ⅳ-26>과 같다.

<표 Ⅳ-26> 교과서 13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28	꾀꼴새
2	20	노래 소리
3	26	즐거운 농부
4	15	쿠쿠 왈쓰

14. 『중등음악 3』(1948) 나운영 편.

수록곡 총 24곡 가운데 외국곡은 14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약 36%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Ⅳ-27>과 같다.

<표 Ⅳ-27> 교과서 14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11	보리수
2	16	싼타루치아
3	29	월계꽃
4	6	자장가
5	1	잘 있거라 내 고향

15. 『중등음악교본 1권』(1948) 이승학 편.

수록곡 총 20곡 가운데 외국곡은 17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약 29%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Ⅳ-28>과 같다.

<표 IV-28> 교과서 15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25	가을
2	28	꾀꼬리
3	12	볼카(가)의 뱃노래
4	24	스텐카라진
5	16	싼타루치아

16. 『중등음악교본 2권』(1948.8.30.) 이승학 편.

수록곡 총 21곡 가운데 외국곡은 19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10곡으로 외국곡 중 약 53%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10곡의 제목은 <표 IV-29>와 같다.

<표 IV-29> 교과서 16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4	고향의 폐가(폐가)
2	2	글공부
3	41	꿈속의 고향
4	36	동무
5	39	들장미
6	5	로렐라이
7	21	블랙죠오
8	6	자장가
9	34	즐거운 나의 집
10	37	호숫가의 저녁

17. 『중등음악교본 2권』(1948.8.30. 이후) 이승학 편.

수록곡 총 21곡 가운데 외국곡은 19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10곡으로 외국곡 중 약 53%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10곡의 제목은 <표 IV-30>과 같다.

<표 IV-30> 교과서 17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4	고향의 페가(폐가)
2	2	글공부
3	41	꿈속의 고향
4	36	동무
5	39	들장미
6	5	로렐라이
7	21	블랙죠오
8	6	자장가
9	34	즐거운 나의 집
10	37	호숫가의 저녁

18. 『중등음악 1』(1949) 나운영 편.

수록곡 총 24곡 가운데 외국곡은 21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약 24%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IV-31>과 같다.

<표 IV-31> 교과서 18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3	고향의 추억
2	8	목인의 노래
3	33	봄 바람
4	14	소나무
5	24	스텐카 라진

19.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1949 검정)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편.

수록곡 총 34곡 가운데 외국곡은 25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IV-32>와 같다.

<표 IV-32> 교과서 19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4	고향의 쓰러진 집
2	13	브람스의 자장가
3	14	소나무
4	16	싼타 루치아
5	29	월계꽃

20. 『중등음악교본 2』(1949) 최희남 편.

수록곡 총 30곡 가운데 외국곡은 20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6곡으로 외국곡 중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6곡의 제목은 <표 IV-33>과 같다.

<표 IV-33> 교과서 20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28	꾀꼬리
2	39	들장미
3	12	볼가의 뱃노래
4	6	자장가
5	1	잘 있거라 내 고향
6	34	즐거운 나의 집

21.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1950.4.28. 인정효력 연장)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편.

수록곡 총 38곡 가운데 외국곡은 28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약 18%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Ⅳ-34>와 같다.

<표 Ⅳ-34> 교과서 21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4	고향의 쓰러진 집
2	13	부라암스의 자장가
3	14	소나무
4	16	싼타 루치아
5	29	월계꽃

22. 『중등음악교본 1』(1950) 최희남 편.

수록곡 총 30곡 가운데 외국곡은 22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6곡으로 외국곡 중 약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6곡의 제목은 <표 Ⅳ-35>와 같다.

<표 Ⅳ-35> 교과서 22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5	로렐라이
2	16	산타 루치아
3	24	스텐카 라진
4	30	아름다워(와)
5	27	알로하 오에
6	14	전나무

23.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1950)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편.

수록곡 총 31곡 가운데 외국곡은 16곡이며, 이 가운데 공통곡조로 된 곡은 5곡으로 외국곡 중 약 31%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통곡조와 수록곡 5곡의 제목은 <표 Ⅳ-36>과 같다.

<표 IV-36> 교과서 23 수록 공통곡조로 된 가창곡

	공통곡조 번호	수록곡 곡목
1	25	가을
2	5	로렐라이
3	6	모오차르트의 자장가
4	34	즐거운 나의 집
5	9	흰 백합

이상과 같이 검토한 『해방중등』 23종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 중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IV-37>과 같다.

<표 IV-37> 교과서별 외국곡 중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교과서 번호순)[418]

	교과서명	총 곡수	외국 곡수	'공통' 곡수	'외국' 중 '공통'의 비중 (%)
1	『임시중등음악교본』	50	28	17	약 61
2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27	21	4	약 20
3	『여자중등음악교본 상』	15	7	3	약 43
4	『여자중등음악교본 중』	12	10	5	50
5	『여자중등음악교본 하』	16	11	2	약 18
6	『중학음악교본』	29	12	6	50
7	『중등노래교본 초급용』	27	19	5	약 26
8	『중등음악』	62	54	9	약 17
9	『음악교본』	42	24	10	약 42
10	『중등음악교본』	50	29	17	약 59
11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 (표지엔 『중학음악교본』)	30	23	1	약 4
12	『중등음악교과서』	35	24	14	약 58
13	『중등음악 2』	21	15	4	약 27

418)※ '외국곡'은 '외국', '공통곡조로 된 곡'은 '공통'으로 표기.

14	『중등음악 3』	24	14	5	약 36
15	『중등음악교본 1권』	20	17	5	약 29
16	『중등음악교본 2권』	21	19	10	약 53
17	『중등음악교본 2권』	21	19	10	약 53
18	『중등음악 1』	24	21	5	약 24
19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34	25	5	20
20	『중등음악교본 2』	30	20	6	30
21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38	28	5	약 18
22	『중등음악교본 1』	30	22	6	약 27
23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	31	16	5	약 31

<표 IV-3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과 발행연도 간 특별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419] 즉 발행연도가 해방일과 가까운 『해방중등』일수록 외국곡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 다시 말해 『標準』 곡조 차용 양상이 뚜렷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어떠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위의 <표 IV-37>을 비중 순으로 다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IV-38>과 같다.

<표 IV-38>교과서별 외국곡 중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비중 순)[420]

순위	교과서명(교과서 번호)	'외국' 중 '공통'의 비중 (%)	발행연도	편찬자(발행처)
1	『임시중등음악교본』(1)	약 61	1946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2	『중등음악교본』(10)	약 59	1948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3	『중등음악교과서』(12)	약 58	정부수립 이전 추정.	미상(대구 문예출판사 발행)
4	『중등음악교본 2권』(16)	약 53	1948	이승학
5	『여자중등음악교본 중』(4)	50	1947	김신덕
6	『중학음악교본』(6)	50	1947	교육음악연구협회
7	『중등음악교본 2권』(17)	50	1948.8.30 이후	이승학
8	『여자중등음악교본 상』(3)	약 43	1947	김신덕

419) 교과서 번호가 발행연도순으로 정리된 것임을 참고 바람.
420)※ '외국곡'은 '외국', '공통곡조로 된 곡'은 '공통'으로 표기.

9	『음악교본』(9)	약 42	1947 추정	미상
10	『중등음악 3』(14)	약 36	1948	나운영
11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23)	약 31	1950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12	『중등음악교본 2』(20)	30	1949	최희남
13	『중등음악교본 1권』(15)	약 29	1948	이승학
14	『중등음악교본 1』(22)	약 27	1950	최희남
15	『중등음악 2』(13)	약 27	1948	나운영
16	『중등노래교본 초급용』(7)	약 26	1947	계정식
17	『중등음악 1』(18)	약 24	1949	나운영
18	『중등노래교본 초급용』(2)	약 20	1946	계정식
19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19)	약 20	1949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20	『여자중등음악교본 하』(5)	약 18	1947	김신덕
21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21)	약 18	1950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22	『중등음악』(8)	약 17	1947	오창진
23	『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 (표지엔 『중학음악교본』)(11)	약 4	1948	교육음악연구협회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가장 큰 교과서는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이며, 교과서 10『중등음악교본』, 12『중등음악교과서』, 16『중등음악교본 2권』, 4『여자중등음악교본 중』, 6『중학음악교본』, 17『중등음악교본 2권』 등이 뒤를 잇는다. 이 7종 교과서에서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은 50% 이상이다.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해당 교과서 수록 외국곡의 약 61%에 이르는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은 『標準』 수록 곡조를 가장 많이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40% 이상, 비중 순위 1 ~ 9위까지의 편찬자를 살펴보면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미상, 이승학, 김신덕, ‘교육음악연구협회’, 이승학, 김신덕, 미상 등이다. 이 7종 교과서 중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와 ‘이승학’, ‘김신덕’ 편저의 교과서가 각각 2종씩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편찬자에게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과 관련된 경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가 편저한 교과서 1과 10의 경우 초판과 개정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록곡 구성에 큰 차이가 없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도 비슷하다. 이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의 성격에서도, 편찬 원칙 등을 밝혀놓은 ‘서언(序言)’을 통해서도 어떠한 이유로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큰 것인지 파악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어로 된 교과서 보급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편찬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웠던 해방 직후, 참고할 만한 조선어로 된 중등음악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는 첫 중등음악교과서를 편찬해야 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할 만한 외국 교재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해방 직전까지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이었던(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237-238) 편찬위원들의 입장에서 입수하기에 가장 용이한 참고 자료는 일제강점기 그들이 사용했던 일본 중등음악교과서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12와 9에 대하여서는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교과서의 편찬자는 미상이므로 편찬자의 경향성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두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의 수록곡을 대거 차용했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이유로, 2020: 162). 이에 따라 각각의 교과서에 공통곡조로 된 곡도 많이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승학이 편저한 교과서 16과 17의 경우, 교과서 17은 16의 개정판으로 볼 수 있다.[421] 편찬자 이승학과 ‘공통곡조로 된 곡’의 큰 비중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넷째, 김신덕이 편저한 교과서 4와 3은 『여자중등음악교본』 상중하(上中下) 시리즈의 ‘중권’과 ‘상권’인데, 이 시리즈의 ‘하권’인 교과서 5의 경우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약 18%로 비중이 적은 교과

421)『해방중등』의 발행 시기 및 순서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맞춤법 사용 양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1946년 맞춤법 제3차 수정 내용인 ‘사이ㅅ’ 폐지 적용 여부가 주요 잣대로 사용되는데, 교과서 16에는 이 수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교과서 17에는 적용되어 있으므로 교과서 16이 17보다 먼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 공동 3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과서 4와 3의 비중만을 근거로 편찬자의 경향성을 언급하기에 무리가 있다. 편찬자 김신덕과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공통곡조로 된 곡’ 비중이 가장 ‘적은’ 교과서는 교과서 11『남녀중학교음악교본 제3권』(표지엔 『중학음악교본』)이며, 교과서 8『중등음악』, 21『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5『여자중등음악교본 하』, 19『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2『중등노래교본 초급용』 등이 뒤를 잇는다. 즉 이들은 『標準』 수록 곡조를 적게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과서이다.

이 6종 교과서의 편찬자인 교육음악연구협회, 오창진,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김신덕,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 계정식 등에게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과 관련된 경향성이 있는지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음악연구협회’가 편저한 교과서 23의 경우,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약 4%로 가장 적다. 그런데 ‘교육음악연구협회’가 편저한 또 다른 교과서인 교과서 6『중학음악교본』의 ‘공통곡조로 된 곡’ 비중이 23종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크다. 따라서 이 두 교과서를 토대로 편찬자의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가 편저한 교과서 19과 21의 경우, 교과서 21은 19의 개정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두 교과서의 비중 간 유사성을 토대로 편찬자의 경향성을 찾는 일은 유의미하다고 여겨지기 어렵다. ‘국민음악연구회’와 ‘공통곡조로 된 곡’ 비중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적은 비중의 이유는 알기 어렵다. 이 외에 개인 편찬자 오창진, 김신덕, 계정식 등의 교과서의 경우에도, 그들이 편저한 교과서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적은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크고 적은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편찬자들이 비중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밝힌 바도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다른 기록을 통하여 밝힌 바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 ‘공통곡조’ 자체가 『標準』 수록곡을 차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언급한 편찬자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로 된 중등음악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당시의 복잡한 상황, 편찬자의 판단 또는 의지 등이 주로 이 비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뿐이다. 개별 『해방중등』에 있어서의 '공통곡조 41개로 된 곡의 비중'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3종 모든 교과서에 '공통곡조로 된 곡'은 수록되어 있으며, 비중의 범주는 4 ~ 61%로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컸다.

『標準』에 수록된 '공통곡조로 된 곡'은 46곡으로, 『標準』 수록 가창곡 173곡 가운데 약 27%의 비중이며, 공통곡조 41개는 『標準』수록 가창곡 곡조 103개 가운데 약 40%의 비중이다. 즉 『標準』 6종 103개 곡조 중 약 40%의 곡조가 『해방중등』에 수록된 것이다. 『標準』의 곡조 가운데 약 40%가 『해방중등』과의 공통곡조라는 사실은, 『해방중등』 23종 편찬에 있어서 『標準』이 참고·차용되었다는 '전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해방중등』 23종 편찬 시 『標準』이 아닌 다른 일본 음악교과서나 악보집 또는 조선의 창가집이나 악보집 등을 참고·차용하였는데 그 곡이 공교롭게 『標準』 수록곡이기도 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가 합쳐져 약 40%의 비중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방중등』 23종 모든 교과서에 '공통곡조로 된 곡'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19종 교과서 내 '공통곡조로 된 곡'의 비중이 수록 외국곡 중 20%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방중등』 편찬에 있어서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 '외국곡'을 차용하는 일에 대하여 허용적인 분위기가 당시 음악계·음악교육계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곡'이 일제강점기 음악교육을 통하여 교수·학습되기는 하였으나, 일본곡이 아니므로 '일제 음악교육의 잔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해방중등』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422]

422) 그런데 일본 중등음악교과서는 일본인 편찬자가 당시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 및 검인정 심사 기준, 음악 교육적 효과, 일본 중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기호 등을 고려하여 일본 음악교육에 맞게 만들어진 교과서이다. 물론 수록 '외국곡'도 일본 음악교육의 기준에 맞게 선곡된 것이다. 따라서 『해방중등』 교과서 편찬 시 차용된 일본 교과서 수록 외국곡이 일본 음악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

그러나 『해방중등』 편찬자들이 이러한 외국곡을 차용함에 있어서 맹목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며, 『해방중등』 편찬자들 나름의 기준에 맞는 곡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과서 서문, 일러두기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교과서 1, 10의 편찬자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는 교과서 1의 '서언(序言)' 중 선곡요령의 하나로 "외국가요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민요와 가곡 가운데서 예술적 향훈과 교육적 견지에서 채록할 것."이라고 밝혀놓았고, 교과서 15, 16, 17에서 이승학은 '머리말'에서 "교재 가곡은 세계 명곡 중에서 국민성에 맞고...(중략)...가곡만을 골랐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과서 3, 4, 5의 '자서(自序)'에서 김신덕은 편저에 있어서 주력한 점 가운데 하나로 "태서(泰西)의 명곡과.... 가장 적당한 곡을 엄선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과서 6, 19, 21, 23의 '서언(序言)'에서 '국민음악연구회 편집부'는 "외국가곡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가곡 가운데서...(후략)"라 밝혔으며, 교과서 20, 22에서 최희남은 "세계 명곡 중에서...(후략)"라고 밝힌 것을 볼 수 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해방중등』 편찬 시 외국곡 선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민성에 맞는'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은 사실상 '조선 대중이 잘 알고 있으며 사랑받는'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세계 명곡'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조선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야 '저명한'이 성립되며, 조선 대중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조선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과도 통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성에 맞는'이라는 기준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성' 즉 '조선 대중의 선호'와 맞는 곡이어야 사랑을 받고 저명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물론 조선 대중의 선호가 대개 일제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대중의 선호가 사회의 분위기, 대중 매체, 교육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회를 그리고 대중 매체와 교육을 통제한 일제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통제로

이 존재한다.

조선 대중의 선호가 모두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사라지지 않은 조선 문화가 살아남아 있었고 조선 내에 조선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매스미디어 또한 존재했으며 이것의 영향력도 적지 않았던 시기였다.[423]

그러므로 비록 『標準』 수록 외국곡의 작곡자, 장르 관련 특징이 '공통곡조'와 『해방중등』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지만, 『해방중등』 편찬자들은 그들이 교과서에 밝힌 바와 같이 선곡에 조선 대중의 선호를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해방중등』 편찬자들은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 외국곡을 차용함에 있어서 '조선 대중'의 선호를 선곡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이 『해방중등』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곡에 대한 차용에 있어서 맹목적 태도를 취하기보다 '조선 대중'을 기준으로 삼는 '주체적 선택'을 하고자 했던 편찬자들의 의지가 발견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Ⅳ - 1의 요약>

『해방중등』 및 『標準』 각각의 수록 곡조와 수록곡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비교를 통하여, 『해방중등』에는 『標準』 수록곡을 포함한 '일본곡'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標準』에는 '조선곡'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중등』과 『標準』의 수록 곡조를 비교한 결과 총 41개의 '공통곡조'가 발견되었다. 이 '공통곡조'로 된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은 159곡으로 외국곡 478곡 중 약 33%에 해당하는데, 이 비중은 '공통곡조'의 특징이 『해방중등』 외국곡 전체의 특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될만한 것이었다. '공통곡조' 가운데 슈베르트

423) 일제강점기에도 신문, 잡지, 도서 등의 인쇄매체와 영화, 라디오 방송 등의 시청각 매체를 통하여 조선 대중문화가 형성되고 확산되어 있었다.

의 곡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독일 작곡자의 곡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국 작곡자의 곡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통곡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대중가요·민요'이다.

그런데 '공통곡조'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특징들이 『標準』 수록 가창곡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방중등』 편찬 시 『標準』 수록곡 차용이 이루어지면서 『標準』의 특징이 '공통곡조'를 통하여 『해방중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

『해방중등』 23종 모든 교과서에 '공통곡조로 된 곡'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19종의 교과서에서 '공통곡조로 된 곡'이 수록 외국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음악계·음악교육계에 『해방중등』 편찬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 '외국곡' 차용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 '외국곡'이 일제강점기 음악교육을 통하여 교수 학습되기는 하였으나 일본곡은 아니므로 일제 음악교육의 잔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 즉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 '외국곡'을 해방공간 음악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념이 『해방중등』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중등』 편찬자들이 일본 교과서 수록 외국곡을 맹목적으로 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편찬 시 외국곡에 대하여 '조선 대중'의 곡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선곡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실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대중'을 기준으로 삼는 '주체적 선택'을 하고자 했던 편찬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의 '곡조' 측면 관련 '교과서 조선어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해방중등』에 『標準』 수록곡 차용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標準』의 특징이 『해방중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일본곡’ 곡조가 아닌 ‘외국곡’ 곡조의 차용이므로 ‘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외국곡’ 곡조들이 일본 음악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일본인의 음악적 취향이나 일본 음악교육에 적합한 선곡 기준 등에 의하여 선택되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외국곡’ 곡조들이라 하더라도 일제 음악교육의 영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해방중등』과 『標準』 수록 가창곡 노랫말 비교 :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유사성의 정도에 따른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2.1 유형 구분

본 노랫말 비교 고찰에서는 『해방중등』, 『標準』, 그리고 『원곡』의 노랫말 간 유사성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원곡』의 노랫말까지 비교하는 이유는, 『標準』 노랫말과의 비교만으로는 『해방중등』의 조선어 노랫말이 『標準』 노랫말과만 유사/상이한 것인지 아니면 『원곡』 노랫말과 유사/상이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방중등』과 『標準』의 노랫말이 유사한 경우, 『해방중등』 노랫말이 『標準』 노랫말의 번역일 수도 있으나 『원곡』 노랫말의 번역일 수도 있다. 또한 『해방중등』과 『標準』의 노랫말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해방중등』 노랫말이 작사된 것일 수도 있으나 『원곡』 노랫말의 번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곡』 노랫말까지 세 가지 노랫말을 검토하고 세 가지 노랫말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 정도에 따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방중등』 노랫말 양

상의 연원을 보다 정확하게 살피고, 이를 통하여 『해방중등』 조선어화에 있어서의 노랫말 측면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간 유사성의 정도에 따른 관계 유형을 총 7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7가지 유형 구분에 있어서 노랫말 간 유사성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는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등 세 가지이며,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별한다.

본 검토에서 '주제'는 노랫말에 내재된 중심 생각, '주요 소재'는 노랫말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재료, '내용'은 노랫말의 줄거리 요약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시(詩)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제', '소재', '내용'의 개념을 참고한 것이다. 현재 음악계 또는 음악교육계에 정형화된 노랫말 분석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랫말과 가장 유사한 문학 장르인 시 분석 방법과 시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개념을 참고하였다.

'유사' 여부 판단은, 노랫말 간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등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유사한 경우 '유사', 또한 노랫말 간 '주요 소재'에 차이가 있더라도 '주제'와 '내용' 간 유사도가 높으면 '유사'로 판단한다. 그런데 노랫말 간 '주요 소재'에 차이가 있는데다 '주제'와 '내용' 둘 중 한 가지 요소만 유사도가 높으면 '유사하지 않음', 또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상이한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음'으로 판단한다.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간 비교는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노랫말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도 높은 노랫말 내용 사이에도 언어상의 차이로[424] 인한 상이점은 발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상이점을 참작하였다. 즉 '주제', '주요 소재', '내용'에 대한 파악 및 '유사'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노랫말의 직역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 언어상의 차이로 인한 상이점이 일정 정도 참작되었음을 밝힌다.

---

424) 약간의 번안을 한 경우나 표현을 다소 바꾼 경우가 주로 해당됨.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 간 7가지 관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Ⅳ-39>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간 7가지 관계 유형(※ '≒' : 유사, '≠' : 유사하지 않음)

	유 형
1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2	(『원곡』 ≒ 『해방중등』) ≠ 『標準』
3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4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5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6-1	『원곡』 노랫말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 경우, 『標準』 ≒ 『해방중등』
6-2	『원곡』 노랫말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 경우, 『標準』 ≠ 『해방중등』

유형 1은 『원곡』, 『標準』, 『해방중등』 등 세 가지 노랫말이 서로 유사한 경우이다. <『標準』 노랫말 =『원곡』 노랫말의 번역> + <『해방중등』 노랫말 =『원곡』 노랫말의 번역>인 조건에서 발견된다.

유형 2는 『원곡』과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유사한데, 이 두 가지 노랫말과 『標準』의 노랫말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이다. <『標準』 노랫말 = 작사 > + <『해방중등』 노랫말 =『원곡』 노랫말의 번역 >인 조건에서 발견된다.

유형 3은 『원곡』과 『標準』의 노랫말은 유사한데, 이 두 가지 노랫말과 『해방중등』의 노랫말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이다. <『標準』 노랫말 = 『원곡』 노랫말의 번역> + <『해방중등』 노랫말 = 작사>인 조건에서 발견된다.

유형 4는 『標準』과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유사한데, 이 두 가지 노랫말과 『원곡』의 노랫말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이다. <『標準』 노랫말= 작사> + <『해방중등』 노랫말 = 『標準』 노랫말의 번역>인 조건에서 발견된다.

유형 5는 『원곡』, 『標準』, 『해방중등』의 세 가지 노랫말이 서

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이다. <『標準』 노랫말 = 작사> + <『해방중등』 노랫말 = 작사>인 조건에서 발견된다.

유형 6-1과 6-2는 『원곡』 노랫말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조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의 노랫말이 유사하거나(6-1) 유사하지 않은(6-2) 경우이다.

『원곡』 노랫말의 '원형성'(Oroginality)은 비교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확인이 가능한 가장 오래된 악보의 노랫말을 기준으로 하였다.[425]

2.2 유형별 고찰

각 유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원곡』 노랫말- 『標準』 노랫말 - 『해방중등』 노랫말> 의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노랫말 간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은 서로 유사하나 단어, 문장 표현, 구 또는 절의 배치 순서 등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는 복수의 『해방중등』 노랫말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표 안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426]

2.2.1 유형 1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해방중등』 공통곡조 관련곡 총 159곡 중 60곡 해당, 공통곡조는 9개)

1. 『원곡』<Die Lorelei> -『標準』<ロオレライ(2)> -『해방중등』<로렐라이 (1), (9), (10), (12), (16), (17), (22), (23)>, <로레라이(6)>
2. 『원곡』<Der Lindenbaum> -『標準』<菩提樹(4)> -『해방중등』<보리수(1),

425) 오래된 곡일수록, 대중에게 널리 불린 곡일수록 다양한 노랫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특별히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었던 곡이 아닌 이상, 최초 인쇄본 악보나 초기 악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imslp.org, www.wikipedia.org, www.oxfordlieder.co.uk, https://library.uta.edu, LyricSmile.com, www.youtube.com, hymnary.org 등에서 악보와 노랫말을 선택하였다.

426) 일례로 <표 Ⅳ-43>을 들 수 있다.

(9), (10), (12), (14)〉

3. 『원곡』〈Wiegenlied(브)〉 -『標準』〈ブラ―ムスの子守歌(2)〉 -『해방중등』〈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4. 『원곡』〈Wiegenlied(브)〉 -『標準』〈ブラ―ムスの子守歌(2)〉 -『해방중등』〈자장가(3)〉
5. 『원곡』〈Santa Lucia〉 -『標準』〈サンタ・ルチア(2)〉 -『해방중등』〈산타 루치아(1), (9), (10), (23)〉, 〈싼타 루치아(12), (14), (15), (19), (21)〉
6. 『원곡』〈O Sole mio〉 -『標準』〈我が太陽(4)〉 -『해방중등』〈오-나의 태양(1)〉, 〈오, 나의 태양(6)〉, 〈오-소래 미오(9)〉, 〈오 나의 태양(10)〉, 〈오, 나의 태양(12)〉
7. 『원곡』〈Home, sweet home〉 -『標準』〈懐しの我が家(6)〉, 〈懐しの我家(5)〉 -『해방중등』〈즐거운 우리 집(1), (10)〉, 〈즐거운 나의 집(6), (9), (12), (16), (17), (20), (23)〉
8. 『원곡』〈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標準』〈モ-ツァルトの子守歌(1)〉 -『해방중등』〈자장가(1), (9), (10), (14), (16), (17), (20)〉, 〈모찰트의 자장가(6)〉, 〈모오차르트의 자장가(23)〉
9. 『원곡』〈My dear old sunny home〉 -『標準』〈舊都の月(1)〉 -『해방중등』〈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10. 『원곡』〈My dear old sunny home〉 -『標準』〈舊都の月(1)〉 -『해방중등』〈고향의 폐가 (8)〉
11. 『원곡』〈Э й у х н е м(Song of the Volga Boatman)〉 -『標準』〈ヴオルガの舟歌 (1)〉 -『해방중등』〈뱃노래(2), (7)〉

〈표 Ⅳ-40〉 유형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1-1	〈Die Lorelei〉	〈ロオレライ(2)〉	〈로렐라이(1), (9), (10), (12), (16), (17), (22), (23)〉, 〈로레라이(6)〉
1-2	〈Der Lindenbaum〉	〈菩提樹(4)〉	〈보리수(1), (9), (10), (12), (14)〉
1-3	〈Wiegenlied(브)〉	〈ブラ―ムスの子守歌(2)〉	〈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 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1-4	〈Wiegenlied(브)〉	〈ブラームスの子守歌(2)〉	〈자장가(3)〉
1-5	〈Santa Lucia〉	〈サンタ・ルチア(2)〉	〈산타 루치아(1), (9), (10), (23)〉, 〈싼타 루치아(12), (14), (15), (19), (21)〉
1-6	〈O Sole mio〉	〈我が太陽(4)〉	〈오-나의 태양(1)〉, 〈오, 나의 태양(6)〉, 〈오-소래 미오(9)〉, 〈오 나의 태양(10)〉, 〈오, 나의 태양(12)〉
1-7	〈Home, sweet home〉	〈懐しの我が家(6)〉, 〈懐しの我家(5)〉	〈즐거운 우리 집(1), (10)〉, 〈즐거운 나의 집(6), (9), (12), (16), (17), (20), (23)〉
1-8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モ-ツァルトの子守歌(1)〉	〈자장가(1), (9), (10), (14), (16), (17), (20)〉, 〈모찰트의 자장가(6)〉, 〈모오차르트의 자장가(23)〉
1-9	〈My dear old sunny home〉	〈舊都の月(1)〉	〈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1-10	〈My dear old sunny home〉	〈舊都の月(1)〉	〈고향의 폐가 (8)〉
1-11	〈Э й у х н е м (Song of the Volga Boatman)〉	〈ヴオルガの舟歌 (1)〉	〈뱃노래 (2), (7)〉

〈표 Ⅳ-41〉 1 - 1

1. 『원곡』 〈Die Lorelei〉 - 『標準』 〈ロオレライ(2)〉 - 『해방중등』 〈로렐라이(1), (9), (10), (12), (16), (17), (22), (23)〉, 〈로레라이(6)〉

	『원곡』 〈Die Lorelei〉	『標準』 〈ロオレライ(2)〉	『해방중등』 〈로렐라이(1), (9), (10), (12), (16), (17), (22), (23)〉, 〈로레라이(6)〉
주제	로렐라이 언덕에 얽힌 전설	로렐라이 언덕에 얽힌 전설	로렐라이 언덕에 얽힌 전설
주요 소재	라인강, 아가씨, 황금 빗, 아가씨의 노래, 뱃사람, 바위, 배	라인강, 소녀, 황금 빗, 소녀의 목소리, 뱃사람, 바위, 배	라인강, 로레라이 언덕, 색시, 황금빛 옷, 머리, 색시의 노래, 뱃사공, 바위, 배
내용	라인강가 로레라이 언덕에서 황금 빗으로 머리를 빗는 아가씨의 노래에 홀린 뱃사공. 그는 암초를 보지 못하여 그의 배는 침몰하였고 그는 바다에 빠져 죽었네.	라인강가에서 황금 빗으로 머리를 빗는 소녀의 목소리에 영혼이 흔들린 뱃사람. 정신을 잃은 그는 바위를 보지 못하여 그도 배도 바다에 가라앉았네.	라인강가 로레라이 언덕 바위 위 황금빛 옷을 입은 어여쁜 색시, 머리를 빗으며 노래하네. 뱃사공이 정신을 잃고 색시만 바라보다 배와 함께 설은 혼 되었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의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의 유사도가 매우 높음. 2) 다만, 『해방중등』의 노랫말에서는 『원곡』과 『標準』노랫말에서의 ‘황금 빗으로 머리를 빗는’ 아가씨(소녀) 대신 “황금빛이 빛나는 옷”을 입은 색시가 발견되는 점, 그리고 뱃사공이 죽은 사실을 “배와 함께 배ㅅ사공이 설은 혼 되었네”라고 표현한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해방중등』의 『원곡』 노랫말 번역 과정에서 부분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음.		

〈표 Ⅳ-42〉 1 - 2

2. 『원곡』 〈Der Lindenbaum〉 - 『標準』 〈菩提樹(4)〉 - 『해방중등』 〈보리수(1), (9), (10), (12), (14)〉

	『원곡』 〈Der Lindenbaum〉	『標準』 〈菩提樹(4)〉	『해방중등』 〈보리수(1), (9), (10), (12), (14)〉
주제	죽음으로 향하는 마음	죽음으로 향하는 마음	죽음으로 향하는 마음
주요 소재	보리수, 보리수 그늘, 단꿈, 사랑의 말, 가지, 안식, 찬 바람, 모자, 살랑거리는 소리	보리수, 맹세, 나뭇가지, 보리수 그늘, 누이, 유모	보리수, 보리수 그늘, 단꿈, 가지, 나무 밑(그늘)
내용	보리수 그늘에서 많은 꿈을 꾸었고 사랑의 말을 새겼던 나. 보리수는 나에게 와서 안식을 찾으라고 하네.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보리수가 와서 안식을 찾으라는 소리를 듣네.	너의 그늘로 돌아가겠다던 맹세를 생각하네. 보리수가 그늘에서 쉬라고 나를 부르네. 만날 그날을 기다리네.	보리수 그늘에서 단꿈을 꾸었던 나. 가지에 희망의 말을 새기었었지.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찾아갔던 나무 밑.(편곡되어 여기까지만 수록되어 있음)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이 기본적으로 유사함. 2)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전체가 아닌 어느 정도 간추린 내용에 가까우며,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두 노랫말이 『원곡』 노랫말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3)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표 Ⅳ-43〉 1 - 3 / 1 - 4

(※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은 서로 유사하나 단어, 문장 표현, 구 또는 절의 배치 순서 등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는 복수의 노랫말이 존재하는 경우로, 『해방중등』 두 가지 종류의 노랫말을 하나의 표 안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이하 동일 경우에도 적용)

3. 『원곡』 〈Wiegenlied(브)〉 - 『標準』 〈ブラームスの子守歌(2)〉 - 『해방중등』 〈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 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4. 『원곡』 〈Wiegenlied(브)〉 - 『標準』 〈ブラームスの子守歌(2)〉 - 『해방중등』 〈자장가(3)〉

	『원곡』 〈Wiegenlied(브람스)〉	『標準』 〈ブラームスの子守歌(2)〉	『해방중등』 〈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 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주제	아기가 편히 자기를 바라는 마음	아기가 편히 자기를 바라는 마음	아기가 편히 자기를 바라는 마음
주요 소재	장미 차양, 카네이션, 이불, 천사, 크리스마스 트리, 낙원	꿈의 정원, 꽃, 종소리, 꽃의 정원, 꿈의 숲, 새	장미꽃, 창, 천사, 낙원, 단꿈
내용	장미와 카네이션에 덮여 내일 아침이 올 때까지 잘 자라. 천사들이 널 지켜볼 것이고 네 꿈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줄 거야. 단꿈 꾸며 잘 자고 꿈속에서 낙원을 보길.	내일의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꿈속에서 꽃의 정원을 즐겨라. 꿈의 숲에 새가 우네. 너도 그 숲속에서 노래를 불러라.	장미꽃 너를 둘러 피었네. 밤새 편히 쉬어라. 꿈속에서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야. 밤새 고이 낙원의 단꿈을 꾸며 자라.
			『해방중등』 〈 자장가(3) 〉
주제			아기가 편히 자기를 바라는 마음
주요 소재			백합화, 장미화, 창, 천사, 낙원, 단꿈
내용			귀한 아기, 백합화 장미화가 너를 둘러 피었다. 천사들 너를 보호하리니 밤새 편히 낙원의 단꿈을 꾸며 자라.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 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이 유사함. 2) 『원곡』 노랫말의 소재 가운데 '장미 차양'과 '카네이션'이 『標準』노랫말에서는 '꽃'으로 『해방중등』노랫말에서는 "장미꽃"으로 표현됨. 『원곡』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에 등장하는 '천사'가 『標準』노랫말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그 외의 소재나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음. 3)『해방중등』 <자장가(3)> 노랫말은 위의 『해방중등』 <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 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노랫말과는 꽃의 종류 추가 또는 아기에 대한 수식어가 붙는 등의 차이를 나타내나, 이는 표면적 차이일 뿐 내용 면으로나 주제 및 주요 소재 면에서 매우 유사함. 4)『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표 Ⅳ-44> 1 - 5

5. 『원곡』 <Santa Lucia> - 『標準』 <サンタ・ルチア(2)> - 『해방중등』 <산타 루치아(1), (9), (10), (23)>, <싼타 루치아(12), (14), (15), (19), (21)>

	『원곡』 <Santa Lucia>	『標準』 <サンタ・ルチア(2)>	『해방중등』 <산타 루치아(1), (9), (10), (23)>, <싼타 루치아(12), (14), (15), (19), (21)>
주제	뱃사공의 산타 루치아 찬양	어느 밤 산타 루치아에서의 즐거운 기억	어느 밤 산타 루치아에서의 즐거운 기억
주요 소재	바다, 별, 물결, 바람, 배, 산들바람,	별, 바다, 바람, 물결, 배, 밤의 그림자,	별, 물, 바람, 배, 바다, 나폴리, 산천, 초목

	탑승자, 저녁 식사, 뱃사공으로서의 대처, 나폴리, 출항	파도	
내용	반짝이는 바다, 은빛 별, 고요한 물결 속 뱃사공은 작은 배를 몰고 가네. 산들바람을 타고 가는 기분 멋지네. 탑승자들은 모두 산타 루치아로. 바빠서 저녁 식사도 못 한다네. 바다는 고요해 바람이 잘 불지 않지만 뱃사공은 별문제 없을 거라 단언하며, 그의 사랑을 소리쳐 불러보네. 사랑하는 나폴리여. 출항은 늘 지체되기 마련. 저녁 공기가 신선하네. 작은 배를 몰고 어서 저어 가보세.	별은 바다에 비치고 바람은 물결을 부르고 작은 배는 빠르게 바다를 건너네. 어딘가에 배를 세우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내네.	별은 물 위에 어리고 바람은 불어오고 배는 빠르게 바다를 지나네. 행복의 나폴리 산천초목은 기다리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이 유사함. 2) 내용 면에서 『원곡』에 있는 탑승자, 저녁 식사, 바람에 대한 걱정, 출항 지체 등 뱃사공의 일과 관련된 내용이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노랫말이 매우 유사하며,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의 전체적 내용이 『원곡』 노랫말의 내용과 각각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음. 3) ‘나폴리’에 대한 내용이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에서만 나타나며, 『標準』 노랫말의 ‘어딘가에 배를 세우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낸다’는 내용은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에서 나타나지 않음. 4)『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표 Ⅳ-45〉 1 - 6

6. 『원곡』 〈O Sole mio〉 - 『標準』 〈我が太陽(4)〉 - 『해방중등』 〈오-나의 태양(1)〉, 〈오, 나의 태양(6)〉, 〈오-소래 미오(9)〉, 〈오, 나의 태양(12)〉

	『원곡』 〈O Sole mio〉	『標準』 〈我が太陽(4)〉	『해방중등』 〈오-나의 태양(1)〉, 〈오, 나의 태양(6)〉, 〈오-소래 미오(9)〉, 〈오 나의 태양(10)〉, 〈오, 나의 태양(12)〉
주제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사랑
주요 소재	햇빛, 폭풍우, 또 하나의 태양, 창문, 세탁부, 저녁	태양의 빛, 폭풍, 햇빛, 미소 띤 연인의 얼굴, 밤, 휴식하는 나의 태양	햇빛, 폭풍우, 바람, 나의 해
내용	햇빛 비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폭풍우 지나고 공기도 신선하네. 또 하나의 태양, 더 아름답네. 나만의 태양, 그대의 얼굴이네. 그대의 얼굴은 나의 햇빛. 그대의 세탁부가 옷을 짜 널을 때면 그대의 창문이 환히 빛난다고 노래를 하지. 저녁이 되면 해는 져서 나는 외로와지지. 나는 그대의 창문 아래에서 기다리리라.	아름다운 아침 햇빛, 내 연인의 얼굴이 희망으로 빛나네. 태양은 기울어지고 날 저물면 잠시 휴식하는 나의 태양. 사랑 가득한 얼굴의 미소여.	맑은 햇빛 아름다워. 폭풍우 지난 후 햇빛 더 아름답고 찬란해. 내겐 사랑스런 나의 태양뿐. 나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이 유사함. 2) 내용 면에서 『원곡』에 나타나는 세탁부 관련 내용이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연인을 태양에 비유한 점 그리고 그 태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점에서 세 가지 노랫말이 동일. 3) 『원곡』의 '저녁이 되면 해는 져서 나는 외로와진다'는 내용 즉 연인이 곁에 없거나 보이지 않으면 노랫말의 화자가 외롭다는 내용이 『해방중등』노랫말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標準』노랫말에서는 '태양은 기울어지고 날 저물면 잠시		

	휴식하는 나의 태양’으로 변형되어 있음. 4)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표 Ⅳ-46〉 1 - 7

7. 『원곡』 〈Home, sweet home〉 - 『標準』 〈懷しの我が家(6)〉, 〈懷しの我家(5)〉 - 『해방중등』〈즐거운 우리 집(1), (10)〉, 〈즐거운 나의 집(6), (9), (12), (16), (17), (20), (23)〉

	『원곡』 〈Home, sweet home〉	『標準』 〈懷しの我が家(6)〉, 〈懷しの我家(5)〉	『해방중등』〈즐거운 우리 집(1), (10)〉, 〈즐거운 나의 집(6), (9), (12), (16), (17), (20), (23)〉
주제	내 집보다 좋은 곳 없다.	내 집보다 좋은 곳 없다/ 고향 그리워	내 집보다 좋은 곳 없다.
주요 소재	궁, 내 집, 세계, 내 작은 오두막, 새들, 평화	기울어진 처마, 낡은 창문, 황야 끝, 달, 고향, 노모, 창가, 기러기, 나무 열매, 꽃, 새	즐거운 곳, 작은 집, 꽃, 새, 달빛, 창, 꿈길, 바람, 가을, 벌레, 별
내용	비록 누추해도 내 집만 한 곳은 없네. 세계를 헤맨들 정다운 내 집만 한 곳은 없네. 날 내 작은 오두막에 데려다 주오. 어디에도 없는 평화를 주는 내 집으로.	낡은 집이라도 내 집이라 생각하면 그리워. 내 집보다 좋은 곳 없네. 멀리 떠나온 곳에서 그리워하는 고향. 늙으신 어머니도 울고 가는 기러기를 보고 계시리라. 마음을 이끄는 나의 고향. 나무 열매도 꽃도 새도 나를 부르네.	화려하고 좋은 곳도 많지만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이 제일. 꿈길에서도 잊지 못하는 나의 집.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이 유사함. 2)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에 나타나지 않는 ‘늙으신 어머니가 울고 가는 기러기를 보고 계신다’, ‘나무 열매도 꽃도 새도 나를 부른다’는 등의 내용이 『標準』노랫말에 나타나는데 이는 번역 과정에서 가미된 것으로 여겨짐. 3)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표 Ⅳ-47〉 1 - 8

8. 『원곡』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 『標準』 〈モ-ツァルトの子守歌(1)〉 - 『해방중등』 〈자장가(1), (9), (10), (14), (16), (17), (20)〉, 〈모찰트의 자장가(6)〉, 〈모오차르트의 자장가(23)〉

	『원곡』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標準』 〈モ-ツァルトの子守歌(1)〉	『해방중등』 〈자장가(1), (9), (10), (14), (16), (17), (20)〉, 〈모찰트의 자장가(6)〉, 〈모오차르트의 자장가(23)〉
주제	아기가 편히 잠자기를 바라는 마음	아기가 편히 잠자기를 바라는 마음	아기가 편히 잠자기를 바라는 마음
주요 소재	새, 양, 꽃, 나무, 벌, 달, 창, 구유, 목초지, 쥐, 장신구와 사탕	마당, 숲, 나비, 새, 창문가, 방구석의 쥐, 아이의 자면서 웃는 모습, 장난감	앞뜰, 뒷동산, 새, 아가 양, 달, 창, 생쥐, 뒷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장난감, 사탕과자
내용	내 어린 왕자 자거라. 양도, 새들도 자고 정원도 목초지도 고요하고 작은 벌들도 이젠 조용하네. 창문으로 비치는 달도 은빛을 비추네. 모두가 자고 있네. 생쥐들도. 지하실도 부엌도 텅 비었네. 일꾼들의 방에서 잦아드는 한숨이 들릴 뿐이네. 누가 너보다 행복하랴. 즐거움과 평화뿐. 장신구와 사탕, 역마차(장난감 추정)까지 널 기다리네.	마당, 숲의 나비들과 작은 새들도 날개를 접고 달은 창가를 비추며 꿈을 지키네. 모두 잠들어 있지. 쥐도 자네. 행복한 아이야 장난감들도 너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앞뜰과 뒷동산의 새들과 아가양 도 자고 달도 창으로 빛을 비추는 이 밤. 온 세상이 잠들었고 생쥐도 잔다. 뒷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있을 뿐. 행복한 아가 장난감과 사탕 과자가 너를 기다린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이 매우 유사함. 2) 다만 『원곡』의 '일꾼들의 방에서 잦아드는 한숨이 들릴 뿐이다'의 내용이 『해방중등』노랫말에서는 '뒷방에서 들려오는 재미난 이야기만 적막을 깨치네'로 변형되었으나, 『標準』노랫말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발견되는 정도임.		

	3)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표 Ⅳ-48〉 1 - 9 / 1 - 10

9. 『원곡』 〈My dear old sunny home〉 - 『標準』 〈舊都の月(1)〉 - 『해방중등』 〈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10. 『원곡』 〈My dear old sunny home〉 - 『標準』 〈舊都の月(1)〉 - 『해방중등』 〈고향의 폐가 (8)〉

	『원곡』 〈My dear old sunny home〉	『標準』 〈舊都の月(1)〉	『해방중등』 〈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집)의 옛 모습을 그리워 함	고향(집)의 옛 모습을 그리워 함
주요 소재	앵무새, 목련화, 양지바른 내 집, 장미, 새들의 노래, 친구들과의 추억	달 모양, 가을풀, 묻힌 주춧돌, 가을 바람	꽃, 새, 바람, 시냇물 소리, 무너진 집, 함께 놀던 동모들
내용	새 울고 예쁜 꽃 피던 곳 양지바른 내 집을 다신 보지 못하겠지. 꽃은 지고 새들도 노래를 그치고 모든 것은 변하였네. 낯선 곳에선 정든 친구들과의 추억이 그립고 내 마음은 정처 없이 헤매네. 내 고향이여 안녕.	달 모양은 여전하나 고루(高樓)는 흔적도 없이 적막한 고향이여. 달은 여전히 비추고 있지만 그리운 궁은 없이 가을 바람만 허무하게 부는 허전한 고향이여.	고향에 돌아와보니 꽃, 새, 시냇물 소리 여전하나 내 집은 무너졌네. 바람, 시냇물 옛날을 말하는 듯하나 옛 동무들 간 곳 없이 처량한 고향아, 쓸쓸한 내 집아.
			『해방중등』 〈고향의 폐가 (8)〉
주제			고향(집)의 옛 모습을 그리워 함

주요 소재			바람, 새, 개울물 소리, 텅 빈 내 옛집, 함께 놀던 동무들
내용			고향산천 찾아와보니 바람, 새, 개울물 소리 여전하나 내 집엔 사는 사람 없네. 바람, 물은 옛날을 말하는 듯하나 옛 동무들 없는 쓸쓸한 고향아, 처량한 내 옛집아.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노랫말의 주제, 주요 소재, 내용이 유사함. 2) 『원곡』 노랫말의 '앵무새'와 '목련화'는 『해방중등』 노랫말에서는 '새'와 '꽃'으로 변형되었으나, 『標準』 노랫말에서는 새와 꽃과 관련된 소재가 나타나지 않음. 또한 『원곡』 노랫말의 '집'은 『해방중등』 노랫말에서도 '집'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標準』 노랫말에서는 '고루'와 '궁'으로 표현되어 있다. 표현이 다르긴 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고향 옛집의 모습 또는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면에서 매우 유사함. 3) 『해방중등』 <고향의 폐가 (8)> 노랫말은 위의 『해방중등』 <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노랫말과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도가 높음. 위의 노랫말의 '고향'은 <고향의 폐가 (8)>에서 '고향산천', '시냇물 소리'는 '개울물 소리', '내 집은 무너졌네'는 '내 집엔 사는 사람 없네' 등으로 차이를 보이긴 하나, 이는 의미 면에서 거의 다르지 않은 단어나 표현으로 볼 수 있음. 4)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표 Ⅳ-49〉 1 - 11

	『원곡』 〈Эй ухнем(Song of the Volga Boatman)〉	『標準』 〈ヴォルガの舟歌 (1)〉	『해방중등』 〈뱃노래 (2), (7)〉
주제	볼가강 뱃사람의 노동	배를 힘껏 끌어라.	배를 기운차게 끌어라
주요 소재	볼가강, 자작나무, 밧줄	밧줄, 배	짐, 배, 바람, 물결, 마을 사람, 언덕
내용	볼가강은 넓고 깊은 어머니의 강. 밧줄을 끌어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더. 밧줄을 묶어라.	밧줄을 힘껏 끌어라. 배가 움직인다. 끌어라 힘껏.	기운차게. 짐 싯(싣)고 배 떼지어 소리 맞춰(맞춰). 소리 웨치며 마을 사람 기다리는 언덕까지 (끌어라) 기운차게.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은 주제 면에서 유사하며, 볼가강 뱃사람들이 협력하여 함께 배를 끌자는 노동요적 특징을 지님. 2) 주요 소재 면에서 『원곡』, 『標準』 노랫말은 유사하며 『해방중등』 노랫말은 둘과 차이를 보임. 3) 내용 면에서 『원곡』이나 『標準』 노랫말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해방중등』 노랫말에 나타나는, 짐을 싣는다든지, 마을 사람 기다리는 언덕까지 배를 끌자는 내용 등은 『해방중등』의 『원곡』 노랫말 번역 과정에서 변형 또는 추가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에서 바다로부터 힘껏 배를 끌어서 올리자는 공통된 내용이 뚜렷하므로 세 노랫말 간 내용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4)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각각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보임.		

2.2.2 유형 2 (『원곡』 ÷ 『해방중등』) ∺ 『標準』)

(『해방중등』 공통곡조 관련곡 총 159곡 중 26곡 해당, 공통곡조는 10개)

1. 『원곡』<O, Tannenbaum> -『標準』<飛行機(1), (6)> -『해방중등』<소나무(18)>
2. 『원곡』<O, Tannenbaum> -『標準』<飛行機(1), (6)> -『해방중등』<소나무(19), (21)>
3. 『원곡』<O, Tannenbaum> -『標準』<飛行機(1), (6)> -『해방중등』<전나무(22)>
4. 『원곡』<Old Black Joe> -『標準』<城山の秋(2), (6)> -『해방중등』<늙은 흑인 죠오(8)>
5. 『원곡』<Old Black Joe> -『標準』<城山の秋(2), (6)> -『해방중등』<블랙죠오(16), (17)>
6. 『원곡』<The Bluebells of Scotland> -『標準』<若草の古戰場(2)> -『해방중등』<아름다워(와)(22)>
7. 『원곡』<Степа́н Ра́зин(Stenka Razin)> -『標準』<すみれ(2)> -『해방중등』<스텐카 라진(1), (10), (12), (15), (22), (18)>
8. 『원곡』<Heidenröslein (베르너)> -『標準』<花鳥(4)> -『해방중등』<들장미(2)>, <장미꽃(7)>
9. 『원곡』<Heidenröslein (베르너)> -『標準』<花鳥(4)> -『해방중등』<들장미(16), (17)>
10. 『원곡』<Ständchen> -『標準』<夜の曲(5)> -『해방중등』<소야가(12)>
11. 『원곡』<Chor der Jäger> -『標準』<獵人の合唱(3)> -『해방중등』<사냥군(꾼)의 노래(1), (10)>, <사냥꾼의 합창(5)>
12. 『원곡』<Barcarolle> -『標準』<欵乃の調(4)> -『해방중등』<夜樂(5)>
13. 『원곡』<Aloha oe> -『標準』<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해방중등』<아로하오에(8)>
14. 『원곡』<Aloha oe> -『標準』<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해방중등』<알로하 오에(22)>
15. 『원곡』<Long, long ago> -『標準』<故鄕の追憶 (1), (6)> -『해방중등』<옛날(8)>

〈표 Ⅳ-50〉 유형 2

	『원곡』	『標準』	『해방중등』
2-1	〈O, Tannenbaum〉	〈飛行機(1), (6)〉	〈소나무(18)〉
2-2	〈O, Tannenbaum〉	〈飛行機(1), (6)〉	〈소나무(19), (21)〉
2-3	〈O, Tannenbaum〉	〈飛行機(1), (6)〉	〈전나무(22)〉
2-4	〈Old Black Joe〉	〈城山の秋(2), (6)〉	〈늙은 흑인 죠오(8)〉
2-5	〈Old Black Joe〉	〈城山の秋(2), (6)〉	〈블랙죠오(16), (17)〉
2-6	〈The Bluebells of Scotland〉	〈若草の古戰場(2)〉	〈아름다워(와)(22)〉
2-7	〈Степа́н Ра́зин(Stenka Razin)〉	〈すみれ(2)〉	〈스텐카 라진(1), (10), (12), (15), (22), (18)〉
2-8	〈Heidenröslein (베)〉	〈花鳥(4)〉	〈들장미(2)〉, 〈장미꽃(7)〉
2-9	〈Heidenröslein (베)〉	〈花鳥(4)〉	〈들장미(16), (17)〉
2-10	〈Ständchen〉	〈夜の曲(5)〉	〈소야가(12)〉
2-11	〈Chor der Jäger〉	〈獵人の合唱(3)〉	〈사냥군(꾼)의 노래(1), (10)〉, 〈사냥꾼의 합창(5)〉
2-12	〈Barcarolle〉	〈欸乃の調(4)〉	〈夜樂(5)〉
2-13	〈Aloha oe〉	〈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아로하오에(8)〉
2-14	〈Aloha oe〉	〈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알로하 오에(22)〉
2-15	〈Long, long ago〉	〈故鄕の追憶 (1), (6)〉	〈옛날(8)〉

<표 IV-51> 2 - 1 / 2 - 2 / 2 - 3

	『원곡』<O, Tannenbaum>	『標準』 <飛行機(1), (6)>	『해방중등』 <소나무(18)>
주제	전나무의 불변과 사랑스러움	비행기의 비행 모습 예찬 및 전쟁 도구로서의 역할 기대	소나무의 불변 예찬
주요 소재	전나무, 잎의 푸름, 여름, 겨울, 크리스마스, 희망, 영원함, 용기, 힘	비행기, 폭음, 비행 모습, 황국의 번영	소나무, 여름, 겨울, 사람, 맹세, 꾀꼬리, 꾀꼬리 노래
내용	변하지 않는 푸른 잎은 충성스러움.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전나무의 사랑스러움. 푸른 잎은 나에게 희망과 영원함을 가르치고, 용기와 힘을 주네.	멀리 하늘에 폭음을 내며 지나가는 비행기. 황국의 번영을 세계에 드러내라.	소나무는 변치 않고 푸른데, 사람의 맘은 변하기 쉬워 굳은 맹세도 곧 잊어버리네. 꾀꼬리의 맘도 그러하니 여름에는 부르고 겨울에는 안 부르네.
			『해방중등』 <소나무(19), (21)>
주제			소나무와 시내의 불변 예찬
주요 소재			소나무, 여름철, 겨울, 시내, 비올 때, 가문날, 꾀꼬리, 꾀꼬리의 노래
내용			소나무는 변치 않고 푸르고, 시내는 변치 않고 흐르네. 꾀꼬리여 네 맘도 같아서 변치 않고 노래 불러라.
			『해방중등』 <전나무(22)>
주제			전나무의 불변 예찬
주요 소재			변치 않는 잎새의 빛
내용			뙤약볕에도 눈이 몰아쳐도 사시장천 푸른 전나무 잎새.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소나무(18)> 노랫말은 유사하며, 『標準』 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전혀 다름.		

	2) 『원곡』 노랫말은 전나무의 불변과 사랑스러움, 푸른 잎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해방중등』노랫말은 주로 소나무(전나무가 아닌 소나무로 번역)의 불변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해방중등』노랫말에 소나무의 불변과 달리 사람의 맘과 꾀꼬리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곡』 노랫말 번역 과정에서 소나무의 불변이 노랫말의 주제와 중심 내용으로 선택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방중등』 〈소나무(19), (21)〉 노랫말은 위의 『해방중등』〈소나무(18)〉 노랫말과 주제,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나, 〈소나무(19), (21)〉가 '소나무, 사람의 맘, 꾀꼬리의 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소나무, 시내, 꾀꼬리의 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해방중등』 〈전나무(22)〉 노랫말도 전나무의 불변 예찬이 주제이며, 계절의 변화에도 늘 푸르다는 내용 면에서 다른 『해방중등』의 노랫말들과 동일. 4) 이를 통하여 볼 때 『해방중등』의 노랫말들은 내용상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모두 『원곡』의 내용 가운데 '불변'을 주제로 하며 잎새의 푸르름이 계절의 변화에도 변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5) 『標準』노랫말은 '황국(皇國)의 번영을 세계에 드러낼 비행기'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과는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6)『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 『標準』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2〉 2 - 4 / 2 - 5

	『원곡』 〈Old Black Joe〉	『標準』 〈城山の秋(2), (6)〉	『해방중등』 〈늙은 흑인 죠오(8)〉
주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흑인 노예의 슬픔	전쟁의 허망함을 한탄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흑인 노예의 슬픔
주요 소재	목화밭, 친구들, 하늘나라, 부르는 목소리, 아이들	시로야마, 전장에서 들리던 총소리, 쓰러져 있던 시신, 총칼에 대한 기억	젊은 날, 동무, 부르는 목소리, 사랑하는 이들, 자식, 가고 싶은 나라
내용	젊은 시절은 지나고 목화밭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들도 하늘나라로 갔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 나도 이제 늙어 그들을 향해 가고 있네. 슬하의 아이들도 모두 떠났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들리네.	총소리 사라진 옛 전장의 가을밤. 바람도 한탄하네. 당신에게 정성을 다했던 건 다 헛된 것이었네. 총알 떨어지고 칼 부러지고 산에 묻혀 있는 시신들. 한 맺힌 시로야마.	젊은 날은 지나고 동무들은 세상 떠났네. 이름 부르는 소리 들려오네. 나도 따라가리라. 동무들은 떠났어도 혼은 아직 남아 있네. 사랑하는 이들, 자식들도 떠났네. 나도 가리, 항상 원하던 나라로.
			『해방중등』 〈블랙죠오(16), (17)〉
주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흑인 노예의 슬픔
주요 소재			동무, 낙원, 부르는 소리, 그대 없는 설움
내용			시간은 지나 들에 놀던 동무는 간 곳 없고, 블랙죠 너를 부르는 소리 슬프고 그립구나. 그대 없는 설움에 슬프네. 옛 모습은 어디에.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 〈늙은 흑인 죠오(8)〉 노랫말은 매우 유사하며, 『標準』 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전혀 다름. 2) 『標準』 노랫말은 시로야마 전장에서 있었던 전쟁을 회상하며 전쟁의 허망함을 한탄하는 내용으로서, 『원곡』 및 『해방중등』 노랫말과는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3) 『해방중등』 <블랙죠오(16), (17)> 노랫말은 위의 『해방중등』 <늙은 흑인 죠오(8)>노랫말과 주제, 주요 소재 면에서 유사하나, 다른 점은 <늙은 흑인 죠오(8)>에서는 '블랙죠'가 노랫말의 화자임이 드러나지만 <블랙죠오(16), (17)>에서는 '블랙죠'가 '너'로 지칭되어 노랫말의 화자를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늙은 흑인 죠오(8)>에 나타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자식에 대한 내용이 <블랙죠오(16), (17)>에는 '그대'라고만 되어 있어 이것이 동무를 뜻하는지 사랑하는 이들과 자식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임. 이처럼 『해방중등』 두 노랫말 간 차이점이 존재하나, 전체적 내용으로 볼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4)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 『標準』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3> 2 - 6

	『원곡』 <The Bluebells of Scotland>	『標準』 <若草の古戰場(2)>	『해방중등』 <아름다워(와)(22)>
주제	전우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전쟁의 아픈 기억이 가득한 옛 전장에서의 감흥	벗(전우)을 그리워 함
주요 소재	전우의 집, 훈장, 의복, 죽음	옛 전장, 들판 언덕, 새, 꽃, 태양, 전쟁의 참혹한 기억, 전사들의 열정, 이끼 낀 돌	벗, 활, 깃폭, 의기
내용	하일랜드 출신 전우는 어디에. 무사히 집에 돌아가기를. 깃털 달린 모자에 격자무늬 외투를 입은 그. 그가 만약 공격받았다면 그를 보호할 거야.. 그가 공격받았다면 내 마음은 찢어질 거야.	전장의 모습은 사라진 현재의 들판 언덕. 전쟁의 참혹한 기억이 떠올라. 새벽에 피는 꽃들은 전사들의 혈조.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옛 전장.	아름다운 내 벗은 어디에. 활 당겨 잡고 깃폭 날리면서 떠나간 벗이여 그립다.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며, 『標準』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전혀 다름. 2)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전장을 함께 누빈 벗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 주요 소재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원곡』 노랫말의 주요 소재인 '훈장' 그리고 『해방중등』노랫말의 '활'과 '깃폭'은 전쟁과 관련 있는 소재이므로 노랫말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그냥 벗이 아닌 전우를 뜻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시작 부분이 전우 또는 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 3)『標準』노랫말은 옛 전장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는 내용으로서 『원곡』 및 『해방중등』노랫말과는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4> 2 - 7

	『원곡』<Степа́н Ра́зин (Stenka Razin)>	『標準』 <すみれ(2)>	『해방중등』 <스텐카 라진(1)>, <스텐카 라진(10), (12), (15), (22), (18)>
주제	돈코샤크 무리의 비난에 정부(情婦)를 바다에 던진 스텐카 라진	세상 영화와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일의 가치	돈코샤크 무리의 비난에 정부를 바다에 던진 스텐카 라진
주요 소재	스텐카 라진이 그의 정부를 바다에 던져 죽인 일.	화려한 꽃들, 얌전한 제비꽃	스텐카 라진이 그의 정부를 바다에 던져 죽인 일. 스텐카 라진의 정부를 비난하는 돈코샤크 무리의 아우성.
내용	강 가운데로 달려가는 나뭇배들. 선두에는 스텐카 라진이 자신의 '공주(정부)'를 안고 신혼을 축하하며 술 마시며 이야기하네. 공주는 겁에 질려 듣고	화려하고 교만한 꽃들이 피고 진 후 이들 꽃들에 아랑곳없이 피는 얌전한 모습의 제비꽃 아름다워.	볼가강 물 위 스텐카 라진의 배에서 들리는 노래소리 드높아. '공주'(정부)의 교만함에 높아지는 아우성. 그녀 때문에 굶주린다는 불만. 볼가강은 흐르고 스텐카

	있네. 술 취한 스텐카 라진은 화가 나 볼가강에게 선물을 바치겠다며 공주를 파도 속으로 던졌네.		라진의 얼굴은 외로와 보이네.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유사하며, 『標準』 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전혀 다름. 2)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스텐카 라진이 그의 정부(情婦)를 바다에 던져 죽인 일을 주 내용으로 함. 『원곡』에는 스텐카라진이 돈코샤크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정부를 볼가강에 던지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해방중등』 노랫말에는 스텐카라진이 정부를 볼가강에 던진 내용이 '볼가강은 흐르고 스텐카라진 외롭구나 그 얼굴'이라고 에둘러 표현되어 있음. 이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적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3)『標準』 노랫말은 세상 영화와 상관없이 피는 제비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원곡』 및 『해방중등』 노랫말과는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해방중등』 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 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5〉 2 - 8 / 2 - 9

39-1 유형 2

	『원곡』 〈Heidenröslein (베르너)〉	『標準』 〈花鳥(4)〉	『해방중등』 〈들장미(2)〉, 〈장미꽃(7)〉
주제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꽃들과 새들을 예뻐하라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주요 소재	예쁜 들장미를 꺾으려는 소년과 꺾이지 않으려는 들장미	산기슭, 참새, 글, 아이, 꽃, 새, 천지	예쁜 들장미를 꺾으려는 소년과 꺾이지 않으려는 들장미
내용	들에 핀 장미를 보고 가까이 간 소년. 장미에게 꺾겠다고 하나 장미는 그러면 소년을 찌르겠다고 했지. 소년은 아랑곳	일찍 일어나 꽃들과 새들을 보며 시를 읊어라. 그 즐거움은 끝이 없네.	들에 핀 장미의 아름다움에 어린이는 달려가 노래 불러주었네. 어린이가 장미에게 너를 꺾겠다고 하자 장미는 그럼 너를 찔

	없이 장미를 꺾었고 장미는 소년의 손을 찔렀지.		러주겠다고 했네. 어린이는 꺾었고 장미는 어린이의 손을 찔렀네.
			『해방중등』 〈들장미(16), (17)〉
주제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주요 소재			예쁜 들장미를 꺾으려는 소년과 꺾이지 않으려는 들장미
내용			들에 핀 장미의 어여쁜 향기가 탐나 어린이는 정신없이 보았네. 어린이가 장미를 꺾겠다고 하자 장미는 그럼 너를 찌르겠다고 했네. 아이는 꺾었고 장미는 어린이의 손을 찔렀지만 향기는 사라졌네.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들장미(2)〉, 〈장미꽃(7)〉 노랫말 유사하며, 『標準』 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전혀 다름. 2) 『해방중등』 〈들장미(16), (17)〉와 『해방중등』〈들장미(2)〉, 〈장미꽃(7)〉 노랫말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함. 차이점은 『해방중등』〈들장미(2)〉, 〈장미꽃(7)〉 노랫말에서 어린이가 장미의 '아름다움'에 '달려간' 데에 반하여, 『해방중등』 〈들장미(16), (17)〉 노랫말에서는 어린이가 장미의 어여쁜 '향기'에 탐나 '정신없이 보았다'는 점, 그리고 〈들장미(2)〉, 〈장미꽃(7)〉 노랫말에서는 장미가 어린이의 손을 찌르는 데에서 끝나지만 〈들장미(16), (17)〉 노랫말에서는 어린이의 손을 찔렀지만 '향기는 사라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장미의 향기에 탐나 정신없이 보았다든지, 어린이의 손을 찔렀지만 향기는 사라졌다는 내용은 『원곡』에는 없으며, 번역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보임. 3)『標準』 노랫말은 들장미와 소년(어린이)의 갈등 내용이 아닌, 꽃들과 새들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원곡』 및 『해방중등』 노랫말과는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해방중등』 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 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6〉 2 - 10

	『원곡』 〈Ständchen〉	『標準』 〈夜の曲(5)〉	『해방중등』 〈소야가(12)〉
주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림	해변가의 밤 풍경과 하나 된 내 노래	사랑하는 이를 기다림
주요 소재	사랑의 노래, 숲, 달빛, 나이팅게일, 두근거리는 가슴	파도 소리, 낚싯배의 노 소리, 하늘의 별, 노래	달빛, 노래, 풀밭, 묘, 가슴
내용	이 밤 애절한 사랑의 노래를 그대를 향해 부르네. 이 조용한 숲으로 와서 나를 만나주오. 달빛도 환한데, 그대여 용기를 내주오. 나이팅게일이 나를 위해 당신에게 간청하고 있소. 그대여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으니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오.	해변에는 부서지는 바다 소리, 먼바다에는 낚싯배의 노 소리, 이 세상은 노래로 가득해져. 하늘과 땅의 울림을 반주로 나의 노래를. 별이 빛나는 하늘에. 나의 노래 하늘을 건너라.	달빛 속 나의 노래가 너를 부른다. 달은 밝은데 사람 자취 끊어진 곳. 내가 여기서 기다리니 두려워 말고 찾아와라. 오 내 사랑.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유사하며, 『標準』 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전혀 다름. 2)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달빛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는 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원곡』 노랫말의 '조용한 숲'이 『해방중등』 노랫말에서는 '사람 자취 끊어진 곳'으로 표현되거나, 『원곡』에 있는 나이팅게일이 『해방중등』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3)『標準』 노랫말은 해변가의 밤 풍경과 그 속에서의 화자의 노래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과는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해방중등』 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 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7〉 2 - 11

	『원곡』 〈Chor der Jäger〉	『標準』 〈獵人の合唱(3)〉	『해방중등』 〈사냥군(꾼)의 노래(1), (10)〉, 〈사냥꾼의 합창(5)〉
주제	사냥의 즐거움	사냥의 즐거움	사냥의 즐거움
주요 소재	뿔 나팔, 숫사슴, 숲과 연못, 남자의 즐거움, 사지, 입맛, 나무, 바위, 술잔, 다이아나, 피로, 농작물, 수컷 멧돼지	안장, 말발굽 소리, 사냥 도구, 친구, 팔 힘, 사냥감, 지는 해, 등불	군호소리, 들, 산, 노루, 남자의 즐거움, 팔과 다리, 산울림, 수풀, 바위, 띠아나의 신, 곡식, 멧돼지, 들짐승, 남자의 즐거움
내용	사냥의 즐거움 비할 데 없네. 숲속에서 나팔 소리 울리면 수사슴 쫓아 달리네. 진짜 사내들의 즐거움이지. 농작물을 헤치는 산돼지를 잡고 나면 왕자가 된 기분.	사냥 도구 메고 사냥을 나서서 친구와 단련한 팔 힘을 겨루어보네. 사냥감은 산과 들에 가득. 지는 해에 아쉬움을 남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사냥 이야기를 나누느라 즐거워. 등불(집)이 보이니 설레는 마음.	사냥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네. 군호 소리 맞춰 들과 산으로 노루를 쫓는 것은 남자의 즐거움. 곡식 파헤치는 멧돼지 들짐승을 잡는 것은 남자의 즐거움.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은 매우 유사하며, 『標準』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다름. 2) 주제 면에서는 『원곡』, 『標準』, 『해방중등』노랫말이 공히 사냥의 즐거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의 주요 소재가 거의 일치하는 데에 반해 『標準』노랫말의 주요 소재는 이 둘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 3) 내용 면에서도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사냥하는 즐거움, 농작물을 해치는 멧돼지를 잡는 것이 진짜 남자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標準』노랫말은 사냥을 나서서 친구와 힘을 겨루는 일도 해가 질 때 집에 돌아가는 길도 즐겁다고 되어 있어 다름. 4)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8〉 2 - 12

	『원곡』 〈Barcarolle〉	『標準』 〈欵乃の調(4)〉	『해방중등』 〈夜樂(5)〉
주제	열정적인 사랑의 밤을 보내자	고요한 밤바다 풍경	사랑의 밤은 아름다워.
주요 소재	사랑의 밤, 키스, 미소, 기쁨	밤바다, 노 젓는 소리, 달, 우라시마 산, 산 위 소나무, 구름, 사공의 노랫소리, 물결	사랑의 밤, 별, 봄밤, 옛날의 노래, 바람
내용	사랑의 밤. 밤은 낮보다 훨씬 달콤해. 사랑의 아름다운 밤. 시간은 빨리 지나가 버리니 아껴라. 사랑의 밤이여.	고요한 밤바다, 달은 기울었고 구름은 파도와 같다. 고운 풍경 속 사공의 노랫소리 물결에 떠돈다.	아름다운 이 밤은 사랑의 밤. 이 밤을 아껴라,
정리	1) 주제,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며, 『標準』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다름. 2)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주요 소재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연인과의 사랑의 밤, 이 시간을 아끼라는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함. 3)『標準』노랫말은 고요한 밤바다의 풍경 속 사공의 노래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원곡』과 제목은 비슷하나 『원곡』 및 『해방중등』노랫말과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59〉 2 - 13 / 2 - 14

	『원곡』 〈Aloha oe〉	『標準』 〈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해방중등』 〈아로하오에(8)〉
주제	연인과의 이별로 인한 아쉬움	여행을 마치고 하와이를 떠나는 아쉬움.	정든 이와의 이별로 인한 아쉬움
주요 소재	비, 절벽, 골짜기, 아히히레후아, 작별의 포옹, 사랑의 추억, 마우나윌리의 장미, 새들, 그대의 입술	푸르고 맑은 하늘, 푸른 야자수 잎, 꽃 위를 나는 새와 벌레, 빛깔, 해변가 젊은이들의 노래와 우쿨렐레 소리, 여행하는 마음, 꿈 같은 하루, 아쉬움	이별의 날, 물결 소리, 갈매기 떼, 작별하는 슬픔
내용	정든 그대여 잘 가오. 작별의 포옹을 하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사랑의 추억 잊지 말길.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 해변가 젊은이들의 노래와 악기 소리로 즐거워지는 마음. 꿈 같은 시간은 지나고 떠나는 아쉬움.	이별의 날은 왔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서로 작별하네. 물결 소리도, 날아가는 갈매기 떼들도 우리의 작별을 슬퍼하네.
			『해방중등』 〈알로하 오에(22)〉
주제			이별의 아쉬움
주요 소재			달빛, 여름밤의 짧은 꿈, 추억
내용			날이 밝으면 헤어져야 하는 우리 마음은 괴롭네. 잘 가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추억 속에 기다리리.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유사하며, 『標準』 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다름. 2)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사랑하는(정든) 이와의 이별을 앞둔 아쉬움과 슬픔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標準』 노랫말은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름. 3) 주요 소재 면에서도 『원곡』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작별과 관련된 것인 반면, 『標準』 노랫말은 하와이의 자연과 해		

	변가에서 들리는 노래와 악기 소리로 인한 즐거움 등으로 차이를 보임. 4) 『해방중등』 <아로하오에(8)>와 <알로하 오에(22)> 노랫말은 주요 소재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히 정든 이와의 이별을 주제로 하며, 이별의 날이 다가와 마음이 아프지만 잘 가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지니는 면에서 유사함. 5) 따라서 『標準』 노랫말은 『원곡』 및 『해방중등』 노랫말과 제목은 동일하나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거의 없음. 이를 통하여 볼 때, 『해방중등』 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 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60〉 2 - 15

	『원곡』 〈Long, long ago〉	『標準』 〈故郷の追憶 (1), (6)〉	『해방중등』 〈옛날 (8)〉
주제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연인과 회포를 나누고 함께 했던 시절을 회상.	고향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가 만난 친구와 회포를 나누고 우정 확인.
주요 소재	젊은 시절 연인과의 즐거운 기억들	백운, 높은 고개, 뒷산, 저녁놀, 계곡 개울.(산과 개울을 아버지, 어머니로 비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기억들
내용	소중했던 옛이야기, 노래를 다시 들려주오. 그대가 예전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해주오. 우리 만나던 길, 나의 미소를 좋아했던 그대, 그대가 들려준 칭찬 모두 나는 간직하고 있소. 그대 없이 보낸 세월이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했다오.	나를 맞아주던 높은 고개는 고향의 아버지, 추억이 깃든 개울은 고향의 어머니. 높은 고개와 개울이 있는 내 고향 산천이 그립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말해다오. 옛날의 노래를 불러다오. 몇 해만인 친구, 친구의 얼굴. 우리 사이는 변함없네. 둘이 놀던 이 길, 시내. 몇 해 만에 둘이 보는 고향. 우리 사이는 변함없네.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며, 『標準』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다름. 2) 『원곡』과 『해방중등』노랫말의 중요한 소재는 각각 연인과 친구임. 그런데 『원곡』의 노랫말에서 연인에 친구를 대입하거나, 『해방중등』 노랫말에서 친구(동무)에 연인을 대입하여 보면, 두 노랫말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음. 3) 『원곡』 노랫말에서의 '옛이야기'와 『해방중등』노랫말에서의 어린 시절을 말하라는 표현, 『원곡』에서의 노래를 다시 들려달라는 내용과 『해방중등』에서의 옛날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내용, 『원곡』에서의 예전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해달라는 내용과 『해방중등』에서의 우리들의 사이는 변함없다는 내용, 『원곡』에서의 '둘이 만나던 길'과 『해방중등』에서의 '둘이 놀던 길' 등은 서로 유사성이 매우 높음. 4) 고향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標準』노랫말은 『원곡』 및 『해방중등』노랫말과 유사성이 거의 없음. 5)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標準』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2.3 유형 3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해방중등』 공통곡조 관련곡 총 159곡 중 16곡 해당, 공통곡조는 5개)

1. 『원곡』<Heidenröslein> -『標準』<野薔薇(4)> -『해방중등』<월계꽃(1), (9), (10), (12), (19), (21)>, <월계꽃(7)>
2. 『원곡』<Lerchengesang> -『標準』<雪雀の歌(5)> -『해방중등』<오호 종달새(1), (10)>
3. 『원곡』<Wiegenlied> -『標準』<モ-ツァルトの子守歌(1)> -『해방중등』<자장가(4)>
4. 『원곡』<Э й у х н е м(Song of the Volga Boatman)> -『標準』<ヴオルガの舟歌 (1)> -『해방중등』<볼가의 배ㅅ노래(1), (12)>, <볼가의 뱃노래(10), (20)>, <볼카(가)의 뱃노래(15)>
5. 『원곡』<O Sole mio> -『標準』<我が太陽(4)> -『해방중등』<봄의 세레나데 (3)>

<표 Ⅳ-61> 유형 3

	『원곡』	『標準』	『해방중등』
3-1	<Heidenröslein (슈)>	<野薔薇(4)>	<월계꽃(1), (9), (10), (12), (19), (21)>, < 월계꽃(7)>
3-2	<Lerchengesang>	<雪雀の歌(5)>	<오호 종달새(1), (10)>
3-3	<Wiegenlied>	<モ-ツァルトの子守歌(1)>	<자장가(4)>
3-4	<Э й у х н е м (Song of the Volga Boatman)>	<ヴオルガの舟歌 (1)>	<볼가의 배ㅅ노래(1), (12)>, <볼가의 뱃노래(10), (20)>, <볼카(가)의 뱃노래(15)>
3-5	<O Sole mio>	<我が太陽(4)>	<봄의 세레나데 (3)>

〈표 Ⅳ-62〉 3 - 1

	『원곡』 〈Heidenröslein(슈베르트)〉	『標準』 〈野薔薇(4)〉	『해방중등』 〈월계꽃(1), (9), (10), (12), (19), (21)〉, 〈월게꽃(7)〉
주제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들장미와 소녀의 다툼	월계꽃의 사랑스러움
주요 소재	붉은 들장미를 꺾으려는 소년과 꺾이지 않으려는 들장미	하얀 들장미를 꺾으려는 소녀와 거절한 들장미	월계꽃, 고운 얼굴, 미소
내용	들에 핀 장미를 보고 가까이 간 소년. 장미에게 꺾겠다고 하나 장미는 그러면 소년을 찌르겠다고 했지. 소년은 아랑곳없이 장미를 꺾었고 장미는 소년의 손을 찔렀지.	들장미가 예뻐서 다가와 지치지 않고 보는 소녀. 장미를 달라는 친구와 그에 응하지 않는 장미. 소녀는 손으로 장미를 꺾고 상처를 입었네.	사랑스러운 월계꽃 품에 안고 어루만져 주네. 안고 볼 때 미소를 띄어주는 월계꽃. 항상 품에 안겨라.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標準』노랫말은 유사하며, 『해방중등』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다름. 2) 주제 면에서 『원곡』 노랫말은 붉은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標準』노랫말은 하얀 들장미와 소녀의 다툼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도가 높음. 『標準』노랫말의 주요 소재인 '하얀 들장미'와 '소녀'는 『원곡』 노랫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임. 3)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및 『標準』노랫말에서 나타나는 꽃과 소년(소녀) 간의 갈등이 아닌, 월계꽃에 대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 및 『標準』노랫말과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標準』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63〉 3 - 2

	『원곡』 〈Lerchengesang〉	『標準』 〈雪雀の歌(5)〉	『해방중등』 〈오호 종달새(1), (10)〉
주제	노래하는 종달새를 보는 즐거움	아침을 노래하는 종달새	하늘에 은혜, 땅위의 영광을 노래하는 종달새
주요 소재	종달새의 노래, 태양, 꽃 피는 초원, 계곡	종달새의 노래, 아침 하늘, 종달새의 날개와 목소리, 봄의 아침	종달새, 하늘에 은혜, 땅 위의 영광, 찬양
내용	달콤한 종달새의 노래. 태양 향해 나를 데리고 날아올라 함께 노래하자. 꽃 피는 초원에 내려앉아라. 나도 조용히 계곡에 내려오리라.	종달새여, 아침 하늘을 노래하라. 밝아오는 날을 기려 드높게 노래하라. 봄의 아침을 노래하라.	높은 하늘에 올라가 종달새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늘에 은혜, 땅 위의 영광이네. 이를 찬양하세.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標準』노랫말은 유사하며, 『해방중등』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다름. 2) 『원곡』과 『標準』노랫말이 소재와 내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標準』노랫말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변형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을 날며 노래하는 종달새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3) 『해방중등』노랫말은 하늘에 은혜, 땅 위의 영광을 노래하는 종달새라는 종교적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 및 『標準』노랫말과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標準』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64〉 3 - 3

	『원곡』 〈Wiegenlied〉	『標準』 〈モ-ツァルトの子守歌(1)〉	『해방중등』 〈자장가(4)〉
주제	아기가 편히 잠자기를 바라는 마음	아기가 편히 잠자기를 바라는 마음	아기가 편히 잠자기를 바라는 마음
주요 소재	새, 양, 꽃, 나무, 벌, 달, 창, 구유, 목초지, 쥐, 장신구와 사탕	마당, 숲, 나비, 새, 창문가, 방구석의 쥐, 아이의 자면서 웃는 모습, 장난감	엄마 품, 천사의 노랫소리
내용	내 어린 왕자 자거라. 양도, 새들도 자고 작은 벌들도 조용하네. 창문으로 비치는 달도 은빛을 비추네. 모두가 자고 있네. 생쥐들도. 일꾼들의 방에서만 잦아드는 한숨이 들리네. 장신구와 사탕, 역마차(장난감)까지 널 기다리네.	마당, 숲의 나비들과 작은 새들도 날개를 접고 달은 창가를 비추며 꿈을 지키네. 모두 잠들어 있네. 쥐도 자네. 행복한 아이야 장난감들도 너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자거라, 우리 아기. 엄마의 품에 안겨 노래를 들으면서 잘 자라.
정리	1) 주제 면에서는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이 유사함. 2)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원곡』과 『標準』 노랫말은 매우 유사하나, 『해방중등』 노랫말은 이 두 노랫말과 다름. 『원곡』과 『標準』 노랫말은 온갖 생명체들이 다 자고 있으며 자고 일어나면 장난감 등이 기다린다며 아기를 재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해방중등』 노랫말은 엄마의 품에서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자라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 『원곡』 및 『標準』 노랫말과 유사점이 거의 없음. 3) 『標準』 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해방중등』 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65〉 3 - 4

	『원곡』 〈Эй ухнем(Song of the Volga Boatman)〉	『標準』 〈ヴォルガの舟歌 (1)〉	『해방중등』 〈볼가의 배ㅅ노래(1), (12)〉, 〈볼가의 뱃노래(10), (20)〉, 〈볼카(가)의 뱃노래(15)〉
주제	볼가강 뱃사람의 노동	배를 힘껏 끌어라.	바다의 보배를 낚으러 배 저어 바다로 가자.
주요 소재	볼가강, 자작나무, 밧줄	밧줄, 배	닻, 돛, 바다의 보배, 배
내용	볼가강은 넓고 깊은 어머니의 강. 밧줄을 끌어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더. 밧줄을 묶어라.	밧줄을 힘껏 끌어라. 배가 움직인다. 끌어라, 힘껏.	닻 감아라, 돛 달아라. 바다의 보배 낚으러 가자. 배를 저어라.
정리	1) 주제 면에서 『원곡』과 『標準』노랫말은 유사하나, 『해방중등』노랫말은 다름. 2) 『원곡』과 『標準』노랫말은 볼가강 뱃사람들이 협력하여 함께 '배를 끌자'는 노동요적 특징을 지닌 내용인 데에 반해, 『해방중등』노랫말은 협력하여 '배를 띄워 바다의 보배를 낚으러 바다로 가자'는 내용임. 따라서 『원곡』, 『標準』, 『해방중등』이 제목은 거의 동일하나 특히 주제와 내용 면에서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 및 『標準』노랫말과 다름. 3) 『標準』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66〉 3 - 5

	『원곡』 〈O Sole mio〉	『標準』 〈我が太陽(4)〉	『해방중등』 〈봄의 세레나데 (3)〉
주제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사랑	봄의 아름다운 자연 찬양
주요 소재	햇빛, 폭풍우, 또 하나의 태양, 창문, 세탁부, 저녁	태양의 빛, 폭풍, 햇빛, 미소 띤 연인의 얼굴, 밤, 휴식하는 나의 태양	봄빛, 잔디밭, 수선화, 시냇가 언덕, 햇빛, 노래, 하늘 영광 빛, 흰눈, 겨울철, 동산, 고운 새, 봄철
내용	햇빛 비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폭풍우 지나고 공기도 신선하네. 또 하나의 태양, 더 아름다워. 나만의 태양, 그대의 얼굴이네. 그대의 얼굴은 나의 햇빛. 그대의 세탁부가 옷을 짜 널을 때면 그대의 창문이 환히 빛난다고 노래를 하지. 저녁이 되면 해는 져서 나는 외로와지지. 나는 그대의 창문 아래에서 기다리리라.	아름다운 아침 햇빛, 내 연인의 얼굴이 희망으로 빛나네. 태양은 기울어지고 날 저물면 잠시 휴식하는 나의 태양. 사랑 가득한 얼굴의 미소여.	봄빛 오면 수선화 웃고, 시냇가 언덕에 빛 내려. 햇빛 내 맘 비추면 즐거운 노래 우러나. 겨울철 가면 어여쁜 동산 잠을 깨고 고운 새 노래하네. 하늘 영광 빛 내 맘 비추네.
정리	1) 주제 면에서 『원곡』과 『標準』노랫말은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사랑으로 동일하나, 『해방중등』노랫말은 전혀 다름. 2) 내용 면에서 『원곡』과 『標準』노랫말은 연인을 태양에 비유한 점 그리고 그 태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점에서 동일함. 『해방중등』노랫말에서도 『원곡』과 『標準』노랫말의 주요 소재인 '햇빛'은 나타나지만, 『해방중등』노랫말에서는 햇빛이 연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봄철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일 뿐임. 3) 『標準』노랫말은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해방중등』노랫말은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2.4 유형 4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해방중등』 공통곡조 관련곡 총 159곡 중 22곡 해당. 공통곡조 9개)

1. 『원곡』<comin' thro' the rye> -『標準』<故郷の空(6)> -『해방중등』<가을 하늘(8)>
2. 『원곡』<Funiculi Funicula> -『標準』<山のうた(3)> -『해방중등』<준령을 넘어(1), (10)>
3. 『원곡』<Long, long ago> -『標準』<故郷の追憶 (1), (6)> -『해방중등』<고향의 추억(18)>
4. 『원곡』<Der Letzte Abend> -『標準』<故郷さらば> -『해방중등』<잘 있거라 내 고향(14)>
5. 『원곡』<Der Letzte Abend> -『標準』<故郷さらば> -『해방중등』<잘 있거라 내 고향(20)>
6. 『원곡』<Kuckucks Walzer> -『標準』<郭公ワルツ(2)> -『해방중등』<쿠쿠월쓰(1)>, <쿠쿠월츠(10)>, <쿠쿠-월쓰(12)>, <쿠쿠 왈쓰(13)>
7. 『원곡』<Kuckucks Walzer> -『標準』<郭公ワルツ(2)> -『해방중등』<뻐꾹 월스(4)>
8. 『원곡』<Ode to Joy> -『標準』<地上の歡喜(‘제9교향곡’より(3)> -『해방중등』<환희의 송가(1), (9), (10), (12)>
9. 『원곡』<Barcarolle> -『標準』<欵乃の調(4)> -『해방중등』<뱃노래(8)>
10. 『원곡』<Madchëns Wunsch> -『標準』<少女の夢(3)> -『해방중등』<소녀의 꿈(3)>
11. 『원곡』<Going Home> -『標準』<ふろさとの夢 (4)> -『해방중등』<꿈속의 고향 (1), (9), (10), (16), (17)>

<표 Ⅳ-67> 유형 4

	『원곡』	『標準』	『해방중등』
4-1	<comin' thro' the rye>	<故郷の空(6)>	<가을 하늘(8)>
4-2	<Funiculi Funicula>	<山のうた(3)>	<준령을 넘어(1), (10)>
4-3	<Long, long ago>	<故郷の追憶 (1), (6)>	<고향의 추억(18)>

4-4	〈Der Letzte Abend〉	〈故郷さらば〉	〈잘 있거라 내 고향(14)〉
4-5	〈Der Letzte Abend〉	〈故郷さらば〉	〈잘 있거라 내 고향(20)〉
4-6	〈Kuckucks Walzer〉	〈郭公ワルツ(2)〉	〈쿠쿠월쓰(1)〉, 〈쿠쿠월츠(10)〉, 〈쿠쿠-월쓰(12)〉, 〈쿠쿠 왈쓰(13)〉
4-7	〈Kuckucks Walzer〉	〈郭公ワルツ(2)〉	〈뻐꾹 월스(4)〉
4-8	〈Ode to Joy〉	〈地上の歡喜(‘제9교향곡’より(3)〉	〈환희의 송가(1), (9), (10), (12)〉
4-9	〈Barcarolle〉	〈欵乃の調(4)〉	〈뱃노래(8)〉
4-10	〈Mädchens Wunsch〉	〈少女の夢(3)〉	〈소녀의 꿈(3)〉
4-11	〈Going Home〉	〈ふろさとの夢 (4)〉	〈꿈속의 고향 (1), (9), (10), (16), (17)〉

〈표 Ⅳ-68〉 4 - 1

	『원곡』 〈comin’ thro’ the rye〉	『標準』 〈故郷の空(6)〉	『해방중등』 〈가을 하늘(8)〉
주제	청춘남녀의 애정 행각	찾아온 가을에 그리워지는 고향의 자연과 부모 형제	가을의 풍경과 고향의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
주요 소재	호밀밭, 키스, 미소, 교외, 인사, 이름	가을의 저녁 하늘, 바람, 달그림자, 귀뚜라미, 고향의 하늘, 부모님, 물, 이슬, 억새, 고향 들판, 형제	가을 하늘, 바람, 구름, 가을밤, 기러기, 풀벌레 소리, 부모 형제
내용	총각이 호밀밭, 교외에서 마주친 처녀에게 키스하고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울거나 찡그리겠지만, 누구든 총각을 사귀네. 처녀도 열차에서 사랑하는 총각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네. 모든 총각이 나(처녀 입장)이 나에게 미소 짓고 사랑하니 어떻게 하랴.	가을 저녁,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불고 귀뚜라미 울고 물은 맑아졌는데, 부모님과 형제는 어떻게 지내는가.	가을 하늘은 청명, 바람도 시원해. 가을밤에 기러기 울고 풀벌레 소리 처량한데, 시골 부모 형제의 소식이 궁금하네.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나, 『원곡』 노랫말은 다름. 2)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공히 가을에 그리워지는 부모 형제를 주제이며 주요 소재와 내용도 매우 유사함. 이에 반하여 『원곡』 노랫말은 청춘남녀의 애정 행각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標準』 및 『해방중등』노랫말의 주제와는 거의 유사점이 없음. 3) 『원곡』의 작곡 시기와 교과서의 발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노랫말은 『원곡』 -> 『標準』 -> 『해방중등』의 순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標準』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노랫말은 『標準』노랫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69〉 4 - 2

	『원곡』 〈Funiculi Funicula〉	『標準』 〈山のうた(3)〉	『해방중등』 〈준령을 넘어(1), (10)〉
주제	케이블카 타고 산을 오르는 긴장감과 즐거움	산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자	산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자
주요 소재	케이블카, 산꼭대기, 프랑스, 프로시다, 스페인	산 메아리, 뒷산, 숲의 메아리, 작은 새의 소리, 산바람	준령, 산울림 소리, 동무 소리, 작은 새 소리, 산바람
내용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네. 가세 저 꼭대기를 향해. 이 낮은 곳에서 저 산까지 함께 오르세. 프랑스, 프로시다, 스페인도 보이네. 빨리 오르세. 케이블카가 정상에 올랐지만 다시 돌아서 내려가네.	산의 노래는 즐거워. 멀리 울리는 산 메아리. 목소리를 모아 산의 노래를 불러라. 산의 노래는 기뻐. 나무에 부는 산바람 살랑살랑. 새들도 나무들도 부르네, 산의 노래.	노래는 즐거워. 울려가는 산울림 소리, 동무 소리. 소리 모두어 노래하자. 작은 새 소리 아름답고 산바람은 선들선들. 소리 모두어 부르는 노래 즐거워.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나, 『원곡』 노랫말은 다름. 2)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공히 '산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자'는 주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도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원곡』 노랫말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면서 느끼는 감흥, 긴장감, 즐거움을 내용으로 하므로, 산울림, 새의 소리, 산바람 등이 부르는 산의 노래를 내용으로 하는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과는 다름. 3) 『標準』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노랫말은 『標準』노랫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70〉 4 - 3

	『원곡』 〈Long, long ago〉	『標準』 〈故郷の追憶 (1), (6)〉	『해방중등』 〈고향의 추억(18)〉
주제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연인과의 젊은 시절 즐거운 일들을 회상.	고향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	고향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
주요 소재	젊은 시절 연인과의 즐거운 기억들	백운, 높은 고개, 뒷산, 저녁놀, 계곡 개울.(산과 개울을 아버지, 어머니로 비유)	봉우리, 뒷동산, 저녁놀, 언덕, 시냇물, 계곡(소리).(산과 시냇물을 아버지, 어머니로 비유)
내용	소중했던 옛이야기, 노래를 다시 들려주오. 그대가 예전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해주오. 우리 만나던 길, 나의 미소를 좋아했던 그대, 그대가 들려준 칭찬 모두 나는 간직하고 있소. 그대 없이 보낸 세월이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었지.	나를 맞아주던 높은 고개는 고향의 아버지, 추억이 깃든 개울은 고향의 어머니. 높은 고개와 개울이 있는 내 고향 산천이 그리워.	그리운 뒷동산은 내 마음의 아버지, 추억의 계곡 소린 내 마음의 어머니. 고향 산은 아버지, 시냇물은 어머니가 있는 나의 고향 산천 그리워.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나, 『원곡』 노랫말은 다름. 2)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공히 '고향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나, 이와 달리 『원곡』은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연인과의 젊은 시절 즐거운 일들 회상을 주제로 하므로 유사점이 거의 없음. 이에 따라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주요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음. 3) 『標準』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노랫말은 『標準』노랫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71〉 4 - 4 / 4 - 5

	『원곡』 〈Der Letzte Abend〉	『標準』 〈故郷さらば〉	『해방중등』 〈잘 있거라 내 고향(14)〉
주제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 고향을 떠나기 싫은 마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
주요 소재	고향을 떠나기 전날 밤, 떠나라는 어머니, 떠나고 싶지 않은 아들	백합, 장미, 벌레 소리, 숲속 새, 바람, 고향에 작별인사	백합, 파랭이꽃, 봉선화, 언덕, 연못, 산, 숲, 산새, 황혼
내용	내일이면 돈을 벌러 고향을 떠나야 하네.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들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 고향에 남고 싶네.	고향의 꽃들, 벌레 소리, 숲속 새, 바람아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잘 있어라.	고향의 꽃들, 언덕, 연못, 산, 숲, 산새들아 잘 있어라.
			『해방중등』 〈잘 있거라 내 고향(21)〉
주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
주요 소재			백합, 고향에 작별 인사, 시내가, 낚시하던 추억
내용			고향의 꽃, 낚시하던 시냇가를 두고 떠나는 내 마음 슬프다. 잘 있어라.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 노랫말과 『해방중등』 〈잘 있거라 내 고향(14)〉 노랫말은 유사하나, 『원곡』 노랫말은 다름. 2)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공히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주제로 하며, '고향의 자연'과 헤어져야 함을 안타까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원곡』은 화자가 헤어지기 싫은 대상이 고향의 자연이 아닌 '연인'이므로 『標準』 및 『해방중등』 노랫말과 다름. 3) 『해방중등』 〈잘 있거라 내 고향(21)〉 노랫말은 『해방중등』 〈잘 있거라 내 고향(14)〉 노랫말과 동일한 주제로 되어 있음. 주요 소재나 내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4) 『標準』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 노랫말은 『標準』 노랫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72〉 4 - 6 / 4 - 7

15-1 유형 5

	『원곡』 〈Kuckucks Walzer〉	『標準』 〈郭公ワルツ(2)〉	『해방중등』 〈쿠쿠월쓰(1)〉, 〈쿠쿠월츠(10)〉, 〈쿠쿠-월쓰(12)〉, 〈쿠쿠 왈쓰(13)〉
주제	숲에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	옛날부터 변함없는 뻐꾸기의 노래	옛날부터 변함없는 뻐꾸기의 노래
주요 소재	숲, 산마루, 석양, 메아리	5월 하늘에 울려 퍼지는 뻐꾸기 소리	늦은 봄 하늘 들려오는 뻐꾸기의 노래
내용	푸른 숲에서 우네, 은은하게 들리네, 먼 산까지 울리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둥지를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것. 멀리 숲에서 부르는 소리. 화창한 산마루 위에서, 석양의 적막에서 메아리로 돌아오네. 고요 속에서 행복을 전하네.	5월 하늘 평화롭게 울리는 뻐꾸기 소리, 봄을 환영하네.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그 노래.	은은하게 가냘프게 아름다운 뻐꾸기 노래가 들리네. 옛날부터 변함없는 그 소리 그 윽해.
			『해방중등』 〈뻐꾹 월스(4)〉
주제			옛날부터 변함없는 뻐꾸기의 노래
주요 소재			봄철마다 찾아오는 뻐꾸기의 구슬픈 노래
내용			깊은 산골 속에서 구슬픈 뻐꾸기 소리. 봄철이 돌아올 때면 구슬픈 네 노래 들리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이 모두 뻐꾸기 소리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음. 2)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쿠쿠월쓰(1)〉, 〈쿠쿠월츠(10)〉, 〈쿠쿠-월쓰(12)〉, 〈쿠쿠 왈쓰(13)〉 노랫		

	말은 유사하나, 『원곡』 노랫말은 다름. 『원곡』 노랫말은 뻐꾸기 소리가 '숲에서 어떻게 들려 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나,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시간이 지나도 '봄철이 되면 변함 없이 들리는' 뻐꾸기 소리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3) 『해방중등』 〈뻐꾹 월스(4)〉 노랫말은 『해방중등』〈쿠쿠월쓰(1)〉, 〈쿠쿠월츠(10)〉, 〈쿠쿠-월쓰(12)〉, 〈쿠쿠 왈쓰(13)〉 노랫말과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4) 『標準』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노랫말은 『標準』노랫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73〉 4 - 8

	『원곡』 〈Ode to Joy〉	『標準』 〈地上の歡喜(‘제9교향곡’より(3)〉	『해방중등』 〈환희의 송가(1), (9), (10), (12)〉
주제	환희, 인류애	신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창조자의 영광과 이 땅 위의 환희를 찬양하라
주요 소재	기쁨, 만민, 형제, 자연, 신, 신의 태양, 천상의 계획, 창조주, 천상 세계	신, 목초, 나무의 싹, 새싹, 새와 벌레, 생명, 선미한 세상	창조자, 초목, 나무 순, 꽃봉우리, 낙원, 새와 짐승, 땅 위의 환희
내용	모든 만민이 신의 날개가 깃든 곳에서 한 형제 되리. 만물이여 기쁨을 맛볼지어다. 신의 태양들이 천상의 거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네. 만민들이여, 서로 포옹하라. 온 세계를 향해 키스를 보내라. 천상에 오른 형제들은 창조자를 뵈올지라.	자연의 순환을 보아라. 신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찬양하네. 찬양하라 지상의 환희. 선미(善美)한 이 세상.	자연의 순환에 창조자의 영광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들 끊임없이 찬양하네. 이 땅 위의 환희를 찬양하라. 착하고 아름답게 살자.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나, 『원곡』 노랫말은 다름. 2) 주제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신(창조자)과 신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것이나, 『원곡』 노랫말은 ‘인류 만민이 형제 되는 환희, 인류애’에 있기 때문임. 『원곡』 노랫말에 창조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나,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에서의 창조자처럼 자연의 순환,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할 존재로 표현되진 않음. 3)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도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매우 유사하나, 이 둘과 『원곡』 노랫말은 다름. 4) 『標準』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노랫말은 『標準』노랫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74〉 4 - 9

	『원곡』 〈Barcarolle〉	『標準』 〈欵乃の調(4)〉	『해방중등』 〈뱃노래(8)〉
주제	열정적인 사랑의 밤을 보내자	고요한 밤바다 풍경	고요한 밤바다 풍경
주요 소재	사랑의 밤, 키스, 미소, 기쁨	밤바다, 노 젓는 소리, 달, 우라시마산, 산 위 소나무, 구름, 사공의 노랫소리, 물결	저녁, 별, 멀리서 들리는 노랫소리, 바람
내용	사랑의 밤. 밤은 낮보다 훨씬 달콤해. 사랑의 아름다운 밤. 시간은 빨리 지나가 버리니 아껴라. 사랑의 밤이여.	고요한 밤바다, 달은 기울었고 구름은 파도와 같네. 고운 풍경 속 사공의 노랫소리 물결에 떠도네.	별 비친 이 저녁 황홀하고 고요해. 멀리서 노랫소리 들려오네. 부는 바람에 별 반짝이네.
정리	1) 주제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동일하나 『원곡』 노랫말은 전혀 다름. 2)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고요한 밤바다 풍경을 주제로 하며, 주요 소재가 (사공의) 그 풍경 속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라는 점에서 유사함.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 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요한' 분위기인 점 그리고 『標準』 노랫말의 '달'과 『해방중등』 노랫말의 '별', '물결'과 '바다에 부는 바람' 사이에서 유사성이 발견됨. 3) 『원곡』은 남녀 간 열정적인 사랑의 밤을 보내자는 주제와 이와 관련된 소재와 내용으로 되어 있어, 『標準』 및 『해방중등』 노랫말과는 유사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4) 『標準』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 노랫말은 『標準』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標準』 노랫말에 나타나는 우라시마산과 산 위 소나무 등의 소재는 『해방중등』의 『標準』 노랫말 번역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임.	

〈표 Ⅳ-75〉 4 - 10

	『원곡』 〈Madchëns Wunsch〉	『標準』 〈少女の夢(3)〉	『해방중등』 〈소녀의 꿈(3)〉
주제	단 한 사람을 향한 소녀의 사랑	순수하고 환상적인 소녀의 꿈	순수한 소녀의 호기심과 설렘
주요 소재	태양, 빛, 그대의 창문, 작은 새, 노래	물(바다), 산호, 화원, 나비 날개	소녀의 호기심 어린 모습
내용	내가 하늘 위 태양이라면 단 하나의 존재만을 위해 빛을 비추고, 노래하는 작은 새라면 단 하나의 존재를 위해 내 노래를 부르리.	에메랄드빛 물 밑에서 산호를 꺾을까, 먼 남쪽 나라 화원에서 나비 날개 타고 날아볼까 하는 소녀의 꿈	세상을 궁금해하는 순수한 소녀. 가슴은 뛰고 손은 떨린다. 소녀에게 세상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
정리	1) 주제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유사함. 2) 주요 소재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소녀의 설렘과 꿈'을 담고 있는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標準』 노랫말에서의 '에메랄드 빛 물 밑'과 '먼 남쪽 나라 화원'이 『해방중등』 노랫말에서는 '아름다운 세상', 『標準』 노랫말에서의 '무지개빛 나비의 날개 (올라)타고 날개짓 해볼까'가 『해방중등』 노랫말의 '나는 나러갈내요(날아갈래요)... 아름다운 곳 차저갈내요(찾아 갈래요)'로 변형되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원곡』 노랫말은 단 한 사람을 향한 소녀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도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과는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5) 『標準』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에 작사된 것이며, 『해방중등』 노랫말은 『標準』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76〉 4 - 11

	『원곡』 〈Going Home〉	『標準』 〈ふろさとの夢 (4)〉	『해방중등』 〈꿈속의 고향 (1), (9), (10), (16), (17)〉
주제	집(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느끼는 설렘과 기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주요 소재	집, 부모, 친구, 새벽 별, 그림자, 휴식	꿈, 고향, 친구, 강가, 반딧불, 산천, 묘성, 휴식, 깨진 창문, 그늘	꿈, 고향, 동무, 개천, 반딧불, 산과 바다, 별, 안식처, 낡은 창문, 그늘
내용	나 집으로 가네, 머지 않았네. 모든 일은 끝났고, 근심도 두려움도 이젠 없네. 부모, 친지, 친구 모두 나를 기다리네. 초조함도 아픔도 넘어짐도 기다림도 떠도는 일도 이젠 없네. 새벽 별 길을 밝혀 불안하던 꿈도 그림자들도 사라지고 날은 밝아오네. 진짜 삶이 시작되었네. 휴식도 끝도 없이 삶은 계속되니, 미소 지으며 깨어일어나, 계속 나아가네.	꿈속 즐거운 고향 옛날 그대로의 모습. 지금은 사라진 친구 흐름 맑은 강가에(로) 반딧불 찾아서 놀았네. 꿈속 즐거운 고향 즐거운 고향의 꿈 산천들을(몇몇) 지나도 여전히 나의 진심이여 묘성이 빛나면 편안한 휴식 찾는다고 밤마다 찾아가는 고향 깨진 창문 아아 창가가 어딘가에 마음 붙일 그늘이 있으리라. 내 마음의 고향이여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옛 터전 그대로 향기도 높아 지금은 사라진 동무들 모여 옥 같은 시냇물 계(개)천을 넘어 반딧불 좇아서 즐기었건만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그리운 고향의 꿈 산을 넘어 바다 건너 아득하건만 아직도 어린 마음씨여 창천에선 별들이 반짝일 때면 영혼의 안식처 찾아 헤매네 밤마다 그리는 그리운 고향 낡아진 창문아 창 그늘 아니면 어느 곳에나 이 마음 붙일 곳 어디메이뇨 내 마음의 고향이여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나, 『원곡』 노랫말은 다름. 2) 주제 면에서 『원곡』, 『標準』, 『해방중등』의 노랫말이 집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움. 그러나 『標準』과 『해방중등』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 데에 반하여, 『원곡』 노랫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느낀 감정 즉 설렘과 기쁨을 주제로 하는 점에서 상이함. 3) 주요 소재 면에서도 『원곡』에서의 ‘친구’, ‘별’이 『標準』과 『해방중등』의 노랫말에서도 발견되긴 하나, 소재의 의미에서 차이를 보임. 예컨대, 『원곡』에서의 ‘친구’는 ‘나를 기다리는’ 친구이나, 『標準』과 『해방중등』에서의 ‘친구’는 ‘지금은 사라진’ 친구임. 4)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유사성을 지니나, 이 둘과 『원곡』 노랫말은 상이함. 『원곡』 노랫말은 집을 떠나 떠돌며 힘들었던 삶을 끝내고 다시 집(고향)으로 돌아가는 화자의 심정을 내용으로 하나, 『標準』과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아직도 집을 떠나 떠돌고 있는 화자가 꿈속에서나마 그리운 고향을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5) 『標準』노랫말은 『원곡』의 노랫말을 참고하여 작사된 것으로 보이며, 『해방중등』노랫말은 『標準』노랫말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음.		

2.2.5 유형 5 (『원곡』 ≒『標準』 ≒ 『해방중등』)

(『해방중등』 공통곡조 관련곡 총 159곡 중 15곡 해당. 공통곡조 10개)

1. 『원곡』<comin' thro' the rye> -『標準』<故郷の空 (6)> -『해방중등』<글공부(16), (17)>
2. 『원곡』<St. Petersburg> -『標準』<あけぼの(1)> -『해방중등』<가을(15), 가을(26)>
3. 『원곡』<O du lieber Augustin> -『標準』<秋の山樂(6)> -『해방중등』<풍년(8)>
4. 『원곡』<Chor der Jäger> -『標準』<獵人の合唱(3)> -『해방중등』<사냥군의 노래(2)>
5. 『원곡』<La donna e mobile> -『標準』<海邊の眺望(3)> -『해방중등』<여름의 바다(8)>
6. 『원곡』<Heidenröslein (베르너)> -『標準』<花鳥(4)> -『해방중등』<들장미(20)>
7. 『원곡』<Heidenröslein (베르너)> -『標準』<花鳥(4)> -『해방중등』<월계꽃(14)>
8. 『원곡』<Ode to Joy> -『標準』<地上の歡喜(‘第九交響曲’より(3)> -『해방중등』<보금자리(9)>
9. 『원곡』<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標準』<虫に寄せて(2)> -『해방중등』<동무(16), (17)>
10. 『원곡』<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標準』<虫に寄せて(2)> -『해방중등』<나의 동무(12)>
11. 『원곡』<Der Letzte Abend> -『標準』<故郷さらば> -『해방중등』<잘 있거라 내 고향(12)>
12. 『원곡』<Степа́н Ра́зин(Stenka Razin)> -『標準』<すみれ(2)> -『해방중등』<봄바람(4)>

<표 IV-77> 유형 5

	『원곡』	『標準』	『해방중등』
5-1	<comin' thro' the rye>	<故郷の空 (6)>	<글공부(16), (17)>

5-2	〈St. Petersburg〉	〈あけぼの(1)〉	〈가을(15), 가을(26)〉
5-3	〈O du lieber Augustin〉	〈秋の山樂(6)〉	〈풍년(8)〉
5-4	〈Chor der Jäger〉	〈獵人の合唱(3)〉	〈사냥군의 노래(2)〉
5-5	〈La donna e mobile〉	〈海邊の眺望(3)〉	〈여름의 바다(8)〉
5-6	〈Heidenröslein (베)〉	〈花鳥(4)〉	〈들장미(20)〉
5-7	〈Heidenröslein (베)〉	〈花鳥(4)〉	〈월계꽃(14)〉
5-8	〈Ode to Joy〉	〈地上の歡喜(‘第九交響曲’より(3)〉	〈보금자리(9)〉
5-9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虫に寄せて(2)〉	〈동무(16), (17)〉
5-10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虫に寄せて(2)〉	〈나의 동무(12)〉
5-11	〈Der Letzte Abend〉	〈故鄕さらば〉	〈잘 있거라 내 고향(12)〉
5-12	〈Степа́н Ра́зин (Stenka Razin)〉	〈すみれ(2)〉	〈봄바람(4)〉

〈표 Ⅳ-78〉 5 - 1

	『원곡』 〈comin' thro' the rye〉	『標準』 〈故郷の空 (6)〉	『해방중등』 〈글공부(16),(17)〉
주제	청춘남녀의 애정 행각	찾아온 가을에 그리워지는 고향의 자연과 부모 형제	열심히 공부하자.
주요 소재	호밀밭, 키스, 미소, 교외, 인사, 이름	가을의 저녁 하늘, 바람, 달그림자, 귀뚜라미, 고향의 하늘, 부모님, 물, 이슬, 억새, 고향 들판, 형제	공부의 어려움, 공부 독려
내용	총각이 호밀밭, 교외에서 마주친 처녀에게 키스하고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울거나 찡그리겠지만, 누구든 총각을 사귀네. 처녀도 열차에서 사랑하는 총각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네. 모든 총각이 나(처녀 입장)이 나에게 미소 짓고 사랑하니 어떻게 하랴.	가을 저녁,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불고 귀뚜라미 울고 물은 맑아졌는데, 부모님과 형제는 어떻게 지내는가.	공부하기 힘들다고 화내지 말고, 공부 시간 적다고 한숨 쉬지 말고, 마음먹고 정신 차려 힘써 공부하자.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이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만 보더라도, 『원곡』은 '청춘남녀의 애정 행각', 『標準』은 '가을이 되어 그리워지는 고향의 자연과 부모 형제', 『해방중등』은 '열심히 공부하자' 이므로 이 주제에 따른 주요 소재와 내용에서 서로 유사점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음. 3)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IV-79> 5 - 2

	『원곡』 <St. Petersburg>	『標準』 <あけぼの(1)>	『해방중등』 <가을(15), 가을(23)>
주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양	새벽 풍경	가을의 자연 속에서 벗을 그리워함
주요 소재	감사한 마음, 찬양 노래, 진리와 은혜, 구원, 용기, 영광 보좌, 긍휼, 원수, 자비	강 안개, 동쪽 별, 산에 낀 구름, 새들	가을바람, 가랑잎, 떠난 벗, 기러기 떼 울음소리
내용	진리와 은혜를 베푸신 주님 찬양. 내가 주님께 아뢸 때 나를 구원하셨네. 온유한 자들에 긍휼을 베푸시네. 원수들이 에워쌀 때 나를 구원하시네.	안개 낀 강 여울가. 별 하나 동쪽에서 빛난다. 하루의 조용한 시작. 새들도 분주한 새벽.	가을바람과 가랑잎에 떠난 벗이 그립다. 다정한 기러기 떼 울음소리 구슬퍼. 나의 벗 좇아 가고파.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이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만 보더라도, 『원곡』은 기독교 찬송가의 노랫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양', 『標準』은 '새벽 풍경', 『해방중등』은 '가을의 자연 속에서 벗을 그리워함'이므로 이 주제에 따른 주요 소재와 내용에서 서로 유사점이 거의 없음. 3)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IV-80> 5 - 3

	『원곡』 <O du lieber Augustin>	『標準』 <秋の山樂(6)>	『해방중등』 <풍년(8)>
주제	불쌍한 어거스틴, 그리고 역병으로 비참한 현실	가을의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하루	가을날 풍년을 기뻐함
주요 소재	모든 것을 잃은 어거스틴, 역병	억새 들판, 싸리 언덕, 고추잠자리, 들국화 핀 골짜기, 칡이 있는 바위, 단풍 고개	바람에 물결치는 오곡, 허수아비, 햇빛, 방아 찧는 소리, 풍년가, 수수 낟가리
내용	모두 잃은 불쌍한 어거스틴. 부자들의 도시 비엔나에도 어거스틴 같은 거지가 많지. 매일이 잔치였지만 지금은 역병 때문에 시신의 잔치 같네.	이 가을 억새 들판, 싸리 언덕, 고추잠자리 나는 들판, 들국화 핀 골짜기, 칡이 있는 바위, 단풍 고개에서 쉬어라, 놀아라, 노래하라.	가을날 풍년을 맞은 오곡은 바람에 물결치고, 밤엔 방아 찧는 소리만 요란하네. 온 동네에서 기쁜 풍년가 소리 높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이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만 보더라도, 『원곡』은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역병으로 비참한 현실', 『標準』은 '가을의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하루', 『해방중등』은 '가을날 풍년을 기뻐함'이므로 서로 다름. 3) 『標準』에서 가을의 여유로운 자연 풍경을, 『해방중등』에서 가을의 풍년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標準』에서는 『해방중등』의 중심 내용인 '풍년'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4)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IV-81> 5 - 4

	『원곡』 <Chor der Jäger>	『標準』 <獵人の合唱(3)>	『해방중등』 <사냥군의 노래(2)>
주제	사냥의 즐거움	사냥의 즐거움	눈 오는 날의 사냥
주요 소재	뿔 나팔, 숫사슴, 숲과 연못, 남자의 즐거움, 사지, 입맛, 나무, 바위, 술잔, 다이아나, 피로, 농작물, 수컷 멧돼지	안장, 말발굽 소리, 사냥 도구, 팔 힘, 사냥감, 지는 해, 등불	눈, 산속, 짐승 쫓는 소리, 골짜기, 사냥개, 총 놓는 소리
내용	사냥의 즐거움 비할 데 없네. 숲속에서 나팔 소리 울리면 숫사슴 쫓아 달리네. 진짜 사내들의 즐거움이지. 농작물을 헤치는 산돼지를 잡고 나면 왕자가 된 기분.	사냥 도구 메고 친구와 단련한 팔 힘을 겨루어보네. 사냥감은 산과 들에 가득. 지는 해에 아쉬움을 남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사냥 이야기를 나누느라 즐거워. 등불(집)이 보이니 설레는 마음.	눈 쌓인 산속에 찾아 들어가 보니 짐승 쫓는 소리 멀리서 들리네. 눈이 쌓여 길도 없는 골짜기, 사냥개는 요란히 떠들고 총 놓는 소리 산중을 울리네.
정리	1) 『원곡』과 『標準』은 사냥의 즐거움을 주제로 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해방중등』은 '눈 오는 날의' 사냥을 주제로 하는 점에서 『원곡』 및 『標準』과 다름. 2) 『원곡』과 『標準』이 주제 면에서 유사하긴 하나,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는 다름. 『원곡』은 사냥하는 즐거움, 농작물을 해치는 멧돼지를 잡는 것이 진짜 남자의 즐거움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 『標準』은 사냥을 나서서 친구와 힘을 겨루는 일도 해가 질 때 집에 돌아가는 길도 즐겁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공히 사냥의 즐거움을 주제로 하나 주요 소재와 내용은 다름. 3) 『해방중등』은 눈 쌓인 산속, 눈이 쌓여 길도 없는 골짜기 등 눈 오는 날의 사냥 모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곡』과 『標準』과는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82〉 5 - 5

	『원곡』 〈La donna e mobile〉	『標準』 〈海邊の眺望(3)〉	『해방중등』 〈여름의 바다(8)〉
주제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	바닷가의 일출과 일몰	여름 바다에서 배 타기
주요 소재	예쁜 얼굴, 거짓말, 경솔한 남자, 바람 앞의 깃털	붉은 하늘과 바다, 일출, 우는 닭, 황금빛 물과 하늘, 일몰, 새들, 구름 색	여름 바다, 달리는 배, 바람, 섬
내용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 예쁜 얼굴로 울고 웃으며 거짓말을 하네. 그녀를 신뢰하는 남자는 경솔한 인간. 여자는 변화무쌍하네.	일출의 붉은 하늘과 바다, 고요하고 장엄한 시간. 일몰의 황금빛 물과 하늘, 분주한 시간.	여름 바다를 빠르게 달리는 우리 배.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러 섬을 지나 목적지로 향하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만 보더라도, 『원곡』은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 『標準』은 '바닷가의 동트는 풍경', 『해방중등』은 '여름 바다에서 배 타기'이므로 서로 다름. 『標準』과 『해방중등』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標準』은 일출과 일몰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해방중등』은 여름 바다를 빠르게 달리는 배에서 맞는 바람의 시원함 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3)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83〉 5 - 6

	『원곡』 〈Heidenröslein (베르너)〉	『標準』 〈花鳥(4)〉	『해방중등』 〈들장미(20)〉
주제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꽃들과 새들을 예뻐하라	분홍 들장미의 아름다움
주요 소재	예쁜 들장미를 꺾으려는 소년과 꺾이지 않으려는 들장미	산기슭, 참새, 글, 아이, 꽃, 새, 천지	언덕 숲속, 분홍 들장미, 들가, 바람, 향기
내용	들에 핀 장미를 보고 가까이 간 소년. 장미에게 꺾겠다고 하나 장미는 그러면 소년을 찌르겠다고 했지. 소년은 아랑곳 없이 장미를 꺾었고 장미는 소년의 손을 찔렀지.	일찍 일어나 글을 읽어라. 꽃들과 새들을 예뻐하라. 그 즐거움은 끝이 없네.	언덕 숲속에 피어난 분홍 장미, 아름답게 피어서 홀로 향기를 풍기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만 보아도, 『원곡』은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標準』은 '꽃들과 새들을 예뻐하라', 『해방중등』은 '분홍 들장미의 아름다움'으로 서로 다름. 『원곡』과 『해방중등』이 공히 '들장미'를 주요 소재로 하나, 『원곡』은 들장미와 소년의 갈등이 주 내용이며 『해방중등』은 장미의 아름다움만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다름. 3)『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84〉 5 - 7

	『원곡』 〈Heidenröslein (베르너)〉	『標準』 〈花鳥(4)〉	『해방중등』 〈월계꽃(14)〉
주제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꽃들과 새들을 예뻐하라	월계꽃의 사랑스러움
주요 소재	예쁜 들장미를 꺾으려는 소년과 꺾이지 않으려는 들장미	산기슭, 참새, 글, 아이, 꽃, 새, 천지	월계꽃, 고운 얼굴, 미소
내용	들에 핀 장미를 보고 가까이 간 소년. 장미에게 꺾겠다고 하나 장미는 그러면 소년을 찌르겠다고 했지. 소년은 아랑곳없이 장미를 꺾었고 장미는 소년의 손을 찔렀지.	일찍 일어나 글을 읽어라. 꽃들과 새들을 예뻐하라. 그 즐거움은 끝이 없다.	사랑스러운 월계꽃 품에 안고 어루만져주네. 안고 볼 때 미소를 띄어주는 월계꽃. 항상 품에 안겨라.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전혀 유사하지 않음. 2) 『해방중등』 〈월계꽃(14)〉은 3-1 〈 Heidenröslein 〉을 『원곡』으로 하는 〈월계꽃(1), (9), (10), (12), (20), (22)〉, 〈월게꽃(7)〉의 노랫말과 같음. 3) 주제 면에서만 보아도, 『원곡』은 '들장미와 소년의 다툼', 『標準』은 '꽃들과 새들을 예뻐하라', 『해방중등』은 '월계꽃의 사랑스러움'으로 서로 다름. 주제가 서로 다르므로 주요 소재, 내용도 유사성이 거의 없음. 4)『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85〉 5 - 8

	『원곡』 〈Ode to Joy〉	『標準』 〈地上の歡喜(‘第九交響曲’より(3)〉	『해방중등』 〈보금자리(9)〉
주제	환희, 인류애	신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새에게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숲
주요 소재	기쁨, 만민, 형제, 자연, 신, 신의 태양, 천상의 계획, 창조주, 천상 세계	신, 목초, 나무의 싹, 새싹, 새와 벌레, 생명, 선미한 세상	일몰, 노을, 숲, 가지, 보금자리, 달, 길손, 꿈
내용	모든 만민이 신의 날개가 깃든 곳에서 한 형제 되리. 만물이여 기쁨을 맛볼지어다. 신의 태양들이 천상의 거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네. 만민들이여, 서로 포옹하라. 온 세계를 향해 키스를 보내라. 천상에 오른 형제들은 창조주를 뵈올지라.	자연의 순환을 보아라. 신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찬양하네. 찬양하라 지상의 환희. 선미(善美)한 이 세상.	해 저물 때 보금자리 찾아 드는 새는 좋아라. 고요한 숲이여 길손이 날아들거든 포근한 꿈(보금자리)을 선사하라.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만 보아도, 『원곡』 노랫말은 ‘환희, 인류애’, 『標準』은 ‘신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해방중등』 노랫말은 ‘새에게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숲’으로 서로 다름. 3) 『원곡』과 『標準』 노랫말의 주제를 비교하면, 『원곡』 노랫말의 주제는 ‘인류 만민이 형제 되는 환희, 인류애’에 있음. 그러나 『標準』 노랫말은 주제가 ‘신이 하신 일 찬양’ 즉 신이 창조하신 세상아, 세상을 창조하신 신 찬양에 있기 때문에 『원곡』 노랫말과 다름. 『해방중등』 노랫말의 주제는 ‘새에게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숲’이기 때문에 『원곡』 노랫말의 주제와도 『標準』 노랫말의 주제와도 다름. 주제가 각각 다르므로 그에 따른 주요 소재와 내용도 다름. 4)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86〉 5 - 9 / 5 - 10

	『원곡』〈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標準』 〈虫に寄せて(2)〉	『해방중등』 〈동무(16), (17)〉
주제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여인	죽은 친구를 그리워함	고향에 두고 온 친구를 그리워함
주요 소재	미풍, 그녀의 목소리, 한밤의 바다, 꿈속에서 본 그녀의 미소, 사막, 성탄 파도	비뚤어진 소나무 가지, 보름날 다음 날, 죽은 친구, 벌레 소리	강물, 작은 배, 손, 맹세, 객지, 글공부, 세월, 깊은 우정
내용	못 만난 지 여러 해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녀. 미풍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고 한밤에 바다에서 그녀의 미소 띤 얼굴이 보이네. 꿈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를 보네. 나는	달이 뜬 하늘 달에서 울려 퍼지는 벌레 소리. 억새에 맺힌 이슬 헤치며 벌레 소리 따라갔던 친구는 죽고, 나는 떨어져 흐르는 이슬에 눈물 흘리네.	동무와 헤어진 지 삼 년이 흐른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동무야. 나는 홀로 객지에서 글공부 바쁘나, 함께 놀던 일이 그리워. 세월은 흘러도 우리 우정은 변치 않으리.
			『해방중등』 〈나의 동무(12)〉
주제			고향에 두고 온 친구를 그리워 함
주요 소재			고향 냇물, 고은 배, 숲길, 손에 손, 꿈, 달, 옛꿈
내용			고향에서 정답게 지내던 친구 그립네. 언제나 만나리. 얼굴 못 보아도 맘과 맘을 비치는 밝은 달이 떠 있으니 맘은 연결되어 있으리.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동무(16), (17)〉 노랫말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기본적으로 주제 면에서 『원곡』 노랫말은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여인', 『標準』 노랫말은 '죽은 친구를 그리워함', 『해방중등』 노랫말은 '고향에 두고 온 친구를 그리워함'으로 서로 다름. 『원곡』 노랫말은 못 만난 지 여러 해 되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와 미소를 잊을 수 없다는 내용, 『標準』 노랫말은 죽은 친구가 그리워 눈물 흘린다는 내용, 『해방중등』 노랫말은 몇 년간 보지 못한 고향에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3) 『해방중등』 〈나의 동무(12)〉 노랫말은 『해방중등』〈동무(16), (17)〉 노랫말과 주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주요 소재나 문장 표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금 친구는 고향에 화자는 객지에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정은 변치 않는다는 내용 면에서 유사도가 높음. 4)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은 모두 화자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화자와 그리운 대상의 관계가 각각 다르므로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소재도 각각 다름. 5)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87〉 5 - 11

	『원곡』 〈Der Letzte Abend〉	『標準』 〈故郷さらば〉	『해방중등』 〈잘 있거라 내 고향(12)〉
주제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 고향을 떠나기 싫은 마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
주요 소재	고향을 떠나기 전날 밤, 떠나라는 어머니, 떠나고 싶지 않은 아들	백합, 장미, 벌레 소리, 숲속 새, 바람, 고향에 작별인사	이별, 새, 미련, 산천, 애상, 봄별, 가을달, 추억, 모래, 해
내용	내일이면 돈을 벌러 고향을 떠나야 하네.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 고향에 남고 싶네.	고향의 꽃들, 벌레 소리, 숲속 새, 바람아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잘 있어라.	어머니와 같은 고향과의 이별 서러워. 어린 새처럼 갈 바를 모르네. 정든 산천아 다시 볼 날을 기다려라. 애상은 한없어. 세월은 지나고 가는 이 길 어딘가. 추억만이 한없어.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 『원곡』 노랫말과 『標準』 및 『해방중등』 노랫말은 차이가 있음. 즉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주제 면에서 유사함. 3)그러나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의 주요 소재와 내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 특히 내용 면에서 『標準』 노랫말은 꽃, 벌레 소리, 새, 바람 등 고향의 자연과 작별 인사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방중등』 노랫말은 갈 바 모르는 새와 같은 처지, 애상, 방황하는 마음, 한없는 추억 등 화자의 심정에 대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4)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Ⅳ-88〉 5 - 12

	『원곡』〈Степа́н Ра́зин (Stenka Razin)〉	『標準』 〈すみれ(2)〉	『해방중등』 〈봄바람(4)〉
주제	돈코샤크 무리의 비난에 정부(情婦)를 바다에 던진 스텐카 라진	세상 영화와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일의 가치	봄의 아름다운 자연
주요 소재	스텐카 라진이 그의 정부를 바다에 던져 죽인 일.	화려한 꽃들, 얌전한 제비꽃	초장, 종달새, 산들바람, 도라지꽃, 봄바람, 꽃
내용	강 가운데로 달려가는 나뭇배들. 선두에는 스텐카 라진이 자신의 '공주(정부)'를 안고 신혼을 축하하며 술 마시며 이야기 하네. 공주는 겁에 질려 듣고 있네. 술 취한 스텐카 라진은 화가 나 볼가강에게 선물을 바치겠다며 공주를 파도 속으로 던졌네.	화려하고 교만한 꽃들이 피고 진 후 이들 꽃들에 아랑곳없이 피는 얌전한 모습의 제비꽃 아름다워.	초장 위 종달새 노래하고 산들바람 불고 도라지꽃 노래해. 도라지꽃 찬양 노리(놀이) 아름답고 봄바람은 꽃 흔드네.
정리	1) 『원곡』,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은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 않음. 2) 주제 면에서 『원곡』 노랫말은 정부를 바다에 던진 스텐카 라진, 『標準』 노랫말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일의 가치, 『해방중등』 노랫말은 봄의 아름다운 자연이므로 서로 유사점이 없음. 3) 주제가 서로 유사점이 없으므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도 유사점이 거의 없음. 4) 『標準』 및 『해방중등』의 노랫말은 차용된 『원곡』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각각 작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2.6 유형 6-1

(『해방중등』총 159곡 중 15곡 해당. 공통곡조 7개)

1. 『標準』<牧人の歌(2)> -『해방중등』<목인의 노래(18)>
2. 『標準』<白百合(2) > -『해방중등』<백백합(6)>, <흰백합(23)>
3. 『標準』<聲(3) > -『해방중등』<노래소리(13)>
4. 『標準』<樂しき農夫(2)> -『해방중등』<즐거운 농부(2), (7), (13)>
5. 『標準』<鶯の歌(1)>, <鶯のうた(6)> -『해방중등』<꾀꼬리(6), (15), (20)>, <꾀꼴새(13), (4)>
6. 『標準』<早春(1)> -『해방중등』<봄바람(18)>
7. 『標準』<森のひびき(4)> -『해방중등』<숲속의 노래(1), (10)>

<표 Ⅳ-89> 유형 6-1

	『標準』	『해방중등』
6-1-1	<牧人の歌(2)>	<목인의 노래(18)>
6-1-2	<白百合(2)>	<백백합(6)>, <흰백합(23)>
6-1-3	<聲(3)>	<노래소리(13)>
6-1-4	<樂しき農夫(2)>	<즐거운 농부(2), (7), (13)>
6-1-5	<鶯の歌(1)>, <鶯のうた(6)>	<꾀꼬리(6), (15), (20)>, <꾀꼴새(13), (4)>
6-1-6	<早春(1)>	<봄바람(18)>
6-1-7	<森のひびき(4)>	<숲속의 노래(1), (10)>

〈표 Ⅳ-90〉 6 - 1 - 1

	『標準』 〈牧人の歌(2)〉	『해방중등』 〈목인의 노래(18)〉
주제	목동들의 즐거운 아침	목동들의 즐거운 아침
주요 소재	아침 달그림자, 소 모는 즐거운 마음, 벌, 보리밭 이삭 물결, 아침 놀, 꽃, 풀, 지빠귀, 종다리	아침 햇살, 풀잎에 맺힌 이슬, 장미꽃, 양떼를 이끄는 즐거운 마음, 녹음방초, 바람, 구름, 목동의 피리 소리
내용	이른 아침부터 소 모는 마음 즐겁네. 벌에도 보리밭 이삭 물결에서도 아침은 느껴지고, 새들도 즐겁게 노래하네.	아침 햇살 동산에 풀잎과 장미꽃 아름답고 양떼를 이끄는 마음 즐거워. 녹음방초 우거진 들, 가지 끝에 부는 바람, 가벼운 구름 속에 목동의 피리 소리 평화롭네.
정리	1) 주제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2)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 『標準』노랫말은 소를 몰고 『해방중등』노랫말은 양떼를 모는 차이가 있고, 소를 또는 양떼를 몰러 나가는 아침 자연의 모습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아침에 소를 또는 양떼를 몰러 나가는 마음 즐겁다'는 핵심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노랫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표 Ⅳ-91> 6 - 1 - 2

	『標準』 <白百合(2)>	『해방중등』 <백백합(6)>, <흰백합(23)>
주제	백합의 아름다움과 고상함	백합의 아름다움과 순결함
주요 소재	시골 소녀 머리에 꽂힌 백합, 백합의 향과 색깔, 솔로몬의 영화	시골 처녀 머리에 꽂힌 백합, 백합 향기와 빛, 솔로몬의 옷
내용	산길에 귀가하는 시골 소녀들의 머리에 꽂힌 백합, 소녀가 꽃이고 꽃이 소녀. 꽃 중에도 돋보이며 솔로몬의 영화보다 낫네. 꽃이 신이고 신이 꽃.	산골짝 길로 다니는 시골 처녀의 머리에 꽂힌 백합, 그 자태가 순결해. 처녀가 꽃이요 꽃이 처녀. 백화 중 홀로 하얗고 솔로몬의 옷보다 낫네. 영광스럽고 그 자태 순결해.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도가 높음. 2)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에 공히 '백합'을 '솔로몬의 영화' 또는 '솔로몬의 옷'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성경(누가복음 12:27? 백합화-솔로몬의 옷 인용?)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임.	

〈표 Ⅳ-92〉 6 - 1 - 3

	『標準』 〈聲(3)〉	『해방중등』 〈노래소리(13)〉
주제	소리의 주인을 찾으며 느끼는 즐거움	소리의 주인을 찾으며 느끼는 즐거움
주요 소재	꽃밭, 산길, 숲속, 목소리, 화초, 달, 마당, 벌레 소리, 억새	꽃이 만발한 들, 뻐꾹새 소리, 들국화, 단풍, 저녁 하늘, 붉은 놀, 벌레 소리, 갈대숲
내용	숲속으로 들어가 짹짹짹 우는 새를 찾네. 달이 뜬 밤 마당에서 벌레 소리 들려 억새를 헤치며 소리를 찾네.	뻐꾹새 소리에 들에서 가지 헤치며 노래 찾아가네. 노을 진 저녁 벌레 소리에 갈대숲 헤치며 노래 따라가네.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매우 유사함. 2) 주요 소재 면에서 『標準』 노랫말의 ‘꽃밭’과 『해방중등』 노랫말의 ‘꽃이 만발한 들’, 『標準』 노랫말의 ‘화초’와 『해방중등』 노랫말의 ‘들국화’와 ‘단풍’, 『標準』 노랫말의 달이 뜬 밤과 『해방중등』 노랫말의 노을 진 저녁, 『標準』 노랫말의 ‘억새’와 『해방중등』 ‘갈대숲’은 서로 유사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Ⅳ-93〉 6 - 1 - 4 『원곡』〈Der Fröhliche Landmann〉(기악곡)

	『標準』 〈樂しき農夫(2)〉	『해방중등』 〈즐거운 농부(2), (7), (13)〉
주제	농부의 하루	농부의 하루
주요 소재	별빛, 벚꽃, 가래, 아침의 노동, 흙냄새, 보리 이삭, 제비, 가래질 소리, 종소리, 저녁 귀가, 손발 씻는 소리, 낫, 달그림자	들, 아침 밭 갈기와 김매기, 땀, 점심밥, 저녁 종소리, 괭이와 호미, 귀가하는 농부들, 땅, 햇빛, 흙내, 땀, 피로, 보람 있는 직분
내용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길에 보이는 꽃들의 사랑스러움. 가래를 들고 아침 노동. 자라는 보리 이삭. 일몰을 알리는 종소리. 즐거운 귀갓길. 개울에서 손발 씻는 소리. 낫 앞 흰 이삭에 달그림자 희미하게 비치네.	아침에 들에 나가 밭 갈고 김매고, 점심밥 먹고 또 일하니 저녁. 종소리 들으며 하늘의 별 세며 귀가하는 농부들. 햇빛 쬐며 힘써서 부지런히 하루 일 마치면 굳센 몸이라도 피로하나, 떳떳하게 보람 있는 직분 다 하여 만족하고 즐거워.
정리	1) 주요 소재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제 및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은 매우 유사함. 2) 『標準』 노랫말과 『해방중등』 노랫말 공히 '농부의 하루'를 주제로 하며, 농부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 저녁이 되어 귀가할 때까지의 일과를 내용으로 하는 면에서 두 노랫말 간 유사도가 매우 높음.	

〈표 Ⅳ-94〉 6 - 1 - 5

	『標準』 〈鶯の歌(1)〉, 〈鶯のうた(6)〉	『해방중등』 〈꾀꼬리(6), (15), (20)〉, 〈꾀꼴새(13), (4)〉
주제	꾀꼬리의 노랫소리	꾀꼴새의 노랫소리
주요 소재	골짜기, 꾀꼬리 소리, 매화, 동풍, 매화 향기, 꽃 가지, 꽃들, 새들	봄바람, 꽃봉오리, 꾀꼴새 소리, 매화, 녹음방초
내용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매화들은 벌어지고, 동풍은 그 향기를 드러내네. 꽃 가지 사이로 들리는 소리.	봄바람 꽃봉오리 흔들고 꾀꼴새 소리 좋네. 뜰의 매화는 시들어지고 언덕 위 핀 꽃은 녹음방초 피었네. 핀 꽃은 봄소식을 전하고 날아드는 나비는 여름 재촉하네. 산곡 물가 버들가지는 늘어졌고 꾀꼬리는 저의 짝을 부르네.
정리	1) 주제와 주요 소재 면에서 매우 유사함. 2) 내용 면에서 『標準』 노랫말보다 『해방중등』 노랫말이 풍부하고 확장된 느낌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요 소재와 관련된 내용의 유사도는 높다고 할 수 있음. 3) 『標準』 노랫말에서의 '동풍'과 『해방중등』 노랫말에서의 '봄바람'은 같은 의미이므로 『標準』의 동풍이 매화 향기를 드러낸다는 표현과 『해방중등』의 봄바람이 꽃봉오리 흔든다는 표현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標準』 노랫말의 꽃 가지 사이로 들리는 소리라는 표현과 『해방중등』 노랫말의 버들가지 늘어졌고 꾀꼬리가 짝을 부른다는 표현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표 Ⅳ-95〉 6 - 1 - 6

	『標準』 〈早春(1)〉	『해방중등』 〈봄바람(18)〉
주제	봄이 오네	봄이 오네
주요 소재	겨울에 웅크렸던 산골, 아침 연기, 닭 울음, 봄, 눈 밑 작은 풀, 시냇가 미나리, 매화 꽃봉오리	산새들, 잊었던 노래, 봄바람, 나뭇가지, 새 생명, 잎
내용	겨울에 웅크렸던 산골에도 봄은 오고, 눈 밑에서는 작은 풀이 시냇가에는 미나리가 자라네. 바람 차고 눈 날려도 매화 꽃봉오리 솟아 오르네.	한겨울 외롭던 산새들에게 다시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나뭇가지에 새 생명 불어넣는 봄바람. 내 맘에도 불어라.
정리	1) 주제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소재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내용 면에서 『標準』노랫말에서의 '겨울에 웅크렸던 산골에도 봄은 오고'와 『해방중등』노랫말에서의 '한겨울 외롭던 산새들에게 다시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소재는 다르나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標準』노랫말에서의 '눈 밑에서 작은 풀이 시냇가에는 미나리가 자란다. 바람 차고 눈 날려도 매화 꽃봉오리 솟아오르네'와 『해방중등』노랫말에서의 '나뭇가지에 새 생명 불어넣는 봄바람' 또한 소재와 문장 표현은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음. 따라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표 Ⅳ-96〉 6 - 1 - 7

	『標準』〈森のひびき(4)〉	『해방중등』〈숲속의 노래(1), (10)〉
주제	사냥의 즐거움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쁜 마음
주요 소재	뿔피리 소리, 사냥꾼, 젊은이의 피・눈썹 끝・살, 사냥, 사냥감, 산, 석양	숲속에 들리는 소리, 즐거운 손과 발
내용	숲에서 울리는 뿔피리 소리에 사냥꾼은 즐거워. 뿔피리 소리 들리고 사냥은 끝나네. 사냥꾼의 즐거운 노래 하늘에 울리네.	숲속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에 내 마음 기쁘고 속이 풀리네. 즐거운 손과 발을 보라.
정리	1) 표면적으로는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의 주제에 차이가 있음. 『標準』 노랫말의 주제는 사냥의 즐거움인데 『해방중등』노랫말에는 사냥과 관련된 소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 2) 따라서 주요 소재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 간에는 차이가 나타남. 2) 그러나 내용을 비교해보면 『標準』노랫말에서 ‘뿔피리’, ‘사냥꾼’을 제외하고 보거나 『해방중등』노랫말에 ‘뿔피리’, ‘사냥꾼’을 넣어 보면 『標準』과 『해방중등』의 노랫말 내용은 매우 비슷해짐. 즉 표면적으로만 『標準』과 『해방중등』 노랫말 간 차이가 있을 뿐 『해방중등』 또한 ‘사냥’을 바탕으로 한 내용임을 추측할 수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標準』과 『해방중등』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2.2.7 유형 6-2 (『해방중등』 총 159곡 중 5곡 해당. 공통곡조 3개)

1. 『標準』<早春(1)> -『해방중등』<학창을 향하여(11)>
2. 『標準』<早春(1)> -『해방중등』<순풍(8)>
3. 『標準』<夏を樂しむ(2)> -『해방중등』<호숫가의 저녁(16), (17)>
4. 『標準』<暮の鐘(2)> -『해방중등』<저녁종(4)>

<표 Ⅳ-97> 유형 6-2

	『標準』	『해방중등』
6-2-1	<早春(1)>	<학창을 향하여(11)>
6-2-2	<早春(1)>	<순풍(8)>
6-2-3	<夏を樂しむ(2)>	<호숫가의 저녁(16), (17)>
6-2-4	<暮の鐘(2)>	<저녁종(4)>

<표 Ⅳ-98> 6 - 2 - 1

	『標準』 <早春(1)>	『해방중등』 <학창을 향하여(11)>
주제	봄이 오네	배움을 위해 떠나는 길
주요 소재	겨울에 웅크렸던 산골, 아침 연기, 닭 울음, 봄, 눈 밑 작은 풀, 시냇가 미나리, 매화 꽃봉오리	가족, 배움의 길, 반딧불 눈빛(형설지공), 고향의 들과 시내, 월계관
내용	겨울에 웅크렸던 산골에도 봄은 오고, 눈 밑에서는 작은 풀이 시냇가에는 미나리가 자라네. 바람 차고 눈 날려도 매화 꽃봉오리 솟아오르네.	가족들 안녕히. 청운의 큰 뜻 품고 나는 떠나네. 내 고향 들과 산이여 내 꿈에 나오라. 배움 얻고서 다시 돌아오리.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매우 다름. 2) 주제 면에서 『標準』노랫말은 '봄이 오네' 인데 반해, 『해방중등』노랫말은 '배움을 위해 떠나는 길' 로 거의 유사성이 없음. 3) 주제가 전혀 다르므로 주요 소재와 내용도 유사성이 거의 없음.	

<표 Ⅳ-99> 6 - 2 - 2

	『標準』 <早春(1)>	『해방중등』 <순풍(8)>
주제	봄이 오네	순풍이 불어온다.
주요 소재	겨울에 웅크렸던 산골, 아침 연기, 닭 울음, 봄, 눈 밑 작은 풀, 시냇가 미나리, 매화 꽃봉오리	순풍, 아침 날 하늘, 종달새, 저녁 날 언덕, 꽃잎들
내용	겨울에 웅크렸던 산골에도 봄은 오고, 눈 밑에서는 작은 풀이 시냇가에는 미나리가 자라네. 바람 차고 눈 날려도 매화 꽃봉오리 솟아오르네.	순풍이 불어오는 아침 날 하늘, 종달새 높이 떴네. 순풍이 불어오는 저녁 날 언덕, 꽃잎들이 한들거리네.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다름. 2) 주제 면에서 『標準』노랫말은 '봄이 오네' 인데 반해, 『해방중등』노랫말은 '순풍이 불어온다' 임. 3)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도 『標準』노랫말은 대부분 '봄' 과 관련된 데에 반해, 『해방중등』노랫말은 '봄' 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순풍(8)>에 봄과 관련된 소재로 다용되는 종달새가 나타나긴 하나 노랫말을 전체적으로 볼 때 봄과 관련된 내용으로 단정하기에는 소재와 내용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며, 『標準』노랫말은 봄을 맞이하여 풀, 미나리, 매화 꽃봉오리 등 약동하는 새 생명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해방중등』노랫말은 차이를 보임.	

<표 IV-100> 6 - 2 - 3

	『標準』 <夏を樂しむ(2)>	『해방중등』 <호숫가의 저녁(16), (17)>
주제	여름의 즐거움	호숫가 초저녁 풍경
주요 소재	나무 그림자, 멍석, 바람, 축음기, 모닥불, 코펠, 점심밥	초저녁달, 종소리, 황혼, 잔물결, 갈대, 산 그림자, 어부 횃불, 흰 새, 새 소리
내용	나무 그늘에 멍석 깔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축음기 소리 듣네. 모닥불 피워 코펠 걸어놓고 점심 해 먹네. 친구여 칭송하자 여름을.	종소리, 물 위의 황혼, 잔물결, 속삭이는 갈대, 산 그림자, 어부 횃불, 흰 새가 만드는 호숫가의 초저녁 풍경이 조용하고 호젓해.
정리	1) 주제, 주요 소재,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매우 다름. 2) 주제 면에서, 『標準』노랫말은 '여름의 즐거움'인데 반해, 『해방중등』노랫말은 '호숫가 초저녁 풍경'으로 거의 유사성이 없음. 3) 주제가 전혀 다르므로 주요 소재와 내용도 유사성이 거의 없음.	

<표 IV-101> 6 - 2 - 4

	『標準』 <暮の鐘(2)>	『해방중등』 <저녁종(4)>
주제	저녁 풍경 속 종소리	종소리에 떠오르는 추억
주요 소재	저녁, 까마귀, 하늘, 마을의 불빛, 종소리, 제비, 논밭, 샛별, 겨울 하늘, 산	종소리, 나비잡이 하던 추억, 피리 불며 놀던 추억, 남산 밑 뜰
내용	까마귀가 나는 저녁 하늘, 마을의 불빛이 드문드문한 가운데 고요한 종소리 들리네. 날 저무는 논밭, 샛별이 빛을 내는 하늘, 칠흑 같은 산에 종소리 흐르네.	밤중에 들리는 종소리가 마음을 흔드네. 나비잡이 하고 피리 불며 놀던 때가 그리워. 남산 밑 뜰에도 다시는 못 오겠지.
정리	1) 종소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標準』과 『해방중등』노랫말은 유사점이 있음. 2) 그러나 『標準』노랫말은 저녁 풍경과 그 속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내용으로 하며, 『해방중등』노랫말은 종소리가 불러일으키는 추억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소재와 내용 면에서 『標準』과 『해방중등』은 다름.	

〈표 Ⅳ-102〉 유형별 종합

	『원곡』	『標準』	『해방중등』
1-1	〈Die Lorelei〉	〈ロオレライ(2)〉	〈로렐라이(1), (9), (10), (12), (16), (17), (22), (23)〉, 〈로레라이(6)〉
1-2	〈Der Lindenbaum〉	〈菩提樹(4)〉	〈보리수(1), (9), (10), (12), (14)〉
1-3	〈Wiegenlied(브)〉	〈ブラームスの子守歌(2)〉	〈아기 재우는 노래(1), (10), (12)〉, 〈자장노래(7)〉, 〈브람스의 자장가(19)〉, 〈부라암스의 자장가(21)〉
1-4	〈Wiegenlied(브)〉	〈ブラームスの子守歌(2)〉	〈자장가(3)〉
1-5	〈Santa Lucia〉	〈サンタ・ルチア(2)〉	〈산타 루치아(1), (9), (10), (23)〉, 〈싼타 루치아(12), (14), (15), (19), (21)〉
1-6	〈O Sole mio〉	〈我が太陽(4)〉	〈오-나의 태양(1)〉, 〈오, 나의 태양(6)〉, 〈오-소래 미오(9)〉, 〈오 나의 태양(10)〉, 〈오, 나의 태양(12)〉
1-7	〈Home, sweet home〉	〈懐しの我が家(6)〉, 〈懐しの我家(5)〉	〈즐거운 우리 집(1), (10)〉, 〈즐거운 나의 집(6), (9), (12), (16), (17), (20), (23)〉
1-8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モーツァルトの子守歌(1)〉	〈자장가(1), (9), (10), (14), (16), (17), (20)〉, 〈모찰트의 자장가(6)〉, 〈모오차르트의 자장가(23)〉
1-9	〈My dear old sunny home〉	〈舊都の月(1)〉	〈고향의 폐가(16), (17)〉, 〈고향의 쓰러진 집(19), (21)〉
1-10	〈My dear old sunny home〉	〈舊都の月(1)〉	〈고향의 폐가 (8)〉
1-11	〈Эй ухнем (Song of the Volga Boatman)〉	〈ヴオルガの舟歌(1)〉	〈뱃노래 (2), (7)〉
2-1	〈O, Tannenbaum〉	〈飛行機(1), (6)〉	〈소나무(18)〉
2-2	〈O, Tannenbaum〉	〈飛行機(1), (6)〉	〈소나무(19), (21)〉
2-3	〈O, Tannenbaum〉	〈飛行機(1), (6)〉	〈전나무(22)〉
2-4	〈Old Black Joe〉	〈城山の秋(2), (6)〉	〈늙은 흑인 죠오(8)〉
2-5	〈Old Black Joe〉	〈城山の秋(2), (6)〉	〈블랙죠오(16), (17)〉
2-6	〈The Bluebells of Scotland〉	〈若草の古戰場(2)〉	〈아름다워(와)(22)〉
2-7	〈Степа́н Ра́зин(Stenka	〈すみれ(2)〉	〈스텐카 라진(1), (10), (12), (15), (22), (18)〉

	Razin)〉		
2-8	〈Heidenröslein (베)〉	〈花鳥(4)〉	〈들장미(2)〉, 〈 장미꽃(7)〉
2-9	〈Heidenröslein (베)〉	〈花鳥(4)〉	〈들장미(16), (17)〉
2-10	〈Ständchen〉	〈夜の曲(5)〉	〈소야가(12)〉
2-11	〈Chor der Jäger〉	〈獵人の合唱(3)〉	〈사냥군(꾼)의 노래(1), (10)〉, 〈사냥꾼의 합창(5)〉
2-12	〈Barcarolle〉	〈欵乃の調(4)〉	〈夜樂(5)〉
2-13	〈Aloha oe〉	〈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아로하오에(8)〉
2-14	〈Aloha oe〉	〈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1)〉	〈알로하 오에(22)〉
2-15	〈Long, long ago〉	〈故郷の追憶 (1), (6)〉	〈옛날(8)〉
3-1	〈Heidenröslein(슈)〉	〈野薔薇(4)〉	〈월계꽃(1), (9), (10), (12), (19), (21)〉, 〈 월계꽃(7)〉
3-2	〈Lerchengesang〉	〈雪雀の歌(5)〉	〈오호 종달새(1), (10)〉
3-3	〈Wiegenlied〉	〈モーツァルトの子守歌(1)〉	〈자장가(4)〉
3-4	〈Эй ухнем (Song of the Volga Boatman)〉	〈ヴォルガの舟歌(1)〉	〈볼가의 배ㅅ노래(1), (12)〉, 〈볼가의 뱃노래(10), (20)〉, 〈볼카(가)의 뱃노래(15)〉
3-5	〈O Sole mio〉	〈我が太陽(4)〉	〈봄의 세레나데 (3)〉
4-1	〈comin' thro' the rye〉	〈故郷の空(6)〉	〈가을 하늘(8)〉
4-2	〈Funiculi Funicula〉	〈山のうた(3)〉	〈준령을 넘어(1), (10)〉
4-3	〈Long, long ago〉	〈故郷の追憶 (1), (6)〉	〈고향의 추억(18)〉
4-4	〈Der Letzte Abend〉	〈故郷さらば〉	〈잘 있거라 내 고향(14)〉
4-5	〈Der Letzte Abend〉	〈故郷さらば〉	〈잘 있거라 내 고향(20)〉
4-6	〈Kuckucks Walzer〉	〈郭公ワルツ(2)〉	〈쿠쿠월쓰(1)〉, 〈쿠쿠월츠(10)〉, 〈쿠쿠-월쓰(12)〉, 〈쿠쿠 왈쓰(13)〉
4-7	〈Kuckucks Walzer〉	〈郭公ワルツ(2)〉	〈뻐꾹 월스(4)〉
4-8	〈Ode to Joy〉	〈地上の歡喜(‘제9교향곡’より(3)〉	〈환희의 송가(1), (9), (10), (12)〉
4-9	〈Barcarolle〉	〈欵乃の調(4)〉	〈뱃노래(8)〉
4-10	〈Madchëns Wunsch〉	〈少女の夢(3)〉	〈소녀의 꿈(3)〉
4-11	〈Going Home〉	〈ふろさとの夢(4)〉	〈꿈속의 고향 (1), (9), (10), (16), (17)〉
5-1	〈comin' thro' the	〈故郷の空 (6)〉	〈글공부(16), (17)〉

	rye〉		
5-2	〈St. Petersburg〉	〈あけぼの(1)〉	〈가을(15), 가을(26)〉
5-3	〈O du lieber Augustin〉	〈秋の山樂(6)〉	〈풍년(8)〉
5-4	〈Chor der Jäger〉	〈獵人の合唱(3)〉	〈사냥군의 노래(2)〉
5-5	〈La donna e mobile〉	〈海邊の眺望(3)〉	〈여름의 바다(8)〉
5-6	〈Heidenröslein (베)〉	〈花鳥(4)〉	〈들장미(20)〉
5-7	〈Heidenröslein (베)〉	〈花鳥(4)〉	〈월계꽃(14)〉
5-8	〈Ode to Joy〉	〈地上の歡喜(‘第九交響曲’より(3)〉	〈보금자리(9)〉
5-9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虫に寄せて(2)〉	〈동무(16), (17)〉
5-10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虫に寄せて(2)〉	〈나의 동무(12)〉
5-11	〈Der Letzte Abend〉	〈故鄕さらば〉	〈잘 있거라 내 고향(12)〉
5-12	〈Степа́н Ра́зин(Stenka Razin)〉	〈すみれ(2)〉	〈봄바람(4)〉

	『標準』	『해방중등』
6-1-1	〈牧人の歌(2)〉	〈목인의 노래(18)〉
6-1-2	〈白百合(2)〉	〈백백합(6)〉, 〈흰백합(23)〉
6-1-3	〈聲(3)〉	〈노래소리(13)〉
6-1-4	〈樂しき農夫(2)〉	〈즐거운 농부(2), (7), (13)〉
6-1-5	〈鶯の歌(1)〉, 〈鶯のうた(6)〉	〈꾀꼬리(6), (15), (20)〉, 〈꾀꼴새(13), (4)〉
6-1-6	〈早春(1)〉	〈봄바람(18)〉
6-1-7	〈森のひびき(4)〉	〈숲속의 노래(1), (10)〉
6-2-1	〈早春(1)〉	〈학창을 향하여(11)〉
6-2-2	〈早春(1)〉	〈순풍(8)〉
6-2-3	〈夏を樂しむ(2)〉	〈호숫가의 저녁(16), (17)〉
6-2-4	〈暮の鐘(2)〉	〈저녁종(4)〉

〈표 Ⅳ-103〉 유형별 해당 사례 수, 『해방중등』 곡수, 공통곡조 수

	유 형	해당 사례	해당 『해방중등』 곡수	해당 공통곡조 수
1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11	60	9

	『標準』(『원곡』의 번역) -『해방중등』(『원곡』의 번역)			
2	(『원곡』 ≒ 『해방중등』) ≒ 『標準』 『標準』(작사) - 『해방중등』(『원곡』의 번역)	15	26	10
3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標準』(『원곡』의 번역) - 『해방중등』(작사)	5	16	5
4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標準』(작사) -『해방중등』(『標準』의 번역) 경우	11	22	9
5	『원곡』 ≒ 『標準』 ≒ 『해방중등』 『標準』(작사) - 『해방중등』(작사)	12	15	10
6-1	『원곡』 노랫말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인데, 『標準』 ≒ 『해방중등』 ①『원곡』이 기악곡인 경우 ->『標準』(작사) -『해방중등』(『標準』의 번역) 가능성 있음.(즐거운 농부) ②『원곡』이 성악곡인 경우 -> 유형 1, 4에 해당될 수 있음.	7	15	7
6-2	『원곡』 노랫말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인데, 『標準』 ≒ 『해방중등』 ①『원곡』이 기악곡인 경우 ->『標準』(작사) - 해(작사)일 가능성. ②『원곡』이 성악곡인 경우 -> 유형 2, 3, 5에 해당될 수 있음.	4	5	3
			159	

유형별 고찰을 종합하여, 조선어화된 『해방중등』 노랫말을 4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곡』 노랫말의 번역'으로 파악되는 노랫말로서, 『標準』 노랫말을 번역 또는 차용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유형 1과 2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유형 1에 해당하는 『해방중등』 수록곡이 60곡, 유형 2에 해당하는 수록곡이 26곡으로 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곡을 합치면 86곡에 이른다.

둘째, '작사된 노랫말'로 파악되는 노랫말로서, 『원곡』 또는 『標準』 노랫말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유형 3과 5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유형 3에 해당하는 『해방중등』 수록곡이 16곡, 유형 5에 해당하는 수록곡이 15곡으로 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곡을 합치면 31곡이다.

셋째,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 번역’한 것으로 파악되는 노랫말로서, 『원곡』 노랫말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유형 4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원곡』 노랫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파악되는 유형 6-1의 ①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 유형 4에 해당하는 『해방중등』 수록곡이 22곡, 유형 6-1의 ①에 해당하는 수록곡이 3곡으로[427] 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곡을 합치면 25곡이다.

넷째, 『원곡』 또는 『標準』 노랫말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노랫말로 유형 6-1의 ②, 6-2의 ①과 ②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형 6-1의 ②에 해당하는 『해방중등』 수록곡이 12곡, 6-2의 ①과 ②에 해당하는 수록곡이 5곡으로 이 유형들에 해당하는 곡을 합치면 17곡이다.

위와 같이, ‘『원곡』의 노랫말을 번역’한 조선어 노랫말이 붙은 곡이 『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 전체 159곡 가운데 약 54%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곡』 및 『標準』 노랫말과 상관없이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이 붙은 곡이 약 19%에 해당한다. 즉 『標準』 노랫말을 번역한 것이 아닌, 『원곡』의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되거나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이 붙은 곡이 『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 총 159곡 중 약 74%에 이른다. 이 외에 약 16%가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한 노랫말이 붙은 곡에 해당하며, 나머지 약 10% 정도는 『원곡』 또는 『標準』 노랫말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노랫말이 붙은 곡에 해당한다.

『해방중등』 노랫말 가운데 『標準』 노랫말을 번역한 것이 아닌, 『원곡』의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되거나 작사된 노랫말은 ‘적극적 조선어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標準』의 노랫말이 해방공간 당시 학생과 교사에게 익숙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標準』의 익숙한 일본어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원곡』의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하거나, 또는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을 수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일본어 노랫말과 내용적으로 구별되는 조선

427) <즐거운 농부(2), (7), (13)>

어 노랫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체적, 적극적 태도’에 기인한 ‘적극적 조선어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곡』의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된 노랫말의 비중이 가장 큰 이유로, 『원곡』 노랫말의 ‘원형성’을 중시하는 인식을 들 수도 있겠으나 이 ‘원형성’을 중시하는 인식도 결국은 일제강점기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 노랫말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면서 생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형’을 토대로 한 조선어 노랫말을 만듦으로써 일본어 노랫말과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의 비중이 큰 이유로는, 『원곡』 노랫말의 번역이 여의치 않은 상황,[428] 또는 『원곡』 노랫말 내용과 상관없이 새로운 노랫말을 지어 붙이고 싶은 작사자의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일본 음악교과서 수록 노랫말과 구별되는 조선어 노랫말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적극적 조선어화’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해방중등』(외국곡) 가운데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번역한 노랫말은 ‘소극적 조선어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편의추구, 태만한 태도’에 기인한 ‘답습, 모방’이라 평가될 여지가 있다. 『標準』 수록곡의 일본어 노랫말이 교사와 학생에게 익숙한 것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어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만 번역하여 내용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노랫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정립을 이루기는 어렵다. 물론 ‘조선어’로 되어 있는 노랫말이지만, 이러한 경우를 위의 첫째 및 둘째 경우와 동일하게 ‘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한 이유는 주로 외국어 실력의 부족, 일본 노랫말 번역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원곡』의 노랫말을 토대로 새로운 번역 노랫말을 내놓은 이들 또한 동일한

428) 기본적으로 외국어(일본어 외) 및 번역 전문가가 많지 않았던 시기였다. 일제강점기 조선 번역문학계에서 외국어 능력, 번역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역(重譯) 등의 문제는(박진영(2015), pp.224-225) 해방공간 시기에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원곡』의 외국어 노랫말을 번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로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 번역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원곡』의 노랫말을 번역하는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외국어 실력 부족이나 일본 노랫말 번역의 용이성 등은,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한 일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標準』 노랫말을 조선어로만 번역하여 내놓아도 된다는 편찬자 또는 번역자의 구상에서 비롯된 결과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가장 소극적인 조선어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 즉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과 '조선 음악교육의 정체성 회복·수립'의 관점에서 볼 때, '적극적 조선어화' 양상으로 해석되는 노랫말에 비교하여 일본어 노랫말을 그대로 번역한 노랫말 다시 말해 '소극적 조선어화' 양상으로 해석되는 노랫말에, 그 의도와 사정이 무엇이었든 일본 음악교과서의 '답습, 모방'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해보면, 『해방중등』 편찬자들과 음악교육자들은 일본 음악교과서의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만 번역한 노랫말을 수록하는 방법보다는, 『원곡』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하거나 또는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을 수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일제의 것과 구별되는 조선의 것을 찾고 새로 만드는 '적극적 조선어화' 노력과 시도를 경주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Ⅳ - 2의 요약>

『해방중등』 및 『標準』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의 노랫말 간 유사성에 대하여 살피고자, <『원곡』-『標準』-『해방중등』> 노랫말 간 유사성의 정도에 따른 관계 유형을 총 7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방중등』 노랫말 가운데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만 번역한 것이 아닌 '『원곡』 노랫말을 번역한' 것과 '조선어

로 작사된’ 노랫말이 붙은 곡이, 『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 총 159곡 중 약 74%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한 노랫말이 붙은 곡이 약 16%이며, 『원곡』 또는 『標準』 노랫말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노랫말이 붙은 곡이 약 10%로 나타났다.

『해방중등』 편찬자들은 『標準』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한 노랫말을 수록하는 쉬운 방법보다는 『원곡』의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하거나 또는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을 수록하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방법을 일부러 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음악교과서의 일본어 노랫말과 구별되는, 단지 언어만 구별되는 것이 아닌, 조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선적 정체성이 담긴 조선어 노랫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볼 때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의 측면에서 이 노랫말 양상은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일본 교과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한 노력과 시도가 뚜렷이 보이는 ‘적극적 조선어화’ 양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해방 직후 교육계에 있어서 학교 수준별·교과별로 이루어진 '교과서 조선어화'가 '일제 식민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교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수립'이라는 주요 취지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음악교과서 조선어화'는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해방중등』의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 관련 측면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악 교과의 특성에 따라 '조선어화'의 범주는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음악적 측면에까지 확장 적용되었다.

고찰은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 681곡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조선곡과 외국곡으로 대분하여 장르, 작곡자, 작곡/발표 시기·번역/작사 시기, 노랫말 관련 인물 등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살폈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을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던 일본 중등음악교과서인 『標準』의 수록 가창곡과 비교하였다. 비교 고찰은 음악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 즉 '곡조'와 '노랫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곡조' 비교에서는 먼저 『해방중등』과 『標準』 가창곡 간 '공통곡조'를 찾고 그 성격을 살폈으며, '공통곡조로 된 곡'을 탐색하여 이 곡들이 『해방중등』 전체 외국곡과 23종 개별 교과서 수록 외국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였다. 이어 '노랫말' 비교에서는 '공통곡조로 된 곡'의 『標準』, 『해방중등』 수록 노랫말과 원곡 노랫말까지 세 가지 노랫말을 비교함으로써 『標準』, 『해방중등』 노랫말 간 유사도를 살폈다.

고찰 결과,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에서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이라는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양상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되는 양상과 부합한다고 해석되기 어려운 양상을, '곡조'와 '노랫말'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V-1>과 같다.

〈표 V-1〉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 부합 관련 교과서 양상(곡조/노랫말)

	부합한다고 해석되는 양상	부합한다고 해석되기 어려운 양상
곡조	1) 조선곡을 수록한 점. 2) 일본곡을 배제한 점. 3) 친일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되는 신진 작곡가들의 곡 수록. 4) 외국곡 선곡에 있어서 ‘조선 대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자 했던 편찬자들의 주체적 태도.	1) 조선곡 가운데 전통음악이 2곡에 불과하고, 2곡을 제외한 모든 곡이 서양음악 기법으로 만들어진 곡이라는 점. 2)『標準』의 외국곡 곡조를 차용하였으며, ‘공통곡조들로 된 곡’의 비중이 『해방중등』 외국곡 중 33%에 이른다는 점.
노랫말	1) 조선적 정서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노랫말로 된 1920, 30년대 ‘조선 예술가곡’과 ‘동요’를 다수 수록한 점. 2) 해방의 기쁨과 신국가 건설에의 희망 그리고 조선 정체성 회복·수립에 대한 열의를 담은 ‘애국가요’ 장르를 수록한 점. 3) 조선적 소재와 정서를 담은 이은상·김안서·윤복진·이병기·김소월 등의 노랫말로 된 곡이 다수 수록된 점. 4)『해방중등』에 외국곡 노랫말을 수록함에 있어서 기존의 것보다는 우리 음악인·문인·어문학자들이 새로 번역/작사한 노랫말을 수록한 데에서 발견되는 편찬자들의 적극성. 5)『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 가운데 『標準』의 노랫말이 그대로 조선어 번역된 경우는 매우 적은 비중에 불과, ‘『원곡』 노랫말을 토대로 번역되거나 조선어로 작사된 노랫말’이 붙은 곡이 약 74%에 이르는	1)『해방중등』 수록 ‘공통곡조로 된 곡’ 가운데 ‘『標準』 수록 노랫말을 그대로 조선어 번역한 노랫말’이 붙은 곡이 약 16%인 점.

	점.	

본 연구를 통하여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에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되는 측면과 해석되기 어려운 측면 모두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곡조’와 ‘노랫말’ 양 측면에서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되는 양상’이 그렇지 않은 양상보다 매우 다종다양하게 발견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중등』에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합한다고 해석되는 양상’이 ‘부합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양상’에 비교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는 점만으로도, 『해방중등』에 대한 일제강점기 중등음악교과서의 ‘모방’, ‘답습’이라는 평가는 비판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서술한 바대로 ‘교과서 조선어화’ 취지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중등학교 교과서 양상은 국정제인 국어·국사·공민·지리 등의 교과서에서 주로 발견되고, 음악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인정제 교과서들에서는 미미하게 발견되거나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해방중등』 조선어화는 ‘국정제’ 국어·국사·공민·지리 교과서의 편찬 시기와도 그리 차이 나지 않는 시기에, 그리고 타 ‘검인정제’ 교과서에 비하여 매우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다. 또한 타 교과서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종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중등』 조선어화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이러한 측면들은, 당시의 교육계 및 사회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수많은 악조건을 극복해야만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일들이었다. 즉 이 측면들 자체가 해방공간 음악교육자, 편찬자들의 적극적 노력과 시도가 존재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는 것이다. 열악한 편찬·인쇄·발행 여건 속에서 악전고투하며 ‘교과서 조선어화’의 취지에 맞는 ‘음악교과서 조선어화’를 이루고자 한 『해방중등』 편찬자들의 노력과 시도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고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중등』에서 『標準』과 유사한 측

면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해방중등』에 일제강점기 일본 음악교과서와의 유사성이 분명 존재하며, 어떠한 측면의 어떤 정도의 유사성인지를 파악한 것도 본 논문의 고찰 성과이다. 그간 구체적 근거 없이 해방공간 음악교과서가 일본 음악교과서의 모방·답습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모방·답습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모방·답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또는 범주가 구체화 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 하겠다.

연구자는 해방공간 음악교과서와 관련한 과거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대한 실체적 탐색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해방공간 및 일제강점기 음악교과서 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방공간 음악교육·음악교과서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일본 음악교과서의 모방·답습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평가가 음악교육계 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문제시하였고, 한국현대음악교육의 정초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해방공간 음악교육·음악교과서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인식과 평가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가 있다고 여겨 검증을 시도하였다. 검증 과정에서 해방공간 음악교과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음악교과서의 모방·답습'으로 볼 수 없는 '음악교과서 조선어화'의 다양한 양상을 발견하였으며, 타교과 교과서에서 시도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음악 교과 교과서에서 시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방중등』의 '음악교과서 조선어화' 양상을 살필 목적으로 수행된 교과서 발굴 및 검토, 수록곡의 출처 탐색, 수록 곡조나 노랫말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확인/발견된 내용에 대한 분석·연구 및 정리, 의미 도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방중등』의 실제적 양상을 발견하고 드러내고자 하였던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고찰을 통하여 발견된 오류는 바로잡았으며, 누락된 내용은 가능한 한 탐색하여 밝혔다. 또한 해방공간 시기 중등음악교육·중등음악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어떠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이들의 노력이 있었

는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오류들은 무엇인지, 그 오류의 출발점은 무엇이며 사실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고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 내용을 본문을 비롯하여 ‘부록’과 ‘표’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밝히고 정리한 내용이 해방공간 시기 중등음악교과서를 비롯하여 이 시기 초등음악교과서, 그리고 이후에 발행된 현대 초·중등음악교과서 연구에 구체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6년간의 ‘일제 식민 음악교육’에서 ‘조선음악교육’으로의 전환 및 이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에 음악교육적 요건이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을 온전히 담은 음악교과서가 속속(速速) 만들어지기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곤란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의 취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애쓴 여러 음악교육자, 편찬자들의 공력(功力)으로 다종다양한 『해방중등』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부족하나마 교육 현장에 이 교과서들이 공급됨으로써 해방 직후 조선의 정체성을 담은 음악교육이 시작될 수 있었다. 또한 『해방중등』 조선어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제 식민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 교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수립’ 노력과 시도가 있었기에 제1차 교육과정기 중등음악교과서부터는 본격적 한국현대중등음악교과서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해방공간 교육·교과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국어·국사·공민·지리 등의 국정 교과서가 아닌 검인정 교과서나 비검인정 교과서, 즉 민간의 자발적 편찬·발행에 의한 교과서들이 주요 대상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방공간 시기 교육행정 주체가 아닌 민간 주도로 편찬·발행된 교과서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해 당시 민간에서는 어떠한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어떠한 교과서를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그간의 연구물에서 해방공간 시기 교과서의 의미 및 의의를 도출함에 있어 민간의 노력과 시도가 조명된 경우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

여 조명된 민간의 음악교육자, 편찬자, 더불어 음악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참여한 타 분야 인물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과서 조선어화 양상은 한국근현대음악교육사 및 음악교과서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국근현대교육사 및 교과서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이자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본 고찰의 의의는, 먼저 『해방중등』 23종 수록 가창곡을 검토하여 특징적 양상을 도출한 점, 그리고 『해방중등』 수록 가창곡을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일본 중등음악교과서의 수록 가창곡과 비교하여 유사성 및 상이성을 살핌으로써 '교과서 조선어화' 맥락에서 편찬 발행된 『해방중등』이 어떠한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및 '조선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그간 해방공간 음악교육 및 『해방중등』에 대하여 음악계·음악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일제 음악교육 및 음악교과서의 답습, 모방'이라는 평가와 그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고, 한국현대음악교육사에 있어서의 해방공간 음악교육 및 음악교과서의 의의에 대하여 성찰적 재검토를 해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방중등』에 담긴 당시 편찬자 또는 음악교육자들의 '일제 음악교육 잔재 청산', '조선 음악교육적 정체성 회복·수립' 시도와 노력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그 시도와 노력이 타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데에 작은 발판을 놓았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문교부(1947). **문교행정개황**. 서울: 문교부.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찾기**.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문교부 편수국(1950). **편수시보 제1호**. 서울: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교육개발원(편)(1981). **서울敎育史 上**.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검열연구회(2011).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서울: 소명출판.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4). **음악교육의 기초(개정판).** 파주: 교육과학사.

금수현(1989). **금수현 나의 시대 70**. 서울: 월간음악출판부.

김상태(1993). **文體의 理論과 解析**(개정판). 서울: 집문당.

김성식 외 10인(1969). **광복을 찾아서(한국현대사 5)**. 서울: 신구문화사

김순전, 박제홍, 장미경, 박경수, 사희영, 김서은, 유철(2012).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 『국어독본』을 통해 본 식민지조선 만들기**. 서울: 제이앤씨.

김양환(2009). **홍난파 평전: 일제강점기의 삶과 예술**. 서울: 남양문화.

김용환(1998). **김성태의 음악세계**.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김운태(1992). **미군정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김창남 외 8인(1993). **노래 제2권**. 서울: 실천문학사.

김창욱(2010). **홍난파 음악연구**. 서울: 민속원.

나운영기념사업회(편)(2013). **(나운영의 생애)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서울: 운경음악.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편)(2006).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수원: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서울: 민족문제연구소.

노동은(1996). **한국근대음악사**.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노동은・이건용(1991). **민족음악론**. 서울: 한길사.

대한출판문화협회(1987). **대한출판문화협회 40년사, 1947-1987.**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문옥배(2002).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예솔출판사.

문혜윤(2008). **문학어의 근대: 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 서울: 소명출판.

민경찬(1997).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_____(2006).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악편]**. 서울: 두리미디어.

_____(2017). **숭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국.

민경찬 외 7인(2020). **21세기 북한의 예술**. 서울: 한국예술연구소.

민경훈 외 11인(2014). **음악교육학 총론(2판)**. 서울: 학지사.

박갑수(편)(1994). **국어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주).

박용구(구술)(2011). 민경찬 외 2인 채록연구. **박용구: 한반도 르네상스의 기획자: 1914~**. 서울: 수류산방.

박화목(1985).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일대기**. 서울: 범우사.

배연형(2011). **한국 유성기음반 5권**. 서울: 도서출판 한걸음 더.

서정은(2019). **화성이론과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2006). **전환기의 작곡가.** 서울: 음악춘추사.

서혜영(역)(1990). **번역어 성립 사정**. 서울: 도서출판 일빛.

손태룡(1994). **한국음악사의 큰 별**. 대구: 중문출판사.

_____(1996). **대구양악사 연구**. 대구: 도서출판 대일.

오지선(2003). **한국근대음악교육: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예솔출판사.

오천석(1975). **민주주의교육의 건설, 민주교육을 지향하여**. 오천석 교육사상문집, 1. 서울: 광명문화사.

_____(1975). **외로운 성주**. 오천석 교육사상문집, 10. 서울: 광명문화사.

_____(2014). **한국신교육사**. 파주: 교육과학사.

유봉호・김융자(1998).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한국 신교육사 총서, 5. 서울: 교학연구사.

윤여탁 외 11인(2006). **국어교육 100년사 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해동 외 5인(2006).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서울: 역사비평사.
이강숙・김춘미・민경찬(2001). **우리 양악 100년**. 서울: 현암사.
이길상(편)(1992). **해방전후사 자료집(Ⅰ)・(Ⅲ)**. 서울: 원주문화사.
이상각(2013). **한글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조선어학회, 47년간의 말모이 투쟁기**. 경기: 출판회사 유리창.
이상구(2013).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 서울: 사람의무늬.
이연식(2019).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고양: 역사비평사.
이유선(1985). **(증보판)한국 양악 백년사**. 서울: 음악춘추사.
_____(1999). **2불 80센트의 기적**. 서울: 작은우리.
이응호(1974). **미군정기의 한글 운동사**. 서울: 성청사.
이종국(2001).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서울: 일진사.
임성모(역)(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도서출판 이산.
장사훈(1991).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정재환(2013). **한글의 시대를 열다: 해방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정태수(편)(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상・하**. 서울: 도서출판 홍지원.
조선어학회(1940).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미상: 조선어학회.
_____(1946).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서울: 조선어학회.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1974). **문교사(1945~1973)**.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국.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편)(1960). **한국교육10년사**. 서울: 풍문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편)(1999). **한국 작곡가 사전**. 서울: ㈜시공사.
_____(편)(2005). **한국현대예술사대계 I: 해방과 분단 고착 시기**. 서울: 시공아트.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서울: 한글학회.
한종하・이양우・안희천(1982). **韓國의 敎科書 變遷史**. 서울: 한국교육개

발원.
허강(2004).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서울: 도서출판 일진사.
황호덕・이상현(편)(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I, II권**. 서울: 박문사.
乙竹岩造(편)(1942). **日本教育新教科書 各科指導法綱要**. 東京: 培風館.
上原一馬(1988). **日本音樂教育文化史**. 東京: 音樂之友社.
Apel, W. (1969). *Harvard Dictionary of Music.*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보고서 >

예솔기획(201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음악저작물(애국가, 독립군가 등) 발굴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VI(지리창가 및 유행창가)**. 서울: 예솔기획.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0-2001). **한국 편수사 연구(I)・(II)**.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07 박용구 1914~**.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교과서 >

학부(1910). **普通教育唱歌集** 제1편. 한국정부.
군정청 문교부(1947). **중등공민 상**.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_____(1946). **초등노래책 하**. 한성: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_____(1946). **초등노래책 중**. 경성: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경남음악교육연구회(편)(1948(12월 15일)). **中等歌曲集**. 부산: 전음사.
계정식(1946). **중등노래교본(초판)**. 서울: 남녀중등음악교과서.

_____(1947(9월 25일)). **중등노래교본(3판)**. 서울: 남녀중등음악교과서.
광성중학교(1914). **최신창가집**. 小營子(만주): 光成中學校.
국민음악연구회(편)(1950(5월 10일)).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_____(편)(1950(9월 1일)). **남녀중등음악교본 제1권**.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_____(편)(출판연도 미상). **남녀중등음악교본 第2卷**.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검정연월일 1949.8.2.).
_____(편)(출판연도 미상). **남녀중등음악교본 제2권**.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문교부인정효력연장연월일 1950.4.28.)
_____(편)(1954). **남녀중등음악교본 제3권**.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김신덕(편)(1947(4월 30일)). **女子中等 音樂教本 上**. 서울: 금룡도서문구주식회사.
_____(편)(1947(4월 30일)). **女子中等 音樂教本 中**. 서울: 금룡도서문구주식회사.
_____(편)(1947(4월 30일)). **女子中等 音樂教本 下**. 서울: 금룡도서문구주식회사.
_____(편)(1948(8월 20일)). **女子中等 音樂 1**. 서울: 연학사.
나운영(편)(1948(8월 15일)). **중등음악 2**. 서울: 국제음악문화사.
_____(편)(1948(8월 15일). **중등음악 3**.(재판) 서울: 국제음악문화사.
_____(편)(1949). **중등음악 1**.(재판) 서울: 국제음악문화사. (초판 1948.8.15.)
대건중학교(1947 추정). **音樂教本**. 미상: 미상.
대구문예출판사(편)(출판연도 미상. 해방공간 추정). **中等音樂教科書**. 발행처, 인쇄처 미상.
오창진(편)(1947(10월 20일)). **중등음악**. 서울 문화당.
이각종(편)(1915). **풍금독습 중등창가집**. 경성: 유일서관.
이상준(1929). **풍금독습 중등창가집**. 경성: 삼성사.
이승학(편)(1948(8월 30일)). **中等音樂教本 1卷**. 서울: 국제문예사.

_____(편)(1948(8월 30일)). **中等音樂教本 2卷**. 서울: 국제문예사.

_____(편)(출판연도 미상). **中等音樂教本 2**. 서울: 국제문예사.

전국교육음악협회(1948). **中學音樂教本 第1卷(재판)**.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1946). **臨時 中等音樂教本**. 서울: 국제음악문화사.

_____(1948). **中等音樂教本**.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최희남(편)(1950(4월 29일)). **중등음악교본 1(수정재판)**.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_____(편)(1949(9월 10일)). **중등음악교본 2**.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_____(편)(1950(4월 29일)). **중등음악교본 2(수정재판)**. 서울: 금룡도서주식회사.

文部省(1889). **小學唱歌集 初編**. 東京: 高等師範學校 付屬 音樂學校.

_____(1885). **小學唱歌集 2編**. 東京: 高等師範學校 付屬 音樂學校.

_____(1885). **小學唱歌集 3編**. 東京: 高等師範學校 付屬 音樂學校.

黑澤隆朝, 小川一朗, 林 幸光(共編)(1939).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一編**. 東京: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_____(共編)(1939).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二編**. 東京: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_____(共編)(1943).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三編**. 東京: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_____(共編)(1943).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四編**. 東京: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_____(共編)(1939).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 第五編**. 合資會社 共益商社書店.

黑澤隆朝・小川一朗(共編)(1942). **標準 實業學校音樂教科書(男子用) 1**. 東京: 中等學校教科書株式會社.

東京音樂學校(編)(1909). **中等唱歌**. 東京: 合資會社 共益商社樂器店.

山田源一郎(編)(1908). **女學唱歌**. 東京: 合資會社 共益商社樂器店.

_____(編)(1922). **女學唱歌**. 東京: 合資會社 共益商社樂器店.
鈴木米次郎・野村成仁(共編)(1902). **新編中學唱歌集 中卷**. 東京: 十字屋.
渡邊彌藏・山本 壽(共編)(昭和5年(1930). **高等女學校 音樂教科書 3**. 東京, 大阪: 寶文館.
北村季晴(編)(明治44年(1911). **中等音樂教科書 卷1**. 東京: 合資會社 公益商社書店.
_____(編)(明治43年(1910). **中等音樂教科書 卷2**. 東京: 合資會社 公益商社書店.
_____(編)(明治43年(1910). **中等音樂教科書 卷3**. 東京: 合資會社 公益商社書店.
_____(編)(明治44年(1911). **中等音樂教科書 卷4**. 東京: 合資會社 公益商社書店.

< 악보집 >

강범형(편)(1929). **신식유행28청춘창가집**. 경성: 시조사.
강의영(1928). **20세기 신청년수양창가집**. 경성: 영창서관.
_____(1926). **세계명곡통속창가집**. 경성: 영창서관.
광문서시(1921). **조선명승지리창가**.
김명철(편)(1930). **션발창가집: 저명30곡**. 평양: 금명음악출판사.
김순애(1954). **김순애가곡집 1**.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나운영(1946). **어린이노래책 제1집**. 경성: 광문사.
노래동무회(1948). **노래동무**.(노래동무회와 노래동무 후원회에게만 제공)
녹양사편집부(1954). **세계명가곡집**. 서울: 녹양사
독고선(편)(1928). **가요곡선집 제1집**. 경성: 창문당서점.
_____(편)(1929). **가요곡선집 제2집**. 경성: 영창서관.
명문당(1938). **아동교육가곡집**. 경성: 명문당.
미리영(1931). **조선민요합창곡집 제1집**. 경성: 이화여자전문학교음악과.
박태준(1927). **가곡집: 부 박태준가곡집**. 경성: 대구서적조합.

_____(1952). **무궁화는 피고 피고**. New York: Korean Arts And Letters.
_____(연세대학교음대동문회 편)(1975). **박태준 작곡집**. 서울: 세광출판사.
박태준・윤복진(1939). **(歌謠曲集) 물새발자옥**. 경성: 교문사.
박태현(1947). **박태현 동요작곡집 제2집 어린이노래책**. 서울: 국제음악문화사 출판부.
안애리(A.L.A. Baird, L.B.Becker 편)(편)(1920). **챵가집**. 평양: 야소교서원,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오창진(1948(7월 10일)). **세계명가집**. 서울: 주식회사 문화당.
안기영(1929). **안기영 작곡집 제1집**. 경성: 악장사.
_____(1931). **안기영작곡집 제2집.** 경성: 성우회.
유석조(편)(1927). **소년소녀 교육유행창가집**. 경성: 광학서포.
윤성덕(역술(譯述))(1930). **피아노선율법**. 경성: 이화전문학교음악부.
음악교육협회(1971). **교양세계명가곡집**. 서울: 동성출판사.
이강염(1969). **세계명가 230곡집**.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이상준(1914). **조선속곡집(상권)**. 경성: 조선복음인쇄소.
_____(1929). **신유행창가**. 경성: 삼성사.
_____(1929). **최신창가집 전**. 경성: 박문서관.
이철(편)(1927). **세계걸작가곡: 백장미(제1집)**. 출판지 미상: 백장미.
이화유치원(1930). **유희창가집**. 경성: 이화유치원.
이홍렬(1934). **이홍렬작곡집 제1집**. 동경: 상문사.
임우상(1978). **[8] 세계명가곡집**. 서울: 학문사.
정경휘(1921). **20세기 청년여자창가.** 경성: 광문서시.
조선아동문화협회(1946). **조선동요백곡선 상권**. 서울: 조선아동문화협회.
한규동(편)(1955). **한국가곡집 제1집**. 서울:향성회.
현제명(편)(1948). **세계명작가곡집 제1집**. 서울: 한성도서주식회사.
_____(편). **세계명작가곡집 제2집**. 경성: 한성도서(1935) 서울: 한성도서(1948). (한국사DB검색, 한중연)
_____(1932). **현제명 작곡집 제1집**. 경성: 음악출판사.

홍난파(1929).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 경성: 연악회.
_____(1931).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0년 초판). 경성: 창문당서점.

_____(1933). **조선동요백곡집 하편**. 경성: 연악회.
_____(1933).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노산시조편)**. 경성: 연악회.
홍영후(편)(1917). **통속창가집.** 경성: 박문서관.
_____(편)(1919). **도쿄미창가집.** 경성: 광익서관.
_____(편)(1922). **광익창가집**. 경성: 광익서관.
_____(편)(1936). **특선가요곡집**(5판). 경성: 연악회출판부.
_____(편)(1926). **세계명작가곡선집**. 경성: 연악회 회우부.
CDE樂友會(편)(1926). **만도린 바이오린 오르간 하모니까 「악전대요 부 유행창가」 세계유행명곡집 전**. 경성: 영창서관.
태림출판사 편집부(1997). **슈베르트 200가곡집(저음용)**. 서울: 악보출판 태림출판사.
국민음악연구회 이강염(편)(1956). **세계명가백곡집**.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門馬直衛(編)(1932). **世界音樂全集 第35卷: 學校唱歌集**. 東京: 合資會社 春秋社.
外山國彦(編)(1931). **世界音樂全集 第16卷: 世界唱歌集**. 東京: 株式會社 春秋社.

< 학교사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2006).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음악55년사 편찬위원회(1974). **연세음악55년사**. 서울: 연세대학교[현 제명박사기념관건립기성회].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1994). **梨花百年史 1886~1986**. 서울: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1956).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논문 >

강환직(2010). 조선총독부 민족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악과 교육**, 29, 7-30.

고성휘(2000). 해방공간의 음악교육적 환경에 관한 소고. **음악평론**, 11, 5-22.

국성하(2018). 해방이후 6·25전쟁기까지의 임시 초중등교원 양성 연구. **한국교육사학**, 40(2), 1-36.

권혜근(2010). 한 일 음악교육 변천사 비교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5, 187-225.

_____(2014).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제14회 한국음악사학회 음악 학술대회 자료집**. 2014년 5월 23일-24일. 서울: 대학로 혜화 아트센터.

_____(2014). 해방공간의 음악 교육 연구: 『초등 노래책』과 『남녀 중등음악 교본』 1·2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3, 5-36.

_____(2016). 미군정기의 음악 교재 연구: 『남녀 중등음악 교본』 제 3권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7, 109-143.

김기복(2001).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연구: 음악교육 정책과 음악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목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달우·오정석(1996). 해방 후 학교체육의 이념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1(1), 26-38.

김도수(2009). 개화기 30년간 개신교 찬송가의 유입과 수용 과정 및 학교음악과 사회음악에 끼친 영향, **음악논단**, 23, 159-195.

김상훈(2014). **1945~1950년 역사 교수요목과 교과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수정(2003). 『죠션어 셩가』(1924년)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상)**.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 서울: 가톨릭출판사.

김수현(1995). 해방공간 조선음악가동맹의 조직과 활동. **민족음악의 이해**, 4,

20-60.
김용희(2001). 『신편창가집』에 반영된 일제 무단정책의 영향. **낭만음악**, 52, 41-76.
_____(2002). 음악교육학의 현대적 동향. **교육논총**, 19-1, 1-29.
김운태(1975). 1930년대 이후의 일제침략전쟁동원과 민족말살정책. **행정논총**, 13(1), 75-90.
김유진(2020). **20세기 초 양악전문가의 전통음악 채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인용(2008). 해방 전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교육정책. **교육사상연구**, 22(3), 1-20.
김정(1987). 한국미술교육사의 연구정립을 위한 기초적고찰<I>: 갑오경장~1950년대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조형교육연구**, 3, 11-21.
김정미(2002). **미군정기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1945-1948)**.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선(2011). 잡지 기사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의 실태: 『문교의 조선』과 『조선의 교육연구』의 교원에 의한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46, 97-408.
_____(2012). 일본인 중등음악교원의 활동으로 본 근대조선의 서양음악 수용. **동양음악**, 34, 109-130.
_____(2010). 일제강점기 국내의 일본인 음악가들과 그 활동. **한국음악사학보**, 45, 261-291.
_____(2008). 근대 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도쿄음악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41, 149-186.
김진두・김창옥(2013). 미군정기 교과서 출판 연구. **출판잡지연구**, 21(1), 61-87.
김한종(2009).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역사교육연구**, 0(9). 295-329.
김희진(2016). 즐거움과 국가: 1950년대 음악 교과서에 담긴 국가주의. **음악과 민족**, 51, 157-181.

나운영(1967). 해방 후 한국에 미친 미국음악의 영향과 그 반응. **아세아연구**, 10(2), 151-161.

문경숙(2014). 미군정 시대의 한국음악교육 실태: 1945~1948. **음악교육연구**, 43(3), 21-46.

민경찬(2014). 해방공간기 양악계의 양상: 음악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3, 169-196.

민성희(2015). 해방 직후(1945~1948) 황의돈의 국사교육 재건 활동. **역사교육연구**, 21, 89-140.

박은경(1998). **근대 창가의 연구: 이상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진영(2015). 번역가 김억과 임학수의 머리말: 한시와 영문학 번역 계보의 성립 배경. **동아시아문화연구**, 60, 203-230.

박혜정(2005). 서양음악의 전래와 수용: 1880년대를 기점으로 한 개화기 중심으로. **국악과 교육**, 23, 231-266.

배연형(2006). 창가 음반의 유통. **한국어문학연구**, 51, 35-73.

손태룡(2012). 박태준의 작곡집 고찰. **음악문헌학**, 3, 9-74.

_____(2014). 윤복진의 가사로 된 악곡 고찰. **음악문헌학**, 5, 9-196.

신계휴(2005). 교수요목기의 초등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5(1), 3-24.

오새내・김양진(2014). 해방 후, 최초의 국정교과서 『바둑이와 철수』(박창해 저, 1948) 편찬의 국어학사적 맥락 연구: 고(故) 박창해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 283-316.

오현아(2011). 근현대 국어 교육 자료 변화 양상 연구: 초등 국어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7, 3-37.

_____(2012).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에 대한 시론. **국어교육학연구**, 45, 288-313.

우용제(2005). 한국 교육사에서의 성요셉신학교의 위상. **가톨릭신학과 사상**, 51, 57-83.

유미희(2007). 해방공간기 무용교육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3, 53-80.

유형선・윤애경(2020). 김소월 시어의 방언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68, 105-129.

윤종문(2018). 1946년 미군정의 ‘조선교육사절단’ 미국 파견과 그 결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67-344.

윤효녕(2019). 김소월의 「진달내쏫」은 이별 수용의 시가 아니다. **동양학**, 74, 1-20.

이강훈(2003). 신국가건설기 ‘새교육운동’과 ‘생활교육’론. **역사교육**, 88, 99-113.

이경분(2017). 해방 직후의 음악교과서: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해제. **근대서지**, 16, 340-348.

이경희(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7종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표현 영역을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길상(2003). 미군정기 초등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 25(2), 75-110.

이명찬(2011). 아름다움에 이르려는 방황: 임학수론. **한국근대문학연구**, 24, 125-150.

이수나(2013). 대한민국 정부수립기(1945-1954)의 미술교과서 편찬배경과 삽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5, 79-110.

이유로(2002). **한국가창곡에 나타난 노랫말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 논문.

_____(2019). 대구 발행 『중등 음악교과서』 해제. **근대서지**, 19, 323-334.

_____(2020). 해방공간 대구 지역에서 사용된 중등 음악교과서 『음악교본』(대건초급중학교)과 『중등 음악교과서』(대구공립상업중학교)에 대한 비교 고찰. **음악교육연구**, 49(2), 139-173.

이준식(1996). 일제 침략기 한글 운동 연구: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49, 49-82.

임석원・조문기(2014). 미군정기 조선체조연맹의 체육교육 정상화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2), 21-30.

장미경・김순전(2013).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정책: 『보통학교창가서』와 『보통학교보충창가집』의 비교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57, 129-133.

장유정(2013).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백장미: 세계걸작가곡」(이철 편, 1927년 발행)의 해제. **근대서지**, 8, 653-660.

전진성(1948). 교과서 검인정에 대하여. **새교육**, 1(3), 44-?.

조성우(2017). **해방공간기 음악활동에 대한 소고: 양악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 논문.

조영주(1989). 음악과 언어. **낭만음악**, 겨울호, 105-123.

조은령(2001). **일제시대(1905-1945)의 음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음악교육사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근학(1990). 외솔 선생 전기. **나라사랑**, 73, 27-37.

최은경(2014). 교과서 동요・동시 정전화(正典化) 연구: 미군정기~교수요목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 459-488.

한정호(2020). 이극로의 대종교 활동과 『한얼노래』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1(2), 5-36.

허재영(2002). 근대 계몽기 이후의 국어 연구가 한글맞춤법에 미친 영향. **겨레어문학**, 31, 35-77.

_____(2007).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한말연구**, 20, 293-316.

_____(2014).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과서와 문법 교육의 특징. **한민족어문학**, 66, 61-84.

허지연(2022). 제국과 식민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음악 교과서 비교 연구. **음악과 현실**, 64, 87-136.

홍웅선(1996). 편수국의 위상(1945-1955). **교과서 연구**, 26, 36-38.

櫻井雅人(2004). 唱歌集の中の外國曲: 小學校唱歌集を中心して(1). 言語文化, 41, 3-17.

小田敏花(2016). 近代日韓唱歌教育と西洋音樂: 日本と韓國の音樂の近代化をめぐって. 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Waseda Univ.), 18, 431-450.
鈴木 愼一朗(2012). 黒澤隆朝による『標準女子音樂教科書』の特徵:『女子音樂教授資料集成』との關係から. Japanese Journal of Music Education Practice, vol.9 no.2, 95-102.

< 신문 기사 >

“여적(餘滴)”. 『경향신문』, 1947. 8. 23.
“교육 조선에 이 무슨 수치”. 『경향신문』, 1947. 11. 11.
“문교부가 모집한 현상 가사 당선자”. 『경향신문』, 1949. 3. 11.
“보라 교원들 참상”. 『경향신문』, 1949. 6. 9.
박태현. “문화 십년 음악(1)”. 『경향신문』, 1955. 8. 12.
박태현. “문화 십년 음악(2)”. 『경향신문』, 1955. 8. 13.
“최초 가곡은 박태준의 <사우>”. 『경향신문』, 1986. 4. 24.
“청년 성악가 권태호군의 독창회와 그 곡목”. 『동아일보』, 1928. 9. 13.
“평양에서 처음인 신여성의 조선곡”. 『동아일보』, 1930. 12. 26.
“이전(梨專) 순회 음악”. 『동아일보』, 1930. 12. 29.
“피아노 독주”. 『동아일보』, 1938. 9. 15.
“소프래노 이관옥양 독창회”. 『동아일보』, 1938. 10. 27.
“독립 촉성을 결의 연합국에 요청”. 『동아일보』, 1945. 12. 10.
“해방 후 서울 물가 평균 삽(卅)배로 폭등”. 『동아일보』, 1945. 12. 22.
“북한 괴뢰 납치 인사 생존자 명부(완)”. 『동아일보』, 1957. 11. 20.
“신팔도기(31) 담양”. 『동아일보』, 1978. 5. 16.
“신간 소개”. 『조선일보』, 1929. 10. 31.
“숭전(崇專)기청음악부 순회음악연주회”. 『조선일보』, 1931. 2. 6.
“동경유학생들의 조선곡연주여행”. 『조선일보』, 1932. 5. 16.
“기일임박한 연전(延專)순회음악”. 『조선일보』, 1933. 6. 4.

“출발일 임박한 경성보육 순회연주”. 『조선일보』, 1933. 7. 7.
“중앙보육순회 신춘음악성황”. 『조선일보』, 1934. 3. 15.
“라디오”. 『조선일보』, 1934. 7. 14.
“라디오”. 『조선일보』, 1934. 9. 23.
“라디오”. 『조선일보』, 1935. 4. 8.
“라디오”. 『조선일보』, 1935. 4. 23.
“라디오”. 『조선일보』, 1935. 9. 10.
“라디오”. 『조선일보』, 1936. 9. 25.
“성전(聖戰) 뒤의 이 수확!”. 『조선일보』, 1936. 10. 23.
“부녀 계몽 잡지 『우리집』 발간”. 『조선일보』, 1946. 2. 17.
“정부 수립 축하 식전”. 『조선일보』, 1948. 8. 15.
“장중 활발하게 새 곡조로 부르자 우리 애국가”. 『자유신문』, 1945. 11. 21.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 68 안기영 서양음악 풍미 속 민족음악 기틀 마련”. 『한겨레신문』, 1991. 5. 10.

< 잡지 >

이정화(1990). 원로 박용구의 삶에 비춰본 한국예술사/그토록 겨운 바람의 세월 14: 해방 직후의 음악계 상황과 좌·우익 대립. **객석**, 5월호, 182-185

김태완(2020). 동요 <우리나라 꽃>의 작곡가 함이영. **월간조선**, 7월호

손태룡(2010). 박태준의 <동무생각>에 얽힌 이야기. **대구문화**(301호), 12월호.

< 영상 >

KBS 8.15 특집 다큐멘터리 ‘조선총독부 최후의 25일’(2013. 8. 15. 방영)

KBS ‘TV쇼 진품명품’(2020. 1. 12. 방영)

< 인터넷 검색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

JSTOR www.jstor.org

Grove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grovemusic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위키피디아(on-line) https://ko.wikipedia.org

표준국어대사전(on-line) https://stdict.korean.go.kr

한겨레 음악 대사전(on-line) https://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http://encykorea.aks.ac.kr

한국현대문학대사전(on-line) https://terms.naver.com/

두산백과 두디피아(on-line) https://tv.naver.com/doopedia

교육학용어사전(on-line) https://search.naver.com/

나운영 홈페이지 www.launyung.co.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컬렉션 '고문헌'
https://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collectionDiscovery?vid=82SNU&collectionId=81704779720002591

악보검색 https://imslp.org, https://library.uta.edu, www.oxfordlieder.co.uk, www.wikipedia.org, http://LyricSmile.com, www.youtube.com, https://hymnary.org

< 기타 >

미군정청, 학교에 대한 설명과 지시(영어), 1945. 10. 21.
미군정청, 법령 제6호, 교육의 조치(한글, 일본어), 1945. 9. 29.
미군정청, 법령 제6호, 교육의 조치(영어), 1945. 9. 29
군정청 문교부(1946).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1)**.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_____(1946).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2)**.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_____(1946).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3)**.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_____(1947).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4).**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군정청 학무국. 신교육방침 각도에 지시. 매일신보, 1945. 9. 18.
군정청 학무국. 당면한 교육방침 결정. 매일신보, 1945. 9. 22.
중등학교 교과과정 결정. 매일신보, 1945. 9. 30.
미군정청 관보 Official Gazett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Vol. No.1 Sept. 1945 - Sept.1946, Part 1(1990), 서울: 원주문화사.
조선총독부(1939).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7년**. 출판지 미상 : 조선총독부.
권혜근((2013). 해방공간의 음악교과서, **근대서지**, 7. 166-177
_____(2016). 해방공간의 음악교과서 『중학음악교본』 제3권의 해제, **근대서지**, 14, 276-291.
노동은(1989). 부록II. 해방과 분리공간의 음악관계 제1차 사료목록, **낭만음악**, 8월호, 92-246.
민경찬(2000). 『선발창가집』에 관하여. **낭만음악**, 여름호, 12(3), 239-242.
_____(2014). 해방공간기 양악계의 양상:단체를 중심으로. **제14회 한국음악사학회 음악학술대회 자료집.** 2014년 5월 23일-24일. 107-128.
민경찬 외 4인. **일제강점기 음악교과서 가사 번역집: 조선총독부에서 발**

행한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자료집).
박균(역)(2016). 한국음악:유럽식 기보로 역보(譯譜)된 17개 악곡들에 대한 최초의 소개 및 논평. **동양음악**, 40, 247-272.
우용제(2002). 해방 후 한민족교육과 중국조선족교육의 위상. **한국교육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2(1), 153-154.
이진원(2014). 해방공간의 유성기음반 문화 연구, **제14회 한국음악사학회 음악 학술대회 자료집.** 2014년 5월 23일-24일. 29-100.
전인평(2014). '해방공간의 음악교육'에 대한 논평. **제14회 한국음악사학회 음악학술대회 자료집.** 2014년 5월 23일-24일. (쪽번호 없음)
Armstrong, C. K. (2003).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2(1), 71-99.
Faulkner, M. (1947). Music Education in the Orient. *Music Educators Journal*, 33(3), 26+52-53.
Ling, S. J. (1952). Singing in Korea. *Music Educators Journal*, 39(2), 24-26.
Miyashita, K. (2012). Foster's Songs in Japan. *American Music*, 30(3), 308-325.
Noah, M. (1949). Mission to Korea. *Music Educators Journal*, 35(6), 14-16.

부 록

[부록 1] 『해방중등』23종 수록 한국 가창곡 203곡의 97개 곡조별 정리
[부록 2]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수록곡의 작곡자, 수록곡 제목, 수록 곡수와 횟수(교과서 인명(人名) 표기 의거)
[부록 3]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수록곡의 작곡자, 수록곡 제목, 수록 곡수와 횟수(본명 의거)
[부록 4] 『해방중등』23종 수록 외국 가창곡 478곡의 228개 곡조별 정리
[부록 5]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중 ‘민요’로 표기된 63개 곡조
[부록 6] 기타 (곡조별 정리) (45곡조)
[부록 7] 외국곡 작곡자와 수록곡(교과서 표기 기준)
[부록 8] 작곡자의 출신 지역 및 생몰 연대 (총 93명)
[부록 9]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작곡자별 수록 곡조, 곡조 수, 수록 횟수
[부록 10] 역/작사자별 ‘역/작사곡’, ‘노랫말에 대한 표현’, ‘수록 횟수’
[부록 11] 외국곡 노랫말의 번역/작사 시기
[부록 12] 『標準』 수록 가창곡

[부록 1] 『해방중등』 23종 수록 한국 가창곡 203곡의 97개 곡조별 정리(곡목의 가나다순)

※ 수록 교과서 표기는 <표 I-1>의 교과서 번호(1 ~ 23)에 의거하였다.

※ 곡목 앞의 '○-○' 형태의 번호에서(예: 1-1) '앞의 ○'는 곡조번호, '뒤의 ○'는 일련번호이다. 동일 곡조가 여러 교과서에 수록된 경우, 동일한 앞번호에 수록 횟수만큼의 뒷번호가 붙어 있다.

※ 목차와 수록 악보의 곡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악보 곡목에서 발견되는 상이 부분을 표시하였다.(예: 1-1 <가고파(곶아)>)

※ 인명(人名) 표기가 복수(複數) 존재하는 경우 (#○○○#)로 나타내었다.
(예: '홍란파'는 (#홍난파#)로 표기. 현대 표준적 표기인 '홍난파'를 기준으로, 다른 표기인 '홍란파'를 (#홍난파#)로 표기함)

※ 한자 제목은 조선어로 바꾸어 표기하였다.(예: 31-2 <사우>. 교과서에는 '思友'로 표기되어 있음)

※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기울인*' 글씨체(예: ***안기영***)로 나타내었다.

※ 비고에는 특이사항, 원제(原題), 표기법, 작사/작곡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곡 목	교과서	노랫말/곡	비고
1-1	가고파(곺아)	1	이은상/김동진	1) 교과서 1에서 이 곡의 제목은 ‘순차(順次)’에는 ‘가고파’로, ‘수록 악보’에는 ‘가곺아’(노랫말도 ‘가곺아’, ‘보곺아’ 등으로 되어 있음)로 표기되어 있다.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에서는 ‘순차’와 ‘수록 악보’에 표기된 ‘곡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예: 순차에는 ‘물새발자욱’, 악보에는 ‘물ㅅ새발자욱’(‘사이ㅅ’ 표기 사용))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보 사보 과정이 끝난 이후 인쇄 이전에 ‘순차’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악보 곡목에 사용된 맞춤법이 검정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 ‘순차’는 다른 맞춤법으로 작성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교과서 1의 ‘수록 악보’ 곡목에서 발견되는 ‘사이ㅅ’이 ‘순차’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비추어볼 때, ‘사이ㅅ’ 표기 폐지가 결정된 1946년 후반에 있었던 ‘한글맞춤법통일안 제3차 수정’의 내용이 일부분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순차와 악보의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검정을 통과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해방 후 검정 심사를 통과한 첫 중등음악교과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사 기준 및 과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2) 교과서 10(『중등음악교본』)에는 〈가고 싶어〉라는 곡목으로 수록되었다. 교과서 10은 교과서 1의 개정판임을 전제로 할 때, 편찬자 또는 발행자에 의하여 ‘가고파(곺아)’가 ‘가고 싶어’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정 이유는 표준어 기준 적용으로, 조선어학회가 1936년 펴낸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서 1과 10은 표기법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는 교과서 1에는 다수 포함되어 있던 한자가 교과서 10에는 대부분 조선어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교과서 1의 여러 노랫말에서 발견되는 ‘사이ㅅ’이 교과서 10에서는 매우 적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첫째는 주로 ‘한자폐지/한글전용’(1945년 12월 8일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 위원회(제9분과)가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중등 학교 교과서를 한글로 하기로 결의. 이응호(1974), pp.314-315)의 영향, 둘째는 1946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 제3차 수정’ 내용 가운데 ‘사이ㅅ’ 표기 폐지 항목이 적용된 결과로 파악된다.
1-2	가고 싶어	10	이은상/김동진	
2-1	가싯(시)덤불	10	김소월/김성태	1) 교과서 10 ‘차레’에는 ‘가싯덤불’로, 수록 악보에는 ‘가시덤불’로 표기되어 있음. 2) 김소월의 본명은 김정식(廷湜).(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소월’ 2023.1.28. 22:12 접속)
2-2	가시덤불	20	김소월/김성태	
3-1	가을	20	이병기/북양인	‘북양인’(조선어 표기)은 필명 또는 호로 추정되는데, 정보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물 파악 불가.
4-1	감둥 병아리	3	백하/	1) ‘백하(白夏)’는 필명 또는 호로 추정. 정보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물 파악은 불가.

			홍난파	1930년 동아일보에 ‘大邱 새벽社 白夏’의 시(詩) ‘봄밤’이 실려 있는데, 동일 한자명이라는 점에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나 ‘大邱 새벽社’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본명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찾기 어렵다. 한편 『해방중등』에서 오기(誤記), 오식(誤植)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에 비추어, ‘백하(白夏)’가 박세영의 호 ‘백하(白河)’의 오기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할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2)홍난파의 본명은 홍영후(永厚).(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홍난파’ 2023.1.28. 20:13 접속)
5-1	개천가	2	표기 없음	1) 표기는 없으나 작사자가 최남선으로 확인됨.(한정호(2020), p.17) 2) 대종교 『한얼노래』 수록곡으로 표기되어 있음.
6-1	건국의 노래	1	김태오/ 나운영	1) 나운영은 1945년 중앙여자전문학교 재직 시 부학장이었던 시인 김태오와 합작하여 몇 작품을 만들었는데, 첫 곡이 <건국의 노래>였다.(나운영(2013), p.40, 46) 2) 교과서 1(1946)의 악보에는 ‘旗ㅅ발’(깃발)에 ‘사이ㅅ’ 표기가 사용되어 있으나, 교과서 9(1947추정)에는 ‘旗발’로 표기되어 있음.(※교과서 10 악보 누락)
6-2	건국의 노래	9	김태오/ 나운영	
6-3	건국의 노래	10	김태오/ 나운영	
7-1	건국행진곡	1	김태오/ ***김순남***	
7-2	건국행진곡	10	김태오/ ***김순남***	
8-1	고요한 삼림	6	이은상/ 박태준	교과서 6에는 곡목이 ‘고요한 삼림(森林)’으로, 교과서 23에는 ‘고요한 숲(森林)’으로 되어 있다. 이 곡이 발표된 『가곡집: 부 박태준가곡집』(1927)에 ‘고요한 森林’으로 수록되어 있는 바, 교과서 23의 곡목은 원제(原題)가 수정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8-2	고요한 숲	23	이은상/ 박태준	
9-1	고향 생각	20	이은상/ 홍난파	
10-1	고향 생각	14	현제명/ 현제명	
10-2	고향생각	7	현제명/ 현제명	
11-1	고향의 봄	9	이원수/ 홍난파	
12-1	관덕정	6	이은상/ 홍난파	
12-2	관덕정	23	이은상/	

			홍난파	
13	교문을 나슬 때	6	김재인/ ***박은용***	1) 김재인과 박은용은 해방공간 시기 이화여고에 함께 재직하였다.(이화여자고등학교(1994))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 편찬 시 박은용이 김재인에게 <Home, Sweet Home> 번역을 맡긴 바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9) 2) 박은용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월북.(한겨레음악대사전 '박은용' 2023.1.29. 00:05 접속)
14	그네	20	김말봉/ 금수현	김말봉(金末峰)은 금수현의 장모.
15-1	그리운 강남	1	***김석송/ 안기영***	1) 김석송의 '석송(石松)'은 호. 본명은 김형원. 6·25전쟁 중 납북된 것으로 알려짐.(위키백과 '김석송' 2023.1.28. 22:09 접속) 2) 안기영은 1950년 9월 월북.(『한국작곡가사전』 p.270)
15-2	그리운 강남	10	***김석송/ 안기영***	
15-3	그리운 강남	12	***김석송/ 안기영***	
15-4	그리운 강남	14	***김석송/ 안기영***	
16-1	금강에 살으리랏다	1	이은상/ (#홍난파#)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16-2	금강에 살으리랏다	6	이은상/ 홍난파	
16-3	금강산에 살으리랏다	9	이은상/ 홍난파	목차 및 수록 악보의 곡목에서 '금강'을 '금강산'으로 오기(誤記).
16-4	금강에 살으리랏다	10	이은상/ (#홍난파#)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16-5	금강에 살으리랏다	12	이은상/ 홍난파	
16-6	금강에 살으리랏다	15	이은상/ (#홍난파#)	1)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2) 목차에 '살으리랐다'로 표기됨.
16-7	금강에 살으리랏다	22	이은상/ 홍난파	

16-8	금강에 살으리랏다	23	이은상/ 홍난파	
17-1	기러기	3	표기 없음 /홍난파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수록 악보를 통하여 '홍난파'의 노랫말임이 확인된다.
18-1	꽃밭	1	권중찬/ ***안기영***	1) 권중찬(權重燦)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2) 『안기영 작곡집 제2집』(1931)에 수록되어 있음.
18-2	꽃밭	10	권중찬/ ***안기영***	
18-3	꽃밭	22	권중찬/ ***안기영***	
19-1	꿀돼지	3	윤석중/ 홍난파	
20-1	낙엽	19	***윤복진***/ 박태준	
20-2	낙엽	21	***윤복진***/ 박태준	
21-1	남산에 올라	19	이은상/ ***안기영***	
21-2	남산에 올라	21	이은상/ ***안기영***	
22-1	내 고향	20	노천명/ 나운영	
23-1	내 고향	8	표기 없음 /이홍렬	이 곡이 발표된 『이홍렬 작곡집 제1집』(1934)의 악보에도 노랫말 관련 인물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작곡집 목차에 3곡을 제외한 모든 곡에 노랫말 관련 인물명을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홍렬 본인의 노랫말로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
24-1	농군의 노래	1	***여상현***/ 이홍렬	1) 여상현은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 활동.(한국현대문학대사전 '여상현' 2023.1.28. 23:53 접속) 6·25전쟁 중 납북(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상현' 2023.1.28. 23:56 접속) 2) 교과서 1의 2절 '치마ㅅ자락'에서 '사이ㅅ' 표기 사용됨. 3) 교과서 10의 악보 소실(消失)
24-2	농군의 노래	9	***여상현***/ 이홍렬	
24-3	농군의 노래	10	***여상현***/ 이홍렬	

24-4	농군의 노래	22	***여상현***/ 이홍렬	
25-1	눈	20	표기 없음/ 김순애	<눈>이 수록된 『김순애 가곡집 1』(1954)을 통하여 '양주동(梁柱東) 작시'가 확인됨.
26-1	눈 오는 밤	13	***김안서***/ 현제명	1) '안서(岸曙)'는 김억(김희권에서 개명)의 이칭(異稱) 중 하나. 6·25전쟁 중 납북.(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억' 2023.1.29.21:23 접속) 안서 김억이 '납북'(월북이 아닌)되었다는 주장은 195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조선일보 '생활의 표백 최근 시조작품평' 1957.5.6.) 따라서 그의 시/노랫말은 해방공간 이후에도 금지되지 않았다. 2) 『해방중등』에는 김억 관련 호칭 가운데 '김안서'만 사용됨.
27-1	눈이 옵니다	23	***김안서***/ 함이영	
28-1	대상 교가	12	이종림/ 김상환	1) 이종림은 대상(大商, 1923년 개교. 해방공간 당시 교명은 '대구공립상업중학교'로 확인됨. 현 대구상원고등학교의 전신.(대구상원고등학교 홈페이지))의 초대 한국인 교장(1945년 10월 취임). 2) 김상환은 해방공간 당시 이 학교에 재직한 교사였음을 연구자가 확인하였다.
29-1	도라지타령	5	·	1) 『조선민요합창곡집』(1931)에 수록되어 있음.(합창곡집 악보는 4성부, 교과서 악보는 원래의 4성부에서 solo 성부가 제외된 3성부) 2) 미리영(**美理英**) 편곡. 미리영의 본명은 Mary E. Young으로, 일제강점기 이화여전 음악부(과) 교수 역임. 3) 노랫말 1 ~ 3절이 이상준(李尙俊)의 『조선속곡집 상권』(1914)에 수록된 <도라지타령>(이상준(1914), pp.49-50)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조선속곡집 상권』에 <도라지타령>이 <신식 건달학생>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는데, <도라지타령>의 노랫말 1절, <신식 건달학생>의 1절, <도라지타령>의 2절이 순서대로 교과서 5 수록 <도라지타령>의 1 ~ 3절 노랫말에 해당한다. 노랫말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이상준은 자신의 『조선속곡집 상권』에서 8편의 노랫말이 절취되어 『조선민요합창곡집』에 수록되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화여전의 교장 아펜젤러, 미리영, 안기영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동아일보 '악단삼씨상대 저작권침해소' 1932.2.25.) 8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노랫말로 미루어볼 때 <도라지타령>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노랫말의 창작자는 이상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랫말 창작 시기는, 3절 노랫말에 '동물원 구경만 가누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동물원이 창경궁 안에 생긴 때가 1909년이므로 이때부터 『조선속곡집 상권』의 발행년인 1914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30-1	독립행진곡	1	***박태원***/ 김성태	1) 박태원(朴泰遠, 호 구보(仇甫) 등)은 6・25전쟁 중 월북.(한국현대문학대사전 ‘박태원’ 2023.1.29. 01:39 접속) 2) 2절 ‘기ㅅ발’에서 ‘사이ㅅ’ 표기 사용됨.
30-2	독립행진곡	9	***박태원***/ 김성태	
30-3	독립행진곡	10	***박태원***/ 김성태	
31-1	동무생각	13	이은상/ 박태준	1) 목차에도 악보에도 곡목이 ‘동무생각’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곡은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에 ‘思友’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박태준의 작곡집 『무궁화는 피고 피고』(1952)에도 ‘사우(思友)’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원래의 곡목인 한자어 ‘사우’를 조선어로 표현한 ‘동무생각’이라는 곡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이 교과서뿐이다.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총 4절로 된 〈思友〉 악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중 1・2・4절만 수록되어 있다. ※현행 교과서 수록 노랫말 중 3절의 ‘금새’는 ‘금어’의 오인 또는 오기로 파악된다.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악보에 한자 ‘金魚’(魚는 속자(俗字)로 표기되어 있음)로, 박태준의 『무궁화는 피고 피고』(1952)의 수록 악보에는 ‘금어’로 표기되어 있다. 노랫말을 보더라도, 3절의 ‘꽃진 연당(蓮塘, 연못)에서 [ ] 뛸 때에 나는 깊이 물속 굽어보면서’, ‘꽃진 연당과 같은 내 맘에 [ ] 같은 내 동무야’ 맥락에서, [ ] 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단어 또한 ‘금새’가 아닌 ‘금어(金魚, ‘금붕어’를 뜻함)’인 것은 물론이다.
31-2	사우	1	이은상/ 박태준	1) ‘순차(順次)’ 및 악보의 곡목은 ‘思友’.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총 4절로 된 악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중 1・2・4절만 수록되어 있다
31-3	사우	9	이은상/ 박태준	1) ‘목차’ 및 악보의 곡목은 ‘思友’. 교과서 1의 수록곡이 다수 차용된 교과서인데(이유로(2020), pp.162-168) 수록곡의 ‘표기’까지도 차용된 것으로 보임.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총 4절로 된 악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중 1・2・4절만 수록되어 있다. 이 또한 교과서 1 수록 악보 차용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31-4	사우	10	이은상/ 박태준	1) 곡목이 조선어로 ‘사우’로 표기되어 있음. 교과서 1과의 비교를 통하여 볼 때(연구자는 교과서 10을 교과서 1의 개정판으로 파악함) ‘한자폐지/한글전용’(1945년 12월 8일 결의. 이응호(1974), pp.314-315)의 영향으로 추정됨.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총 4절로 된 악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중 1・2・4절만 수록되어 있다.
31-5	사우	12	이은상/ 박태준	교과서 9 수록 〈사우〉의 비고 내용과 같음.
32-1	등산가	6	***안기영***/ ***안기영***	

32-2	등산가	23	***안기영/ 안기영***	
33-1	마의태자	1	이은상/ ***안기영***	1) ‘순차’ 및 악보에 ‘麻衣太子’로 표기되어 있음. 2) 4절 ‘길ㅅ손’에서 ‘사이ㅅ’ 표기 사용됨.
33-2	마의태자	7	이은상/ ***안기영***	〃
33-3	마의태자	9	이은상/ ***안기영***	〃
33-4	마의태자	10	이은상/ ***안기영***	‘마의태자’(조선어)로 표기되어 있음.
33-5	마의태자	11	이은상/ ***안기영***	‘목차’ 및 악보에 ‘麻衣太子’(한자)로 표기되어 있음.
33-6	마의태자	12	이은상/ ***안기영***	〃
34-1	무궁화	8	***박세영/ 안기영***	1) 박세영(朴世永)은 1946년 월북.(한국현대문학대사전 ‘박세영’ 2023.1.29. 18:51 접속) 2) 박세영은 해방공간 시기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 등의 활동을 하였고(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세영’ 2023.1.29. 19:03 접속) 안기영은 ‘조선음악가동맹’의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민경찬(2014), p.181), 두 단체 공히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산하에 있었다는 점에서(한국현대문학대사전 ‘조선문화단체총연맹’ 2023.1.29. 19:13 접속) 협업의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 ※노랫말에서(총 3절) ‘피고 피고 또 피어’의 반복에서 알 수 있듯이, 끝없이 피는 무궁화처럼 조국이 길이 보전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주제이다.
35-1	무궁화는 피고 피고	5	***윤복진/*** 박태준	1) 윤복진은 6 25전쟁 중 월북. 필명으로는 김수향(金水鄕), 김귀환(金貴環) 등을 사용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윤복진’ 2023.1.29. 20:53 접속) 2) 박태준은 『무궁화는 피고 피고』(1952)의 ‘머리말’에서 이 곡이 자신의 해방 후 첫 작품이라고 밝혔다.
35-2	무궁화(는) 피고 피고	9	***윤복진/*** 박태준	1) 1절 노랫말에 ‘이곳 집 담장 안에’로 되어 있는데, ‘이곳 집’이 박태준의 『무궁화는 피고 피고』(1952) 수록 악보의 노랫말에서는 ‘쉬골집’으로 확인되는 바, ‘이곳’은 오기(誤記)로 볼 수 있다. 교과서 5 수록 악보에는 ‘시골집’으로 되어 있다. 2) 목차의 곡목에 오류 있음.
36-1	물레	19	***김안서/*** 김순애	

36-2	물레	20	***김안서***/ 김순애	
36-3	물레	21	***김안서***/ 김순애	
37-1	물새	6	이은상/ ***안기영***	‘순차’에서 곡목이 확인되나 악보가 누락되어 있음. 편집 또는 인쇄상의 실수에 기인한 누락으로 판단됨.
38-1	물새(물ㅅ새) 발자욱	1	***윤복진***/ 박태준	1) 이 곡은 <물새발자옥>이라는 곡목으로 박태준의 작곡집 『물새발자옥』(1937)에 수록되어 있다. 『해방중등』 가운데 원래의 곡목인 ‘물새발자옥’으로 수록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2) ‘물ㅅ새발자욱’, ‘바다ㅅ가’에 ‘사이ㅅ’ 표기가 사용됨.
38-2	물새 발자국	5	***윤복진***/ 박태준	‘목차’와 악보에 공히 ‘물새발자국’으로 표기되어 있음.
38-3	물새 발자욱	9	***윤복진***/ 박태준	‘목차’와 악보에 공히 ‘물새발자욱’으로 표기되어 있음.
38-4	물새 발자국	10	***윤복진***/ 박태준	‘차례’와 악보에 공히 ‘물새 발자국’으로 표기되어 있음.
38-5	물새 발자국	22	***윤복진***/ 박태준	‘차례’와 악보에 공히 ‘물새 발자국’으로 표기되어 있음.
38-6	물새 발자욱	23	***윤복진***/ 박태준	‘차례’와 악보에 공히 ‘물새 발자욱’으로 표기되어 있음.
39-1	미풍	1	이은상/ 박태준	1) ‘순차’와 악보에 ‘微風’으로 표기되어 있음.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악보 기준으로 볼 때, 총 3절 중 1·2절만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3) 2절의 ‘풀ㅅ잎’에서 ‘사이ㅅ’ 표기 사용이 발견된다.
39-2	미풍	9	이은상/ 박태준	1) ‘목차’와 악보에 ‘微風’으로 표기.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악보 기준으로 볼 때, 총 3절 중 1·2절만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교과서 1의 수록곡이 다수 차용된 교과서이므로,(이유로(2020), pp.162-168) 1·2절만 수록된 것은 교과서 1 수록곡 차용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39-3	미풍	12	이은상/ 박태준	1) ‘목차’와 악보에 ‘微風’으로 표기.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의 악보 기준으로 볼 때, 총 3절 중 1·2절만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교과서 1의 수록곡이 다수 차용된 교과서이므로,(이유로(2020), pp.162-168) 1·2절만 수록된 것은 교과서 1 수록곡 차용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3) 2절의 ‘풀ㅅ잎’에서 ‘사이ㅅ’ 표기 사용이 발견된다.
40-1	박꽃 아가씨	3	오영수/	1) 오영수(吳永壽)는 소설가. 1930년대 초중반 동시 발표. 40년대 말부터 다수의

			홍난파	단편소설 저술. 작풍은 주로 한국적인 소박한 인정이나 서정의 세계에 기조 둠.(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오영수’ 2023.5.3. 06:01 접속) 2) 홍영후(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수록곡이며 표기된 곡목은 ‘박꼿아가씨’이다.
41-1	백로곡	1	정몽주母堂/이홍렬	정몽주의 어머니 ‘이(李)’씨가(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몽주 모당’ 2023.1.29. 22:12 접속) 아들 정몽주가 이방원의 문병을 갈 때 조심하라는 뜻에서 지은 시조로, 『가곡원류(歌曲源流)』에 실려 있음.(국어국문학자료사전 ‘정몽주 모당’ 2023.1.29. 22:14 접속) 그러나 『약파만록(藥坡漫錄)』에 한역된 시는 김정구(金鼎九)의 작품으로 되어 있어(두산백과 ‘백로가’ 2023.1.29. 22:20 접속) 명확한 지은이는 알기 어렵다.
41-2	백로곡	10	정몽주母堂/이홍렬	
42-1	봄	18	이은상/(#홍난파#)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43-1	봄 꿈	8	고장환/이제구	1) 고장환(高長煥)은 ‘조선동요연구협회’의 간부로서, 신재항, 정지용, 유도순, 윤극영, 한정동, 김태오 등과 함께 『조선동요선집』(1928) 발간한 바 있음.(조선일보, 김태오, ‘소년문예운동의 당면에 임무(3)’, 1931.1.31.) 2) 이제구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움.
44-1	봄노래	9	이은상/이홍렬	
45-1	봄처녀	9	이은상/홍난파	
45-2	봄처녀	19	이은상/(#홍난파#)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45-3	봄처녀	21	이은상/홍난파	
45-4	봄처녀	22	이은상/홍난파	
46-1	봄편지	3	서덕출/홍난파	노랫말인 동요시 <봄편지>는 1925년 「어린이」지(誌)를 통하여 발표됨.(국어국문학자료사전 ‘서덕출’ 2023.1.30. 01:47 접속)
47-1	봉숭아	1	김형준/홍난파	1) 이 곡은 홍영후(난파)의 『세계명작가곡선집』(1926)에 ‘鳳仙花’(봉선화)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다.(민경찬(2006), p.105) 교과서 1에 ‘鳳仙花’(봉선화)가 아닌 ‘봉숭아’라는 곡목으로 수록된 이유는 ‘例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例言’에 노랫말을 ‘한글통일안’에 의하여 대체로 고쳤다는 내용이 있는데, ‘봉선화’를

				‘봉숭아’로 고친 것이 일례로 소개되어 있다. 2) 3절 ‘봄ㅅ바람’에 ‘사이ㅅ’표기가 사용됨.
47-2	봉선화	7	김형준/ 홍난파	‘봉선화’(조선어)로 표기되어 있음.
47-3	봉선화	9	김형준/ 홍난파	‘목차’ 및 악보에 ‘鳳仙花’(한자)로 표기되어 있음.
47-4	봉숭아	12	김형준/ 홍난파	‘봉숭아’(조선어)로 표기되어 있음.
47-5	봉숭아	15	김형준/ (#홍난파#)	1) ‘봉숭아’(조선어)로 표기되어 있음. 2)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47-6	봉숭아	19	김형준/ (#홍난파#)	〃
47-7	봉숭아	21	김형준/ (#홍난파#)	〃
48-1	봉숭아꽃	3	윤석중/ 홍난파	홍영후(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에 ‘봉사꽃’이라는 곡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봉사꽃’은 ‘봉선화(봉숭아)’의 방언이기(우리말샘 2023.1.30. 02:27 접속) 때문에 교과서에는 ‘봉숭아꽃’으로 변경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49-1	산유화	10	김소월/ ***김순남***	1) 김순남(金順男)은 1948년 월북.(한겨레음악대사전 2023.1.30. 02:32 접속) 2) 이 곡은 가곡집 『산유화』(1947)에 수록되어 있음.
50-1	비들기	8	***박세옘/ 이건우***	1) 이건우(李健雨)는 1950년 6·25전쟁 중 월북. 2)박세영은 해방공간 시기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 등의 활동을 하였고(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세영’ 2023.1.29. 19:03 접속) 이건우는 ‘조선음악가동맹’의 중앙집행위원이었는데(민경찬(2014), p.181), 두 단체 공히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산하에 있었다는 점에서(한국현대문학대사전 ‘조선문화단체총연맹’ 2023.1.29. 19:13 접속) 협업의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 3) 노랫말 중 ‘비둘기’와 ‘한 벌 남은 옷 입고 서울 간 누나’는 조선 민중을, ‘맞싸우던 수탉’은 일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체적으로는 해방의 기쁨을 표현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51-1	살구꽃	6	***김안서/*** 김순애	
51-2	살구꽃	23	***김안서/***	

			김순애	
52-1	살구꽃	14	***김안세***/ 한시형	한시형(韓時亨)은 평양 출생으로 1942년부터 작곡 시작하였으며, 해방 후 <보통강개수공사의 노래> 등 여러 편의 가요 작곡. 좌익 계열로 북에서 계속 활동.(『한국작곡가사전』, p.483)
53-1	새 나라 세우면서	8	***조남령/ 안기영***	조남령(曺南嶺)의 본명은 조영은(泳恩)으로 시조 시인. 6·25전쟁 무렵 월북한 것으로 추정됨.(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남령' 2023.1.30. 03:02 접속)
54-1	성불사의 밤	1	이은상/ 홍난파	목차와 악보에 공히 '成佛寺의 밤'(한자·조선어 병용)으로 표기되어 있음.
54-2	성불사의 밤	9	이은상/ 홍난파	〃
54-3	성불사의 밤	12	이은상/ 홍난파	〃
54-4	성불사의 밤	16	이은상/ (#홍난파#)	1) '성불사의 밤'(조선어)으로 표기됨. 2)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54-5	성불사의 밤	17	이은상/ (#홍난파#)	〃
54-6	성불사의 밤	22	이은상/ 홍난파	'성불사의 밤'(조선어)으로 표기됨.
54-7	성불사의 밤	23	이은상/ 홍난파	'성불사(成佛寺)의 밤'(조선어·한자 병기)으로 표기됨.
55-1	송별가	6	김재인/ ***박은용***	박은용(朴殷用)은 1948년 월북.(한겨레음악대사전 '박은용' 2023.1.30. 03:10 접속) 교과서 1 편찬 시 편찬위원은 아니었으나 재직하던 이화여고의 동료 김재인에게 노랫말 번역(<Home, Sweet home>)을 맡기는 등 편찬 관련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9) 교과서 수록을 위하여 두 인물이 협업하여 만든 '학교 교육 관련 노래'로 추정해볼 수 있다.
56-1	순례자	15	이은상/ 박태준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 수록 악보의 노랫말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즉 교과서 수록 노랫말 2절의 '산이 많은'에서 '산', 그리고 3절의 '모양이다'는, 작곡집 수록 악보에서 각각 '신', '텬ᄉᆞ갓다'(천사 같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래의 노랫말이 바뀌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유는 알기 어렵다.
57-1	스승님 은혜	11	***임학수/*** 박태준	임학수(林學洙)는 6·25전쟁 중 월북.(한국현대문학대사전 '임학수' 2023.1.30. 03:14 접속) 남북설도 존재함.(가족 주장) '조선문학가동맹' 활동.(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학수' 2023.1.30.03:16 접속)

58-1	신입생 환영	19	***임학수/ 안기영***	임학수는 ‘조선문학가동맹’, 안기영은 ‘조선음악가동맹’에서 활동하였는데, 두 단체 공히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산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협업의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다.
58-2	신입생 환영	21	***임학수/ 안기영***	
59-1	아 가을인가	14	***김수향*** 나운영	김수향(金水鄕)은 윤복진의 이칭(異稱). ‘김수향’의 한자 ‘향(鄕)’이 형태상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경(卿)’으로 오인(誤認) 또는 오기(誤記)됨으로 말미암아, 이 곡의 노랫말이 ‘김수경’의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분단 이후에도 금지되지 않고 계속 애창된 바 있다.(민경찬(2006), p.112) 교과서 14·23에는 조선어로 ‘김수향’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교과서 6에는 한자로 ‘金水卿’(김수경)으로 표기되어 있다.
59-2	아-가을인가	6	***김수경*** 나운영	
59-3	아아 가을인가	23	***김수향*** 나운영	
60-1	아침 해 고울시(씨)고	1	***임학수*** 김성태	1) ‘순차’에는 ‘고울시고’로, 악보에는 ‘고울씨고’로 표기되어 있음. 2) 교과서의 ‘例言’에서 노랫말을 ‘한글통일안’에 맞춰 대체로 고쳤다면서 ‘아츰해 고흘시고’를 ‘아침해 고울시고’로 고친 것을 일례로 소개함. 이로 미루어볼 때 ‘고울씨고’는 틀린 표기. 3) 1절 ‘종ㅅ소리’, 2절 ‘기ㅅ발’ 등에 ‘사이ㅅ’ 표기가 사용됨.
60-2	아침 해 고울시고	9	***임학수*** 김성태	1) ‘목차’와 악보에 공히 ‘고울시고’로 표기되어 있음. 2) 1절의 ‘종소리’, 2절의 ‘깃발’ 등이 교과서 1의 표기와 상이함.
60-3	아침 해 고울씨고	10	***임학수*** 김성태	1) ‘차례’와 악보에 공히 ‘고울씨고’로 표기되어 있음. 2) 1절의 ‘종소리’, 2절의 ‘깃발’ 등이 교과서 1의 표기와 상이함.
61-1	안중근 의사 추념가	2	***김향운*** 계정식	1) 이 곡은 『청년의 노래·안중근의사추념가』(계정식 작곡)라는 제목의 악보로 1946년 10월 발행되었다. 악보의 곡목은 <안의사추념가>(1946년 4월 작곡)로 표기되어 있다.(KBS TV 프로그램 ‘진품명품’ 2020.1.12. 방송) 2) 김향운(金鄕雲)은 작가 현경준(玄卿俊)의 필명. 1909년에 함북 명천 출생으로 남에서 활동하다가 월북. 6·25전쟁 종군작가로 파견되었다가 사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현경준’ 2023.1.19. 22:33 접속)
61-2	안중근 의사 추념가	7	***김향운*** 계정식	
62-1	애국가	1	미상/안 익태	1) 현행 1 ~ 4절 노랫말 기준으로 볼 때, 1·2·4절만 수록되어 있음. 2) 1절에서의 ‘보호하사’, 2절에서의 ‘바람이슬’, 후렴에서의 ‘보존하세’ 등이 현행 노랫말과 상이함. 1945년 11월 21일자 「자유신문」에 게재된 <애국가> 악보에 노랫말 1절이 실려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사’, ‘기리’, ‘보존하세’ 등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된다. 이 악보에 수록된 노랫말과 『해방중등』 수록 <애국가> 노랫말들 간 동일한 부분이 발견되긴 하지만, 신문에 게재된 악보에는 1절만 수록되어 있으며 교과서 노랫말 간 다소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문의 악보가 『해방중등』 수록 <애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62-2	애국가	2	미상/안	1) 현행 1 ~ 4절 노랫말 기준으로 볼 때, 1·2·4절만 수록되어 있음.

			익태	2) 1절에서의 ‘보호하사’, 2절에서의 ‘바람이슬’, 후렴에서의 ‘보존하세’ 등이 현행 노랫말과 상이함.
62-3	애국가	3	미상/안익태	1) 현행 1 ~ 4절 노랫말 기준으로 볼 때, 1·2·4절만 수록되어 있음. 2) 1절에서의 ‘보호하사’, 2절에서의 ‘바람이슬’ 등이 현행 노랫말과 상이함.
62-4	애국가	4	미상/안익태	〃
62-5	애국가	5	미상/안익태	〃
62-6	애국가	8	미상/안익태	1) 현행 1 ~ 4절 노랫말 기준으로 볼 때, 1·2·4절만 수록되어 있음. 2) 1절에서의 ‘보호하사’, 2절에서의 ‘바람이슬’, 후렴에서의 ‘보존하세’ 등이 현행 노랫말과 상이함.
62-7	애국가	9	미상/안익태	1) 현행 1 ~ 4절 노랫말 기준으로 볼 때, 1·2·4절만 수록되어 있음. 2) 1절에서의 ‘하나님’, ‘보호하사’, 2절에서의 ‘남산 위에’, ‘바람이슬’, ‘불별함은’(오기로 보임), 후렴에서의 ‘보존하세’ 등이 현행 노랫말과 상이함.
62-8	애국가	10	미상/안익태	(악보 소실)
62-9	애국가	12	미상/안익태	1) 현행 1 ~ 4절 노랫말 기준으로 볼 때, 1·2·4절만 수록되어 있음. 2) 1절에서의 ‘보호하사’, 2절에서의 ‘남산 우의’, ‘바람이슬’, ‘우리 시상일세’(오기로 보임), 후렴에서의 ‘기리’, ‘보존하세’ 등이 현행 노랫말과 상이함.
62-10	애국가	13	미상/안익태	1) 다른 『해방중등』과 달리 나운영 편찬의 교과서 13·14·18에 수록된 <애국가> 악보에는 1 ~ 4절의 노랫말이 모두 수록되어 있음. 2) 3절 ‘광활한데’, ‘맑고 구름 없이’, ‘(우리) 마음’ 등이 현행 노랫말과 상이함. 3) 나운영 편찬 교과서들에 수록된 <애국가>의 후렴에만 ‘보존’이 아닌, ‘보전’으로 되어 있음.(1948.8.15./1949.5.15. 발행) 이처럼 중등음악교과서를 통하여 해방공간 <애국가> 노랫말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해방공간 <애국가> 노랫말은 현행의 그것과 표기법 외에도 어휘 사용에 있어서의 상이점, 그리고 노랫말의 변화 과정 등을 관찰해볼 수 있다.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애국가’ 2023.2.5. 04:12 접속)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까지는 <Auld Lang Syne>에 애국가 노랫말을 붙여 불렀다고 되어 있으나, 『해방중등』 23종에 안익태 작곡 <애국가> 외의 다른 우리나라 국가는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익태의 <애국가>는 해방 직후 즉 정부수립 이전부터 교육되고 가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國歌)’로서의 위상을 점하여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62-11	애국가	14	미상/안익태	
62-12	애국가	18	미상/안익태	
63-1	어머님	6	김일보/박태철	1) 김일보(金一步)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움. 2) 박태철(朴泰喆)은 일본고등음악학교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조선일보 ‘신춘음악대회

				출연 악사 소개’ 1936.2.23.)
64-1	어-이 어-이	11	***윤복진***/ 박태준	“박태준 작곡, 윤복진 작요” 『양양범버궁』(1931)에 수록되어 있음.(손태룡(2012), pp.21-22)
65-1	에라 동무들아	8	윤기영/ ***정종길***	1) 윤기영(尹基永)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움. 2) 정종길(鄭鍾吉)은 1950년 6・25전쟁 중 월북.(한겨레음악대사전 ‘정종길’ 2023.1.30. 17:34 접속)
66-1	여름바다	11	***김안세***/ 김순애	
67-1	여름방학	11	***임학수***/ 이홍렬	
68-1	여명의 노래	1	화암 /***이건우***	화암(華岩)은 음악평론가 박용구(朴容九)의 아호. 『해방중등』 에서는 ‘화암’이라는 호칭만 사용됨.
68-2	여명의 노래	9	화암 /***이건우***	
68-3	여명의 노래	10	화암 /***이건우***	
68-4	여명의 노래	12	화암 /***이건우***	
69-1	옛 동산에 올라	19	이은상/ (#홍난파#)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69-2	옛 동산에 올라	20	이은상/ 홍난파	
69-3	옛 동산에 올라	21	이은상/ (#홍난파#)	‘홍란파’로 표기되어 있음.
70-1	유관순	11	***임학수***/ ***안기영***	
71-2	은덕가	6	효종 /김성태	효종(孝宗)이 지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71-3	은덕가	23	효종 /김성태	
72-1	응원가	12	윤계현/	1) 대상(大商, 해방공간 당시 교명은 ‘대구공립상업중학교’)의 응원가로서, 작곡은

			김상환	<대상 교가>와 마찬가지로 김상환이 하였다. 2) 윤계현(尹啓鉉)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박목월, 황윤섭, 김성도 등과 함께 낸 4인 시집 『청과집』을 낸 문인.(경북일보 ‘“근현대문학의 요람” 대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최적지’ 2016.4.27.)
73-1	이 몸이 죽고 죽어(충성가(이 몸이 죽고 죽어))	1	정몽주/ ***박은용***	1) 곡목이 ‘순차’에는 ‘이 몸이 죽고 죽어’로, 악보에는 ‘忠誠歌(이 몸이 죽고 죽어)’로 표기되어 있음. 2) 노랫말은 일명 ‘단심가(丹心歌)’로 불리는 시조로서, 『포은집(圃隱集)』·『청구영언(靑丘永言)』 등에 수록되어 있다.
73-2	이 몸이 죽고 죽어	10	정몽주/ ***박은용***	곡목이 ‘차례’와 악보에 공히 ‘이 몸이 죽고 죽어’로 되어 있음.
74-1	이고 진 저 늙은이	21	정철 /함이영	1) 노랫말은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의 시조. <訓民歌>(1580) 16수 중 16번째 시 ‘班白者不負戴於道路’를 조선어로 번역한 것. 2) 함이영(咸二榮, 1915~1957)은 부산 출신이며 일본 우에노 음악학교와 경성사범학교 졸업. 해방 전에는 원산사범, 해방 후에는 창덕여고의 음악교사로 재직.(월간조선 ‘동요 <우리나라 꽃>의 작곡가 함이영’ 2020.7월호)
75-1	자네 집은 밭을 갈아	20	***윤복진***/ 김현재	김현재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움.
76-1	자장가	8	***파인(巴人)***/이흥렬	1) 파인(巴人)은 시인 김동환(金東煥)의 호. 1950년 6·25전쟁 중 납북.(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동환’ 2023.1.30. 20:14 접속) 2) 『해방중등』에 본명 ‘김동환’으로도, 호 ‘파인’으로도 기명됨. 3) 하나의 곡이 ‘자장가’·‘자장의 노래’·‘자장 노래’·‘아기 재우는 노래’ 등의 여러 제목으로 『해방중등』에 수록됨. 『이흥렬작곡집 제1집』(1934)에 발표되었을 때의 곡목은 <자장가>였다.
76-2	자장가	22	표기 없음 /이흥렬	노랫말 관련 인물 관련 표기 없음.
76-3	자장의 노래	19	***파인***/ (#이흥렬#)	‘이흥열’로 표기되어 있음.
76-4	자장 노래	21	***파인***/ (#이흥렬#)	‘이흥열’로 표기되어 있음.
76-5	아기 재우는 노래	7	표기 없음 /이흥렬	노랫말 관련 인물 관련 표기 없음.

77-1	장안사	6	이은상/ 홍난파	
77-2	장안사	20	이은상/ 홍난파	
77-3	장안사	23	이은상/ 홍난파	
78-1	전원의 평화	1	이은상/ 박태준	1) ‘田園의 平和’로 표기되어 있음. 2) 수록 악보 2절의 ‘바람ㅅ결’과 이 교과서의 ‘歌詞 補遺(가사 보유)’에 실린 노랫말에서의 ‘바람결’은 표기법상 차이를 보인다. 즉 악보와 ‘가사 보유’에 적용된 표기법(맞춤법)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78-2	전원의 평화	10	이은상/ 박태준	1) ‘전원의 평화’(조선어)로 표기되어 있음. 2) 2절 ‘바람ㅅ결’에 ‘사이ㅅ’표기 사용됨.
79-1	조국의 노래	18	김태오/ 나운영	
80-1	즐거운 우리 교실	11	***임학수/*** 이홍렬	
81-1	진달래 피는 나라	9	***김기림/*** ***이건우***	김기림(金起林)이 6·25전쟁 중 ‘월북’하였거나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김기림’ 2023.6.17.20:38 접속), ‘두산백과’(‘김기림’ 2023.6.17. 20:43 접속), ‘국어국문학자료사전’(‘김기림’ 2023.6.17. 20:45 접속) 등에는 공통적으로 김기림이 납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사전의 내용에서 ‘납북’의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김기림은 해방 후 좌익 계열 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 시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한국현대문학대사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는데,(한국현대문학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어국문학자료사전) 6·25전쟁 후 월북자로 분류되어 그의 작품은 1988년 7월 19일 해금 조치(동아일보 1988.7.19. 기사 ‘월북 작가 백20여명 해금’) 때까지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해금 후 ‘납북’일 가능성이 제기면서(증언, 정황적 근거) 위와 같이 여러 사전에 ‘납북’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북’ 또는 ‘납북’을 증명할 결정적 근거가 확인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아직 존재한다.
82-1	창백한 마을	6	이기순/ 이홍렬	이홍렬이 일본에서 귀국 후 원산(元山)에서 지내던 때부터 원산 문인 이기순(李基淳)과 막역한 사이로 교우. 이기순의 시 <창백한 마음(을)>(시 제목이 ‘창백한 마음’인지 ‘창백한 마을’인지 확인하기 어려움)을 노랫말로 하여 이홍렬이 곡을 붙임. 이홍렬은 이기순이 해방 전 봉래국민학교에 재직한 것은 기억하나 이후 못 만나다가 작고했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밝힘.(경향신문 ‘명시 명곡을 찾아서 (19)코스모스를 노래함’ 1976.7.24.)
82-1	창백한 마을	23	이기순/ 이홍렬	

83-1	천안삼거리	5	조선 민요	1) 교과서 5에 함께 수록된 민요 <도라지 타령> 악보의 출처는 『조선민요합창곡집 제1집』으로 확인되나 <천안삼거리>의 출처는 확인하기 어렵다. <천안삼거리> 악보의 경우 일제강점기나 해방공간 다른 민요 합창 악보집이 있어 악보를 차용하였을 가능성, 또는 교과서 수록을 위하여 특별히 합창 편곡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2부 합창 편곡.
84-1	청년의 노래	10	? /계정식	악보 소실. ‘차례’에는 계정식 곡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노랫말도 계정식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다.(KBS TV프로그램 ‘진품명품’(2020.1.12. 방영))
85-1	청산곡	6	김상용 / 임원식	김상용(金尙容)의 노랫말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조선 후기 무신 김상옥(金相玉)의 시조로 확인된다.(창악집성 ‘청산아 말 물어보자’ 2023.1.30. 20:56 접속)
86-1	평온(은)한 바다	16	이은상/ 박태준	1) ‘차례’에는 ‘평온한’으로, 악보에는 ‘평은한’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온(穩)’이 맞다. 『가곡집: 부박태준작곡집』(1927, 대구: 대구서적조합)의 제4편에 ‘平穩한 바다’로 표기되어 있다. (손태룡(2012), pp.16-19) 2) 『가곡집: 부 박태준 작곡집』(1927) 악보 기준으로 볼 때, 총 4절 중 1・2・3절만 수록되어 있음.
86-2	평온(은)한 바다	17	이은상/ 박태준	
87-1	풍년 노래	2	표기 없음/ 장하린	1) 노랫말 관련 인물은 확인되지 않음. 2) 장하린(張河麟)은 ‘교회음악연구회’ 실내악단으로 연주한 바 있으며(경향신문 ‘제1회 교회음악연주회 11, 12 양일간 시공관서 개최’ 1948.4.10.),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지휘한 사실도 발견된다.(조선일보 ‘교회음악대연주회’ 1948.4.7.)
87-2	풍년 노래	7	표기 없음/ 장하린	
88-1	하모니카	3	***윤복진***/ 홍난파	1・2절 첫 노랫말이 ‘욕심장이’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誤記)로 확인된다. 홍영후(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 1929』(1933)의 ‘정오(正誤)’ 및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1) 수록 악보를 통하여 이 부분의 올바른 노랫말은 ‘용심쟁이’임을 알 수 있다. ‘욕심장(쟁)이’와 ‘용심쟁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89-1	학도 행진곡	6	이병기/ 박태준	
89-2	학도행진곡	23	이병기/ 박태준	
90-1	학도가	6	***김안서/ 안기영***	
90-2	학도가	23	***김안서/ 안기영***	
91-1	학생의 하로	19	***임학수***/ (#이홍	‘이홍열’로 표기되어 있음.

			렬#)	
91-2	학생의 하로	21	***임학수***/(#이홍렬#)	‘이홍열’로 표기되어 있음.
92-1	학우	6	***김안서***/이홍렬	
92-2	학우	22	***김안서***/이홍렬	
92-3	학우	23	***김안서***/이홍렬	
93-1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2	이병기/나운영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식’(1946년 10월 9일)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작사・작곡됨.(이응호(1974), p.496)
93-2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7	이병기/나운영	
94-1	한글 노래	1	***李克魯(이극로)***/채동선	1) ‘李克魯’(한자명)로 표기되어 있음. 1)한글학자 이극로(노)(1893~1978)는 1948년 평양에 갔다가 잔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극로’ 2023.1.30.21:44 접속)
94-2	한글 노래	10	***(#이극로#)***/채동선	이극노(조선어)로 표기되어 있음.
95-1	해방 기념가	2	이병기/이홍렬	
95-2	해방 기념가	7	이병기/이홍렬	
96-1	해방전사의 노래	1	***임화 안기영***	1) 임화(林和)의 본명은 임인식(仁植). 1947년 11월 월북.(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화’ 2023.1.30. 21:40 접속) 2) 2절 ‘기ㅅ발’, 3절 ‘등ㅅ불’ 등에 ‘사이ㅅ’ 표기가 사용됨.
97-1	흐르는 별	13	오수경/***정영재***	성악가(베이스) 정영재는 6・25전쟁 시 납북.(‘문화십년 음악(1)’, 박태현, 경향신문, 1955.8.12.; 경향신문 ‘해금 납・월북 음악・화가’ 1988.10.27.)

[부록 2]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수록곡의 작곡자, 수록곡 제목, 수록 곡수와 횟수(수록 곡수 많은 순)(교과서 인명(人名) 표기 의거)[429]

	노랫말 관련 인물	곡		수록곡 제목	수록횟수 (회)
1	이은상	1	김동진	가고파(가고 싶어)	2
		2	박태준	고요한 삼림(고요한 숲)	2
				미풍	3
				사우(동무생각)	5
				순례자	1
				전원의 평화	2
				평온(은)한 바다	2
		3	***안기영***	남산에 올라	2
				마의태자	6
				물새	1
		4	이흥렬	봄노래	1
		5	홍난파	고향생각	1
				관덕정	2
				금강(산)에 살으리랏다	8
				봄	1
				봄처녀	4
				성불사의 밤	7
				옛동산에 올라	3
				장안사	3
		총 5명		총 19곡	총 56
2	***김안서***	1	김순애	물레	3
				살구꽃	2
				여름바다	1
		2	***안기영***	학도가	2
		3	이흥렬	학우	3
		4	한시형	살구꽃	1
		5	함이영	눈이 옵니다	1
		6	현제명	눈 오는 밤	1
		총 6명		총 8곡	총14
3	***윤복진***	1	김현재	자네 집은 밭을 갈아	1
		2	박태준	무궁화(는) 피고 피고	2
				물새발자욱(국)	6
				어-이 어-이	1

429)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 · *기울인*'** 글씨체(예: ***안기영***)로 나타냄.

				낙엽	2
		3	홍난파	하모니카	1
		총 3명		총 6곡	총13
	김수향・金水鄕(김수정) ***(윤복진)***	1	나운영	아(아아, 아-) 가을인가	3
		총 1명		총 1곡	총3
4	***임학수***	1	김성태	아침 해 고울시(씨)고	3
		2	박태준	스승님 은혜	1
		3	***안기영***	신입생 환영	2
				유관순	1
		4	이흥렬	여름방학	1
				즐거운 우리 교실	1
				학생의 하로	2
		총 4명		총 7곡	총11
5	이병기	1	나운영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2
		2	박태준	학도행진곡	2
		3	북양인	가을	1
		4	이흥렬	해방 기념가	2
		총 4명		총 4곡	총7
6	김태오	1	***김순남***	건국행진곡	2
		2	나운영	건국의 노래	3
				조국의 노래	1
		총 2명		총 3곡	총6
7	김소월	1	김성태	가싯(시)덤불	2
		2	***김순남***	산유화	1
		총 2명		총 2곡	총3
8	김재인	1	***박은용***	교문을 나슬 때	1
				송별가	1
		총 1명		총 2곡	총2
9	***박세영***	1	***안기영***	무궁화	1
		2	***이건우***	비들기	1
		총 2명		총 2곡	총2
10	윤석중	1	홍난파	꿀돼지	1
				봉숭아꽃	1
		총 1명		총 2곡	총2
11	계정식	1	계정식	청년의 노래	1
		총 1명		총 1곡	총1
12	고장환	1	이제구	봄꿈	1
		총 1명		총 1곡	총1

13	권중찬	1	***안기영***	꽃밭	3
		총 1명		총 1곡	총3
14	***김기림***	1	***이건우***	진달래 피는 나라	1
		총 1명		총 1곡	총1
15	***김동환(파인)***	1	이홍렬	자장가(자장의 노래, 자장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	5
		총 1명		총 1곡	총5
16	김말봉	1	금수현	그네	1
		총 1명		총 1곡	총1
17	김상용	1	임원식	청산곡	1
		총 1명		총 1곡	총1
18	***김석송***	1	***안기영***	그리운 강남	4
		총 1명		총 1곡	총4
19	김일보	1	박태철	어머님	1
		총 1명		총 1곡	총1
20	***김향운***	1	계정식	안중근 의사 추념가	2
		총 1명		총 1곡	총2
21	김형준	1	홍난파	봉숭아(봉선화)	7
		총 1명		총 1곡	총7
22	노천명	1	나운영	내 고향	1
		총 1명		총 1곡	총1
23	***박태원***[430]	1	김성태	독립행진곡	3
		총 1명		총 1곡	총3
24	백하	1	홍난파	감둥 병아리	1
		총 1명		총 1곡	총1
25	서덕출	1	홍난파	봄편지	1
		총 1명		총 1곡	총1
26	***안기영***	1	***안기영***	등산가	2
		총 1명		총 1곡	총2
27	양주동	1	김순애	눈	1
		총 1명		총 1곡	총1
28	***여상현***	1	이홍렬	농군의 노래	4
		총 1명		총 1곡	총4
29	오수경	1	***정영재***	흐르는 별	1
		총 1명		총 1곡	총1
30	오영수	1	홍난파	박꽃 아가씨	1
		총 1명		총 1곡	총1
31	윤계현	1	김상환	(대상)응원가	1
		총 1명		총 1곡	총1
32	윤기영	1	***정종길***	에라 동무들아	1

		총 1명	총 1곡	총1
33	***이극노***	1 채동선	한글노래	2
		총 1명	총 1곡	총2
34	이기순	1 이홍렬	창백한 마을	2
		총 1명	총 1곡	총2
35	이원수	1 홍난파	고향의 봄	1
		총 1명	총 1곡	총1
36	이종림	1 김상환	대상교가	1
		총 1명	총 1곡	총1
37	***임화***	1 ***안기영***	해방전사의 노래	1
		총 1명	총 1곡	총1
38	정몽주 모당(母堂)	1 이홍렬	백로곡	2
		총 1명	총 1곡	총2
39	정몽주	1 ***박은용***	이 몸이 죽고 죽어(충성가)	2
		총 1명	총 1곡	총2
40	정철	1 함이영	이고 진 저 늙은이	1
		총 1명	총 1곡	총1
41	***조남령***	1 ***안기영***	새 나라 세우면서	1
		총 1명	총 1곡	총1
42	최남선	1 미상	개천가	1
		총 1명	총 1곡	총1
43	현제명	1 현제명	고향생각	2
		총 1명	총 1곡	총2
44	홍난파	1 홍난파	기러기	1
		총 1명	총 1곡	총1
45	화암	1 ***이건우***	여명의 노래	4
		총 1명	총 1곡	총4
46	효종	1 김성태	은덕가	2
		총 1명	총 1곡	총2
47	미상	1 안익태	애국가	12
				총12
48	미상	1 장하린	풍년 노래	2
				총2
49	미상	1 이홍렬	내 고향	1
				총1
50	미상	1 미상	천안삼거리	1
				총1
51	미상	1 미상	도라지 타령	1
				총1

				총 203

[부록 3] 노랫말 관련 인물 별 수록곡의 작곡자, 수록곡 제목, 수록 곡수와 횟수(수록 곡수 많은 순)(본명(本名) 의거)[431]

	노랫말 관련 인물	곡		수록곡 제목	수록횟수(회)
1	이은상	1	김동진	가고파(가고 싶어)	2
		2	박태준	고요한 삼림(고요한 숲)	2
				미풍	3
				사우(동무생각)	5
				순례자	1
				전원의 평화	2
				평온(은)한 바다	2
		3	***안기영***	남산에 올라	2
				마의태자	6
				물새	1
		4	이흥렬	봄노래	1
		5	홍난파	고향생각	1
				관덕정	2
				금강(산)에 살으리랏다	8
				봄	1
				봄처녀	4
				성불사의 밤	7
				옛동산에 올라	3
				장안사	3
		총 5명		총 19곡	총 56
2	***김억***[432]	1	김순애	물레	3
				살구꽃	2
				여름바다	1
		2	***안기영***	학도가	2
		3	이흥렬	학우	3
		4	한시형	살구꽃	1
		5	함이영	눈이 옵니다	1

430) 朴泰遠(1909~1986). 성악가이자 작곡가인 박태원(朴泰元)이 아님.
431) 월(납)북자의 이름은 **'굵고 · *기울인*'** 글씨체(예: ***안기영***)로 나타냄.

		6	현제명	눈 오는 밤	1
		총 6명		총 8곡	총14
3	***윤복진***	1	김현재	자네 집은 밭을 갈아	1
		2	박태준	무궁화(는) 피고 피고	2
				물새발자욱(국)	6
				어-이 어-이	1
				낙엽	2
		3	홍난파	하모니카	1
		4	나운영	아(아아, 아-) 가을인가	3
		총 4명		총 7곡	총16
4	***임영태***[433]	1	김성태	아침 해 고울시(씨)고	3
		2	박태준	스승님 은혜	1
		3	***안기영***	신입생 환영	2
				유관순	1
		4	이홍렬	여름방학	1
				즐거운 우리 교실	1
				학생의 하로	2
		총 4명		총 7곡	총11
5	이병기	1	나운영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2
		2	박태준	학도행진곡	2
		3	북양인	가을	1
		4	이홍렬	해방 기념가	2
		총 4명		총 4곡	총7
6	김태오	1	***김순남***	건국행진곡	2
		2	나운영	건국의 노래	3
				조국의 노래	1
		총 2명		총 3곡	총6
7	김정식[434]	1	김성태	가싯(시)덤불	2
		2	***김순남***	산유화	1
		총 2명		총 2곡	총3
8	김재인	1	***박은용***	교문을 나슬 때	1
				송별가	1
		총 1명		총 2곡	총2
9	***박세영***	1	***안기영***	무궁화	1
		2	***이건우***	비들기	1
		총 2명		총 2곡	총2
10	윤석중	1	홍난파	꿀돼지	1
				봉숭아꽃	1

		총 1명		총 2곡	총2
11	계정식	1	계정식	청년의 노래	1
		총 1명		총 1곡	총1
12	고장환	1	이제구	봄꿈	1
		총 1명		총 1곡	총1
13	권중찬	1	***안기영***	꽃밭	3
		총 1명		총 1곡	총3
14	***김인손***[435]	1	***이건우***	진달래 피는 나라	1
		총 1명		총 1곡	총1
15	***김동환***	1	이홍렬	자장가(자장의 노래, 자장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	5
		총 1명		총 1곡	총5
16	김말봉	1	금수현	그네	1
		총 1명		총 1곡	총1
17	김상용	1	임원식	청산곡	1
		총 1명		총 1곡	총1
18	***김형원***[436]	1	***안기영***	그리운 강남	4
		총 1명		총 1곡	총4
19	김일보[437]	1	박태철	어머님	1
		총 1명		총 1곡	총1
20	***현정준***[438]	1	계정식	안중근 의사 추념가	2
		총 1명		총 1곡	총2
21	김형준	1	홍난파	봉숭아(봉선화)	7
		총 1명		총 1곡	총7
22	노천명	1	나운영	내 고향	1
		총 1명		총 1곡	총1
23	***박태원***	1	김성태	독립행진곡	3
		총 1명		총 1곡	총3
24	백하[439]	1	홍난파	감둥 병아리	1
		총 1명		총 1곡	총1
25	서덕출	1	홍난파	봄편지	1
		총 1명		총 1곡	총1
26	**안기영**	1	***안기영***	등산가	2
		총 1명		총 1곡	총2
27	양주동	1	김순애	눈	1
		총 1명		총 1곡	총1
28	***여상현***	1	이홍렬	농군의 노래	4
		총 1명		총 1곡	총4
29	오수경[440]	1	***정영재***	흐르는 별	1
		총 1명		총 1곡	총1

30	오영수	1	홍난파	박꽃 아가씨	1
		총 1명		총 1곡	총1
31	윤계현	1	김상환	(대상)응원가	1
		총 1명		총 1곡	총1
32	윤기영[441]	1	***정종길***	에라 동무들아	1
		총 1명		총 1곡	총1
33	***이극노***	1	채동선	한글노래	2
		총 1명		총 1곡	총2
34	이기순	1	이흥렬	창백한 마을	2
		총 1명		총 1곡	총2
35	이원수	1	홍난파	고향의 봄	1
		총 1명		총 1곡	총1
36	이종림	1	김상환	대상교가	1
		총 1명		총 1곡	총1
37	***임인식***[442]	1	***안기영***	해방전사의 노래	1
		총 1명		총 1곡	총1
38	정몽주 모당(母堂)[443]	1	이흥렬	백로곡	2
		총 1명		총 1곡	총2
39	정몽주	1	***박은용***	이 몸이 죽고 죽어(충성가)	2
		총 1명		총 1곡	총2
40	정철	1	함이영	이고 진 저 늙은이	1
		총 1명		총 1곡	총1
41	***조영은***[444]	1	***안기영***	새 나라 세우면서	1
		총 1명		총 1곡	총1
42	최남선	1	미상	개천가	1
		총 1명		총 1곡	총1
43	현제명	1	현제명	고향생각	2
		총 1명		총 1곡	총2
44	홍영후[445]	1	홍난파	기러기	1
		총 1명		총 1곡	총1
45	박용구[446]	1	***이건우***	여명의 노래	4
		총 1명		총 1곡	총4
46	효종	1	김성태	은덕가	2
		총 1명		총 1곡	총2
47	미상	1	안익태	애국가	12
					총12
48	미상	1	장하린	풍년 노래	2
					총2
49	미상(이흥렬 추정)	1	이흥렬	내 고향	1

					총1
50	미상	1	미상	천안삼거리	1
					총1
51	미상	1	미상	도라지 타령	1
					총1
					총 203

4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억’ 2023.5.1. 03:39 접속
433) 본명이 명확히 밝혀진 자료를 찾기 어렵다. ‘학수(學洙)’ 뿐만 아니라 ‘악이(岳伊)’, ‘내홍(乃洪)’ 등의 이칭도 알려져 있는데, 연구자는 족보에 기재된 이름인 ‘영택(영택)’을(위키백과 ‘임학수’ 2023.5.1. 03:56 접속) 본명으로 간주하였다.
4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소월’ 2023.5.1. 04:03 접속
435) 두산백과 ‘김기림’ 2023.5.1. 04:07 접속
436) 위키백과 ‘김석송’ 2023.5.1. 04:11 접속
437) 인물 파악 어려움.
43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현경준’(김향운) 2023.5.1. 04:18 접속
439) 본명이 아닌 이칭으로 판단되나 어떤 인물의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본명을 확인할 수 없다.
440) 인물 파악 어려움.
441) 인물 파악 어려움.
44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화’ 2023.5.1. 04:34 접속
443) 정몽주 모친의 성명 파악이 어렵고, ‘이(李)씨’라는 사실 정도만 확인됨에 따라(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몽주 모당’ 2023.1.29. 22:12 접속) 교과서에 표기된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4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남령’ 2023.5.1. 04:36 접속
4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홍난파’ 2023.5.1. 04:38 접속
446)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9

[부록 4] 『해방중등』 23종 수록 외국 가창곡 478곡의 228개 곡조별 정리

※ 곡목, 인물명, 곡·노랫말 관련 표현 등은 교과서 표기를 따랐다.

※ 동일 곡조인데 '외국어 곡목의 곡'과 '조선어 곡목의 곡'이 공존하는 경우, '외국어 곡목의 곡' 다음 '조선어 곡목의 곡'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조선어 곡목의 곡'에는 '외국어 곡목의 곡'의 번호에 '-1'을 붙인 형태의 번호를 붙였다. (예)

곡조번호	곡목
3	Dreaming of home and mother
3-1	고향의 어머니/여수

'외국어 곡목의 곡'이 두 곡일 때는 알파벳 순에 따랐으며, 두 번째 곡의 번호에는 첫 번째 곡의 번호에 '-1'을 붙여 나타내었다.

※ '목차'와 '악보' 간 '곡' 관련 내용(작곡자명, 곡의 성격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악보'의 표기를 괄호 안에 적었다. (예: 보르트니(Dimitri Bortni), 나이트(카펜터어 J. A. Carpenter), J. Hvllah(J. Hullah))

※노랫말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인물명이 표기된 노랫말은 표기되지 않은 노랫말과 다르다. 예컨대 <개선행진곡/우승가>의 경우(예: 없음(6·23), 오수경 시(14)) 교과서 14에 수록된 '오수경의 노랫말'은 교과서 6과 23에 수록된 '인물명이 표기되지 않은 노랫말'과 다르다. 동일한 경우는 비고에서 밝힌다.

곡조번호	곡목	교과서	노랫말	곡	비고
1	Auld Lang Syne	2	(영어)	Scotch air	교과서에 작사/작곡자명 없이 'Scotch air'(스코틀랜드 선율)로 표기되어 있으나, Robert Burns 노랫말/ William Shield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확인됨.(Wikipedia 'Auld Lang Syne' 2023.2.21. 23:08 접속)

2	Deep River	14	(영어)	American Negro Spiritual	
3	Dreaming of home and mother	2	(영어)	J. P. Ordway	1) 작곡자명은 John Pond Ordway이므로 교과서 1, 9, 10, 12의 표기는 오류임.(교과서 1의 표기 오류가 개정판인 교과서 10에 이어졌고, 또한 교과서 1의 수록곡들이 교과서 9, 12에도 참고/차용되면서 오류까지 그대로 옮기어진 것으로 해석됨.(이유로(2020), pp.161-162)). 2) 교과서 6의 표기는 오식(誤植)으로 추정됨.
3-1	고향의 어머니/여수	15/1, 6, 9, 10, 12, 13, 22, 23,	국정효 작시(15)・가사(1・6・10・12)・사(9)・역시(22・23), //없음(13)	Ordway(13・15), J. F. Ordway(1・9・10・12), Opdway(6), 오드웨이(Ordway)(22・23)	
4	Early to Bed(윤창)	18	(영어)	Old English Round	‘영국의 오래된 윤창’
5	Ho! Every sleeper waken!(윤창)	13	(영어)	없음	Children’s song
6	Home sweet home	2	(영어)	H. R. Bishop	1) H. R. Bishop의 오페라 <Clari(the Maid of Milan)>(클라리)의 구성곡으로 확인됨. 2) 교과서 1・10의 목차에는 ‘즐거운 우리 집’으로, 악보에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표기되어 있음. 3)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을 병기한 경우 있음.
6-1	즐거운 나의(우리) 집	1, 6, 9, 10, 12, 16, 17, 20, 23	김재인 역시(1・6・10・12・16・17・20)・역시(9)・역사(23)	英國民謠(Bishop)(1), Bishop(6・9・12), 영국민요(Bishop)(10), 영국민요(H. Bishop)(20), 비숍(Henry Bishop)(16・17), 비숍(Bishop)(23)	
7	I see you(윤창)	13	(영어)	없음	Children’s song
8	Long, Long ago	2	(영어)	T. H. Bayly	작곡자명은 Thomas Haynes Bayly이므로, 교과서 8의 표기는 오류임.
8-1	고향의 추억/옛날	18/8	오수경 시(18), 오창진(8)	Bayly(18), T. H. Bayley(8)	
9	Merrily merrily(윤창)	18	(영어)	없음	Children’s song

10	Sing together(윤창)	18	(영어)	Old English Round	
11	The bell is ringing(윤창)	2, 7, 14	(영어)	Silcher	Children’s song
12	The Alphabet/알파베트 Alphabet	1, 5, 10, 18	(영어)	Mozart	모차르트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프랑스의 Children’s song인 <Ah! vous dirai-je, maman>(작곡자 미상)의 곡조. 모차르트가 이 곡조에 의한 12개 변주곡(Twelve Variations on “Ah vous dirai-je, Maman“, K. 265/300e)을 작곡하였고 이 곡이 널리 알려지면서 <Ah! vous dirai-je, maman> 곡조가 모차르트에 의해 작곡된 것으로 잘못 알려짐.
12-1	Twinkle, twinkle, little star	8, 13	(영어)	Folksong(8), Mozart(13)	〃
12-2	별	8	오창진	없음	〃
13	The Cuckoo	2, 7, 18	(영어)	German folksong	
14	We merry minstrels(윤창)	14	(영어)	Purcell	Children’s song
15	가을	15, 23	박제열 역시・작시(23)	보르트 니안스키이(Dimitri Bortni)(15), 보르트니(Dimitri Bortni)(23)	1) 곡조명은 <St. Petersburg>로 확인됨. 2) 작곡자명의 조선어 및 영문 표기 오류. 작곡자명은 영문으로 Dmitry Bortniansky(또는 Dmytro Stepanovich Bortniansky)로 확인됨.(Wikipedia ‘Dmitry Bortniansky’ 2023.2.18. 22:06 접속)
16	가을	22	없음	루빈쉬타인(A. Rubinstein)	<Volkslied>(12 Lieder, Op.48 중 4곡)가 원곡으로 확인됨.
17	가을	19, 21	임학수 사	카알, 죌러(어)	1) <Wanderschaft> “Das Wandern ist des Müllers Lust“가 원곡으로 확인됨. 2) 작곡자명은 Carl Friedrich Zöllner 3) 조선어 작곡자명이 ‘죌러(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러(어)’가 아닌 ‘-너’로 표기되는 것이 적절함.
18	가을	8	오창진 가사	Fr. Abt	

19	가을 들	14	오수경 시	영국민요	
20	가을 하늘/글공부	8/16, 17	오창진 가사(8), 김광섭 역시(16・17)	스코틀란드민요(8), 영국민요(16・17)	<comin' thro' the rye> 곡조.
21	가을 밤	11	임학수 사	영국 古曲	
22	개가	18	오수경 시	Root	찬송가 <Yes, we'll rally round the flag, boys, we'll rally once again> 곡조로 확인됨.
23	개선/개선의 노래(2, 7)	1, 2, 7, 10, 12	김재인 역시(1・10・12), 없음(2・7)	헨델(Händel)(1・10・12), G. F. Händel(2・7)	오페라 <Judas Maccabaeus>(주다스 마카베우스) 중 합창곡
24	개선행진곡/우승가	6, 23/14	없음(6・23), 오수경 시(14)	Verdi	오페라 <Aida>(아이다) 중 합창곡 <Gloria all Egitto>
25	거룩한 밤	16, 17	없음	그리버어(Franz Gruber)	1) <Stille Nacht, heilige Nacht>가 원곡. 2) 작곡자명의 조선어 표기가 적절하지 않음.
26	겨울 밤	14	오수경 시	Bellini	
27	겨울 달/고향생각	19, 21/1, 9, 10, 16, 17	임학수 사(19・21), 홍영후 작가(1・10)・시(9)・작시(16・17)	스페인 가곡(19・21), Mary E. B. Dona(1・9・10), 스페인 민요(16・17)	1)) <Flee as a bird to your mountain>이 원곡. 2) 곡과 관련하여 '스페인 가곡'・'스페인 민요'로 표기되거나, 작곡자명이 표기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우 발견됨.
28	겨울의 강가	18	오수경 시	독일민요	
29	경축의 날	2, 7	없음	F. Mendelssohn	찬송가 <Hört der Engel große Freud>('천사 찬송하기를') 곡조
30	고별의 노래	14	오수경 시	Silcher	<Lebewohl>(Op.22)이 원곡으로 확인됨.
31	고요한 숲	16	박제열작시	Carl Maria von Weber	1) 오페라 구성곡(<마탄의 사수> 서곡 멜로디)

					의 성악곡 편곡. 찬송가 <My Jesus, as Thou Wilt>(내 주여 뜻대로)의 곡조이기도 함. 2) 이승학(교과서 16의 편찬자) 편곡.
32	고향	19, 21	풍만 역사	노르웨-민요	<Her Hjemme>가 원곡으로 확인됨.
33	고향생각/옛동산	13/17	오수경 시/오수경 시	Root(13), 루우트(17)	군가 <Tramp, Tramp, Tramp>가 원곡으로 확인됨.
34	고향을 떠나며/켄터키 옛집/켄터키의 옛집	19, 21/1, 9, 10, 12, 22, 23/15	임학수 사(19・21), 박태원 역(1・9・10・12)・역시(22・23), 김광섭(15)	Stephen Collins Foster(S. C. 포스터-)(19), 포스터(S. C. 포스터어)(21), Stephen Collins Foster(15), 미국민요(Foster)(1・10), Foster(9・12)/미국민요(22), 미국민요(S. C. Foster)(23)	1) <My Old Kentucky Home>이 원곡. 2) 교과서 15에는 곡목이 ‘켄터키의 옛집’으로 수록. 3) 교과서 12에는 ‘목록’과 악보에 ‘컨터키 옛집’으로 오기됨.(등사 인쇄) 4)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5)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한 경우 있음.
35	고향의 쓰러진 집/고향의 폐가	19, 21/8, 16, 17	없음	W. U. S. Hays(19・21), Will. S. Hays(8), W. S. Hays(16), 헤이쓰(W. S. Hays)(17)	1) <My dear old sunny home>이 원곡. 2) 작곡자명은 William Shakespeare Hays이므로 교과서 19와 21의 표기는 오류.(Wikipedia ‘William Shakespeare Hays’ 2023.2.22. 02:55 접속)
36	구슬픈 가을	11	임학수 사	C. Franck(C. 프랭크)	
37	군인 행진곡	7	없음	J. S. Bach	
38	귀향/집으로 가는 길	17/20	이규남 작시(17), 없음(20)	나이트(카펜터어 J. A. Carpenter)(17), 카펜터(J. A. Carpenter)(20)	1) <The Home Road>가 원곡으로 확인됨. 2) 교과서 17의 목차에 있는 작곡자명 ‘나이트’는 오류. <The Home Road>의 작곡자는 John Alden Carpenter. 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39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	8	오창진 가사	Thomas	오페라 <Mignon>(미뇽) 중 <Connais tu le Pays>가 원곡으로 확인됨.
40	그리운 고향	22, 23	없음	아부트(F. Abt)(22), 아브트(F. Abt)(2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41	그리운 고향/망향	18/5	김수향	Hays(18), W. S. Hays(5)	<Molly Darling>이 원곡으로 확인됨.

42	그리운 동무	18	오수경 시	Silcher	<Der gute Kamerad>이 원곡으로 확인됨.
43	그리워라 내 고향	13	오수경 시	독일민요	
44	기꺼움	11	임학수 사	오-스트랴 민요	
45	기러기/주인은 땅속에	2, 7/15	없음(2・7), 김광섭 역시(15)	S. C. Foster(2・7), 포스터어(S. Foster)(15)	<Massa's in de cold ground>이 원곡.
46	길 잃은 어린양	7	없음	W. A. Mozart	
47	길손의 밤 노래	11	임학수 역사	Fr. Schubert	<Wanderers Nachtlied>(Op.96, No.3)가 원곡.
48	꾀꼬리/꾀꼴새	6, 15, 20/4, 13	없음(6・15), 홍난파 역시(4・20)・시(13)	J. Hvllah(J. Hullah)(6), 헐라아(J. Hullah)(15), 후울라(Hullah)(20), J. Hullah(4), Hullah(13)	1) 교과서 6의 작곡자명은 오식 추정.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49	꾀꼴새	1, 9, 10, 12, 14	김인식 작사(1・9・10・12)・시(14)	作者未詳(1・10),・(9・12), Kucken(14)	1) 교과서 14에만 작곡자명(F. W. Kücken)이 움라우트(Umlaut)없이 표기되어 있다. 2) 교과서 1, 9, 10, 14에 작곡자가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고향의 어머니>/<여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1 수록곡 참고/차용의 영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50	꿈속의(에) 고향	1, 9, 10, 16, 17	화암 역시	드보르샤크(Dvořak)(1・10), Dootak(9), 드볼자아크(17), 없음(16)	1)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2악장 도입부 멜로디. 성악곡 편곡.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51	나그내의 노래/불어라 봄바람/장미화가 말랐다	11/10/5	임학수 사(11), 홍란파 작사(10), 없음(5)	스필만(Spilman)(10), I. E. Spilman(슈필만)(11),・(5)	1) <Flow Gently Sweet Afton>이 원곡. 2) 작곡자명은 Jonathan Edwards Spilman이므로 교과서 11의 표기는 오류임. 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52	나의 고운 꿈속에	5	없음	Beethoven	Piano Sonata 20번 2악장 'Tempo di Menuetto'

53	나의 동무	20	없음	보헤미야민요(V. Stepan..?)	1)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 2) 표기 문제로 작곡자명 확인 어려움.
54	나의 어머니	22, 23	없음	키퍼(H. Kipper)(22・23)	
55	나의 친구	15	없음	없음	
56	나의 친구	20, 21	없음	발트(E. J. Walt)(20・21)	
57	나의 동무/동무	12/16, 17	없음(12), 이헌구 작시(16・17)	하이쓰(W. T. Wrighton)(16), 릭톤(17)	1)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이 원곡. 2) 교과서 16의 목차와 악보의 작곡자명이 서로 다른데, 이 곡조의 작곡자는 William Thomas Wrighton이므로 '하이쓰'는 오류임.(다음 곡의 작곡자명이 이 곡에 잘못 표기된 것으로 판단됨) 3) 교과서 17의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 '릭톤'은 적절하지 않음.
58	나팔	8	오창진 가사	K. L. Hetsch	
59	날이 지나고	5	없음	Josep Barnly	Joseph Barnby의 찬송가 < Now the day is over>이 원곡으로 확인됨. 따라서 작곡자명 오류.
60	남해	11	임학수 사	Franz Schubert(슈-벨트)	<Wohin?> Op.25, No.2(《Die Schöne Müllerin》 중)가 원곡.
61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2, 5, 7, 21	없음	B. James(2・7), James Bland(5), 브랜드(James Bland)(21)	1) <Carry Me Back To Old Virginny>가 원곡. 2) 교과서 2 작곡자명 표기 오류.
62	내 피아노	3	없음	W. Otto Miessner	
63	노래 소리(윤창)	13	오수경 시	Schulze	
64	노래하자	7	없음	F. J. Haydn	
65	녹음	11	임학수 역사	R. Schumann	<Erstes Grün>이 원곡으로 확인됨.
66	농가의 아침 저녁	8	오창진	Silcher	<Annchen von Tharau>가 원곡으로 확인됨.
67	눈	19, 21	임학수 사	Cherubini(케루비니)(19),	

				케루비니(21)	
68	늙은 악사	11	임학수 역사	F. Schubert	<Der Leiermann> Op.89, No.24《Winterreise》중)이 원곡.
69	늙은 흑인 죠오/불택(랙)죠오	8/16, 17	오창진(8), 김광섭 역시(16・17)	S. Foster(8), 포스터어(16・17)	1) <Old Black Joe>가 원곡. 2) 교과서 16 악보에 곡목이 '불택죠오'로 오기되어 있음. 노랫말에서는 '불랙죠'로 표기됨. 3) 교과서 17 악보에 곡목 '불랙죠오'로 표기되어 있음.
70	니나의 死	12	없음	G. Pergolesi	<Nina>가 원곡.
71	단풍잎	11	임학수 사	Robert S. Schumann(슈-만)	
72	대장간의 마치 소리	20	없음	도위칠란트 민요	
73	도나부강	8	오창진 가사	Ivanvici	1) <Valurile Dunării(Waves of the Danube)>가 원곡. 2) 작곡자명은 Iosif Ivanovici이므로 'Ivanvici'는 오기.
74	도라오라 쏘렌토에(로)/돌아오라 쏠렌토로	9, 12/8	없음(9・12), 오창진(8)	E. de Curtis(9), D. Curtis(12), De Curtis(8)	1) <Torna a Surriento>가 원곡. 2) 교과서 12의 작곡자명 표기 오류.
75	동모여 날 데려가	20	없음	포스터(S. C. Foster)	
76	동무	2	없음	Teodoro King	
77	들장미	4, 22	없음	Weber(4), 웨버(C. M. Weber)(22)	<Ich sah ein Röschen am Wege stehn> Op.15, No.5(《Sechs Lieder》 중)이 원곡으로 확인됨.
78	들장미/장미꽃/월계꽃	2, 16, 17, 20/7/14	없음(2・7), 이헌구 작시(16・17), 윤기성 시(14)	Werner(2・7・14), H. Werner, 베에트넬(H. Werner)(16), 베에르넬(H. Werner)(17), 베르너(Werner)(20)	1) <Heidenröslein>이 원곡. 2) 교과서 16의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 오류. 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79	등산	16, 17	이헌구 작시	글릿트(Cornelius Gurlitt)	
80	딕시/딕시랜드	20/19, 21	없음(20), 풍만 역사(19・21)	미국민요(19・21), 미국민요(D. D. Emmett)(20)	1) <Dixie's Land>가 원곡. 2) 교과서 21의 '차례'에는 '딕시이 랜드'로 표기됨. 3)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한 경우 있음.
81	라아르고	8	오창진 가사	Händel	오페라 <Xerxes>(세르세) 중 <Ombra mai fu>
82	로렐라이	1, 6, 9, 10, 12, 16, 17, 22, 23	고순덕 역사(1・6・10・12・23)・역시(16・17)・역(9), 고덕순(22)	獨逸民謠(F. Silcher)(1), 독일민요(F. Silcher)(10), F. Silcher(6・9・12), 질헤르(16・17), 도이취란트 민요(F. Silcher)(22・23)	1) <Die Lorelei>가 원곡. 2) 독고선(獨孤璇)의 『가요곡선집 제2편』(1929)에 수록된 <로레라이>와 노랫말이 동일하며, '獨孤璇 譯歌(독고선 역가)'로 명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순덕'이나 '고덕순'으로 표기된 것은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발생한 오류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3)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한 경우 있음.
83	마리아 마리	9	없음	없음	1) <Maria! Mari!>가 원곡. 2) E. di Capua 작곡으로 확인됨.
84	마지막	21	없음	슈우베르트(악보 소실)	<Letzte hoffnung>, (《Winterreise》 D.911 No.16) 추정
85	말불그	22	없음	프랑스 민요	<Marlbrough s'en va-t-en guerre>가 원곡으로 확인됨.
86	먼 싼타루치아(8)/저 먼 산타 루치아	11, 8/9	없음(11), 현제명(8), 김수향(9)	Mario(8・9・11)	<Santa Lucia Luntana>가 원곡.
87	명절	20	없음	멘델손	
88	모오차르트(모찰트)의 자장가/자장가	6, 23/1, 4, 9, 10, 14, 16, 17, 20	없음(1・6・9・10・14・16・	모차-르트(W. A. Mozart)(1), W. A. Mozart(9), 모차르트(W. A. Mozart)(10・20), 모	1) 원곡인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은 모차르트 작곡으로 알려져 왔으나, 독일 작곡가 J. F. A. Fleischmann의 곡으로 정정됨.(Wikipedia 'Schlafe, mein Prinzchen,

			17・20・23), 김신덕 사(4)	찰트(W. A. Mozart)(4), W. A. Mozart(Mozart)(6), Mozart(14), 모짜아르트(W. A. Mozart)(16・17), 모오차르트(Mozart)(23)	schlaf ein'(독일어), 'Johann Friedrich Anton Fleischmann'(독일어, 영어) 2023.2.23. 14:25 접속)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다섯 가지 표기가 모두 다름.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조선어학회에 의하여 발행되긴 하였으나, 일제 말기 조선어 교육 중단 및 금지 그리고 조선어 신문 발행 중단된 시기였으므로 해방 직후 조선에서 외국 인명, 지명, 국호 등이 통일되지 않고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이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악보에서 뚜렷이 드러남.
89	목동아	9	없음	없음	1) <Danny Boy>가 원곡. 2) 현제명의 『세계명작가곡집 제2집』(1948)에 수록된 <목동아>의 노랫말과 동일함이 확인되며, 이 악보집에 '현제명 역(譯)'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교과서 9에 수록된 <목동아>의 노랫말은 현제명의 것이라 할 수 있음.
90	목인의 노래	18	오수경	Greger(Greser)	
91	무용가	18	없음	독일민요	
92	미국 국가	8	(영어)	없음	
93	바다	8	오창진 가사	작곡자 미상	
94	바다로 가자	5, 9	없음	Vergine(5), Napolitan Folk Song(9)	1) <Vieni sul mar>가 원곡. 2) Napolitan Folk Song
95	바람	2	없음	Mendelssohn	
96	밤	8	오창진 가사	Fr. Silcher	
97	백백합/흰 백합	6/23	없음	J. Brahms(6), 브라암스(J. Brahms)(23)	

98	백합	8	오창진 가사	Harrison	
99	뱃노래/볼가의 뱃노래	2, 7/1, 10, 12, 15, 20	없음(2・7), 한 갑 수(1・10・12・15・20)	露西亞民謠(1), 노서아 민요(10・20), 로서아 민요(2・7), 로시야 민요(15)	1) <Эй ухнем(The Song of the Volga Boatman)>이 원곡. 2) 교과서 1과 12의 목차와 악보에는 '볼가의 배ㅅ노래'로 표기되어 있음.
100	뱃노래/야악	8/5	오창진(8), 없음(5)	Offenbach(8), J. Offenbach(5)	오페라 <Les contes d'Hoffmann>(호프만의 이야기) 중 <Barcarolle>
101	벗생각	11	임학수 사	獨逸歌曲	F. Silcher 작곡의 독일 군가 <Ich hatte einen Kameraden, einen bessern Finst mit>('나는 동지가 있었네')가 원곡으로 확인됨.
102	보금자리/환희의 송가	9/1, 9, 10, 12	없음(9), 화암 역(1・9・10・12)	Beethoven(9・12), 베-토-벤(Beethoven)(1), 베토벤(Beethoven)(10)	1) L. van Beethoven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중 합창 <Ode to Joy>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03	보리수	1, 9, 10, 12, 14	없음(9), 남궁요설 역가(1・10・12)・시(14)	슈-베르트(Schubert)(1), Schubert(9・12・14), 슈베르트(Schubert)(10)	1) <Der Lindenbaum>(Op.89, No.5)이 원곡.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04	봄	19, 21	임학수 사	F. Nagler(F. 나글러)(19), 나글러(F. 나글러)(21)	
105	봄 노래	22	없음	모오차르트	1) <Alle vögel sind schon da>가 원곡. 2) 교과서 22에 모차르트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일 Kinderlieder(Children's song)로 작곡자 미상으로 확인됨.(Wikipedia 'Alle vögel sind schon da' 2023.5.4. 03:23 접속) 즉 작곡자명 오류.
106	봄 새벽	19, 21	풍만 역사	F. 퀴켄(19), 퀵켄(F. 퀴켄)(21)	1) <Altes Libeslied>(Op.14, No.4)이 원곡으로 확인됨.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07	봄날 아침/아침노래	6, 23/20	없음(6・23), 없	Gohnod(6), 구우노(Ch. Gounod)(20), 구우노오	1) 오페라 <Faust>(파우스트) 구성곡 2) 교과서 6 작곡자명 오기.

			음(20)	(Gounod)(23)	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08	봄노래	5	송정율 사	Beethoven	<Minuet in G> 기악곡을 성악곡 편곡.
109	봄들로 가자	13	오수경 시	독일 민요	F. Silcher 작곡 <Muss I denn>으로 확인됨.
110	봄바람/스텐카 라진	4/1, 10, 12, 15, 18, 22	없음(4), 화암 (1・10・12・15・18・22)	露西亞民謠(1・12), 노서아 민요(10・18), 볼가 민요(4), 루시아 민요(22), 로시야 민요(15)	<Stenka Razin>이 원곡. 1883년대 Dmitry Sadovnikov가 출판한 시 <Stenka Razin>에 알려지지 않은 작곡자가 곡을 붙인 후 유명해짐.
111	봄바람/순풍/학창을 향하야	18/8/11	오수경 시(18), 오창진(8), 임학수사(11)	獨逸民謠(11), German Folk Song(8), 독일민요(18)	
112	봄소식	8	오창진 가사	없음	<The Cuckoo>(오스트리아 민요)가 원곡.
113	봄의 세레나데/오 나의 태양/오 소래 미오	3/1, 6, 10, 12/9	송정율 사(3), 없 음(1・6・9・10・12)	伊太利民謠(E. di Capua)(1), E. di Capun(9),이태리민요(E. di Capua)(10), E. di Capua(3・12), 伊太利民謠(6)	1) <O Sole mio>가 원곡. 2)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한 경우 있음.
114	부라암스(브람스)의 자장가/자장가/자장노래/아기 재우는 노래	19, 21/3/7/1, 10, 12	홍난파 역사 (1・10・12・19・21), 없음(3・7)	브람-스(J. Brahms)(1), 브람스(J. Brahms)(10), J. Brahms(7・12), 브람스(Brahms)(3), Brahms(19), 부라암스(Brahms)(21)	1) <Wiegenlied>(Op.49, No.4)가 원곡. 2) 교과서 3과 7에는 노랫말 관련 인물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홍난파의 노랫말과 동일하거나(교과서 7) 매우 부분적으로 상이(교과서 3)함을 볼 수 있다. 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15	불어라 봄바람	2, 7	없음	C. H. Gabriel	
116	비가	11, 12/8	없 음(11・12), 오창진(8)	J. Mdssenet(12), Massenet(8), J. Massenet(11)	1) 르콩트 드 릴(Leconte de Lisle)의 극 <Les Érinnyes>의 부수음악 <Élégie>가 원곡. 2) 교과서 12 작곡자명 오류.

					3) 교과서 11·12의 노랫말과 교과서 8의 노랫말 간 유사점 적지 않음. 이유는 알기 어려움.
117	뻐꾸기	1, 9, 10, 12	화암 역사(1·10·12)·역(9)	체코스로바키아 민요(Slovakian Folk Song)(1), Slovakian 민요(9), 체코스로바키아 민요(Slovakian Folk Song)(10), Slovakian Folk Song(12), 슬로바키아 민요	1) 교과서 2의 '차례'에는 '뻐구기'로 표기됨. 2) 외국 국호의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3) 교과서 1에 조선어로는 '체코스로바키아' 민요로 표기되어 있으나 영어로는 '슬로바키아' 민요로 표기.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1945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표기상의 혼란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음.
118	사냥꾼(군)의 노래(합창)/사냥군의 노래/사냥꾼의 합창	1, 10/2/5	없음	웨-버-(Weber)(1), 웨버(Weber)(10), C. M. von Weber(2), Weber(5)	1) 오페라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 중 합창곡 2) 교과서 1의 '순차'에는 '사냥꾼의 노래'로 되어 있으나, 악보에는 '사냥꾼의 합창'으로 표기됨. 3) 교과서 10의 '차례'에는 '사냥군의 노래'로 되어 있으나, 악보에는 '사냥군의 합창'으로 표기됨. 4) 교과서 2에는 '사냥군의 노래', 교과서 5에는 '사냥꾼의 합창'으로 표기됨. 5)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6) 작곡가 베버는 독일인이므로, 독일어 발음상 '웨-버-' 또는 '웨버' 등의 조선어 표기는 적절하지 않음.
119	사랑하는 어머니/스와니강/향수	4/8/15, 23	없음	Foster-Dvorak(4), Foster(8), 포스터어(S. Foster)(15), 포스터어(S. Foster)(23)	교과서 4 수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경우 상성부는 포스터의 곡 <Old Folks at Home>, 하성부는 드보르자크의 곡 <Humoresque>로 되어 있음.
120	산골	11	임학수 사	B. Widman(B. 위드만)	
121	산에 올라	8	오창진 가사	D. G. Türk	

122	산울림	19	풍만 역사	Christoph Gluck	<Das echo>
123	산타 루치아	1, 9, 10, 12, 14, 15, 19, 21, 22	없음	伊太利民謠(Italian Folk Song)(1), 이태리 민요(Italian Folk Song)(10・19), Italian 민요(9), Italian Folk Song(12), 이태리 민요(Teodoro Cottrau)(15), 이태리 민요(14), 이딸리아 민요(T. Cottrau)(21), 이탈리아 민요(T. Cottrau)(22)	1)<Santa Lucia>가 원곡. 2) 교과서 15 차례에는 '싼타 루치아', 악보에는 '싼타아 루치아'로 표기됨. 3) 외국 국호의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이태리/이딸리아/이탈리아 등. 4)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한 경우 있음.
124	새벽	8	오창진 가사	작곡자 미상	
125	샌터클로쓰 할아버지	3	없음	美國民謠	
126	샘물	22	없음	크로아치아 민요	
127	세레나-데	9	없음	Toselli	<Serenade>
128	소나무/전나무(22)	19, 21, 18/22	김명진 역시(19, 21), 없음(18), 없음(22)	독일민요(18・19), 도이취란트 민요(21・22)	<O, Tannenbaum>
129	소낙비	18	오수경 시	독일민요	
130	소녀의 꿈	3	이관옥 작사	FR. Chopin	<Mädchens Wunsch>(《Polish Songs》 Op.74, No.1)이 원곡.
131	소련 국가	8	(조선어번역)	없음	А. В. Александров(영문표기: A. Alexandrov(1883-1946)) 작곡. (Wikipedia 2023.4.15. 22:08 접속)
132	소야가	12	없음	F. Schubert	<Ständchen>(D.957)이 원곡. No.4(《Schwanengesang》 중)
133	솔베이지의 노래	8	오창진 가사	Grieg	1) <Solveigs sang>이 원곡. <Peer Gynt>(페르귄

					트)모음곡의 부수음악 2) 악보에는 ‘솔베지의 노래’로 표기됨.
134	수마	8	오창진	Brahms	<Sandmännchen>이 원곡.
135	순례의 합창	6	없음	Wagner	오페라 <Tannhäuser>(탄호이저) 중 합창곡
136	숲길	11	임학수 사	독일 가곡	
137	숲속의 노래	1, 10	국정효 작사	퀴켄(F. Kücken)(1・10)	
138	슈베르트의 자장가/자장가/자장가	6, 23/1, 4, 7, 9, 10, 12, 15, 22/18	홍순혁 역사(1・6・10・12・23)・역(9)・역시(15・22), 없음(4・7), 최독견(18)	슈-베르트(Schubert)(1・9), 슈베르트(Schubert)(10), Schubert(4・7・12・18), F. Schubert(6), 슈우베르트(Schubert)(15), 슈우베르트(F. Schubert)(22・23)	1) <Wiegenlied>(D.498, Op.98, No.2)이 원곡. 2) 교과서 4와 7에 노랫말 관련 인물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홍순혁의 노랫말과 동일함이 확인됨. 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39	스키(스키이)의 노래	13	오수경 시	영국민요	
140	시냇물	8	오창진	Russian Folk Song	
141	아(알)로하오에	8, 22	오창진 가사(8), 없음(22)	Leliuokalani(8), 하와이 민요(Leliukalani)(22)	1) <Aloha´ oe>가 원곡. 하와이 음악 장르인 ‘Hapa Haole’로 볼 수 있음.(Wikipedia, ‘hapa’, 2023.6.24. 02:28 접속) 작곡자가 명확하므로 ‘민요’로 보기 어려움. 2) 교과서 8에 ‘아로하오에’, 교과서 22에 ‘알로하오에’로 표기됨. 3) ‘Leliuokalani’는 ‘Liliuokalani’의 오기. 4)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한 경우 있음.
142	아름다운 꽃이어/홍화	19, 21/1, 10, 16, 17, 20	풍만 역사(19・21), 이우건 역사	中國民謠(1), 중국민요(10・16・17・19・20・21)	<茉莉花(모리화)>가 원곡.

			(1・10)・시 (16・17・20)		
143	아름다와	22	없음	영국민요	<The Bluebells of Scotland>가 원곡.
144	아름답고 푸른 도나부	8	오창진 가사	없음	기악곡을 성악곡 편곡
145	아베마리아	8	오창진 가사	Charles Gounod	
146	아베마리아	8	오창진 가사	F. Schubert	<Ellen’s Gesang. III.>(D. 839, Op. 52, No. 6)이 원곡.
147	아이, 아이, 아이	11	없음	Osman Perez Freire	<Ay. Ay. Ay>가 원곡.
148	아침 종소리	1, 10	화암 역사	作者未詳(1), 작자미상(10)	
149	양춘가절	8	오창진 가사	Hungarian Folk Song	
150	어린 음악가	20	없음	영국민요	
151	어머님의 은혜	8	오창진 가사	Davidson	
152	어선	8	오창진 가사	Portuguese Melody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가 <O Come, All Ye Faithful>로 많이 알려진 곡조.(곡조명 : Adieste Fideles). 이 곡조의 작곡자로 John Francis Wade, John Reading, King John IV of Portugal, 시토 수도회(Abbaye de Cîteaux) 수도사 등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어 왔으나 확실히 밝혀진 바 없음.
153	언덕위에	20	없음	디이톤(L. G. Deaton)	
154	여름	8	오창진 가사	없음	
155	여름을 노래한다	16	없음	카나다 민요	
156	여름의 노래	19, 21	풍만 역사	독일민요(19), 도이취란트 민요(21)	
157	여름의 바다	8	오창진 가사	G. Verdi	오페라 <Rigoletto>(리골레토) 중 <La donna e mabile>
158	연꽃	11	임학수 역사	R. Schumann	<Die Lotosblume>(《Myrthen》 Op.27, No.7)이

					원곡.
159	영광	22, 23	없음	하이든(F. J. Haydn)(22・23)	찬송가 <Ye Servants of God> 곡조
160	영광스러운 학도	14	오수경 시	Weber	오페라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 중 <Wir winden dir den Jungfernkranz>(혼례의 합창)
161	영국 국가	8	(영어 가사)	없음	<God save the King>이 원곡.
162	오 스산나	5, 18, 22, 23	없음	米國民謠(5), Foster(18), 미국민요(22・23)	1) <Oh! Susanna>가 원곡. 2) 교과서 5에 '미국'의 한자 표기가 '米國'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방중등』 23종 가운데 유일함. 일본어로 '미국'을 '米國'으로 표기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어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63	오호 종달새	1, 10	없음	멘델스존(Mendelssohn)(1・10)	<Lerchengesang>(Op.48 no.4(《6 Lieder》 중))이 원곡.
164	용서하세요 아버지	11	임학수 사	보헤미아 민요	<Lito je mne muj taticku!>가 원곡.
165	우리나라 노래하세	2, 7	없음	시시리 민요	곡조명 <O sanctissima (Sicilian mariners)>
166	우슴(웃음)	15, 18	없음(15), 오수경(18)	Cherbini(15・18)	1) <Ha Ha Ha>가 원곡. 2) 'Cherbini'는 'Cherubini'의 오기. 3) 교과서 15에 '우슴'으로 표기되어 있음.
167	원무곡(월스)	3	(계명창)	F. Lehar	
168	월계꽃	1, 7, 9, 10, 12, 19, 21	윤기성 작가(1,・9・10・12), 없음(7・19・21)	슈-베르트(Schubert)(1) Schubert(9), 슈베르트(Schubert)(10), Schubert(7・12), Franz Schubert(19), 슈우베르트(Schubert)(21)	1) <Heidenröslein>(Op.3, No.3)이 원곡. 2) 교과서 7의 '벼리'와 악보에는 '월게꽃'으로 표기되어 있음. 3)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69	웬일인지 비들기가	19, 21	풍만 역사	보헤미아 민요(19・21)	<Paun I pause>이 원곡으로 확인됨.
170	은파를 넘어	4	없음	G. A. Glover	A. P. Wyman(1832-1872)의 피아노곡 <Silvery

					Waves>가 원곡. 기악곡을 성악곡 편곡.
171	응원가	8, 15	오창진(8), 김형준 작시(15)	없음(8・15)	<Marching Thro Georgia>(H. C. Work 작곡)가 원곡.(Wikipedia 2023.4.15. 22:28 접속)
172	이 몸이 새라면	8	오창진 가사	German Folk Song	<Wenn ich ein Vöglein wär>가 원곡.
173	이른 봄	8	오창진 가사	Lambillotte	
174	이태리로	11	없음	F. Mendelssohn	1) <Italien>이 원곡. 2) ‘F. Mendelssohn’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Felix Mendelssohn Bartholdy로 오인될 수 있으나, 작곡자는 그의 누나인 ‘Fanny Mendelssohn-Hensel’임.
175	인디안의 자장가	22	없음	아이켄(W. H. Aiken)	
176	일요일	19, 21	없음	F. 멘델스존(19), 멘델스조온(21)	1) <Sonntagslied>(Op.34 No.5(《6 songs》 중)가 원곡.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77	자장가	22	없음	타우베르트 (W. Taubert)	<Schlaf in guter Ruh>(12 Gesänge, Op. 27 중)가 원곡.
178	작난감 병정	8	오창진 가사	Hungarian Folk Song	
179	잘 있거(으)라 나폴(포/뽀)리	19, 20, 21	풍만 역사(19・21), 안기영 역시(20)	나폴리 민요(20), 이태리 민요(19), 이딸리아 민요(21)	1) <Addio a Napole>가 원곡. 2) T. Cottrau 작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가 채보한 다수의 나폴리 민요들이 그의 창작곡으로 오인된 경우가 많았던 것처럼 이 곡 또한 그의 창작곡이 아닐 가능성은 존재함. 3) 교과서 19에는 ‘잘 있거라 나포리’, 교과서 21에는 ‘잘 있으라 나뽀리’로 표기됨.
180	잘 있거라 내 고향	12, 14, 20	없음	독일민요(12・14), 도이췰란트 민요(20)	<Der Letzte Abend>가 원곡.
181	잘 자거라	8	오창진	없음	
182	잘 자거라	15	김광섭 역시	영국민요(English Song)	

183	잠을 깨라	15	김광섭 역시	없음	
184	잠의 신	22	없음	브라암스(J. Brahms)	<Sandmännchen>(WoO 31 - 4(《15 Volks-Kinderlieder》 중))이 원곡으로 확인됨.
185	장속의 새	19, 21	풍만 역사	스페인 민요(19・21)	<Chorinua kaiolan>이 원곡으로 확인됨.
186	저녁 노리	3	없음	Old Melody	
187	저녁놀	2	없음	H. G. Nägeli	
188	저녁달	8	오창진 가사	M. Hauptmann	
189	저녁종	4	없음	보헤미야 민요	
190	저녁종	2, 7	없음	S. Webbe	찬송가 <Come, Ye Disconsolate> 곡조
191	제석의 종	15	백철 작시	웨일쓰 민요	<Deck the Halls>가 원곡. 성탄절 캐럴.
192	조국	11	임학수 사	B. Woodbany(운베리)	1) 찬송가 <Be Strong to dare and do' (Tune: No tears in yonder home)> 곡조 2) 작곡자명은 I. B. Woodbury이므로, 표기 오류.
193	조물주	8	오창진 가사	Beethoven	<Die Ehre Gottes aus der Natur>(Op.48, No.4(《6 Lider》 중))가 원곡.
194	종달새/종달새는 오른다	19, 21/16, 17	없음(19・21), 이헌구 작시(16・17)	글린카(16・17), Glinka(19), 그린카(Glinka)(21)	1) <The lark>가 원곡. 기악곡을 성악곡 편곡. 2) 작곡자명 조선어 표기들 간 차이 있음.
195	종소리	9	없음	없음	
196	종소리	22	없음	미국민요	원곡 <Jingle Bells>('The One Horse Open Sleigh')는 James Lord Pierpont에 의하여 작사 작곡되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Medford에서 열린 썰매 경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음.
197	종소리	18	오수경 시	영국민요	악보에는 '종소래'로 표기됨.

198	준령을 넘어	1, 10	화암 역사	덴짜(L. Denza)	<Funiculi Funicula>가 원곡.
199	중국 국가	8	없음	없음	程懋筠 작곡
200	쥡시의 소년	11	없음	C. G. Reiß iger	<Der Zigeunerbube im Norden>이 원곡.
201	즐거운 가을	16, 17	이헌구 작시	레에베(Wilhelm Levey)	
202	즐거운 농부	2, 7, 13	없음	Schumann	<Fröhlicher Landmann>(즐거운 농부)(Op.68, No.10(《Album Fur Die Jugend》 중))이 원곡. 기악곡을 성악곡 편곡.
203	즐거운 봄	19, 21	임학수 사	C. B. 아담스(19), 아담스(C. B. 아담스)(21)	
204	즐겁게 부르자	8	오창진 가사	W. A. Mozart	기악곡을 성악곡 편곡.
205	지난 날	20	없음	영국민요	
206	진실	16, 17	이헌구 작시	없음	
207	찬 비 치는 여사	19, 21	풍만 역사	Schubert(19), 슈우베르트(Schubert)(21)	<Das Wirtshaus>(Op.89, No.21 (《Winterreise》 중)가 원곡.
208	첫 가을	13	오수경 시	독일민요	
209	청년의 노래	13	오수경 시	Kücken	
210	체신부	15	김광섭 작시	바이즈(Weise)	
211	초밤별	19, 21	임학수 사	Robert Radecke(R. 라데케)(19), 라데케(R. 라데케)(21)	
212	추억	11	임학수 역사	P. Cornelius	
213	춘하추동	8	오창진 가사	독일민요	
214	출진	18	오수경 시	Silcher	<Der Soldat>이 원곡으로 확인됨.

215	친구	2, 7	없음	W. A. Mozart	
216	친구의 이별	4	없음	없음	<Nita Juanita>(Caroline Norton 작곡)이 원곡. (Wikipedia 2023.4.16. 00:38 접속)
217	쿠쿠 왈쓰(월쓰, 월츠)/뻐꾹 월스	1, 10, 12, 13/4	한갑수 역가(1・10・12)・시(13), 김재인(4)	요나쏜(J. E. Jonasson)(1・10), Jonasson(13),	1) <Kuckucks Walzer>가 원곡. 2) ‘Waltz’의 조선어 표기가 교과서 1과 12의 악보에 ‘월쓰’, 교과서 10 악보에는 ‘월츠’, 교과서 4에는 ‘월스’, 교과서 13에는 ‘왈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218	투혼	8	오창진 가사	G. F. Händel	
219	파랑새가 노래한다	19, 21	풍만 역사	불가리아 민요(19・21)	
220	풍년	8	오창진 가사	Broom	<O du lieber Augustin>이 원곡.
221	풍년가	8	오창진	작곡자 미상	악보에는 ‘豊年頌(풍년송)’으로 표기됨.
222	필렌드의 삼림	9	김수향 작가	필렌드 민요	
223	하고 싶은 말	8	오창진	Mendelssohn	
224	학우	13, 8	오수경 시(13), 오창진 가사(8)	K. F. Zelter(8), Zelter(13)	
225	한 떨기 국화	20, 21	없음	도위칠란트 민요(20・21)	
226	한 떨기 장미꽃	1, 6, 10, 12, 23	이은상 역사	英國民謠(1・12), 영국민요(10), Flotow(6), 스코트랜드 민요(Flotow)(23)	1) <The Last Rose of Summer>가 원곡. 2) 아일랜드 시인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의 노랫말, 그리고 아일랜드 전통 곡조 “Aisling an Óigfhear“ 또는 “The Young Man’s Dream”로 되어 있으므로(Wikipedia ‘The last rose of summer’ 2023.2.16.21:58 접속) 교과서 23의 ‘스코트랜드 민요’ 표기는 오류. 3) 교과서 1 악보에는 ‘한 떨기 장미꽃’으로 표기되어 있음. 4) ‘민요’로 표기하면서 작곡자명도 병기한 경

					우 있음.
227	호숫가의 저녁	16, 17	박제열 작시	Gioacchino Rossini(16), 로씨니이(Gioacchino Rossini)(17)	작곡자명은 Gioachino Rossini이므로, 교과서 16과 17의 작곡자명 표기 오류.
228	흰 새	11	임학수 역사	Grieg	<En Svane>(Op.25, No.2(《Sechs Lieder》 중))이 원곡으로 확인됨.

[부록 5]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중 ‘민요’로 표기된 63개 곡조

※ ‘민요’나 ‘Folksong’(Folk Song)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古曲’, ‘Old Round’, ‘지역명 + Air(Melody)’ 등도 민요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포함하였음.

※곡목, 인물명, 노랫말 관련 표현 등은 교과서 표기를 따랐다.

	곡조번호	곡목	교과서	곡
1	1	Auld Lang Syne	2	Scotch Air
2	4	Early to Bed(윤창)	18	Old English Round
3	6	Home sweet home	2	H. R. Bishop
	6-1	즐거운 나의 집	1, 6, 9, 10, 12, 16, 17, 20, 23	H. Bishop, 영국민요
4	10	Sing Together(윤창)	18	Old English Round
5	13	The Cuckoo	2, 7, 18	German Folksong
6	19	가을 들	14	영국 민요
7	20	가을 하늘/글공부	8/16, 17	스코틀란드 민요(8)/영국민요
8	21	가을 밤	11	영국 古曲
9	27	겨울 달/고향생각	19, 21/1, 9, 10, 16, 17	스페인 가곡(19, 21)/Mary E. B. Dona(1, 10)/스페인 민요(16, 17)
10	28	겨울의 강가	18	독일 민요
11	32	고향	19, 21	노르웨-민요
12	43	그리워라 내 고향	13	독일 민요
13	44	기꺼움	11	오-스트랴 민요
14	53	나의 동무	20	보헤미야 민요(V. Stepan..?)
15	72	대장간의 마치 소리	20	도위칠란트 민요
16	80	딕시/딕시랜드	20/19, 21	미국민요(D. D. Emmett)
17	82	로렐라이	1, 6, 9, 10, 12, 16, 17, 22, 23	F. Silcher, 독일민요
18	85	말불그	22	프랑스 민요
19	91	무용가	18	독일 민요
20	94	바다로 가자	5, 9	Vergine, Napolitan Folk Song

21	99	뱃노래/볼가의 뱃노래	2, 7/1, 10, 12, 15, 20	로서아(노서아, 로시야) 민요
22	109	봄들로 가자	13	독일 민요
23	110	봄바람/스텐카 라진	4/1, 10, 12, 15, 18, 22	볼가(루시아, 노서아, 로시야) 민요
24	111	봄바람/순풍/학창을 향하야	18/8/11	독일 민요
25	113	봄의 세레나데/오 나의 태양/오 소래미오	3/1, 6, 10, 12/9	E. di Capua, 이태리 민요
26	117	뻐꾸기	1, 9, 10, 12	체코스로바키아 민요/슬로바키아 민요
27	123	산타 루치아	1, 9, 10, 12, 14, 15, 19, 21, 22	이탈리아 민요(T. Cottrau)
28	125	샌터클로쓰 할아버지	3	미국 민요
29	126	샘물	22	크로아치아 민요
30	128	소나무/전나무	19, 21, 18/22	독일 민요
31	129	소낙비	18	독일 민요
32	139	스키(스키이)의 노래	13	영국 민요
33	140	시냇물	8	러시아 민요
34	141	아(알)로하오에	8, 22	Le(i가 맞음)liuokalani, 하와이 민요(Leliukalani)
35	142	아름다운 꽃이어/홍화	19, 21/1, 10, 16, 17, 20	중국 민요
36	143	아름다와	22	영국민요
37	149	양춘가절	8	헝가리 민요
38	150	어린 음악가	20	영국민요
39	152	어선	8	포르투갈 멜로디
40	155	여름을 노래한다	16	카나다 민요
41	156	여름의 노래	19, 21	독일 민요
42	162	오 스산나	5, 18, 22, 23	미국민요, Foster
43	164	용서하세요 아버지	11	보헤미아 민요
44	165	우리나라 노래하세	2, 7	시시리 민요

45	169	웬일인지 비들기가	19, 21	보헤미아 민요
46	172	이 몸이 새라면	8	독일 민요
47	178	작난감 병정	8	헝가리 민요
48	179	잘 있거라 나폴리	19, 20, 21	나폴리 민요, 이태리 민요
49	180	잘 있거라 내 고향	12, 14, 20	독일 민요
50	182	잘 자거라	15	영국 민요 English Song
51	185	장속의 새	19, 21	스페인 민요
52	186	저녁 노리	3	Old Melody
53	189	저녁종	4	보헤미야 민요
54	191	제석의 종	15	웨일쓰 민요
55	196	종소리	22	미국민요
56	197	종소리	18	영국 민요
57	205	지난 날	20	영국민요
58	208	첫 가을	13	독일 민요
59	213	춘하추동	8	독일 민요
60	219	파랑새가 노래한다	19, 21	불가리아 민요
61	222	필렌드의 삼림	9	필렌드 민요
62	225	한 떨기 국화	20, 21	도위칠란트 민요
63	226	한 떨기 장미꽃	1, 6, 10, 12, 23	영국 민요, 스코트랜드 민요 (Flotow 곡)

[부록 6] 기타 (곡조별 정리) (42곡조)

곡조 번호	곡목	교과서	곡	비고
2	Deep River	14	·	종교적 성악곡 (미국 흑인 영가)
5	Ho! Every sleeper waken!(윤창)	13	·	Children’s song
7	I see you(윤창)	13	·	Children’s song
9	Merrily merrily(윤창)	18	·	Children’s song
11	The bell is ringing(윤창)	2, 7, 14	F. Silcher	Children’s song

12	The Alphabet/알파베트 Alphabet	1, 5, 10, 18	미상(프랑스 children's song)	Children's song. 프랑스의 children's song인 <Ah! vous dirai-je, maman>의 곡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 (Wikipedia 'Ah! vous dirai-je, maman' 2023.2.23. 17:19 접속) 모차르트가 이 곡조에 의한 12개 변주곡 (Twelve Variations on "Ah vous dirai-je, Maman", K. 265/300e)을 작곡하면서 널리 알려져, <Ah! vous dirai-je, maman> 곡조가 모차르트에 의해 작곡된 것으로 잘못 알려짐.
12-1	Twinkle, twinkle, little star	8, 13	〃	〃
12-2	별	8	〃	〃
14	We merry minstrels(윤창)	14	H. Purcell	Children's song
15	가을	15, 23	D. Bortnyansky	종교적 성악곡(찬송가). 곡조명: St. Petersburg.
22	개가	18	G. F. Root	종교적 성악곡(찬송가) <Yes, we'll rally round the flag, boys, we'll rally once again>
25	거룩한 밤	16, 17	F. Gruber	종교적 성악곡(찬송가) <Stille Nacht, heilige Nacht>
29	경축의 날	2, 7	F. Mendelssohn	종교적 성악곡. C. Wesley, F. Mendelssohn, 찬송가 <Hört der Engel große Freud>(천사 찬송하기를)
31	고요한 숲	16	C. M. von Weber	오페라 구성곡(마탄의 사수 서곡 멜로디) 편곡. 찬송가 <My Jesus, as Thou Wilt>(내 주여 뜻대로)
33	고향 생각/옛동산(166)	13/17	G. F. Root	군가. <Tramp, Tramp, Tramp>.(Wikipedia 'Tramp, Tramp, Tramp' 2023.2.22. 23:55)

50	꿈속의(에) 고향[447]	1, 9, 10, 16, 17	A. Dvořák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Op.95 2악장 Largo의 도입부 멜로디
52	나의 고운 꿈속에	5	L. van Beethoven	Piano Sonata 20번 2악장 Tempo di Menuetto
59	날이 지나고	5	Joseph Barnby	종교적 성악곡(찬송가)<Now the day is over>
92	미국 국가	8	J. S. Smith	국가
101	벗 생각	11	F. Silcher	독일 군가 <Ich hatte einen Kameraden, einen bessern Finst mit> ‘나는 동지가 있었네’
102	보금자리/환희의 송가	9/1, 9, 10, 12	L. van Beethoven	L. van Beethoven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중 합창. <Ode to Joy>
105	봄 노래	22	W. A. Mozart	Alle vögel sind schon da, <Kinderlieder> (Children’s song)
108	봄노래	5	L. van Beethoven	기악곡 편곡 성악곡. Minuet in G
116	비가	11, 12/8	J. Massenet	르콩트 드 릴(Leconte de Lisle)의 극 <Les Érinnyes>의 부수음악
122	산울림	19	C. Gluck	<Das echo>
131	소련 국가	8	А. В. Александров (Alexander Alexandrov(1883-1946)(Wikipedia 2023.4.15. 22:08 접속))	국가
133	솔베이지의 노래	8	E. Grieg	Peer Gynt(페르귄트)모음곡의 부수음악
144	아름답고 푸른 도나부	8	J. Strauss Ⅱ	기악곡 편곡 성악곡
145	아베마리아	8	C. Gounod	종교적 성악곡
152	어선	8	포르투갈 멜로디	성탄절 캐럴. 찬송가 <O Come, All Ye Faithful>로 많이 알려진 곡조.(곡조명 : Adieste Fideles). 작곡자로서 John Francis Wade, John Reading, King John IV of Portugal, 시토 수도회

				(Abbaye de Cîteaux) 수도사 등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어 왔음. (Wikipedia ‘O Come, All Ye Faithful’ 2023.2.23. 16:19 접속)
154	여름	8		종교적 성악곡(찬송가)
159	영광	22, 23	F. J. Haydn	종교적 성악곡. 찬송가 〈Ye Servants of God〉
161	영국 국가	8	미상	국가 〈God save the King〉
165	우리나라 노래하세	2, 7	시시리 민요	종교적 성악곡인 성공회 성가 172장. 〈거룩하고 인자하신〉의 곡조. 곡조명은 ‘O sanctissima(Sicilian mariners)’. 곡조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곡조의 유래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Wikipedia, ‘O sanctissima’(2023.7.19. 22:55 접속) 내용 참고) ‘기타’ 범주에 포함시킴.
170	은파를 넘어	4	G. A. Glover	기악곡 편곡 성악곡
171	응원가	8, 15	H. C. Work	〈Marching Thro Georgia〉
190	저녁종	2, 7	S. Webbe	종교적 성악곡(찬송가 〈Come, Ye Disconsolate〉)
191	제석의 종	15	웨일쓰 민요	성탄절 캐럴. ‘아름답게 장식하세...’ 〈Deck the Halls〉
192	조국	11	I. B. Woodbury	종교적 성악곡. 찬송가 〈Be Strong to dare and do’ (Tune: No tears in yonder home〉[448]
194	종달새/종달새는 오른다	19, 21/16, 17	Glinka	〈The lark〉. 기악곡 편곡 성악곡
196	종소리	22	미국민요	‘미국민요’로 표기되어 있으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곡 〈Jingle Bells〉(The One Horse Open Sleigh)은 James Lord Pierpont에 의하

				여 작사 작곡되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Medford에서 열린 썰매 경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음.449)
199	중국 국가	8	·	국가. 程懋筠 작곡.
202	즐거운 농부	2, 7, 13	Schumann	기악곡 편곡 성악곡. R. Schumann ‘Album Fur Die Jugend, Op.68’ (for piano) 중 10번 곡 〈Fröhlicher Landmann〉(즐거운 농부)
204	즐겁게 부르자	8	W. A. Mozart 기악곡 편곡	기악곡 편곡 성악곡

[부록 7] 외국곡 작곡자와 수록곡(교과서 표기 기준)

※ 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작곡자명이 조선어로 표기된 경우는 알파벳으로 바꾸고(예: 아담스->Adams), 오기된 경우는 정확한 작곡자명을 찾아 괄호 안에 적어(예: 아이켄->(Aiken, W. H.) 작성하였음.

	작곡자명	곡조 번호	비고
1	Abt, Fr.	18, 40	
2	(Adams, C. B.)	203	‘C. B. 아담스’ 또는 ‘아담스’로 표기되어 있음.
3	(Aiken, W. H.)	175	‘아이켄’으로 표기되어 있음.
4	Bach, J. S.	37	
5	(Barnby, J.)	59	‘Josep Barnly’로 오기되어 있음.
6	(Bayly, T. H.)	8, 8-1	교과서 18에는 ‘Bayly’로 표기되어 있으며, 교과서 8에는 ‘T. H. Bayley’로 오기되어 있음.
7	Beethoven, L. van	52, 102, 108, 193	
8	Bellini, V.	26	
9	Bishop, H. R.	6, 6-1	

447) A. Dvořák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Op.95 2악장 Largo의 도입부 멜로디에 노랫말을 붙인 곡. Wikipedia, ‘Symphony No. 9 (Dvořák)’, 2022.7.1. 01:53 접속.

448) I. B. Woodbury곡. hymnary.org, 2022.9.14. 00:07 접속.

449) Wikipedia, ‘Jingle Bells’, 2022.7.1. 03:11 접속.

10	Bland, J.	61	교과서 2·7에 ‘B. James’로 오기되어 있음.
11	(Bortniansky, D.)	15	‘보르트 니안스키이(Dimitri Bortni)’(교과서 15), 보르트니(Dimitri Bortni)(교과서 23) 등으로 오기되어 있음.
12	Brahms, J.	97, 114, 134, 184	
13	Broom	220	<O du lieber Augustin>은 민요로서, 작곡자명이 알려지지 않는 곡. 악보집 『The Bavarian Girl’s Song: Buy a Broom!』(https://levysheetmusic.mse.jhu.edu/collection/180/005 2023.4.16. 04:41 접속)에는, <O du lieber Augustin>과 이 곡을 영어 노랫말로 번역하고 약간의 편곡을 거친 <Buy a Broom>이 수록되어 있음. 즉 <Buy a Broom>이라는 곡목으로도 이 곡이 알려져 있다는 것. 이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 편찬자가 <O du lieber Augustin>이 아닌 <Buy a Broom> 악보를 차용/참고하는 과정 또는 사보(寫譜)의 과정에서 곡목의 일부인 ‘Broom’이 작곡자명의 위치에 오기되는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14	Capua, E. di	113	
15	Carpenter, J. A.	38	
16	Cherubini, L	67, 166	교과서 21에는 조선어로 ‘케루비니’로 표기되어 있음.
17	Chopin, Fr.	130	
18	Cornelius, P.	212	
19	Curtis, E. de	74	
20	Davidson, ?	151	
21	Deaton, L. G.	153	
22	Denza, L.	198	
23	Dona, M. E. B.	27	
24	Dvorak, A.	50	교과서 9에 ‘Dootak’으로 오기되어 있음. 교과서 16에는 작곡자명 표기 없음.
25	Emmett, D. D.	80	교과서 19·21에는 ‘미국민요’로만 표기되어 있음.
26	Flotow, F. von	226	교과서 1·10·12에는 ‘영국민요’로만 표기되어 있음.
27	Foster, S. C.	34, 45, 69, 75, 119, 162	
28	Franck, C.	36	
29	Freire, O. P.	147	

30	Gabriel, C. H.	115	
31	Glinka, M.	194	
32	Glover, G. A.	170	작곡자명 오류. 원곡인 <Silvery Waves>의 작곡자는 A. P. Wyman으로 확인됨.
33	Gluck, C.	122	
34	Gounod, Ch.	107, 145	교과서 6에는 'Gohnod'로 오기되어 있음.
35	Greser, ?	90	
36	Grieg, E.	133, 228	
37	Gruber, F.	25	교과서 16·17에 조선어 표기가 '그리버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발음으로 볼 때 적절한 표기라 보기 어려움.
38	Gurlitt, C	79	
39	Händel, G. F.	23, 81, 218	
40	Harrison, ?	98	
41	Hauptmann, M.	188	
42	Haydn, F. J.	64, 159	
43	Hays, W. S.	35, 41	
44	Hetsch, K. L.	58	
45	Hullah, J.	48	교과서 6에는 'J. Hvllah'로 오기되어 있음.
46	(Ivanovici, I.)	73	교과서 8에 'Ivanvici'로 오기되어 있음.
47	Jonasson, J. E.	217	
48	King, T.	76	
49	Kipper, H.	54	
50	Kücken, F.	49, 106, 137, 209	
51	Lambillotte, L.	173	
52	Lehar, F.	167	
53	Levey, W.	201	
54	(Liliuokalani)	141	교과서 22에 'Leliuokalani'로 오기되어 있음.
55	Mario, E. A.	86	
56	Massenet, J.	116	교과서 12에는 'J. Mdssenet'로 오기되어 있음.
57	Mendelssohn, F.	29, 87, 95, 163, 176, 223	
58	Mendelssohn, F(Fanny Mendelssohn-Hensel)	174	'F. Mendelssohn'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Felix Mendelssohn Bartholdy로 오인될 수 있으나, 그가 아닌 그의 누나 'Fanny Mendelssohn-Hensel'이

			작곡.
59	Miessner, W. O.	62	
60	Mozart, W. A.	12, 12-1, 46, 88, 105, 204, 215	곡조 12, 12-1는 프랑스의 children's song(또는 민요)인 <Ah! vous dirai-je, maman>의 것. 또한 곡조 88의 실제 작곡자는 J. F. A. Fleischmann로 확인됨. 곡조 105도 모차르트 작곡이 아니며 작곡자 미상으로 확인됨.
61	Nägeli, H. G.	187	
62	Nagler, F.	104	
63	Offenbach, J.	100	
64	Ordway, J. P.	3, 3-1	교과서 6에는 'Opdway'로 오기되어 있음.
65	Pergolesi, G. B.	70	
66	Purcell, H.	14	
67	Radecke, R.	211	
68	Reißiger, C. G.	200	
69	Root, G. F.	22, 33	교과서 17에는 '루우트'로만 표기되어 있음.
70	Rossini, G.	227	
71	Rubinstein, A.	16	
72	Schubert, F.	47, 60, 68, 84, 103, 132, 138, 146, 168, 207	
73	Schulze, ?	63	
74	Schumann, R.	65, 71, 158, 202	
75	Silcher, Fr.	11, 30, 42, 66, 82, 96, 214	
76	Spilman, J. E.	51	
77	Taubert, W.	177	
78	Thomas, ?	39	
79	Toselli, E.	127	
80	Türk, D. G.	121	
81	Verdi, G.	24, 157	
82	Vergine, ?	94	
83	Wagner, R.	135	
84	Walt, E. J.	56	
85	Webbe, S.	190	
86	Weber, C. M. von	31, 77, 118, 160	
87	Weise, ?	210	
88	Werner, H.	78	
89	Widman, B.	120	
90	(Woodbury, I. B.)	192	교과서 11에 'B. Woodbany'로 오기되어 있음.

91	Wrighton, W. T.	57	교과서 17에는 조선어로 '릭톤'으로 표기되어 있음. 원어의 발음으로 볼 때 적절한 표기라 보기 어려움.
92	Zelter, C. F.	224	
93	(Zöllner, C. F.)	17	조선어로 '카알, 쥘러(-)'로만 표기됨. 원어의 발음으로 볼 때 '쥘러'는 적절한 표기라 보기 어려움.

[부록 8] 작곡자의 출신 지역 및 생몰 연대 (총 93명)[450]

	작곡자명	출신 지역	생몰 연대	비 고
1	Abt, Fr.	독일	1819 - 1885	
2	Adams, C. B.	미국	1859 - 1940	
3	Aiken, W. H.	미국	?	곡목 <인디안의 자장가>로 출신 지역 추정.
4	Александров, А. В. (Alexandrov, A.)	소련	1883 - 1946	
5	Bach, J. S.	독일	1685 - 1750	
6	Barnby, J.	영국	1838 - 1896	
7	Bayly, T. H.	영국	1797 - 1839	
8	Beethoven, L. van	독일	1770 - 1827	
9	Bellini, V.	이탈리아	1801 - 1835	
10	Bishop, H. R.	영국	1787 - 1855	
11	Bland, J.	미국	1854 - 1911	
12	Bortniansky, D.	러시아 제국	1751 - 1825	
13	Brahms, J.	독일	1833 - 1897	
14	Capua, E. di	이탈리아	1865 - 1917	
15	Carpenter, J. A.	미국	1876 - 1951	
16	Cherubini, L	이탈리아	1760 - 1842	
17	Chopin, Fr.	폴란드	1810 - 1849	
18	Cornelius, P.	독일	1824 - 1874	
19	Cottrau, T.	이탈리아	1827 - 1879	
20	Curtis, E. de	이탈리아	1875 - 1937	
21	Davidson, ?	?	?	
22	Deaton, L. G.	?	?	

23	Denza, L.	이탈리아	1846 - 1922	
24	Dona, M. E. B.	?	?	
25	Dvorak, A.	체코	1841 - 1904	
26	Emmett, D. D.	미국	1815 - 1904	
27	Fleischmann, J. F. A.	독일	1766 - 1798	
28	Flotow, F. von	독일	1812 - 1883	
29	Foster, S. C.	미국	1826 - 1864	
30	Franck, C.	벨기에	1822 - 1890	
31	Freire, O. P.	칠레	1878 - 1930	
32	Gabriel, C. H.	미국	1856 - 1932	
33	Glinka, M.	러시아	1804 - 1857	
34	Gluck, C.	독일	1714 - 1787	
35	Gounod, Ch.	프랑스	1818 - 1893	
36	Greser, ?	?	?	
37	Grieg, E.	노르웨이	1843 - 1907	
38	Gruber, F.	오스트리아	1787 - 1863	
39	Gurlitt, C	독일	1820 - 1901	
40	Händel, G. F.	독일	1685 - 1759	
41	Harrison, ?	?	?	
42	Hauptmann, M.	독일	1792 - 1868	
43	Haydn, F. J.	오스트리아	1732 - 1809	
44	Hays, W. S.	미국	1837 - 1907	
45	Hetsch, K. L.	?	?	
46	Hullah, J.	영국	1812 - 1884	
47	Ivanovici, I.	루마니아	1845 - 1902	
48	Jonasson, J. E.	스웨덴	1886 - 1956	
49	King, T.	?	?	
50	Kipper, H.	?	?	
51	Kücken, F.	독일	1810 - 1882	
52	Lambillotte, L.	벨기에	1796 - 1855	
53	Lehar, F.	헝가리	1870 - 1948	
54	Levey, W.	?	?	
55	Liliuokalani	하와이(미)	1838 - 1917	
56	Mario, E. A.	이탈리아	1884 - 1961	
57	Massenet, J.	프랑스	1842 - 1912	
58	Mendelssohn, F.	독일	1809 - 1847	

59	Mendelssohn, F(Fanny Mendelssohn-Hensel)	독일	1805 - 1847	
60	Miessner, W. O.	미국	1880 - 1967	
61	Mozart, W. A.	오스트리아	1756 - 1791	
62	Nägeli, H. G.	스위스	1773 - 1836	
63	Nagler, F.	독일	1873 - 1957	
64	Norton, C.	영국	1808 - 1877	
65	Offenbach, J.	독일	1819 - 1880	
66	Ordway, J. P.	미국	1824 - 1880	
67	Pergolesi, G. B.	이탈리아	1710 - 1736	
68	Pierpont, J. L.	미국	1822 - 1893	
69	Purcell, H.	영국	1659 - 1695	
70	Radecke, R.	독일	1830 - 1911	
71	Reißiger, C. G.	독일	1798 - 1859	
72	Root, G. F.	?	?	
73	Rossini, G.	이탈리아	1792 - 1868	
74	Rubinstein, A.	러시아	1829 - 1894	
75	Schubert, F.	오스트리아	1797 - 1828	
76	Schulze, ?	?	?	
77	Schumann, R.	독일	1810 - 1856	
78	Shield, W.	영국	1748 - 1829	
79	Silcher, Fr.	독일	1789 - 1860	
80	Spilman, J. E.	미국	1812 - 1896	
81	Taubert, W.	독일	1811 - 1891	
82	Thomas, A.	프랑스	1811 - 1896	교과서에 'Thomas'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Ambroise Thomas'로 확인됨.
83	Toselli, E.	이탈리아	1883 - 1926	
84	Türk, D. G.	독일	1750 - 1813	
85	Verdi, G.	이탈리아	1813 - 1901	
86	Vergine, ?	?	?	
87	Wagner, R.	독일	1813 - 1883	
88	Walt, E. J.	?	?	
89	Webbe, S.	?	?	
90	Weber, C. M. von	독일	1786 - 1826	
91	Weise, ?	?	?	

92	Werner, H.	독일	1800 - 1833	
93	Widman, B.	독일	1820 - 1910	
94	Woodbury, I. B.	미국	1819 - 1858	교과서에 'B. Woodbany'로 오기되어 있음.
95	Work, H. C.	미국	1832 - 1884	
96	Wrighton, W. T.	영국	1816 - 1880	
97	Wyman, A. P.	미국	1832 - 1872	
98	Zelter, C. F.	독일	1758 - 1832	
99	Zöllner, C. F.	독일	1800 - 1860	
100	程懋筠	중국	1900 - 1957	

[부록 9] 『해방중등』 수록 외국곡 작곡자별 수록 곡조, 곡조 수, 수록 횟수(작곡자명 알파벳 순)

	작곡자명	곡조(번호)	곡조수	수록 횟수
1	Abt, Fr.	18, 40	2	3
2	Adams, C. B.	203	1	2
3	Aiken, W. H.	175	1	1
4	Александров, А. В. (Alexandrov, A.)	131	1	1
5	Bach, J. S.	37	1	1
6	Barnby, J.	59	1	1
7	Bayly, T. H.	8, 8-1	1	3
8	Beethoven, L. van	52, 102, 108, 193	4	8
9	Bellini, V.	26	1	1
10	Bishop, H. R.	6, 6-1	1	10
11	Bland, J.	61	1	4
12	Bortniansky, D.	15	1	2

450) ※ 교과서에 작곡자명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아, 올바른 표기를 찾아 아래의 표를 작성하였으므로 교과서에 표기된 바와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작곡자명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교과서에 표기된 대로 적었다.
※※ 출신 지역은 주로 출생지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여러 곳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움)

13	Brahms, J.	97, 114, 134, 184	4	11
14	Capua, E. di	83, 113	2	7
15	Carpenter, J. A.	38	1	2
16	Cherubini, L	67, 166	2	4
17	Chopin, Fr.	130	1	1
18	Cornelius, P.	212	1	1
19	Cottrau, T.	179	1	3
20	Curtis, E. de	74	1	3
21	Davidson, ?	151	1	1
22	Deaton, L. G.	153	1	1
23	Denza, L.	198	1	2
24	Dona, M. E. B.	27	1	7
25	Dvorak, A.	50	1	5
26	Emmett, D. D.	80	1	3
27	Fleischmann, J. F. A.	88	1	10
28	Flotow, F. von	226	1	5
29	Foster, S. C.	34, 45, 69, 75, 119, 162	6	23
30	Franck, C.	36	1	1
31	Freire, O. P.	147	1	1
32	Gabriel, C. H.	115	1	2
33	Glinka, M.	194	1	4
34	Gluck, C.	122	1	1
35	Gounod, Ch.	107, 145	2	4
36	Greser, ?	90	1	1
37	Grieg, E.	133, 228	2	2
38	Gruber, F.	25	1	2
39	Gurlitt, C	79	1	2
40	Händel, G. F.	23, 81, 218	3	7
41	Harrison, ?	98	1	1
42	Hauptmann, M.	188	1	1
43	Haydn, F. J.	64, 159	2	3
44	Hays, W. S.	35, 41	2	7
45	Hetsch, K. L.	58	1	1
46	Hullah, J.	48	1	5

47	Ivanovici, I.	73	1	1
48	Jonasson, J. E.	217	1	5
49	King, T.	76	1	1
50	Kipper, H.	54	1	2
51	Kücken, F.	49, 106, 137, 209	4	10
52	Lambillotte, L.	173	1	1
53	Lehar, F.	167	1	1
54	Levey, W.	201	1	2
55	Liliuokalani	141	1	2
56	Mario, E. A.	86	1	3
57	Massenet, J.	116	1	3
58	Mendelssohn, F.	29, 87, 95, 163, 176, 223	6	9
59	Mendelssohn, F(Fanny Mendelssohn-Hensel)	174	1	1
60	Miessner, W. O.	62	1	1
61	Mozart, W. A.	46, 204, 215	3	4
62	Nägeli, H. G.	187	1	1
63	Nagler, F.	104	1	2
64	Norton, C.	216	1	
65	Offenbach, J.	100	1	2
66	Ordway, J. P.	3, 3-1	1	10
67	Pergolesi, G. B.	70	1	1
68	Pierpont, J. L.	196	1	
69	Purcell, H.	14	1	1
70	Radecke, R.	211	1	2
71	Reißiger, C. G.	200	1	1
72	Root, G. F.	22, 33	2	3
73	Rossini, G.	227	1	2
74	Rubinstein, A.	16	1	1
75	Schubert, F.	47, 60, 68, 84, 103, 132, 138, 146, 168, 207	10	31
76	Schulze, ?	63	1	1
77	Schumann, R.	65, 71, 158, 202	4	6

78	Shield, W.	1	1	1
79	Silcher, Fr.	11, 30, 42, 66, 82, 96, 101, 109, 214	9	19
80	Spilman, J. E.	51	1	3
81	Taubert, W.	177	1	1
82	Thomas, ?	39	1	1
83	Toselli, E.	127	1	1
84	Türk, D. G.	121	1	1
85	Verdi, G.	24, 157	2	4
86	Vergine, ?	94	1	2
87	Wagner, R.	135	1	1
88	Walt, E. J.	56	1	2
89	Webbe, S.	190	1	2
90	Weber, C. M. von	31, 77, 118, 160	4	8
91	Weise, ?	210	1	1
92	Werner, H.	78	1	6
93	Widman, B.	120	1	1
94	Woodbury, I. B.	192	1	1
95	Work, H. C.	171	1	2
96	Wrighton, W. T.	57	1	3
97	Wyman, A. P.	170	1	1
98	Zelter, C. F.	224	1	2
99	Zöllner, C. F.	17	1	2
100	程懋筠	199	1	1

[부록 10] 역/작사자별 ‘역/작사곡’, ‘노랫말에 대한 표현’, ‘수록 횟수’(인물명의 가나다 순)

	이름		곡목	표현	수록 횟수 (수록 교과서 번호)
1	고순덕[451]	1	로렐라이	역, 역사, 역시	9(9, 6, 17, 12, 22, 23, 16, 1, 10)
2	국정효	1	고향의 어머니/여수	역시, 가사, 사	8(1, 10, 9, 22, 23, 13, 6, 12)

		2	숲속의 노래	작사	1(1, 10)
3	김광섭	1	글공부	역시	2(17, 16)
		2	켄터키 옛집	〃	1(15)
		3	주인은 땅속에	〃	1(15)
		4	블랙죠오	〃	2(17, 16)
		5	잘 자거라	〃	1(15)
		6	잠을 깨라	〃	1(15)
		7	체신부	작시	1(15)
4	김명진	1	소나무	역시	2(19, 21)
5	김수향	1	저 먼 산타 루치아	작사	1(9)
		2	필렌드의 삼림	작가	1(9)
		3	망향	사	1(5)
6	김신덕	1	자장가	사	1(4)
7	김인식	1	꾀꼴새	작사, 작시, 시	5(1, 10, 9, 12, 14)
8	김재인	1	개선	역시	3(12, 1, 10)
		2	즐거운 나의 집	역시, 역시, 역사	9(9, 17, 12, 20, 23, 16, 6, 1, 10)
		3	뻐꾹 월스	사	1(4)
9	김형준	1	응원가	작시	1(15)
10	남궁 요설	1	보리수	역사, 역가, 시	4(14, 1, 10, 12)
11	박제열	1	가을	역시, 작시	2(15, 23)
		2	고요한 숲	작시	1(16)
		3	호숫가의 저녁	작시	2(17, 16)
12	박태원	1	켄(컨)터키 옛집	역, 역사	6(12, 16, 1, 10, 22, 23)
		2	고향의 어머니	작시	1(15)
		3	숲속의 노래	작사	2(1, 10)
13	백철	1	제석의 종	작시	1(15)
14	송정율	1	봄노래	사	1(5)
		2	봄의 세레나데	사, 없음	2(3)
15	안기영	1	잘 있거라 나폴리	역시	1(20)
16	오수경	1	가을 들	시	1(14)
		2	개가	〃	1(18)
		3	겨울 밤	〃	1(14)
		4	겨울의 강가	〃	1(18)
		5	고향 생각	〃	1(13)
		6	그리운 동무	〃	1(18)
		7	그리워라 내 고향	〃	1(13)
		8	노래 소리	〃	1(13)
		9	봄들로 가자	〃	1(13)
		10	소낙비	〃	1(18)
		11	봄바람	〃	1(18)
		12	스키(이)의 노래	〃	1(13)
		13	영광스러운 학도	〃	1(14)
		14	옛 동산	〃	1(17)

		15	우승가	〃	1(14)
		16	종소래	〃	1(18)
		17	첫 가을	〃	1(13)
		18	청년의 노래	〃	1(13)
		19	출진	〃	1(18)
		20	학우	〃	1(13)
17	오창진	1	가을	가사	1(8)
		2	밤	〃	1(8)
		3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	〃	1(8)
		4	나팔	〃	1(8)
		5	도나부강	〃	1(8)
		6	돌아오라 쏠렌토로	〃	1(8)
		7	라아르고	〃	1(8)
		8	잘 자거라	〃	1(8)
		9	바다	〃	1(8)
		10	백합	〃	1(8)
		11	뱃노래	〃	1(8)
		12	별	〃	1(8)
		13	봄소식	〃	1(8)
		14	비가	〃	1(8)
		15	산에 올라	〃	1(8)
		16	새벽	〃	1(8)
		17	순풍	〃	1(8)
		18	아로하오에	〃	1(8)
		19	아름답고 푸른 도나부	〃	1(8)
		20	아베마리아(구노)	〃	1(8)
		21	아베마리아(슈)		1(8)
		22	어머님의 은혜	〃	1(8)
		23	어선	〃	1(8)
		24	여름	〃	1(8)
		25	여름의 바다	〃	1(8)
		26	이 몸이 새라면	〃	1(8)
		27	이른 봄	〃	1(8)
		28	작난감 병정	〃	1(8)
		29	저녁달	〃	1(8)
		30	조물주	〃	1(8)
		31	즐겁게 부르자	〃	1(8)
		32	춘하추동	〃	1(8)
		33	투혼	〃	1(8)
		34	풍년	〃	1(8)
		35	학우	〃	1(8)
		36	가을 하늘	없음	1(8)
		37	농가의 아침 저녁	〃	1(8)
		38	늙은 흑인 죠오	〃	1(8)

		39	스와니강	〃	1(8)
		40	수마	〃	1(8)
		41	시냇물	〃	1(8)
		42	옛날	〃	1(8)
		43	응원가	〃	1(8)
		44	풍년가	〃	1(8)
		45	하고 싶은 말	〃	1(8)
18	윤기성	1	월게(계)꽃	작가, 시	4(1, 10, 9, 12)
19	이관옥	1	소녀의 꿈	작사, 없음	2(3)
20	이규남	1	귀향	작시	1(18)
21	이우건	1	홍화(아름다운 꽃이어)	역사, 역시	5(1, 10, 17, 20, 16)
22	이은상	1	한 떨기 장미꽃	역사, 역시	5(1, 10, 23, 6, 12)
23	이헌구	1	동무	작시	2(17, 16)
		2	들장미	〃	2(17, 16)
		3	등산	〃	2(17, 16)
		4	종달새는 오른다	〃	2(17, 16)
		5	즐거운 가을	〃	2(17, 16)
		6	진실	〃	2(17, 16)
24	임학수	1	길손의 밤노래	역사	1(11)
		2	녹음	〃	1(11)
		3	늙은 악사	〃	1(11)
		4	연꽃	〃	1(11)
		5	추억	〃	1(11)
		6	흰 새	〃	1(11)
		7	가을	사	2(19, 21)
		8	가을 밤	〃	1(11)
		9	겨울 달	〃	2(19, 21)
		10	고향을 떠나며	〃	2(19, 21)
		11	구슬픈 가을	〃	1(11)
		12	기꺼움	〃	1(11)
		13	나그내의 노래	〃	1(11)
		14	남해	〃	1(11)
		15	눈	〃	2(19, 21)
		16	단풍잎	〃	1(11)
		17	벗 생각	〃	1(11)
		18	봄	〃	2(19, 21)
		19	산골	〃	1(11)
		20	학창을 향하야	〃	1(11)
		21	숲길	〃	1(11)
		22	용서하세요 아버지	〃	1(11)
		23	조국	〃	1(11)
		24	즐거운 봄	〃	2(19, 21)
		25	초밤별	〃	2(19, 21)
25	풍만	1	고향	역사	2(19, 21)
		2	딕시(이)랜드	〃	2(19, 21)

		3	봄 새벽	〃	2(19, 21)
		4	산울림	〃	1(19)
		5	아름다운 꽃이어	〃	2(19, 21)
		6	여름의 노래	〃	2(19, 21)
		7	웬일인지 비들기가	〃	2(19, 21)
		8	잘 있으라 나뽀(포)리	〃	2(19, 21)
		9	장 속의 새	〃	2(19, 21)
		10	찬 비 치는 여사	〃	2(19, 21)
		11	파랑새가 노래한다	〃	2(19, 21)
26	한갑수	1	볼가의 배ㅅ(뱃)노래	역사, 역시	5(12, 1, 10, 15, 20)
		2	쿠쿠-월쓰(츠)(왈쓰)	역가, 시	4(13, 12, 1, 10)
27	현제명	1	먼 싼타루치아	없음	1(8)
		2	목동아	없음(노랫말 관련 인물명 없음)	1(9)
28	홍난파	1	꾀꼬리(꾀꼴새)	역시(시)	5(15, 6, 20, 4, 13)
		2	부라암스(브람스)의 자장가(아기 재우는 노래)	역사	4(19, 21, 1, 10)
		3	오! 스산나	시	1(18)
	홍란파	4	불어라 봄바람	없음	1(10)
	홍영후	5	고향생각	작시, 작가, 시	5(1, 10, 9, 17, 16)
29	홍순혁	1	슈베르트의 자장가(자장가)	역, 역사, 역시	8(6, 23, 1, 10, 9, 15, 12, 22)
30	화암	1	꿈속의(에) 고향	역시, 역사	5(17, 1, 10, 9, 16)
		2	환희의 송가	역, 역사	4(9, 12, 1, 10, 9(보금자리))
		3	스텐카 라진	역시, 역사, 없음	6(22, 18, 10, 1, 15, 12)
		4	뻐구(꾸)기	역, 역사	4(1, 10, 9, 12)
		5	아침 종소리	역사	2(1, 10)
		6	준령을 넘어	역사	2(1, 10)

451) 『해방중등』 9종에 수록된 〈로렐라이〉 악보에는 공히 '고순덕'이 번역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1929년에 발행된 독고선 편저 『가요곡선집 제2집』에 수록된 〈로레라이〉 악보에 '독고선 역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그 주요 근거인데, 독고선 본인이 편저한 악보집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잘못 표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해방중등』 9종에 동일한 노랫말이 수록된 이유는, 교과서 1(『임시중등음악교본』) 외 8종의 교과서 편찬 시 교과서 1의 수록곡을 참고/차용였을 가능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록 11] 외국곡 노랫말의 번역/작사 시기

※ ‘노랫말’ 항의 내용은 교과서 수록 악보의 표기에 의거함.

※ ‘목차’와 ‘악보’ 간 ‘곡’ 관련 내용(작곡자, 곡의 성격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악보’의 표기를 괄호 안에 적었다. (예: 보르트니(Dimitri Bortni), 나이트(카펜터어 J. A. Carpenter), J. Hvllah(J. Hullah))

곡조번호	곡목	교과서	노랫말	곡	시기
3-1	고향의 어머니/여수	15/1, 6, 9, 10, 12, 13, 22, 23	국정효 작시	Ordway(13・15), J. F. Ordway(1・9・10・12), Opdway(6), 오드웨이(Ordway)(22・23)	1940
6-1	즐거운 나의 집	1, 6, 9, 10, 12, 16, 17, 20, 23	金在富(富는 寅의 오기)역, 역시, 역사	英國民謠(Bishop)(1), Bishop(6・9・12), 영국민요(Bishop)(10), 영국민요(H. Bishop)(20), 비숍(Henry Bishop)(16・17), 비숍(Bishop)(23)	1940 [452]
8-1	고향의 추억	18	오수경	Bayly	1940
8-1	옛날	8	오창진	T. H. Bayly	1940
12-2	별	8	오창진 가사	・	1940
15	가을	15, 23	박제열 역시	보르트 니안스키이(Dimitri Bortni)(15), 보르트니(Dimitri Bortni)(23)	?
16	가을	22	・	루빈쉬타인(A. Rubinstein)	?
17	가을	19, 21	임학수 사	카알, 죌러(어)	1940
18	가을	8	오창진 가사	Fr. Abt	1940
19	가을 들	14	오수경 시	영국 민요	1940
20	가을 하늘	8	오창진	스코틀란드 민요	1940
20	글공부	16, 17	김광섭 역시	영국민요	1940
21	가을 밤	11	임학수 사	영국 古曲	1940
22	개가	18	오수경 시	Root	1940
23	개선/개선의 노래	1, 10, 12/2, 7	김재인 역시	헨델(Händel)(1・10・12), G. F. Händel(2・7)	1940
24	개선행진곡	6, 23	・	Verdi	?

24	우승가	14	오수경 시	Verdi	1940
25	거룩한 밤	16, 17	·	그리버어(Franz Gruber)	?
26	겨울 밤	14	오수경 시	Bellini	1940
27	겨울 달	19, 21	임학수 사	스페인 가곡	1940
27	고향생각	1, 9(시), 10/16, 17	홍영후 작가/작시	도-나 Mary E. B. Dona/스페인 민요	1910 [453]
28	겨울의 강가	18	오수경 시	독일 민요	1940
29	경축의 날	2, 7	·	F. Mendelssohn	?
30	고별의 노래	14	오수경 시	Silcher	1940
31	고요한 숲	16	박제열 작시	Carl Maria von Weber	?
32	고향	19, 21	풍만 역사	노르웨-민요	1940
33	고향생각[454]	13	오수경 시	Root	1940
33	옛동산	17	오수경 시	루우트	1940
34	고향을 떠나며	19, 21	임학수 사	Stephen Collins Foster(S. C. 포스터-)(19), 포스터(S. C. 포스터어)(21)	1940
34	컨(켄)터키 옛집	1, 9, 10, 12, 22, 23	박태원 역	미국민요(Foster)(1・10), Foster(9・12)/미국민요(22), 미국민요(S. C. Foster)(23)	1920 [455]
34	켄터기의 옛집	15	김광섭 역시	Stephen Collins Foster	1940
35	고향의 쓰러진 집/고향의 페(폐)가	19, 21/8, 16, 17	·	W. U. S. Hays(19・21), Will. S. Hays(8), W. S. Hays(16), 헤이쓰(W. S. Hays)(17)	?
36	구슬픈 가을	11	임학수 사	C. 프랭크(C. Frank)	1940
37	군인 행진곡	7	·	J. S. Bach	?
38	귀향/집으로 가는 길	17/20	이규남 작시	나이트(카펜터어 J. A. Carpenter)(17), 카펜터(J. A. Carpenter)(20)	1940
39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	8	오창진 가사	Thomas	1940
40	그리운 고향	22, 23	·	아부트(F. Abt)(22), 아브트(F. Abt)(23)	?
41	그리운 고향/망향	18/5	김수향('시'인지 '사'인지 불명)	Hays(18), W. S. Hays(5)	?
42	그리운 동무	18	오수경 시	Silcher	1940

43	그리워라 내 고향	13	오수경 시	독일 민요	1940
44	기꺼움	11	임학수 사	오-스트랴 민요	1940
45	기러기	2, 7	·	S. C. Foster	?
45	주인은 땅속에	15	김광섭 역시	포스터어(S. Foster)	1940
46	길 잃은 어린양	7	·	W. A. Mozart	?
47	길손의 밤 노래	11	임학수 역사	Fr. Schubert	1940
48	꾀꼬리/꾀꼴새	6, 15, 20/4, 13	(홍난파)	J. Hvllah(J. Hullah)(6), 헐라아(J. Hullah)(15), 후울라(Hullah)(20), J. Hullah(4), Hullah(13)	1910 [456]
49	꾀꼴새	1, 9, 10, 12, 14	김인식 작사	作者未詳(1・10), ・(9・12), Kucken(14)	1920 [457]
50	꿈속의(에) 고향	1, 9, 10, 16, 17	화암 역시	드보르샤크(Dvořak)(1・10), Dootak(9), 드볼자아크(17), 없음(16)	1940
51	나그내의 노래	11	임학수 사	I. E. Spilman(슈필만)	1940
51	불어라 봄바람	10	홍란파	스필만(Spilman)	?
51	장미화가 말랐다	5	·	·	?
52	나의 고운 꿈속에	5	·	Beethoven	?
53	나의 동무	20	·	보헤미야 민요(V. Stepan..?)	?
54	나의 어머니	22, 23	·	키퍼(H. Kipper)	?
55	나의 친구	15	·	·	?
56	나의 친구	20, 21	·	발트(E. J. Walt)	?
57	나의 동무	12	·	Wrighton	?
57	동무	16, 17	이헌구 작시	하이쓰(W. T. Wrighton)(16), 릭톤(17)	1940
58	나팔	8	오창진 가사	K. L. Hetsch	1940
59	날이 지나고	5	·	Josep Barnly	?
60	남해	11	임학수 사	Franz Schubert(슈-벨트)	1940
61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2, 5, 7, 21	·	B. James(2・7), James Bland(5), 브랜드(James Bland)(21)	?
62	내 피아노	3	·	W. Otto Miessner	?

63	노래 소리(윤창)	13	오수경 시	Schulze	1940
64	노래하자	7	·	F. J. Haydn	?
65	녹음	11	임학수 역사	R. Schumann	1940
66	농가의 아침 저녁	8	오창진	Silcher	1940
67	눈	19, 21	임학수 사	Cherubini(케루비니)(19), 케루비니(21)	1940
68	늙은 악사	11	임학수 역사	F. Schubert	1940
69	늙은 흑인 죠오	8	오창진	S. Foster	1940
69	블랙죠오	16, 17	김광섭 역시	포스터어	1940
70	니나의 死	12	·	G. Pergolesi	?[458]
71	단풍잎	11	임학수 사	Robert S. Schumann(슈-만)	1940
72	대장간의 마치 소리	20	·	도위칠란트 민요	?
73	도나부강	8	오창진 가사	Ivanvici	1940
74	도라오라 쏘렌토에	9, 12	·	E. de Curtis(9), D. Curtis(12)	?
74	돌아오라 쏠렌토로	8	오창진 가사	De. Curtis	1940
75	동모여 날 데려가	20	·	포스터(S. C. Foster)	?
76	동무	2	·	Teodoro King	?
77	들장미	4, 22	·	Weber(4), 웨버(C. M. Weber)(22)	?
78	들장미	2	·	Werner	?
78	들장미	16, 17, 20	이헌구 작시	베에트넬(H. Werner)(16), 베에르넬(H. Werner)(17), 베르너(Werner)(20)	1940
78	장미꽃	7	·	Werner	?
78	월계꽃	14	윤기성 시	Werner	?[459]
79	등산	16, 17	이헌구 작시	글릿트(Cornelius Guritt)	1940
80	딕시	20	·	미국민요(D. D. Emmett)	?
80	딕시랜드	19, 21	풍만 역사	미국 민요	1940

81	라아르고	8	오창진 가사	Händel	1940
82	로렐라이	1, 6, 9, 10, 12, 16, 17, 22, 23	고순덕 역, 역시, 역사	獨逸民謠(F. Silcher)(1), 독일민요(F. Silcher)(10), F. Silcher(6・9・12), 질헤르(16・17), 도이취란트 민요(F. Silcher)(22・23)	1920 460)
83	마리아 마리	9	・	・	?
84	마지막	21	・	슈우베르트(악보 소실)	?
85	말불그	22	・	프랑스 민요	?
86	먼 싼타루치아	8, 11	현제명	Mario	1940 461)
86	저 먼 산타 루치아	9	김수향(?) 작사(작가?)	Mario	?
87	명절	20	・	멘델손	?
88	모오차르트(모찰트)의 자장가	6/23	・	W. A. Mozart(Mozart)(6), 모오차르트(Mozart)(23)	?
88	자장가	1, 9, 10, 14, 16, 17, 20,	・	모차-르트(W. A. Mozart)(1), W. A. Mozart(9), 모차르트(W. A. Mozart)(10・20), Mozart(14), 모짜아르트(W. A. Mozart)(16・17)	?
88	자장가	4	김신덕 사	모찰트(W. A. Mozart)	1940
89	목동아	9	・	・	?
90	목인의 노래	18	오수경	Greger(Greser)	1940
91	무용가	18	・	독일 민요	?
93	바다	8	오창진 가사	작곡자 미상	1940
94	바다로 가자	5	・	Vergine	1940 462)
94	바다로 가자	9	・	Napolitan Folk Song	?
95	바람	2	・	Mendelssohn	?
96	밤	8	오창진 가사	Fr. Silcher	1940
97	백백합/흰 백합	6, 23	・	J. Brahms(6), 브라암스(J. Brahms)(23)	?
98	백합	8	오창진 가사	Harrison	1940
99	뱃노래	2/7	・	로서아 민요	?
99	볼가의 배ㅅ노래	1, 10, 12, 15,	한갑수 역사	露西亞民謠(1), 노서아 민요(10・20), 로시야 민	1940

		20		요(15)	
100	뱃노래	8	오창진 가사	Offenbach	1940
100	야악	5	·	J. Offenbach	?
101	벗생각	11	임학수 사	독일 가곡	1940
102	보금자리	9	·	Beethoven	?
102	환희의 송가	1, 9, 10, 12	화암 역사, 역	Beethoven(9·12), 베-토-벤(Beethoven)(1), 베토벤(Beethoven)(10)	1940
103	보리수	1, 9, 10, 12, 14	남궁요설	슈-베르트(Schubert)(1), Schubert(9·12·14), 슈베르트(Schubert)(10)	1940 463)
104	봄	19, 21	임학수 사	F. Nagler(F. 나글러)(19), 나글러(F. 나글러)(21)	1940
105	봄 노래	22	·	모오차르트	?
106	봄 새벽	19, 21	풍만 역사	F. 퀴켄(19), 퀵켄(F. 퀴켄)(21)	1940
107	봄날 아침	6, 23	·	Gohnod(6), 구우노오(Gounod)(23)	?
107	아침노래	20	·	구우노(Ch. Gounod)	?
108	봄노래	5	송정율 사	Beethoven	1940 추정
109	봄들로 가자	13	오수경 시	독일 민요	1940
110	봄바람	4	·	볼가 민요	?
110	스텐-카 라진	1, 10, 12, 15, 18, 22	화암 역사, 역시	露西亞民謠(1·12), 노서아 민요(10·18), 루시아 민요(22), 로시야 민요(15)	1940
111	봄 바람	18	오수경 시	독일 민요	1940
111	순풍	8	오창진 가사	German Folk Song	1940
111	학창을 향하야	11	임학수 사	독일 민요	1940
112	봄소식	8	오창진 가사	·	1940
113	봄의 세레나데	3	송정율 사	E. di Capua	1940 추정
113	오 나의 태양/오 소래 미오	1, 6, 10, 12/9	·	伊太利民謠(E. di Capua)(1), E. di Capun(9), 이태리민요(E. di Capua)(10), E. di Capua(12), 伊太利民謠(6)	?
114	브람스(부라암스)의 자장가/자장노래/아기 재우는 노래	19, 21/7/1, 10, 12	홍난파 역사	브람-스(J. Brahms)(1), 브람스(J. Brahms)(10), J. Brahms(7·12), Brahms(19), 부라암스	1910 464)

				(Brahms)(21)	
114	자장가	3	·	브람스(Brahms)	?[465]
115	불어라 봄바람	2, 7	·	C. H. Gabriel	?
116	비가	11, 12	·	J. Massenet(11), J. Mdssenet(12)	1920 [466]
116	비가	8	오창진 가사	Massenet	1940
117	뻐구기	1, 9, 10, 12	화암 역사, 역	체코스로바키아 민요(Slovakian Folk Song)(1), Slovakian 민요(9), 체코스로바키아 민요(Slovakian Folk Song)(10), Slovakian Folk Song(12), 슬로바키아 민요	1940
118	사냥꾼의 합창	1, 10	·	웨-버-(Weber)(1), 웨버(Weber)(10)	?
118	사냥꾼의 합창	5	·	Weber	?[467]
118	사냥군의 노래	2	·	C. M. von Weber	?[468]
119	사랑하는 어머니	4	·	Foster-Dvorak	?
119	스와니강	8	오창진	Foster	1940
119	향수	15, 23	·	포스터어(S. Foster)(15), 포스터어(S. Foster)(23)	?
120	산골	11	임학수 사	B. 위드만(B. Widman)	1940
121	산에 올라	8	오창진 가사	D. G. Turk	1940
122	산울림	19	풍만 역사	Christoph Gluck	1940
123	산(싼)타 루치아	1, 9, 10, 12, 14, 15, 19, 21, 22	·	伊太利民謠(Italian Folk Song)(1), 이태리 민요(Italian Folk Song)(10·19), Italian 민요(9), Italian Folk Song(12), 이태리 민요(Teodoro Cottrau)(15), 이태리 민요(14), 이딸리아 민요(T. Cottrau)(21), 이탈리아 민요(T. Cottrau)(22)	1920 추정 [469]
124	새벽	8	오창진 가사	작곡자 미상	1940
125	샌터클로쓰 할아버지	3	·	미국 민요	1920 추정 [470]
126	샘물	22	·	크로아치아 민요	?
127	세레나-데	9	·	Toselli	?

128	소나무	19, 21	김명진 역시	독일 민요(19), 도이취란트 민요(21)	?
128	소나무	18	·	독일 민요	?
128	전나무	22	·	도이취란트 민요	?
129	소낙비	18	오수경 시	독일 민요	1940
130	소녀의 꿈	3	이관옥 작사	FR. Chopin	1940 추정 471)
132	소야가	12	·	F. Schubert	?
133	솔베이지의 노래	8	오창진 가사	Grieg	1940
134	수마	8	오창진	Brahms	1940
135	순례의 합창	6	·	Wagner	?
136	숲길	11	임학수 사	독일 가곡	1940
137	숲속의 노래	1, 10	국정효 작사	퀴켄(F. Kücken)	1940 추정
138	슈(슈우)베르트의 자장가/자장가	6, 23/1, 4, 7, 9, 10, 12, 15, 22	홍순혁 역사	슈-베르트(Schubert)(1・9), 슈베르트(Schubert)(10), Schubert(4・7・12), F. Schubert(6), 슈우베르트 (Schubert)(15), 슈우베르트 (F. Schubert)(22・23)	1920 472)
138	자장가	18	최독견(작시 인지 작사인지 불명)	Schubert	?473)
139	스키(스키이)의 노래	13	오수경 시	영국 민요	1940
140	시냇물	8	오창진	Russian Folk Song	1940
141	아로하오에	8	오창진 가사	Leliuokalani	1940 474)
141	알로하 오에	22	·	하와이 민요(Leliukalani)	?
142	아름다운 꽃이어	19, 21	풍만 역사	중국 민요	1940
142	홍화	1, 10, 16, 17, 20	이우건 역사	중국 민요	?
143	아름다와	22	·	영국 민요	?
144	아름답고 푸른 도나부	8	오창진 가사	·	1940

145	아베마리아	8	오창진 가사	Charles Gounod	1940
146	아베마리아	8	오창진 가사	F. Schubert	1940
147	아이, 아이, 아이	11	(정인섭)	Osman Perez Freire	?[475]
148	아침 종소리	1, 10	화암 역사	作者未詳(1), 작자미상(10)	1940
149	양춘가절	8	오창진 가사	Hungarian Folk Song	1940
150	어린 음악가	20	·	영국 민요	?
151	어머님의 은혜	8	오창진 가사	Davidson	1940
152	어선	8	오창진 가사	Portuguese Melody	1940
153	언덕위에	20	·	디이톤(L. G. Deaton)	?
154	여름	8	오창진 가사	·	1940
155	여름을 노래한다	16		카나다 민요	?
156	여름의 노래	19, 21	풍만 역사	독일 민요(19), 도이취란트 민요(21)	1940
157	여름의 바다	8	오창진 가사	G. Verdi	1940
158	연꽃	11	임학수 역사	R. Schumann	1940
159	영광	22, 23		하이든(F. J. Haydn)	?
160	영광스러운 학도	14	오수경 시	Weber	1940
162	오 스산나	22, 23	(홍난파 아님. 현행)	미국 민요	?
162	오! 스산나	5, 18	홍난파 시	米國民謠(5), Foster(18)	1930 추정[476]
163	오호 종달새	1, 10	·	멘델스존(Mendelssohn)	1920[477]
164	용서하세요 아버지	11	임학수 사	보헤미아 민요	1940
165	우리나라 노래하세	2, 7	·	시시리 민요	1940 추정[478]
166	우슴	15	·	Cherbini	?
166	웃음(윤창)	18	오수경(작시인지 작사인지 불명)	Cherbini	1940
168	월계꽃	1, 7, 9, 10, 12, 19, 21	윤기성 작가	슈-베르트(Schubert)(1) Schubert(9), 슈베르트(Schubert)(10),	1920[479]

				Schubert(7・12), Franz Schubert(19), 슈우베르트(Schubert)(21)	
169	웬일인지 비들기가	19, 21	풍만 역사	보헤미아 민요	1940
170	은파를 넘어	4	・	G. A. Glover	?
171	응원가	15	김형준 작시	・	?
171	응원가	8	오창진	・	1940
172	이 몸이 새라면	8	오창진 가사	German Folk Song	1940
173	이른봄	8	오창진 가사	Lambillotte	1940
174	이태리로	11	・	F. Mendelssohn	?
175	인디안의 자장가	22	・	아이켄(W. H. Aiken)	?
176	일요일	19, 21	・	F. 멘델스존(19), 멘델스조온(21)	?
177	자장가	22	・	타우베르트(W. Taubert)	?
178	작난감 병정	8	오창진 가사	Hungarian Folk Song	1940
179	잘 있거라 나폴리	20	안기영 역시	나폴리 민요	?
179	잘 있으라 나포(뽀)리	19, 21	풍만 역사	이태리 민요(19), 이딸리아 민요(21)	1940
180	잘 있거라 내 고향	20	・	도위칠란트 민요	?
180	잘 있거라 내 고향	14	・	독일 민요	?
180	잘있거라내고향	12	・	독일 민요	?
181	잘 자거라	8	오창진 가사	・	1940
182	잘 자거라	15	김광섭 역시	영국 민요(English Song)	1940
183	잠을 깨라	15	김광섭 역시	・	1940
184	잠의 신	22	・	브라암스(J. Brahms)	?
185	장속의 새	19, 21	풍만 역사	스페인 민요	1940
186	저녁 노리	3	・	Old Melody	1930 480)
187	저녁놀	2	・	H. G. Nägeli	?
188	저녁달	8	오창진 가사	M. Hauptmann	1940
189	저녁종	4	・	보헤미야 민요	?
190	저녁종	2, 7	・	S. Webbe	?

191	제석의 종	15	백철 작시	웨일쓰 민요	?
192	조국	11	임학수 사	B. Woodbany(운베리)	1940
193	조물주	8	오창진 가사	Beethoven	1940
194	종달새	19, 21	·	Glinka(19), 그린카(Glinka)(21)	?
194	종달새는 오른다	16, 17	이헌구 작시	글린카	1940
195	종소리	9	·	·	?
196	종소리	22	·	미국 민요	?
197	종소리	18	오수경 시	영국 민요	1940
198	준령을 넘어	1, 10	화암 역사	덴짜(L. Denza)	1940
200	쥡시의 소년	11	·	C. G. Reiß iger	?
201	즐거운 가을	16, 17	이헌구 작시	레에베(Wilhelm Levey)	1940
202	즐거운 농부	2, 7, 13	·	Schumann	1940 추정
203	즐거운 봄	19, 21	임학수 사	C. B. 아담스(19), 아담스(C. B. 아담스)(21)	1940
204	즐겁게 부르자	8	오창진 가사	W. A. Mozart	1940
205	지난 날	20	·	영국 민요	?
206	진실	16, 17	이헌구 작시	·	1940
207	찬 비 치는 여사	19, 21	풍만 역사	Schubert(19), 슈우베르트(Schubert)(21)	1940
208	첫 가을	13	오수경 시	독일 민요	1940
209	청년의 노래	13	오수경 시	Kücken	1940
210	체신부	15	김광섭 작시	바이즈(Weise)	1940
211	초밤별	19, 21	임학수 사	Robert Radecke(R. 라데케)(19), 라데케(R. 라데케)(21)	1940
212	추억	11	임학수 역사	P. Cornelius	1940
213	춘하추동	8	오창진 가사	독일 민요	1940
214	출진	18	오수경 시	Silcher	1940
215	친구	2, 7	·	W. A. Mozart	?
216	친구의 이별	4	·	·	1930 481)
217	쿠쿠 왈쓰(월쓰, 월츠, 월스)	1, 10, 12, 13	한갑수 시, 역가	요나쏜(J. E. Jonasson)(1 · 10 · 12), Jonasson(13)	1940

217	뻐꾹 월스	4	김재인 사	Jonasson	1940
218	투혼	8	오창진 가사	G. F. Händel	1940
219	파랑새가 노래한다	19, 21	풍만 역사	불가리아 민요	1940
220	풍년	8	오창진 가사	Broom	1940
221	풍년가	8	오창진	작곡자 미상	1940
222	필렌드의 삼림	9	김수향 작가	필렌드 민요	?
223	하고 싶은 말	8	오창진	Mendelssohn	1940
224	학우	8	오창진 가사	K. F. Zelter	1940
224	학우	13	오수경 시	Zelter	1940
225	한 떨기 국화	20, 21	·	도위칠란트 민요	?
226	한 떨기 장미꽃	1, 6, 10, 12, 23	이은상 역사, 역시	英國民謠(1・12), 영국민요(10), Flotow(6), 스코트랜드 민요(Flotow)(23)	?
227	호숫가의 저녁	16, 17	박제열 작시	Gioacchino Rossini(16), 로씨니이(Gioacchino Rossini)(17)	?
228	흰새	11	임학수 역사	Grieg	1940

452) 박용구는 구술에서 『임시중등음악교본』 편찬 시 박은용이 같은 학교(이화여고)의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재인에게 <Home, Sweet home>의 번역을 맡겼다고 밝힘.(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4), p.239)

453) 홍영후(난파) 『도훼미창가집』(1919) 수록 노랫말과 거의 동일.

454) <고향생각>과 <옛동산>은 동일 곡조로 되어 있으며 공히 오수경의 노랫말로 되어 있는데, 두 노랫말이 매우 유사하기는 하나 부분적 차이를 지님.

455) 홍영후 『세계명작가곡선집』(1926) 수록 노랫말.

456) 홍영후 『통속창가집』(1917) 수록 노랫말.

457) 강범형 『신식유행28청춘창가집』(1929)의 <꾀꼬리> 노랫말과 동일.

458)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2편』(1948)에 정인섭 역으로 되어 있음.

459) 윤기성의 <월계꽃>(슈베르트) 노랫말을 그대로 베르너의 곡에 붙임.

460) 독고선 『가요곡선집 제2집』(1929)의 독고선 역가 노랫말과 동일.

461)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2편』(1948) 수록 노랫말과 동일.

462)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1편』(1948) 수록 노랫말과 동일.

463) 1919년생. 1936년부터 콩쿨 입상 기록(조선일보, 1936.10.23. 기사 '성전(聖戰) 뒤의 이 수확!'으로 미루어 40년대로 추정.

464) 홍영후 『광익창가집』(1922) 수록 악보에 '1918. 8'로 표기되어 있음.

465) 홍난파의 노랫말과 약간 다름.

466) 독고선 『가요곡선집 제1집』(1928)에 수록된 홍난파의 노랫말과 유사한데, 홍난파의 노랫말을 토대로 약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됨. ※교과서 11, 12 수록 <비가> 악보

[부록 12] 『標準』 수록 가창곡

※『改訂標準女子音樂教科書』는 『改標女』로 표기.

『標準實業學校音樂教科書(男子用)』는 『標實男』으로 표기.

※ 수록 교과서의 발행연도(괄호 안)는 뒷 두 자리만 표기. (예: 1939 -> 39)

※ 교과서의 순번(順番)은 숫자만 표기.(예: 第五編 -> 5)

※ '곡' 항목의 내용은 교과서 수록 악보의 표기에 의거함.

곡번호	곡명	교과서	노랫말	곡
1	古池の蛙	『改標女5』(39)	黑澤降朝(구로사와 다카토모)	도이치민요
2	故郷さらば	『改標女1』(39)	桑田つねし(구와타 츠네시)	도이치 민요
3	故郷の空	『標實男1』(42)	・	스코틀란드민요
4	故郷の追憶	『改標女1』(39)	黑澤降朝	T. H. Bayly
5	故郷の追憶	『標實男1』(42)	黑澤降朝	외국곡
6	空の生活者	『標實男1』(42)	佐藤惣之助(사토 소노스케)	高木東六(타카기 토우로쿠)

에는 노랫말 관련 인물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 노랫말이 홍난파의 노랫말과 동일한 것이 확인됨.

467) 『임시중등음악교본』 수록 노랫말과 거의 동일.

468) 『임시중등음악교본』 수록 노랫말과 다름.

469) 홍영후 『세계명작가곡선집』(1926)의 목차에는 있으나 악보 확인 불가. 홍영후 『특선가요곡집』(1936) 수록 노랫말과 동일.

470) 홍난파 『세계명작가곡선집』(1926)의 목차에는 있으나 악보 확인 불가.

471) 이관옥이 1918년생인 것으로 미루어 추정.

472) 홍난파 『세계명작가곡선집』(1926) 수록 노랫말.

473) 1901년생. 동양극장 운영자. 소설 창작・번안・각색

474) 오창진의 『세계명가집』(1948)에는 이 노랫말이 남상훈 역사로 되어 있는데, 오창진 교과서 8『중등음악』(1947)에는 동일 노랫말에 '오창진 가사'로 표기되어 있음.

475) 현제명 『세계명작가곡집 제1편』(1948) 수록 노랫말과 동일. 정인섭 번역임을 확인.

476) 홍영후 『특선가요곡집』(1936)의 수록 노랫말.

477) 독고선 『가요곡선집 제2집』(1929) 수록곡 <종달새>의 노랫말과 거의 동일. 독고선 역가임을 확인. 교과서는 이 가사와 극소 부분만(조사 정도) 상이.

478) 노랫말 내용으로 볼 때 해방 후에 번역된 것으로 파악됨.

479) 이철 『세계걸작가곡』(백장미 제1집)(1927) 수록 <월계화>의 노랫말.

480) 윤성덕 『피아노선율법』(1930) 수록 노랫말.

481) 김명철 『선발창가집』(1930) 수록 <이별>과 노랫말 거의 동일.

7	鳩と梟	『改標女2』(39)	藤村俊(후지무라 슌)	M. Hauptmann
8	駒の蹄	『標實男1』(42)	・	『中學唱歌』より
9	舊都の月	『改標女1』(39)	近藤謙次郎(곤도 겐지로)	Will. S. Hays
10	國な思ふ	『改標女2』(39)	・	編者謹 作曲
11	軍艦	『標實男1』(42)	・	瀨戶口藤吉(세토구치 도키치)
12	旗を揭げて	『標實男1』(42)	・	作曲者 不詳
13	國歌'君が代'	『標實男1』(42)	古歌	林廣守(하야시 히로모리)
14	紀元節	『標實男1』(42)	・	伊澤修二(이자와 슈지)
15	君が代	『改標女1』(39)	・	林廣守
16	ふろさとの夢	『改標女4』(43)	水田詩仙(미즈타 시센)	Dvořák
17	なみ風	『改標女1』(39)	・	・
18	女 なよ竹は	『改標女3』(43)	・	編者謹 作曲
19	蝶蝶ネネ	『標實男1』(42)	・	『小學唱歌集』
20	四つ葉のクロ-バ-	『改標女5』(39)	吉丸一昌(요시마루 카지마사)	R. F. Reutel
21	大宮の	『改標女5』(39)	・	編者謹 作曲
22	大東亞決戰の歌	『標實男1』(42)	(표기 없으나 伊藤豊太로 확인됨)	海軍軍樂隊
23	冬の旅	『改標女1』(39)	黑澤降朝	Cook
24	ロオレライ	『改標女2』(39)	近藤朔風(곤도 사쿠후)	Silcher
25	籬の白菊	『改標女4』(43)	藤村俊	・
26	滿洲國國歌	『改標女3』(43)	・	・
27	滿洲國國歌	『標實男1』(42)	・	滿洲國 文教部 撰定(山田耕筰(야마다 고사쿠) 작곡으로 확인됨)
28	亡友を懷ふ	『改標女4』(43)	桑田つねし	・
29	麥打ちの 歌	『改標女1』(39)	水田詩仙	도이치 민요
30	眠れ英靈	『改標女3』(43)	水田詩仙	・
31	明治節	『標實男1』(42)	・	文部省 撰定
32	モ-ツァルトの子守歌	『改標女1』(39)	水田詩仙	W. A. Mozart (교과서 표기와는 달리 J. F. A. Fleischmann 작곡으로 확인됨)
33	母と子	『改標女5』(39)	水田詩仙	ウィ-ン調〇〇
34	母のおもひ	『改標女2』(39)	・	『小學唱歌集』より

35	暮の鐘	『改標女2』(39)	水田詩仙	보헤미아 민요
36	牧人の歌	『改標女2』(39)	水田詩仙	Karl Greger
37	牧場の曙	『改標女5』(39)	水田詩仙	G. D. Wilson
38	牧場の春	『標實男1』(42)	水田詩仙	黑澤降朝
39	夢	『改標女5』(39)	水田詩仙	Schumann
40	舞扇	『改標女1』(39)	藤村俊	作曲者 不詳
41	みたにの奥	『改標女5』(39)	・	『小學唱歌集』
42	紡ぐ少女	『改標女3』(43)	植村甫(우에무라 하지메)	・
43	白百合	『改標女2』(39)	黑澤降朝	J. Brahms
44	欸乃の調	『改標女4』(43)	桑田つねし	・
45	ボ- トの唄	『改標女2』(39)	桑田つねし	H. Aller
46	菩提樹	『改標女4』(43)	・	Schubert
47	福壽草	『改標女1』(39)	水田詩仙	도이치 곡
48	ヴオルガの舟歌	『改標女1』(39)	桑田つねし	볼가지방 민요
49	富嶽の頌	『改標女4』(43)	桑田つねし	・
50	ブラ一ムスの子守歌	『改標女2』(39)	藤村俊	J. Brahms
51	飛行機	『改標女1』(39)	桑田つねし	도이치 민요
52	飛行機	『標實男1』(42)	桑田つねし	도이치민요
53	郭公ワルツ	『改標女2』(39)	水田詩仙	J. E. Jonasson
54	捨小舟	『改標女3』(43)	・	・
55	山村の春	『改標女1』(39)	桑田つねし	作曲者 不詳
56	サンタ・ルチア	『改標女2』(39)	水田詩仙	나폴리 민요
57	山ぅぐひす	『改標女4』(43)	水田詩仙	・
58	山のうた	『改標女3』(43)	桑田つねし	・
59	山の古寺	『改標女5』(39)	近藤謙次郎	Brahms
60	散りゆく花	『改標女3』(43)	黑澤降朝	作曲者 不詳
61	山村の春	『標實男1』(42)	桑田つねし	作曲者 不詳
62	森のひびき	『改標女4』(43)	水田詩仙	・
63	霜の朝	『改標女1』(39)	桑田つねし	Wilhelm
64	箱根路	『改標女2』(39)	水田詩仙	F. Hiller
65	船路	『改標女3』(43)	水田詩仙	・
66	雪山の歌	『改標女3』(43)	鳥羽俊三(토바 슌죠오)	高木東六(타카기 토우로쿠)
67	雪雀の歌	『改標女5』(39)	黑澤降朝	Mendelssohn

68	雪戰	『改標女1』(39)	平井 幸(히라이 미유키)	도이치 민요
69	雪戰	『標實男1』(42)	・	도이치민요
70	雲雀	『改標女2』(39)	・	作曲者 不詳
71	春の夜	『改標女2』(39)	・	F. Harrison 『小學唱歌集』より
72	聲	『改標女3』(43)	水田詩仙	・
73	城山の秋	『改標女2』(39)	上田壽四郎(우에다 주시로우)	S. Foster
74	城山の秋	『標實男1』(42)	上田壽四郎	Foster
75	夜の曲	『改標女5』(39)	黑澤降朝	F. Schubert
76	そそろあるき	『改標女4』(43)	水田詩仙	・
77	小琴のしらべ	『改標女4』(43)	水田詩仙	・
78	少女の夢	『改標女3』(43)	水田詩仙	・
79	昭和の日本	『改標女4』(43)	水田詩仙	・
80	水に映る影	『改標女2』(39)	水田詩仙	M. Glinka
81	藪のかつこう	『改標女1』(39)	水田詩仙	Ernst Schmid
82	藪のかつこう	『標實男1』(42)	水田詩仙	Schmid
83	須磨の秋	『改標女1』(39)	黑澤降朝	W. A. Mozart
84	樹蔭	『改標女4』(43)	水田詩仙	・
85	樹蔭の泉	『改標女2』(39)	黑澤降朝	도이치 곡
86	水漬く屍	『標實男1』(42)	高崎正風(타카사키 마사카제)	吉本光藤(요시모토미츠조오/코우조우)
87	スキ-の歌	『改標女2』(39)	水田詩仙	黑澤降朝
88	すみれ	『改標女2』(39)	水田詩仙	볼가지방 민요
89	時計の歌	『改標女1』(39)	・	・
90	時計の歌	『標實男1』(42)	・	・
91	天壤無窮	『改標女3』(43)	水田詩仙	・
92	深山路	『改標女2』(39)	黑澤降朝	도이치 곡
93	心靜かに	『改標女3』(43)	水田詩仙	Mozart
94	あけぼの	『改標女1』(39)	桑田つねし	Bortniansky
95	我が家	『標實男1』(42)	『中學唱歌』より	『中學唱歌』より
96	天 あさみどり	『改標女4』(43)	・	編者謹 作曲
97	樂しき農夫	『改標女2』(39)	植村甫	R. Schumann
98	樂しき春	『改標女3』(43)	藤村俊	・
99	ABC	『改標女1』(39)	(영어 알파벳)	Mozart

100	さらばハワイ(アロハ・オエ)	『改標女1』(39)	水田詩仙	Queen Liliuokalani
101	愛國行進曲	『標實男1』(42)	〃	內閣情報部 撰定
102	愛國の歌	『改標女1』(39)	水田詩仙	F. Giardini
103	愛馬進軍歌	『標實男1』(42)	〃	陸軍省 撰定
104	鶯の歌	『改標女1』(39)	前田純孝	J. Hullah
105	鶯のうた	『標實男1』(42)	前田純孝(마에다 준코)	외국곡
106	野寺の鍾	『改標女1』(39)	植村甫	영국 곡
107	野薔薇	『改標女4』(43)	藤村俊	〃
108	若人の歌	『改標女3』(43)	植村甫	〃
109	若草の古戰場	『改標女2』(39)	水田詩仙	스코틀랜드 민요
110	旅の明暮	『改標女4』(43)	藤村俊	〃
111	獵人の合唱	『改標女3』(43)	桑田つねし	〃
112	英國國歌(God Save the King)	『改標女1』(39)	(영어 가사)	H. Carey
113	我が太陽	『改標女4』(43)	水田詩仙	나폴리 민요
114	吾等が精銳	『改標女4』(43)	水田詩仙	〃
115	五月の野邊	『改標女1』(39)	水田詩仙	Helston
116	よもの海	『改標女1』(39)	〃	編者謹
117	勇敢なる水兵	『標實男1』(42)	〃	奧 好義(오쿠 요시이사)
118	羽衣の舞	『改標女5』(39)	水田詩仙	Weber
119	遠寺の鐘	『改標女3』(43)	黑澤降朝	〃
120	遠足	『改標女1』(39)	桑田つねし	도이치 민요
121	遠足	『標實男1』(42)	桑田つねし	도이치민요
122	流浪の民	『改標女5』(39)	石倉小三郎(이시쿠라 코사부로)	Schumann
123	日本帝國	『改標女2』(39)	桑田つねし	C. Blom (노르웨이 국민가)
124	一月一日	『標實男1』(42)	〃	上 眞行(우에 사네미츠)
125	日章旗	『改標女1』(39)	藤村俊	Schwarz
126	日章旗	『標實男1』(42)	藤村俊	도이치민요
127	才女	『改標女2』(39)	『小學唱歌集』	스코틀랜드 민요
128	靖國神社の歌	『標實男1』(42)	〃	陸軍省 海軍省 撰定
129	靜夜	『改標女5』(39)	桑田つねし	Curschmann
130	灯影	『改標女4』(43)	水田詩仙	作曲者 不詳

131	朝霧	『改標女1』(39)	・	Spenger
132	早春	『改標女1』(39)	黑澤降朝	도이치 민요
133	早春賦	『改標女3』(43)	吉丸一昌	中田章(아키라 나카다)
134	舟遊	『改標女1』(39)	藤村俊	J. S. Hamilton
135	懷しの我が家	『標實男1』(42)	・	Bishop
136	懷しの我家	『改標女5』(39)	水田詩仙	S. H. Bishop
137	天長節	『標實男1』(42)	・	奧 好義
138	靑春の歌	『改標女4』(43)	水田詩仙	・
139	秋の山樂	『標實男1』(42)	・	도이치곡
140	追憶	『改標女1』(39)	水田詩仙	아메리카 곡
141	秋草	『改標女5』(39)	・	『小學唱歌集』
142	春の歌	『改標女3』(43)	水田詩仙	・
143	春の山野	『改標女2』(39)	藤村俊	W. b. Bradbury
144	春の曙	『改標女1』(39)	植村甫	S. Wesley
145	春の曙	『標實男1』(42)	植村甫	인도곡
146	春の祝歌	『改標女5』(39)	藤村俊	A. J. Södermann
147	春霞	『改標女1』(39)	植村甫	J. Hatton
148	春曉	『改標女4』(43)	中村秋香(나카무라 아키카)	・
149	出陣の歌	『標實男1』(42)	水田詩仙	Schumann
150	出陳の歌	『改標女2』(39)	水田詩仙	R. Schumann
151	虫に寄せて	『改標女2』(39)	水田詩仙	Wrighton
152	かがやくさつき	『改標女4』(43)	桑田つねし	・
153	くろがねの力行進曲	『標實男1』(42)	・	大日本體育協會 撰定
154	探梅	『改標女5』(39)	渡邊文雄	作曲者 不詳
155	太平洋行進曲	『標實男1』(42)	・	海軍省 撰定
156	ヅョビネツァ	『標實男1』(42)	원어	브랑크(파시스트의 노래)
157	玻璃の淸水	『改標女3』(43)	黑澤降朝	도이치 곡
158	風にならばや	『改標女5』(39)	水田詩仙	Mendelssohn
159	夏を樂しむ	『改標女2』(39)	藤村俊	Rossini
160	愛國の歌	『標實男1』(42)	水田詩仙	이태리곡
161	海國少年	『標實男1』(42)	植村甫	외국곡
162	海國日本	『改標女2』(39)	藤村俊	Fr. Kücken

163	海邊にて	『改標女5』(39)	藤村俊	F. Schubert
164	海邊の眺望	『改標女3』(43)	黑澤降朝	・
165	護れ空を	『改標女1』(39)	上田壽四郎	黑澤降朝
166	護れ空を	『標實男1』(42)	上田壽四郎	黑澤降朝
167	胡蝶	『改標女3』(43)	水田詩仙	・
168	花月	『改標女1』(39)	『小學唱歌集』	・
169	花	『改標女2』(39)	武島羽衣(다케시마 하고로모)	瀧 廉太郎(타키 렌타로오)
170	花鳥	『改標女4』(43)	・	(『小學唱歌集』)
171	地上の歡喜('第9交響曲'より	『改標女3』(43)	水田詩仙	・
172	皇軍凱旋	『改標女3』(43)	植村甫	・
173	荒城の月	『標實男1』(42)	土井晩翠(도이 반스이)	瀧 廉太郎

Abstract

A Study of the Music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 Mainly Comparing with [Hyoujun Onggaku Kyoukashyo]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Lee Yoo Ro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us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on the 15th of August, 1945, the most urgent and fundamental tasks of Korea were to liquidate th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from Korean society and to establish Korean identity as a newly emerging nation,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tasks, the educational organizations of Korea, which were responsible to take the role and to support people to be mobilized for this mission, had groped to establish new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two processes, that is, the liquidation of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identity.

Due to the imminent time-limit that at least from the late

September of 1945, not only in elementary schools but also in secondary schools of Korea, all the classes must be re-opened and due to the obligatory condition that Japanese language, which had been used totally in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should be prohibited to use in schools from the drawing semester.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compile textbooks of every subject of the secondary school, printed in Korean and distributed within at least some days prior to the beginning of new semester, late September. In the very difficult situation the first Korean music textbooks were written and compiled.

Basically, the whole educational officials and professions of Korea had the common tasks to liquidate th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o establish newly a Korean identity in education, and it was natural that the compilation of Korean music textbooks also pursued to carry out these two tasks, liquidation of th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creation of Korean identity in the music education.

This study researches of how to realize these tasks in all the processes of compiling ‘music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Liberation’ , or ‘Liberation textbooks’ in below), especially putting emphasis on the process of conversion in language into Korean.

This study mainly concentrates on songs, the vocal music of the ‘Liberation textbooks’ , from the viewpoints of music dimension as well as from the viewpoints of linguistic dimension, that is, the tunes and the words of the songs. First of all,

therefore, this study divides all the songs, which were gathered in ‘23 Liberation textbooks’, into two, the Korean songs and the songs from foreign origins,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ir genre, composers, related persons to words of the songs, and the years of compositions/performances(in case of the Korean song), translations/writing(in case of the songs from foreign origins) of the words of the songs. In the final stag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the prior researches and studies, the study proceeds to comparative studies with the songs, which were included in 6 textbooks among ‘Hyoujun Onggaku Kyoukashyo’ (‘Hyoujun’ or ‘Hyoujun textbooks’ in below) series.

These comparisons were essential to understand what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were between music textbooks, ‘Hyoujun’ and ‘Liberation’. Many differences were found, but at the same time many similarities also were found, which sometimes seemed to be imitations of the ‘Hyoujun’, following the formation of the ‘Hyoujun’ and copying the narrations all through the textbooks, which brought about serious aspects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Especially, the words of many songs, which were included in both of ‘Hyoujun’ and ‘Liberation’, were ‘double translations’ from directly the Japanese translations in the ‘Hyoujun’, not the translations from the original words, i.e., from English, Deutsche, or Latin.

The Korean tunes : Through the researches of new music textbooks, especially on their endeavors to realize the motto of printing them in complete Korean language, instead of Japanese,

there found some important points. 1) All Japanese tunes were excluded. Instead, many Korean tunes were collected. 2) Korean songs, composed by new blood, were chosen. This seems that the compilers did not want to be seen as pro-Japanese. 3) Many songs, from artistic songs to children's songs, were collected, because they were beloved by Korean people through 1920's and 1930's, for their words expressed Korean emotion and told something considerably Korean identity. 4) Not a few songs, which sang the joy of Liberation and new hope of the people, were gathered in the textbooks. 5) Many Korean songs were those, of which their words were written by Koreans such as Eun Sang Lee, An Seo Kim, Byeong Ki Lee, So Wol Kim, Bok Jin Yoon, (Soo Hyang Kim), etc., who were considerably acquainted with native subject matter and Koreans' emotion.

The Foreign tunes : 1) It is easily discovered that the compilers had warm willingness to introduce newly devised music textbooks with new translations and/or newly written words of songs. This contributed to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music in Korea. 2) Among the foreign songs, with tunes commonly adopted in each textbook, 74% had new translations, directly from original words, or, written newly without any connection to the words of 'Hyoujun' textbooks. 3) In the selection work of the songs for the textbooks, the compilers' concern was on our people's aspiration of musical education for the future.

On the contrary, a few points were discovered that they were not fit to the motto of 'Koreanize'. The Korean tunes : 1) Among the Korean tunes of 'Liberation' textbooks, less than

30% were those, of which both tunes and words of songs were written by Koreans. 2) The traditional Korean songs were only two ‘minyo’ (folk songs). The foreign tunes : 1) 33% of the foreign tunes in the ‘Liberation’ textbooks had common tunes of ‘Hyoujun’ textbooks. 2) Some songs of the ‘Liberation’, among the foreign songs with tunes commonly adopted in each textbook, had direct translations into Korean form ‘Hyouju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original words of the songs.

Summing up, there existed both phases, the one are those which fitted to the motto of ‘Koreanize’, and the other are those which did not fit to the motto. Of course, just after the liberation there had not been enough references to compile a new music textbook, the general situation was not so proper to do this, and the time limit was so imminent. In such a difficult situation the ‘Liberation’ compilers were tempted to purely translate from Japanese words of ‘Hyoujun’ textbooks. Considering the difficult situation, it is understandable all the attempts of the people who worked for the processes of compiling new music textbooks.

Until now, however, there have almost not been any study about the civil participation into the formation of the music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But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remendous contributions of civilians to create the formats of music textbooks, to write, and to compile them.

At the time of upheaval, when everything, material and spiritual, seemed to b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nobody

dared to say what Korean identity was, and very urgently needed to compile and provide textbooks, which should newly printed in Korean, it was almost impossible to create ‘Liberation’ textbooks. Furthermore, they should fit to the mottos, to liquidate th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establish Korean identity.

This study, nevertheless, recognized that compilers and music educators’ contribution was remarkable in their ventures and endeavors, in addition to their faithful efforts to fit to the motto ‘Koreanize’. In the very sense, there need proper evaluations on the contributions of compilers, musicians, and writers in other fields of music textbooks just after the liberation.

While this study investigates ‘Liberation’ textbooks in the perspective of the new trends of education and the ‘Koreanization’ of textbooks at the time, an important point was discovered that unconfirmed criticism by many musicians and music educators, that the ‘Liberation’ textbooks were pure imitation of ‘Hyoujun’ textbooks, must be re-considered, and that the compilation of Liberation textbooks actually presented a platform, on which a concrete departure of modern Korean music education was made.

keywords : the music education in Post-Liberation Period, the music textbooks in Post-Liberation Period, Hyoujun Onggaku Kyoukashyo, the music textbook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tudent Number : 2015 - 30438